

성경 공과

제4권

성취반 (Advance Class 2)



사자굴에서의 다니엘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책

아니타 돌 지음 / 배제형 편역

도서 출판 벽옥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성경 공과

제4권

Advance Class 2



아니타 에스. 돌 지음
배제형 편저

도서 출판 벽옥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성경의 깊은 뜻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 이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2-6명 정도의 성경 그룹 모임이라면 혼자 만의 이해보다는 비슷한 연령, 비슷한 학력, 또는 비슷한 전문 직업이 모이는 관계로 각자의 의견 교환으로 인해 보다 더 빠른 이해의 속도와 흥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영문판인 Anita S. Dole여사의 Bible Study Notes는 기념 출판용인지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6권의 책으로 편집되고 있으나 한국어판은 저자의 취지 그대로 매주 1회 4년을 성경 공부의 한 주기가 되도록 4권으로 재편집하였는데, 다시 각 권에는 6반(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 4권 제5반, adult class만을 가지고 성취반, Advanced Class 2로 명칭을 바꿔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 책을 잠깐 읽었을 때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책을 먼저 읽기 바랍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승천하신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그 날을 오래 전부터 애타게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의 구름에 이미 오셨기에 아무리 자연계의 하늘을 쳐다본들 헛수고 일 뿐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상응으로 씌어진 말씀(the Word)의 글자에 담긴 속뜻을 밝히 알 수 있게 해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속뜻(inner sense)의 파악은 상응(correspondence)의 언어를 이해하여야만 가능해집니다. 말씀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성서 해석과 그에 따른 참 교리가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이마누엘 스웨덴볼의 저서에 담겨 천천히 인류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정독하시고 싶은 성서 독자가에게 도움을 주고저 위 선견자의 저서를 기초로 본권은 편집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성서, 즉 율기, 잠언...바울 서신 등등은 여러분 스스로의 이해의 범주에 있어 선견자의 도움이나 여느 누구에 의한 별도의 강론이 필요 없는바 각자 읽어 숙지하기 바랍니다.

이 책이 선택한 성서는 공동번역인데 그 이유는 읽기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뿐입니다. 그러나 상응에 의거한 해석은 직역된 글자여야 가능하므로 다른 번역 성경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www.baysidechurch.org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취득하기 바랍니다.

제 4권 차례

1. 창조(이렛 날)-----창세기 2장 1-7절-----	9
2. 카인과 아벨-----창세기 4장 1-5절-----	14
3. 바벨탑 이야기 -----창세기 11장 1-9절-----	19
4. 아브라함과 천사들-----창세기 18장-----	24
5. 이삭과 아비말렉-----창세기 26장 1-33절-----	31
6. 야곱의 귀향-----창세기 35장-----	38
7. 요셉의 아들들---창세기 48장, 50장 22-26절----	45
8. 과월절-----출애굽기 12장-----	52
9.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출애굽기 17장----	61
10. 금 송아지-----출애굽기 32장 1-24절-----	67
11. 아론의 가지-----민수기 17장 16-28절-----	74
12. 길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여호수아 5장-----	80
13. 거룩한 땅의 분할---여호수아 18장 1-10절-----	86
14. 판관 삼손-----판관기 14장-----	92
15. 왕을 요구하는 백성-----사무엘상 8장-----	99
16. 아각 왕을 살려둔 사울---사무엘상 15장-----	105
17. 다윗과 예언자 나단---사무엘하 12장 1-25절---	112
18. 솔로몬의 최후----열왕기상 11장 1-13, 26-43절--	119
19. 엘리사와 나아만----열왕기하 5장-----	126
20. 시드키야와 예레미야-열하24장,25:1-12;예야 21장-	133
21. 말씀에 관한 시편---시편 119편-----	140
22. 벨사살 왕의 잔치-----다니엘 5장-----	157
23. 사자굴에서의 다니엘----다니엘 6장-----	164
24. 성전 재건에 관한 예언-----즈가리아 4장-----	170
25. 요나와 아주까리(박넝쿨)---요나 3,4장-----	175
26.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요한복음 1장-----	181

27. 가나에서의 기적-----요한복음 2장 1-11절----	189
28. 주님과 니고데모-----요한복음 3장 1-21절----	196
29. 야곱의 우물가에서의 주님---요한복음 4장 1-42절-	203
30. 베짜타 못-----요한복음 5장 1-16절-----	210
31.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요한복음 9장-----	217
32. 선한 목자-----요한복음 10장-----	225
33. 다시 살아난 라자로----요한복음 11장 1-46절----	232
34. 종려주일(4)-----요한복음 12장 12-50절---	240
35. 포도나무의 비유--요한복음 15장-----	247
36. 부활절(4)-----요한복음 20장-----	254
37. 여자와 용-----요한 계시록 12장-----	261
38. 두 짐승이 정복되다--요한 계시록 13장, 19장 11-21절--	267
39. 요한의 환상의 끝---요한 계시록 22장 8-21절-----	273
40. 새 교회의 날-----요한 계시록 21장 1-12절-----	279

1

창조 - 이렛날

머리말

성경에 기록된 자연계의 창조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하고,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첫 구절을 강조하면서 육일간의 창조를 재조명한 후 이렛날을 살펴보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장 1-7절

2장: 1. 이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2. 하느님께서는 엿새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3.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4.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는 위와 같았다. 야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였다. 5. 땅에는 아직 아무 나무도 없었고, 풀도 돋아나지 않았다. 야훼 하느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던 것이다. 6. 마침 땅에서 물이 솟아 온 땅을 적시자 7. 야훼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교리 요약

- * 우리가 주님께 관하여 인식해두어야 할 첫째 사항은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이심이다.
- * 말씀은 인간의 발달에 관한 것으로 시작된다.
- * 거듭남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어떤 질서에 의거한다.
- * 하느님을 아는 능력은 마음의 보다 높은 평면에 해당되며, 그 능력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되게 해준다.
- * 휴식이라는 안식의 상태는 주님의 진리를 배워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서만 달성된다.

해설

우리는 매 해 성경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마다 창조이야기를 거듭하여 읽게 되며, 그 때마다 그 이야기의 범위와 중요성에 한층 더 깊은 인상을 갖게 된다. 창조이야기의 근본 가르침은 만물이 주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과 우주에 신성한 질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단순한 고등동물이 아니라 천국적인 가능성을 지닌 창조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모든 창조물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우리가 인간으로서 소망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천국적인 평화와 행복중의 하나이어야 하는 것이다. 창조 이야기에는 좋고 유용한 것만 나타난다. 우리는 이를 31절의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며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모두 좋은 것뿐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창조의 이야기들을 영적인 의미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다시 읽게 될 때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한층 더 깊은 교훈을 주게 된다. 인간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의 이야기 속에 주님의 질서대로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창조의 이야기는 개인 혹은 인류로서의 우리의 형상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 즉 가장 높은 경지로의 도달 가능성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이야기에 따르면 안식일의 신성한 제정이 창세기 2장 2-3절에 있다고 한다. 즉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스웨덴볼에 따르면 안식일은 사실 태고 교회에서부터 있어 온 주님의 질서였다고 한다. 인간을 만드신 주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다. 우리의 신체는 반복되는 일과로부터 7일에 하루쯤은 쉬어야 하며 변화 또한 필요로 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은 쉼과 변화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7일 중 하루라도 우리의 생각을 세상적인 관심사로부터 위로 들어 올려 내적으로 강해짐을 예배와 성서 그리고 교육과 명상 등을 통해 갱신해 가야 한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안식일의 신성한 제정에 관한 이와 같은 간단한 서술에는 어떤 꺾끄러운 느낌이나 금지에 관한 어떤 암시도 없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 자신을 발달시키고 있다면, 우리는 안식일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안식일은 ‘기쁜 날’”이라고 암시하는 바대로 안식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에서

안식일을 깨트림과 모독함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문들을 주는 까닭은 인간이 그들에게 주어진 바른 길에서 이탈함으로써 엄숙한 안식일의 준수가 사라지게 되어 인간이 세상의 것과 이기심에 잠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접촉을 잃게 되어 결국에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한때 청교도인들이 안식일을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진 날로 만드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는데, 우리는 이와 비슷한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바리사이파인들이 주님의 율법에 자신들의 해석을 덮어 씌워 놓아 그것을 무겁게 만드는 것에서 엿볼 수 있다. 복음서에서는 바리사이파인들이 주님에게 안식일의 규정을 깨트리고 있다고 역지를 쓰는 모습과 이로 인해 그분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당신임을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참석하심으로써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며 제자들과 걸으시는 것을 보이심으로써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으로 안식일에 대한 참된 법을 요약하여 주신다.

이제 본문이 가진 속뜻을 살펴보기로 하자. 「천국의 신비」 제 83과 84항에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인간이 옛날이 되었을 때인데, 그때서야 믿음이 사랑과 [인간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믿음과 사랑이 이룰 때 그는 영적인 원리에서 그치지 않고 천적인 원리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하여 천적인 사람이 되어 간다. 이러한 천적인 사람이 ‘이렛날’인데, 주님이 옛날 동안 일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일’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전투가 중단될 때 주님께서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쉰’것으로 말해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태고 교회의 발달이 본문의 속뜻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는데, 이 교회가 바로 천적인 교회이다. 이 교회는 주님을 사랑함이 심정을 통치하면서 내적인 지각을 통해 진리가 주어질 수 있었던 교회이다. 따라서 그들은 외적인 경로를 통하기보다 내적인 경로를 따라 진리를 받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범하기 쉬운 실수는 이러한 첫 교회속의 첫 사람들 또한 창조 이야기에서 있는 각 날로 표현된 영적인 발달의 단계들을 모두 거쳐서 영적인 사람이 된 후 다시 천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거듭남 역시 이와 같아서 창조의 이야기에 묘사된 바대로 진행된다. 그리고 우리가 신실하다면 천적인 경지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그 가능성의 진정한 실현은 우리가 이세상의 삶을 끝내기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육신을 지닌

상태에서는 참된 영적인 경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은 스웨덴borg의 저서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천적인 상태를 맞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신속의 어떤 특별한 악인 못된 버릇을 인식해서 주님의 도움으로 싸워가다 보면 그 악이 더 이상 자신을 충동질하지 않는 지점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악의 경우에 국한해서 볼 때 쉼의 상태인 안식일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가 인식하고 싸워야 할 우리 안의 악은 끝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서 새로운 진리를 배우려고 꾸준히 노력할 때만이 우리속의 악을 더욱 잘 인식할 수 있고 싸워나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양심이 영적인 발달을 위한 완전한 안내자가 결코 되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삶 속에서 스스로의 양심을 계속적으로 교육시키며, 그것을 올바르게 잡아가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발달시켜 가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진보도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쉼의 상태인 안식일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안식일에 있게 되는 쉼이란 ‘할 일이 없다’ 혹은 ‘게으르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시험에서의 투쟁을 원한다는 의미이다.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라고 말해지는바, 우리는 행복이 자아를 잊는데서만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관해 배우고 그분과 더불어 이웃을 섬기려 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이타적인 사랑의 유입이 가능해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와 교훈 그리고 이타적인 섬김을 위해 안식일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쉼이라는 천적인 상태를 달성하는 것에 우리를 도와주는 최상의 보조자가 될 것이다. 안식일을 “선을 행하는 날”로 사용하여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만들자.

질문 정리

- 1) 우리는 어떤 책을 공부하는가?
- 2)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 3) 성경의 첫 권은 무엇인가?
- 4) 창세기란 무슨 뜻인가?
- 5)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는가?
- 6) 창조 첫날에 무엇이 세상에 주어졌는가?
- 7) 몇 일만에 창조가 완료되었는가?

- 8) 본문 속의 “날, day”은 24시간이라는 하루와 같은가?
- 9) 주님의 마지막 창조는 무엇인가?
- 10) 사람은 동물과 어떻게 다른가?
- 11) 인간에게 무엇을 정복하라고 했는가?
- 12) 창조가 끝나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그분은 이렛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 14) 그분은 이렛날을 다른 날과 어떻게 구별되게 하셨는가?
- 15) “복 있다”란 어떤 뜻인가?
- 16) 주님이 지상에 계셨을 동안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는가?
- 17) 그분 스스로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는가?
- 18) 천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19) 영적으로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질문의 답

- 1) 성전 2) 하느님 3) 창세기 4) 시작 5) 한 처음에... 6) 빛 7) 6일
- 8) 아니다 9) 사람 10) 하느님의 모습 11) 모든 땅 12) 참 좋았다 13) 쉬셨다
- 14)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15) 행복하게 만들 16)선
- 17) 예배드리며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며 친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심
- 18) 1. 사랑으로부터 의를 행함 2. 진리에 의거 의를 행함
- 19) 시험과의 투쟁에서 쉽

2

카인과 아벨

머리말

에덴의 동산을 재고하면서 공부를 시작한다.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이유와 그로 인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는 것 등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4장 1-15절

4장: 1. 아담이 아내 하와와 한 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외쳤다. “야훼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2. 하와는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카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3. 때가 되어 카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야훼께 예물로 드렸고 4.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만배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런데 야훼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고 5. 카인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지시지 않으셨다. 카인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6.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7.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에 굴레를 씌워야 한다.” 8. 카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가자”고 꾀어 들에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9. 야훼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아떼며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10. 그러나 야훼께서는 “네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고 하시면서 꾸짖으셨다.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11. 땅이

입을 벌려 네 아우의 피를 네 손에서 받았다. 너는 저주를 받은 몸이니 이 땅에서 물러나야 한다. 12. 네가 아무리 애써 땅을 갈아도 이 땅은 더 이상 소출을 내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13. 그러자 카인이 아벨에게 하소연하였다. "별이 너무 무거워서, 저로서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14.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아주 쫓아 내시니, 저는 이제 하느님을 뵙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15. "그렇게 못하도록 하여 주마. 카인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일곱 갑절로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벨께서는 누가 카인을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찍어 주셨다.

교리요점

- * 주님은 미래를 알고 계시며 미래를 위해 준비해두신다.
- * 태초의 사람들은 자연속의 만물에 대한 상응을 알고 있었다.
- * 마음속에 사랑이 있지 않으면 주님을 예배함에 선함이 없게 된다.
- *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순종할 때 우리 안의 모든 사랑이 주님에게서 오게 된다.

상응 연구

카인 = 믿음(faith)
 아벨 = 선행(charity)
 땅 = 마음(mind)
 양 = 순진한 애착들

해설

창조과정 중 이렛날은 태고교회 사람들의 천적인 상태를 묘사한다. 이 상태란 그들이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내적인 지각에 의해서 그분의 진리를 받을 수 있었다. 태고교회의 이러한 아름다운 상태는 에덴의 동산으로 한 걸음 더 진전되어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태고교회의 사람들은 이 상태에 머무는데 만족하지 않았다. 이러한 그들의 불만족이 그들 안에서 발달된 자의식이었고, 이것이 이브의 창조로 상징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자의식을 사용하면서 오게 되는 시험, 즉 주님의 진리에 대한 내적인 명령을 신뢰하는 대신 자기들의 육체적 감각을 통해 갖게 된 증거를 근거로 진리를 추론하려는 시험을 접하게 된다. 이것이 뱀에 의해 상징되고 있다. 그들은 결국 동산에서 추방되었다. 인간에게 자의식이 발달되고 ‘나’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면서 인간은 삶의 초기인 유아기에 있었던 순진하고 신뢰하는 마음상태를 상실하고 경험으로부터 배워야만 하는 고된 삶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우리는 말씀의 내적 의미가 설명하는 교회의 역사적 측면에서 태고교회이후 있게 되는 교회들의 특성들 가운데 이러한 영적 퇴보를 엿볼 수 있다. 카인과 아벨의 탄생 그리고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는 태고교회의 퇴보에 대한 기초가 되는 이야기인 것이다. 스웨덴북은 이에 관하여 “태고교회의 퇴보 또는 그 교회 교리의 왜곡됨 그리고 그 왜곡으로 인해 카인과 그의 후손들 밑에서 다른 이교도나 종파가 등장했다. 태고교회의 교리가 [카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왜곡된 과정과 태고교회의 이교도나 종파에 관한 것을 이해하려면 진정한 교회의 본성을 먼저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그 교회에 대한 고찰이 가능하다. 앞서 태고교회에 관하여 그 교인들이 천적이었고 그들의 믿음이 오로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밖에 없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이 사랑을 통해 주님께로부터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에 속하는 제반사항을 [내적인] 지각을 통해서 알았다. 이들의 경우가 오늘날의 우리들과 현저히 다른 점은 오늘날은 믿음이 선행에 앞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행은 여전히 믿음을 통해 주님께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서 선행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고대교회 시대의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그 믿음을 사랑에서 떼어냈을 때 그 교회의 교리가 왜곡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교리를 왜곡 시킨 이들이나 믿음을 사랑에서 분리시킨 이들 또는 믿음만을 고백하는 이들을 일컬어 ‘카인’이라고 부른 것이다.”라고 말한다.

카인이라는 이름은 “소유함 또한 뭔가에 사로잡힘”이란 뜻이다. 카인은 믿음을 표현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해성 속의 믿음이 자아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믿음으로서 선행이 떨어져 나가버린 믿음을 말한다. 아벨은 선행을 표현하는데, 이는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함을 말한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다. 양은 순진한 애착을 상징한다. 카인은 밭을 가는 농부였다. 밭이란 자연적인 상태의 마음을 상징한다. 「천국의 신비」 제 345항에서는 “육체적이고 지상적인 것들을 찾는 이들이 ‘밭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설명된다. 카인과 아벨은 주님께 제물을 드렸다. 제물이란

곧 예배를 상징한다. 스웨덴북은 카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하여 “‘땅에서 난 곡식’은 선행이 결핍되어서 그 자체가 죽은 것 같은 믿음이다. 그 이유는 그 믿음이란 단지 외적인간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의 신비 #348). 양떼 가운데서 만배의 기름기를 바친 아벨의 예물은 사랑과 그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을 표현한다. 기름기란 ‘천적인 것 자체’를 표현한다.”라고 설명한다.

주님께서 카인의 제물을 흠족해 하지 않으셨던 것은 성경의 이야기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주님은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셔서 그분이 보시기에 카인의 마음은 “잘한다”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러한 카인의 마음 상태는 그가 아우를 죽였을 때 명백히 드러난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태고교회 이후의 상태가 함축되어 있어서 스웨덴북은 “믿음과 선행이 동시에 믿음의 교리로부터 있는 동안에 사랑이 분리된 믿음은 선행을 무시한 결과 선행을 소멸 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는 오늘날 믿음만으로 구원된다고 하면서 선행의 어떤 일도 구원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선행을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카인의 본심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라고 말한 그의 대답에 역력하게 표현되고 있다.

주님은 카인의 그러한 태도를 보시고도 카인이 파괴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벨을 쳐 죽임은 마음속의 순진한 사랑의 파멸을 의미한다. 사실 주님은 이 순진한 사랑을 이용하셔서 태초이래로 인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제 그 섭리가 끝이 났다는 말이다. 여기서 주님께서 예견하신 바는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에게 닿을 수 있고 구원되도록 하는 새로운 수단이 발달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런 수단을 설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상에서 계속되는 교회 가운데 천적인 형태는 오로지 태고교회 뿐이었다. 「천국의 신비」 제 393항에서는 태고교회에 대해서 “태고교회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것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특성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반기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통해서만 믿음에 속한 것들을 지각했기 때문이다.”라고 기술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대로 태고교회의 인간들은 위와 같은 완전한 상태 속에 계속 머물지 못하고 믿음에서 주님사랑을 분리시켜 믿음 자체를 교리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믿음만이 인간들에게 남은 이상 그 속에서의 구원, 즉 믿음을 통하는 구원 혹은 믿음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인간은 주님으로부터 선행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에게 먼저 있게 되는 것은 지식을 듣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선행, 즉 이웃사랑과 자비가 주님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지게 된다. 선행은 믿음에서 결코 분리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근본이 되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음과 함께 선행을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태고교회 사람들이 가졌던 내적지각 대신 양심이 그 뒤를 계승했다. 양심은 선행과

접합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된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진정한 것과 진정하지 않는 것 모두를 받는 특성이 있다. 게다가 주님이 말씀 속에서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특성도 있다. 하지만 설령 선행이 없는 믿음일지라도 믿음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 이유는 인간이 자기의 이해성 속에서 하느님을 인식하는 한 믿음 속에 뭔가가 그 사람의 심정을 두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7-19절에 있는 방탕한 아들의 비유에서 보듯이 “제정신이 드는”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가 카인이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신 이유 중의 일부이다.

질문 정리

- 1) 누가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
- 2) 이 창조는 며칠(단계)에 있어졌는가?
- 3) 마지막 창조는 무엇인가?
- 4) 이렛날에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 5) 이렛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6)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는 무슨 뜻인가?
- 7) 이렛날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일요일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가르치는가?
- 8) 성경의 어떤 이야기가 지상의 첫 교회 사람들의 상태를 그리는가?
- 9)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금한 것은 무엇인가?
- 10) 그들을 불순종하게 유혹한 것은 무엇인가?
- 11) 불순종의 벌은 무엇인가?
- 12) 본문의 이야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가진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13) 카인의 직업은 무엇인가?
- 14) 아벨의 직업은 무엇인가?
- 15) 그들은 주님께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 16) 누구의 예물을 반기셨는가?
- 17) 카인의 예물은 왜 거절되었는가?
- 18) 카인의 진짜 인격을 드러낸 행동은 무엇인가?

- 19) 그의 별은 무엇인가?
- 20) 주님은 카인이 파괴됨으로부터 어떻게 해주셨는가?
- 21) 카인과 아벨은 각기 무엇을 표현하는가?
- 22) 카인이 아벨을 쳐 죽임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하느님 2) 6 3) 사람 4) 쉬셨다 5)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라
- 6) 행복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다 7)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함, 예배드리는 날
- 8) 에덴 9)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10) 뱀 11) 동산에서 추방
- 12) 카인, 아벨 13) 농부 14) 목자 15) 곡식, 새끼 양 16) 아벨의 예물
- 17) 불성실 때문에 18) 아벨을 죽였다 19) 방황자 20) 표를 찍어 주셨다
- 21) 믿음, 선행 22) 올바른 것을 행함 없이 단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함

3

바벨탑 이야기

머리말

노아와 홍수에 관한 간략한 내용을 서론으로 삼는다. 홍수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여 있게 된 인과응보였다는 것과 창조한 인류의 보존을 위한 주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노아의 구원임을 설명한다. 그리고 인간의 자만과 우둔함으로 인해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 본문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설명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11장 1-9절

11장: 1. 온 세상이 한 가지 말을 쓰고 있었다. 물론 낱말도 같았다. 2. 사람들은 동쪽에서 올라오다가 시날 지방 한 들판에 이르러 거기 자리를 잡고는 3. 의논하였다. “어서 벽돌을 빚어 불에 단단히 구워내자.” 이리하여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4. 또 사람들은 의논하였다.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테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5. 야훼께서 땅에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도시와 탑을 보시고 6. 생각하셨다.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 이것은 사람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에 지나지 않겠지. 앞으로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7. 당장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겠다.” 8. 야훼께서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도시를 세우던 일을 그만 두었다. 9. 야훼께서 온 세상의 말을 거기에서 뒤섞어 놓아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고 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다.

교리 요점

- * 성경에서 동쪽이란 주님에게 가까움을 상징한다.
- * 성경의 첫 7장까지는 고대 말씀에서 취해진 순수한 상징적 이야기이다.
- * 말씀에서 온 진리 대신에 자기 사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건설된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혼동이 있게 된다.
- *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을 놓고 싶은 욕망이 멸망의 원인이다.

상응 연구

도시 = 교리

탑 = 자아 숭배

돌 = 진리

벽돌 = 인위적인 진리

역청 = 이기심

해설

태고교회의 퇴보는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창세기 제 5장의 족보에서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7절에서는 제 5장까지 망라된 자아 사랑의 마지막 상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태고교회 사람들의 파멸은 허락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내적인 지각을 수단으로 하여 그들에게 진리가 전달되었는데, 그들의 의지가 이기적으로 되자 그들이 진리를 거짓화해 버렸기 때문이다. 방주로 구원되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무지개로 그려진 새 언약의 성경적인 의미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무지개의 언약에 기초된 고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의지와 이해성이 분리되었다. 이 후부터 인간들은 배움을 통해 신성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본문에서는 “사람들은 동쪽에서 올라오는” 여행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들이 주님에게서 떨어져 갔다는 의미이다. 결국 그들은 시날 지방 한 들만에 이르러 그곳에서 성을 쌓고 바벨이라 불리는 탑을 쌓기 시작했다. 바벨이 처음 언급되는 곳은 창세기 10장 10절이다. 이는 함의 손자요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이 세운 도시들 중의 하나이다. 고대교회의 세 가치를 표현하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은 내적인 것이 없는 외적 예배 또는 선행이 없는 믿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함의 아들 구스는 “말씀의 내면 지식을 가지고 거짓 원리를 확증하는 사람(선행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를 상징하게 된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내용이 없는 외적인 것에만 치우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외적예배를 상징한다. 니므롯은 “힘센 사냥꾼”이었다. 스웨덴북은 그가 이런 사냥꾼으로 불린 까닭을 인류의 대부분이 내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외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쾌락과 탐욕 혹은 자신과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한마디로 감각에 속한 것들에 안주하려 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천국의 신비 제 1178항).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종교에 쉽게 사로잡히는 것이다.

바빌론 왕에 관하여 이사야 14장 13-14절에서는 “네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나의 보좌를 저 높은 하느님의 별들 위에 두고 신들의 회의장이 있는 저 북극 산에 자리 잡으리라. 나는 저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 가장 높으신 분처럼 되리라.’” 라고 전한다. 단어 바빌론은 바벨에 대한 그리스어로 혼동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원인 “Babel”과 연결된다. 영적 혼동은 자아를 추켜올리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성경에서 바빌론왕의 자기 자랑과

퇴보된 고대교회 사람들의 자기 자량은 모두 비슷한 용어로 기술된다. 그러나 고대 말씀인 아주 오래된 이야기는 이에 대해서 탐을 쫓는 그림, 즉 “어서 벽돌을 빚어 불에 단단히 구워 내자. 이리하여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쓰게 되는”것으로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돌이란 진리의 상징물로서, 특별히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상징한다. 주님 역시 자신을 “모퉁이 돌”이라고 부르신 적이 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많은 곳에서 “바위”라고 명명하신다. 벽돌은 인간이 돌 대신에 사용 하고자 흙을 가지고 만든 것이다. 따라서 벽돌은 인간이 주님의 진리 대신에 자신의 마음에서 취해서 만든 원리들을 의미한다. 벽돌을 더욱 단단해지게 하는 불이란 자아 사랑이라는 불이다. 그래서 그들은 벽돌을 서로 붙여있게 하는데 이웃사랑이라는 흙 대신에 자기 이익이라는 역청을 사용한 것이다.

고대교회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여 물질계의 것들로부터 영적인 것을 끌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자아로 돌아서게 되자 그들은 이러한 지식들과 예배를 자신들의 명성과 권력을 획득하는데 사용하고 말았다. 만일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태고교회 사람들처럼 그렇게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들은 태고교회들이 악의 거인이 되었는데 거짓이라는 괴물이 되었을 것이다. 본문 6절의 “앞으로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라는 표현에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로부터 물질적인 것 속에 든 영적 의미를 알게 하는 이해성을 거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현상들 혹은 물상들 속에 존재하는 거룩한 것을 뒤집거나 모독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 놓으셨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주님께 의지함으로부터 비롯되는 내적 조화가 자만심을 통해 파괴되었고 무지개의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색깔인 생각과 예배의 모든 다양함이 그들에게 불일치와 분열의 근원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고대교회의 사람들은 나뉘지고 흩어졌는데, 그 이후로는 예배의 영적 의미를 이해하는 대신에 전통으로 이어받은 예배의 형식에 따라 종족이 형성되어 갔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형성 초기에 발견되는 우상숭배의 근원이다. 자연숭배와 조상숭배 그리고 우상숭배 등은 종교의 초기 모습처럼 전해진 것들로서, 이들은 은 시대, 즉 고대교회 사람들이 가진 아름다운 상응적인 예배가 퇴보되면서 남아있는 잔여물이다. 그리고 신화는 초기 사람들의 진정한 상응적인 이야기들이 왜곡되어 전해진 잔존물이다. 상형문자는 상응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많은 국가들의 신화나 설화에서 발견되는 홍수 사건은 모세가 우리를 위해 고대 말씀에서 베껴 쓴 최초의 이야기가 그렇게 전해진 것이다.

바벨탑의 건축에 관한 명백한 고증에 대한 노력은 종교 발달을 “자연적인 역사 개념”으로 보는데서

엿볼 수 있다. 그 개념이란 종교가 영적 원인이나 신성한 계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것들에 관한 지식들에서 인간이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다. 고대교회에 관련된 지식과 더불어 바벨탑의 이야기 속에 담긴 영적 의미는 새교회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종교의 자연발생설에 감염되는 것으로부터 예방되는 효과를 줄 것으로 본다. 또한 성경마저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전제할 때 제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양심적인 탐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론은 무신론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경이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인간이 하느님을 연구하기 위해 만든 책이나 하는 두 가지 접근방법은 실로 중요한 차이가 있다. 후자의 연구방법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라면, 전자는 교회를 세우는 모습인 것이다.

질문 정리

- 1) 카인과 아벨은 누구의 아들인가?
- 2) 그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 3) 그들은 주님에게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 4) 왜 카인의 예물은 거절되었는가?
- 5) 어떻게 주님은 카인을 보존하셨는가?
- 6) 본문에서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옮겨갔는가?
- 7) 그들은 어디에서 멈췄는가?
- 8) 그들은 무엇을 짓기로 했는가?
- 9) 탑을 쌓는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 10) 그들은 무엇을 건축 재료로 사용했는가?
- 11) 주님은 그 건축을 어떻게 멈추도록 하셨는가?
- 12) 사람들이 건축을 못하자 어떻게 되었는가?
- 13) 본문은 어떤 교회의 종말을 묘사하는가?
- 14) 이 탑은 무엇으로 불리는가?
- 15) 성경에서 그리스어의 어떤 말이 히브리어의 바벨과 같은 어원을 갖는가?
- 16) 바벨탑을 쌓는 것은 무엇을 그리는가?
- 17) 진리를 받는 측면에서 태고교회와 고대교회 사이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아담과 이브의 아들들 2) 농부, 목자 3) 곡식, 새끼 양 4) 불성실, 위선적이었다 5) 인(mark) 6) 동쪽으로부터 7) 시날(바벨론) 8) 탑 9) 하늘까지 닿기 위해
10) 벽돌과 역청 11) 언어를 뒤섞으셨다 12) 흩어졌다 13) 고대교회 14) 바벨
15) 바벨론 16) 이기심을 가지고 삶을 건설함 17) 지각, 양심

4

아브라함과 천사들

머리말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중간 부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있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간략히 살펴보면서 본과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한다. 주님의 방향에 맞추려는 아브라함의 바램과 바벨탑 이야기에서의 사람들의 바램을 비교해 본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18장

18장: 1. 아훼께서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대낮에 천막 문 어귀에 앉아 있다가 2. 고개를 들어 웬 사람 셋이 자기를 향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천막 문에서 뛰어 나가 맞으며 땅에 엎드려 3. 청을 드렸다. “손님네들, 팬찮으시다면 소인 곁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5. 물을 길어 올 터이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쉬십시오. 5. 떡도 가져 올 터이니 잡수시고 피곤을 푸신 뒤에 길을 떠나십시오. 모처럼 소인한테 오셨는데, 어찌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그렇게 하여 주시겠소?”

6.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 가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 세 말을 내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이르고 7. 소떼가 있는 곳으로 달려 가 살이 연하고 맛있어 보이는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가 종에게 맡겨 빨리 잡아서 요리하게 하고는 8. 그 송아지 요리에다가 엉긴 젖과 우유를 곁들여서 손님들 앞에 차려 놓고, 손님들이 나무 밑에서 먹는 동안 그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부인 사라는 어디 계시오?” 하고 묻자, 아브라함은 사라가 천막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10.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새싹이 돌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 때 네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천막 문 어귀에서 이 말을 엿듣고 있었다. 11.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늙은이였고 사라는 달거리가 끓진 지도 오래였다. 12.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도 다 늙었는데, 이제 무슨 낙을 다시 보랴!”하고 중얼거렸다. 13. 그러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다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기를 낳으랴고 웃으니, 될 말이나? 14. 이 야훼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내년 봄 새싹이 돌아날 무렵에 내가 다시 찾아오리라. 그 때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15. 그러자 사라는 겁이 나서 웃지 않았다고 잡아뵈었으나, 야훼께서는 “아니다. 너는 분명히 웃었다” 하시며 꾸짖으셨다. 16. 사람들은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느라고 같이 왔다. 17. 야훼께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 “내가 장차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민족이 되고 세상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 복을 빌 것이 아닌가? 19. 나는 그로 하여금 그의 자손과 그의 뒤를 이을 가문에게 옳고 바른 일을 지시하여 이 야훼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려고 그를 뽑아 세우지 않았던가? 그러니,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어야 하리라.” 20. 이렇게 생각하시고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아우성을 나는 차마 들을 수가 없다. 너무나 엄청난 죄를 짓고들 있다. 21. 내려가서 그 하는 짓들이 모두 나에게 들려오는 저 아우성과 정말 같은 것인지 알아보아야 하겠다.” 22. 그 사람들은 걸음을 옮겨 소돔 쪽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야훼 앞에 서 있었다. 23. 아브라함이 다가 서서 물었다. “당신께서는 죄 없는 사람을 죄인과 함께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24. 저 도시 안에 죄없는 사람 오십 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곳을 쓸어버리시렵니까? 죄 없는 사람 오십 명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25. 죄 없는 사람을 어찌 죄인과 똑같이 보시고 함께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라면 공정하셔야 할 줄 압니다.”

26.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 죄 없는 사람이 오십 명만 있으면 그 죄 없는 사람을 보아서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27.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다. “티끌이나 재만도 못한 주제에 감히 아됩니다. 28. 죄 없는 사람 오십 명에서 다섯이 모자란다면 그 다섯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저 곳에 죄 없는 사람이 사십 오 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29. 아브라함이 “사십 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쭙자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사십 명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30. 아브라함이 또 여쭙었다.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십 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삼십 명만 되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시자 31. 그가 또 다시 여쭙었다. “죄송하오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이십 명밖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이십 명만 되어도 그들을 보아서 멸하지 않겠다.”하고 대답하셨다.

32. 아브라함이 다시 “주여, 노여워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열 사람밖에 안 되어도 되겠습니까?”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그 열 사람을 보아서라도 멸하지 않겠다.”

33. 야훼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자리를 뜨셨다.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교리 요약

- * 주님께서는 강림하시기 전에 그분의 실재하심을 천사에게 채우심으로써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다.
- * 말씀에서의 역사적인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된다.
- * 믿음은 진실로 마음속에 있다. 이해성은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 *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선행에 필수적이다.

상응 연구

아브라함 = 아주 어린 시절의 상태
 갈대아 땅 = 태어날 때의 자연적인 상태
 가나안 땅 = 천국 또는 천국적인 인격
 소돔 = 자아에서 온 악
 고모라 = 자아에서 온 거짓

50 = 가득 찬 것 (선으로 가득 찬 진리)

10 = 아껴두신 것

해설

우리에게 친숙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 번 상기해 두어야 할 사항은 모든 역사가 서서히 일어난 변화의 기록이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듯 보이는 사건이나 납득이 잘 안 되는 사건의 경우 역시도 그 사건의 원인은 오래 전부터 싹이 터서 진행되어 온 결과라는 것이다. 고대교회가 아주 서서히 황폐해지면서 그 끝에 이르렀듯이 유대교회의 시작 또한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있어진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꼽으며, 유대교의 시작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부터 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스웨덴북의 저서를 유심히 읽다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은 고대교회의 마지막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스웨덴북은 세 단계의 고대 교회에 관하여 설명한다. 첫 교회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의해 상징되고, 둘째는 에벨로 시작된다. 이 에벨은 말씀에서 언급되는 첫 실존 인물로서 그로부터 히브리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로서 기술되고 있다. 아브라함 역시 우상 숭배자였지만, 진정한 교회의 필수요건인 자아보다 하느님을 더 섬기려는 바램이 그에게 있었다.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러한 바램은 존속되었다. 그 후에 생겨난 유대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닌 단지 교회라는 것을 표현한 것에 불과했는데, 이 교회는 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사이에서 설립되었다. 스웨덴북은 창세기 32장과 33장 그리고 34장의 주석에서 이에 관한 설명을 더하고 있다.

스웨덴북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들을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든 천적의미를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의미란 주님의 유아시절로부터 성인시절까지의 각 상태에 대한 설명, 즉 그분의 인간적 평면이 점진적으로 열리어 그 인간성 속에 내재하신 신성과 하나를 이루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저서를 읽을 때 상기해야 할 사항은 인간이 거듭나는 과정은 주님께서 신성화하신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의 유아시절에 있는 영적 상태, 즉 천적인 순진과 신뢰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무지의 상태도 그린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부름이란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 어긋나는 대신 착해져야 함에 대한 첫 번째 인식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듣게 되는 “아브람의 부름”과 같다. 우리가 이 부름에 순종하면, 우리는 여행을 시작하여 긴 여정을 거치지만 결국 거룩한 땅에 도착하게 된다. 아브라함은 생존을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자신의 영적 삶의 유지에 필요한 말씀의 지식을 위해 이집트라는 기억적인 지식으로 내려가 그 지식으로부터의 부를 쌓아야 한다. 그래서 그가 “금과 은 그리고 가축 떼가 많은 부자”가 되어 귀향하듯이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되는 과정 역시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이는 우리의 자연적 부분이 외적 만족만을 추구함을 눈치 채게 될 때 우리속의 영적 부분이 자연적 부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감을 의미한다. 우리 인생의 초기 투쟁의 대부분은 가장 외적인 평면에서 있어지는데, 이는 롯이 사악한 성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곤란에 휩쓸렸을 때 아브라함이 구출해 주는 이야기에 해당된다.

본문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한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본문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을까 하고 의아해 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속자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의문이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이삭은 우리의 보다 높은 합리적 능력을 그리고 이스마엘은 자연적 합리성, 즉 보다 낮은 합리적 능력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아 상태를 벗어나 발달할 때 출생하는 첫 능력인 “현상(외관)에 근거한 추론”이 바로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바다. 아이들이 부모와 언쟁을 막 시작하는 시기가 아파 이에 해당될 것이다. 한가닥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며 순종해야 함을 심정으로 알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사라로 그려지는 것, 즉 완전한 지혜 속에서 있게 되는 순진한 기쁨은 의아심이라는 것들로부터 이 시기에 공격당한다. 이것이 본문 11절에서 사라가 웃는 것의 의미이다.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약속이란 의를 행하겠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한없이 많이 맺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한 의심은 아이들에게 “부모님께서 항상 착한 일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부모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본문 제 1절을 살펴보자.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라는 표현이 있다. 상수리나무란 기억속의 지식에서 오는 지각을 뜻하고, 아브라함이 천막 문어귀에 앉아 있음이란 예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1절은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관계를 갖게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스웨덴북은 강림 전 주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분의 실재하심을 천사에게 채우는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말한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천사 또는 주님의 특사로서 영접했다. 「천국의 신비」 제 2149항에서는 “세 사람이란 신성 그 자체, 신성한 인간 혹은 신성한 작용을 의미한다.”라고

밝혀져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와 같은 삼위가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바이며 이 삼위는 하나이다.”라고 설명한다. 그 다음 스웨덴북은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과 천사들의 대화를 분석하여 “이는 천사들이 하나로서 말을 걸고, 한 명이 대답하듯이 하여 이 하나가 주님이심을 명백히 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제 19장에도 있다. 롯에게 온 두 사람들이 소돔에 있는 동안에는 복수인 “그들”로 언급되지만, 롯이 성을 나간 뒤에는 단수인 “그 사람”으로서 언급된다.

천사들의 방문은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확인해 주고, 태어날 시기까지 일러주는 것이었다. 스웨덴북은 의심을 폭로한 사라의 웃음에 관하여 “사라는 합리성에 대한 애착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합리성 안에 있는 애착이 웃음 같은 것에 의해 겉으로 나타나는 한 그 안에는 세상적이거나 육적인 어떤 것, 즉 인간적인 것이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한다. 주님 역시 그분의 지상 생활 초기에는 합리성 속에 든 이러한 인간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계셨지만 차차 다 추방되어졌다. 그래서 사라의 웃음은 천적인 의미에서 위와 같은 의미를 내포한다.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아브라함의 질문과 주님의 대답을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착해지라고 모두들 말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라고 한번쯤 갖게 되는 의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리고 그 줄거리는 구원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관한 연구도 된다. “소돔성에 죄 없는 사람 오십 명만 있으면, 그 죄 없는 사람을 보아서라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50이란 “가득 찬 것”을 의미하는데, 본문에서는 “선이 가득 담긴 진리”를 뜻한다. 이 숫자는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배워 그것에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을 끝까지 지속해 온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항상 절감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언제나 50보다는 적은 숫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즉, “죄 없는 사람 오십 명에서 다섯이 모자라다면 그 다섯 때문에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란 말이다. 5란 “적은 것”을 의미한다. 40과 30은 모두 시험을 의미하지만, 30은 40보다 시험을 덜 거친 상태를 의미한다. 진정한 시험은 거듭나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영적 시험이란 우리로 하여금 외적인 시련이 아니라 의를 행하려는 바램을 자포자기하도록 하여 전투를 포기하게 하거나 보다 쉬운 아래쪽을 선택하도록 유혹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적 투쟁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이란 “무지속의 선”, 즉 “시험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선한 이들”을 표현한다. 스웨덴북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0-20살 사이에 있는 청소년들 이라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이들이 여전히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질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이들은 결국에는 구원된다.

질문 정리

- 1) 아브라함의 첫 고향은 어디인가?
- 2)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3) 그의 마지막 정착지는 어디인가?
- 4) 어느 날 누가 그에게 왔는가?
- 5) 그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 6) 사실 그들은 누구인가?
- 7)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일러주었는가?
- 8) 왜 사라는 웃었는가?
- 9)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그들은 어디로 향했는가?
- 10) 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했는가?
- 11) 아브라함이 주님께 물은 첫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 12)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3) 아브라함은 몇 개의 질문을 물었는가?
- 14) 주님은 그 때마다 어떻게 답하셨는가?
- 15) 아브라함이 언급한 가장 작은 숫자는 몇 명인가?
- 16) 아브라함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도록 함은 무엇을 그리는가?
- 18) 아들의 출생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우르 2)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3) 헤브론(마므레) 4) 세 명
- 5) 귀중한 손님 대접 6) 천사들 7)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8) 자기가 늙었는데 어떻게

- 애를...의심했다 9) 소돔 10) 성을 멸하려고 11) 선한 이를 나쁜 자들과 함께 죽이지 않습니까?
 12) 만약 그 성에 죄 없는 사람이 오십 명이 있다면... 13) -5, 40, 30, 20, 10 (다섯 질문)
 14)...하다면 멸하지 않겠다 15) 10 16) 단순한 신뢰와 순종의 상태
 17) 이기적인 인생관을 떠나 천국적인 인격을 발달시키라
 18) 새로운 지적 능력 또는 진리의 새로운 발달

5

이삭과 아비멜렉

머리말

이삭의 출생과 리브가와의 결혼 그리고 이삭의 삶을 먼저 살펴면서 공부를 진행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6장 1-33절

26장: 1. 그 지방에는 아브라함 당시에 흉년이 든 일이 있었지만 그런 흉년이 또 들었다. 그래서 이삭은 불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가려는데 2. 야훼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땅에 자리 잡고 3. 그 땅에 몸 붙여 살아라. 나는 너를 보살피 주며 너에게 복을 내려 주리라. 네 아비 아브라함과 맺은 내 맹세를 지켜 너에게 복을 내려 주리라. 네 아비 아브라함과 맺은 내 맹세를 지켜 이 모든 지방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4. 그리고 네 자손을 하늘에 있는 별만큼 불어나게 하여 그들에게 이 모든 지방을 주리라.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네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따라 내가 지키라고 일러 준 나의 계명과 규정과 훈계를 성심껏 지킨 덕이다.”
 6. 이리하여 이삭은 그랄에서 살게 되었는데, 7. 그 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 이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이삭은 그가 자기의 누이라고 대답하였다.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곳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자기 아내라고 하기를 꺼렸던 것이다.

8. 이삭이 그 곳에 자리 잡은 지 얼마 뒤의 일이다. 불레셋 왕 아비멜렉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9. 이삭을 불러 들여 나무랐다. “그 여자는 분명히 네 아내다. 그런데 왜 네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삭이 아내 때문에 죽게 될 것 같아서 그랬노라고 대답하자 10. 아비멜렉은 “어쩌다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하마터면 내 백성 가운데 누가 네 아내를 범할 뻔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쓸 뻔하지 않았느냐?” 하고 나무라고 나서 11. 온 국민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을 받을 것이다.”

12. 이삭은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그 해에 수확을 백 배나 올렸다. 야훼께서는 이렇듯 복을 내리셔서 13. 그는 부자가 되었다. 점점 재산이 불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14. 그는 양떼와 소떼와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어 불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사게 되었다. 15. 불레셋 사람들은 전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 생전에 땀던 우물을 모조리 흙으로 메워 버렸다. 16. 한편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너는 우리보다도 훨씬 강해졌으니 여기에서 물러 나가라”고 하였다. 17. 이삭은 그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천막을 쳐 자리 잡고 18. 아버지 아브라함이 땀던 우물들을 다시 땀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불레셋 사람들이 메워 버렸던 우물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19. 이삭의 종들은 그 골짜기에 우물을 파다가 물이 팔팔 솟는 샘 줄기를 찾았다, 20. 그런데 그랄에 사는 목자들이 그 물을 저희 것이라고 하면서 이삭의 목자들에게 싸움을 걸어 왔다. 우물을 두고 싸움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삭은 그 우물을 에섹이라고 불렀다. 21. 또 다른 우물을 땀더니, 그들은 그 우물도 탐이 나서 또 싸움을 걸어 왔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트나라 하였다.

22. 그는 자리를 옮겨 우물을 또 하나 땀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 우물을 두고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부르며 “마침내 야훼께서 우리 앞을 활짝 열어 주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고 소리쳤다. 23. 그는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올라 갔는데, 24. 그 날 밤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의 심복 아브라함을 보아

너에게 복을 내려 네 자손이 불어나게 하리라.“

25.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아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고 그 곳에 천막을 쳤다.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26. 어느 날 아비멜렉이 친구 아후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사악을 찾아 왔다. 27. 이사악이 그들에게 “내가 미워서 쫓아 낼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찾아 오셨습니까?”하고 물으니 28. 그들이 대답하였다. “야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그대와 우리 사이에 조약을 체결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그대와 계약을 맺고 싶다. 29. 우리는 그대에게 손 하나 대지 않고 잘 대접해 주었으며 떠날 때에도 편안히 보내 주었다. 그러니 그대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그대야말로 정녕 야훼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30. 이사악은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셨다. 31.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서로 서약하여 조약을 맺고 환송을 받으며 흐뭇한 마음으로 떠나갔다. 32. 바로 그 날 이사악의 종들이 저희가 파던 우물에서 샘 줄기가 터졌다고 와서 알렸다. 33. 이사악은 그 우물을 세바라 불렀다. 그래서 그 도시를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라고 부르고 있다.

교리 요점

- *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어린이로서의 우리를 발달시키시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 * 그 방법은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다.
- * 말씀 속에는 결코 우연히 이뤄졌거나 불필요한 것이 없다.
- *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의 교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 진정한 합리성은 말씀속의 진리를 배워 순종하고 싶은 바람에 기초한다.

상응 연구

이집트 = 기억속의 지식

블레셋 영토 = 교리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

해설

어린이들을 양육해 본 부모들 또는 유아 시절에서부터 십대 초반까지의 성장과정을 유심히 관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본문에 있는 교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의 요지가 되는 단어는 아마 우물일 것이다. 성경 전체를 망라하여 우물이란 말씀에 대한 상징물이다. 진리를 위해 말씀을 읽는 것은 우물을 파는 모습과 같다. 그리고 우물이 없는 들판을 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씀이 없는 우리의 삶은 황무지에 불과하다.

과거 아브라함은 블레셋 영토에서 우물을 팠었다.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에 말씀 속의 이야기들을 배우고 그것들로부터 교훈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유아기를 지나 성장하게 될 때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에 관한 것과 세상에 속한 표준을 배워가면서 가시적인 것을 기초로 하여 추론하는 이스마엘이 우리 안에서 태어나게 된다. 우리속의 블레셋은 이스마엘이 성장함에 따라 진리의 우물들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며, 심지어 인간적인 사상인 흙으로 이 우물들을 아예 메워 버린다. 블레셋 족들은 해안을 따라서 거룩한 땅 내에 거주해왔다. 이들의 영토는 성서 속에서 교리에 관한 지식을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란 “지식들로 비롯된 기억적 지식”을 상징한다. 따라서 영적인 진리들 역시 이러한 지식 속에 담겨 있으나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자기 속에 블레셋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기꺼이 사용하는 진리보다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가 옳아서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것을 행하는 데에 걸리는 것이 많아 자신의 처지가 불편해져서 진리를 행하는 것을 피하는 쪽으로 진리를 추론하여 유도한다면,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흙으로 메워버리는 15절의 말씀과 대동소이하게 되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2883항에서 주님의 생애를 통해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통하는 진보에 관한 진실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거듭남의 모습이기도 하다. 아브라함은 앞서 수차례 설명한 바대로 주님의 내적 인간을 표현한다. 반면에 이삭은 그분의 합리적인 인간을 그리고 야곱은 그분의 외적인 인간을 표현한다. 주님의 내적인 인간은 여호와 자체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합리적 인간은 그분의 내적 인간이 외적 인간 안에 있는 기억적인 지식을 추구함으로써 그 속에 유입되어 잉태되어진 바 그 인간을 통해 신성이 인성과 결합된 것이다. 이로부터 이스마엘로 표현되는 첫 합리성은 인간적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주님께 의해 신성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신성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이삭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의 첫 추론능력이 비록 주님께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라 할지라도, 이는 우선적으로 자연적인 지식들을 기초로 하여 응용되게 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자연적인 지식, 즉 가시적인 것 혹은 현상들이 종종 우리를

현혹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을 통해 비가시적인 영적 원인이나 원리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위한 진정한 기초임을 배워 감으로써 첫 추론능력이 두 번째 추론능력에 의해 수정된다. 현명한 부모가 자녀들이 다루기 힘든 연령, 즉 사고를 잘 일으키며 잘못되기 쉬운 연령을 거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이 그에 대한 간단한 예다. 현명한 부모들은 이렇게 위험한 연령을 거치는 것이 그들의 자녀가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단계라고 인식하며 그들의 자녀가 그 시기에 이르면 매우 조심하기도 한다. 이 연령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바대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불리는 사춘기를 의미한다. 부모들은 이러한 과도기를 지나 자녀에게 성숙한 판단력의 첫 징조가 보이면 그런대로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된다.

아브라함 이전에 사라가 먼저 죽게 되는데(23:2), 그 후의 아브라함 주변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아내로서 어린 시절의 단순함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을 상징한다. 어린이들이 자신이 생각한 것으로 행동하고자 할 때면 이 순수한 마음을 벗어나 성장하기 시작하지만, 어린 시절에 들어 있던 선의지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저항하면서 미약하나마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되 처음의 형태가 아닌 또 다른 형태와 결합하게 된다. 이러한 결합이 바로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이 크투라와 재혼하는 모습으로 상징된다(25:1-6). 현대 정신의학은 개인의 어린 시절에 가졌던 경험을 정밀히 분석하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현재의 정신적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으로 21장 2절에 있는 아브라함과 크투라의 여섯 아들 그리고 이들의 후손들도 살펴볼 수 있다. 이 후손들은 구약성서 전체를 망라하여 등장하는데, 통상 이삭의 후손과 적대 관계로 등장함을 보면 위 문단의 내용을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25장 5절의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었다”라는 대목이다. 우리는 이 구절이 우리의 모든 영적 발전은 여하한 애매모호함 없이 말씀 속에 기초를 둔 진정한 합리적인 판단력에만 의존됨을 단적으로 보여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두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아비멜렉이란 “합리적인 것을 찾는 믿음속의 교리”를 상징한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은 설사 교리에 관심이 많다고 할지라도 교리에 관한 스스로의 추론으로 남들과 다투지 않는다. 흥년이 들자 주님은 이삭을 이집트로 내려 보내지 않으시고 블레셋 영토 그랄에서 살도록 하셨다. 이것은 블레셋 영토가 교리에 관한 지식을 그리고 이집트가 자연적인 지식을 상징함을 의미하는데, 진정한 합리성은 교리에 관한 지식에 의존해서만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삭 역시 이미 아브라함이 두 번씩 사용했던 책략을

반복하도록 인도되었다(창세기 12:11-20, 20:2-7). 여기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삭의 누이로 표현되고 있다. 누이로서의 리브가와 아내로서의 리브가의 차이점은 영적인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갖는 차이점을 뜻한다. 즉, 누이로서의 리브가는 단지 지적인 실력 발휘를 위해서 진리를 사모하나 아내로서의 리브가는 자신의 삶을 통제해나가기 위해서 진리를 사모함을 뜻한다. 스웨덴 북은 “삶의 길을 전향하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선행에 관련시켜 권면하게 되면, 이러한 진리들은 처음에는 거절되게 되고 그들에게 권면된 영적인 진리는 단지 그들의 지적인 흥미 수준에만 그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진리들에 대해서 일단 지적인 측면에서라도 인정하게 되면, 그 후에는 차츰 그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진리를 사랑하게 되어 점진적으로 진리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지적한다.

브엘세바(Beersheba)란 “맹세의 우물”이란 뜻을 가진 지역인데, 이후 이삭의 고향이 된 곳이다. 이는 거룩한 땅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우선 우리는 네 방위 중에서 남쪽과 북쪽 방위는 성서에서 영적계발의 정도를 측량하여 말할 때 사용됨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북쪽은 무지의 정도를 그리고 남쪽은 영적 계발의 정도를 뜻한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정착하여 우물을 팠고 제단을 쌓은 후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은 일련의 모습은 외적뿐만 아니라 내적으로의 선한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초인 영적 계발의 진정한 모형을 우리에게 주는 것임을 인식한 후 성서 본문을 다시 읽어보라.

질문 정리

- 1)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은 누구인가?
- 2) 이사악의 아내는 누구인가?
- 3) 이 아내는 어느 지역 출신인가?
- 4) 이사악과 리브가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 5) 주님은 이삭이 흉년을 맞아 어디로 가는 것을 막으셨는가?
- 6) 그 대신 이삭은 어디로 갔는가?
- 7) 불레셋의 왕은 뭐라고 부르는가?
- 8) 그는 이삭을 환영했는가?
- 9) 누가 과거 불레셋 영토에서 우물을 팠는가?

- 10) 불레셋사람들은 이 우물을 어떻게 했는가?
- 11) 불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파 놓은 우물의 몇 개를 못 쓰도록 방해했는가?
- 12) 이삭은 그들과 다투었는가?
- 13) 아비멜렉은 결국 이삭과 어떤 합의를 보았는가?
- 14) 합의가 이루어진 장소를 뭐라고 불렀는가?
- 15) 브엘세바란 무슨 뜻인가?
- 16) 이삭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우물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불레셋사람은 무엇을 그리는가?
- 19) 불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파 놓은 우물을 메워 버린 모습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이삭 2) 리브가 3) 하란 4) 에사오와 야곱 5) 이집트
- 6) 그랄 지방 7) 아비멜렉 8) 환영했다 그러나 후에 그를 두려워했다
- 9) 아브라함 10) 우물을 흙으로 메워 버렸다 11) 두개 12) 다투지 않았다
- 13) 평화의 맹세 14) 브엘세바 15) 맹세의 우물 16) 영적인 추론력
- 17) 말씀 18) 진리를 알고자 하나 그에 따라 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
- 19) 주님의 안내를 받는 것보다 자신의 의견을 선호하는 것

6

야곱의 귀향

머리말

야곱의 출생이 언급되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장까지의 이야기를 기억하면 본문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25장부터 34장까지 시간을 내어 읽은 후 본문의 공부를 시작하기 바란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35장

35장: 1.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이러고 있지 말고 베델에 올라 가 거기에 자리를 잡아라. 네가 형 에사오를 피해 갈 때 너에게 나타났던 이 하느님에게 제단을 쌓아 바쳐라.” 2. 야곱은 곧 그의 온 가족과 그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있는 남의 나라 신들을 내버려라. 깨끗이 몸을 씻고 옷을 갈아 입어라. 3. 이제 우리는 여기를 떠나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나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호소를 들어 주시고 내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보살피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자 한다.” 4.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남의 나라 신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모두 묻었다. 5. 그리고 그들은 그 길로 떠났다. 그러자 신비한 두려움이 주위에 있는 도시들을 휘어잡아서 아무도 야곱의 자손들을 추격하지 못했다. 6. 야곱은 자기에게 딸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루즈에 이르렀다. 6. 이 루즈가 곧 베델이다. 7.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하였다. 야곱이 형을 피해 갈 때 하느님께서 그 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이다. 8. 베델 아래쪽 상수리나무 밑에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묻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곳을 알론바곳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9. 야곱이 바편아람에서 돌아오는데 하느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20. 말씀하셨

다. “네 이름이 야곱이었지. 그러나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리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되었다. 11. 하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다. 너는 많이 낳아 번성하거라. 너에게서 한 민족이, 아니 여러 민족이 모인 집단이 나리라. 네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태어나리라. 12. 아브라함과 이사악에게 주었던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또한 너의 뒤를 이을 후손에게 준다.” 13.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14.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그 곳에다 석상을 세웠다. 그는 그 돌기둥 위에 술을 붓고 또 기름을 부었다. 15.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그 곳을 베델이라 이름하였다. 16. 그들이 베델을 떠나 가는 도중, 에브랏까지는 아직 얼마 더 가야 하는 데서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다. 난산이었다. 17. 아이를 낳지 못해 고생하는데 산파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입니다”하고 위로하는 것이었다. 18. 마침내 라헬은 죽게 되어 숨을 거두면서 아기 이름을 벤오니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기 아버지는 베냐민이라 불렀다. 19. 라헬은 에브랏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다. 20. 야곱은 라헬의 무덤 위에 비석을 세웠다. 그것이 이날까지 라헬의 묘비로 알려져 있다. 21.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떠나 므달에텔 건너편에 이르러 천막을 쳤다. 22.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고 있을 때였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소실 빌하를 범하였는데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귀에도 들어갔다. 야곱에게는 아들 열둘이 있었다. 23.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맏아들 르우벤, 그 아래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싸갈, 즈불룬이었다. 24.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25.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빌하에게서 얻은 아들이요, 26. 가드와 아셀은 레아의 몸종 질바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이들은 야곱이 바탄아람에 있을 때에 얻은 아들들이다. 27. 야곱은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 키랏아르바라고도 불리는 마므레에 이르렀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사악이 몸붙여 살던 헤브론이다. 28. 이사악은 백 팔십 세나 살았다. 29. 이사악이 이렇게 명이 다하여 숨을 거두고 죽어 세상을 떠나 선조들 곁으로 가자, 아들 예사오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교리 요약

- * 주님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주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의 이기심까지도 사용하신다.
- * 말씀속의 어떤 것도 우연히 이뤄지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 * 모든 것은 먼저 지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는 생각이나 행동의 첫 원인이다.

상응 연구

에사오 = 자연적인 선한 의도
야곱 = 진리를 자연적으로 이해함
타국의 우상들 = 세상적인 포부들
리브가 = 교리적인 진리를 사랑하는 것
리브가의 유모 = 유전적인 악
금 귀걸이 = 우리가 순종했던 이기적인 자극들

해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관련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야곱과 에사오가 삶의 자연적인 곧 일상적인 평면을 상징하며, 그중에서도 야곱이 진리적 측면을 뜻하고 에사오가 선의 측면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증거로서 행위적인 선행을 강조한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이러한 행위적인 선행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수긍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행이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지성 속에 그분의 본성과 뜻을 헤아리는 것을 싹틔워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선행이라는 것이 종교의 내면에 있는 특질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늘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주님의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행한 선은 단지 과장상의 문제일 뿐 주님과 이웃사랑 혹은 자신의 결점을 인식함과 주님의 자비를 대신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야곱과 에사오는 처음에는 서로 경쟁관계였고, 나중에는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기도 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자연적인(인간적인)선과 자연적인(인간적인) 이해성의 불협화음을 뜻한다.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선을 이루는 선의지는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 즉 자신의 선행을 남들이 인정하도록 하는 것에 열심일 뿐 그러한 선행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는 진정한 가르침에 관해서는

성급하기만 하다. 그리고 우리의 자연적인(인간적인) 이해성 곧 세상적인 차원에서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해성은 뭔가를 조금 이해했다고 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여기며 스스로를 추켜올리려 들 뿐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법에는 너무나 엉성하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27장 11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즉, 예사오는 털이 많고 야곱은 매끈매끈 했다는 것이다. 털이란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외적인 삶을 표현한다는 것을 참고로 예사오와 야곱이 상징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란지역에서의 야곱의 장기체류는 그에게 고향에 대한 진정한 값어치를 가르쳐 주고, 형과의 화해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게 하는데 필요했던 것이다. 이는 흔히 젊은이들이 자신만만하게 부모의 곁을 떠나 세상에서의 본인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자체에 어떤 다른 값고 중요한 것을 체득하기 위한 과정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들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부딪치며 살아가다 보면, 그들은 물질적인 성공 외에 더 나은 것이 삶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그들이 과거 어린 시절에 받았던 가르침 속에 들어 있는 영적인 원리들과 어린 시절에 품었던 선한 심정 상태를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하며 그 시절로의 귀향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데에 긴 세월이 소요됨을 의미하고 있다.

스웨덴북은 야곱의 이야기에 천적인 의미를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그의 이야기는 자연적인 수준에서 영화되어 가시는 주님의 진보에 대한 묘사이다.”라고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스웨덴북은 그분의 영화하심의 질서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거듭남을 조심스럽게 지적한다. 창세기 32장 28절을 찾아보도록 하자. 이 구절에서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천사와의 씨름 후에 있었다고 전하는데, 본문 10절에서도 이러한 개명에 대한 언급이 있다. 왜 주님은 성경을 쓰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개명함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언급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 부분의 이야기가 천적인 의미로는 주님의 신성화 하시는 질서의 단계 중 어느 한 단계의 완성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주님의 자연적인 면의 외적인 부분을 그리고 이스라엘은 내적인 부분을 표현한다. 이런 연유로 성경 상에서 이 두 이름이 자주 언급되며 어떤 때는 한 구절 안에서 두 이름이 동시에 등장하기도 한다. 이는 야곱이 당시의 교회가 단지 교회라는 껍데기만을 표현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고대 히브리인의 예식들이 표징해 준 진정한 교회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상의 이름들이 반복되는 것이 실수로 인해서라든가 혹은 한 구절에서 같은 인물에 대한 다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기록상의 실수가 아닌가하고 추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에 있는 모든 글자, 특별히 성경상의 이름들은 어떤 명확한 목적 없이 교제

되거나 사용되는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하란에서 야곱에게 태어난 아들들이란 우리가 세상 삶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발달된 우리속의 자질들을 그려준다. 그 중에서도 하란에서 태어난 마지막 아들 요셉은 순수한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하란으로 상징되는 단계에서 있게 되는 마지막 자질을 의미한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귀향하고자 결심한 때는 요셉의 출생 후였다. 그러나 순수한 진리에 걸 맞는 선을 상징하는 베냐민이라는 아들은 야곱이 예사오와 재회하고 가나안 땅에 귀향해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후에 탄생하게 된다.

본문에서는 성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유명한 장소들인 세겜, 베델, 베들레헴 그리고 헤브론 지역이 등장하는데, 이 이름들을 반드시 기억해두기 바란다. 야곱은 그의 식솔들이 내놓은 남의 나라 신들과 귀결이를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 남의 나라 신들과 귀결이란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거짓들, 곧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진 거짓들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다함은 우리속의 각종 거짓들을 영원히 멀리함을 뜻한다. 이 사건은 세겜에서 이뤄졌다. 세겜은 과거 아브라함이 거룩한 땅에 들어온 후 머문 첫 장소로서, 우리가 거듭나는 중에 “처음으로 받게 되는 빛인 내면적인 진리”를 표현한다. 이것은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 전에 그분의 지혜와 사랑에 불일치되는 우리속의 나쁜 습관과 거짓사상을 반드시 떨쳐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다음 야곱은 베델로 전진한다. 야곱의 귀향길은 과거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거룩한 땅에 왔을 때의 길과 같다. 처음 세겜에, 그 다음 베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브론에 정착한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다. 이 모습은 순진과 신뢰가 거룩한 마음 상태 안으로 조금씩 전진해 가는 과정에 대한 묘사이다. 아브라함의 여행은 주님의 어린 시절과도 흡사하다. 반면에 야곱의 여행은 보다 세상적이고 자연적인 순종의 여행이나 아브라함보다 더 완숙된 과정을 표현해 준다. 아브라함은 무지와 우상숭배로부터 빠져 나와 있어진 여행에 불과하다. 하지만 야곱의 귀향은 세상속에서 오랫동안 배회한 후, 즉 세상적인 삶에 빠져 주님 앞에 죄인이 된 자신을 인식하고 거기서 빠져 나와 거룩한 곳으로 귀향한다는 점에서 아브라함의 여행과는 매우 다르다. 이를 적절히 표현하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하늘나라에 들어 올 수 없다.”이다. 이를 곰곰히 생각해 보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님은 야곱이 베델 즉 “하느님의 집”으로 되돌아 왔을 때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과거 아브라함과 이사악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새로이 하셨다.

베델에서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이란 새로운 것이 발달될 때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을 중지함을 말한다. 드보라란 어머니로부터 온 유전적인 악을 상징한다. 이 악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행동들의 안에 놓여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위한 것에 더 열심을 내게 된다. 유전적인 악은 비록 어린이들이 부모에 의해 통제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가 있다할지라도 아이들이 하는 때사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로부터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악들은 실제적인 악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것이 유아들이 순진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유아기의 순진은 그 안에 유전적인 악은 지니고 있지만, 실제적인 '나'의 삶이 없어서 실제적인 악이 없게 된다. 반면에 지혜로운 순진은 실제적인 삶을 통해 악을 극복해가면서 형성된 순진이어서 그 속에 실제적인 악이 있을 수는 있지만 유전적인 악은 없게 된다. 우리의 자연적(인간적) 상태는 그 속에 함유된 거짓과 악들을 순수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상태에 진입하게 된다. 베델 - 하느님의 집 - 은 자연적 상태가 새로운 상태로 진보함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진리가 거쳐하는 집이란 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델에서 야곱이 쌓은 제단은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이 주님을 예배함을 뜻하게 된다.

본문은 성경의 이야기에서 베들레헴이란 지역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다. 베냐민이 출생하고 라헬이 죽는 사건이 이 지역과 연결되는 첫 사건이다. 베들레헴은 오랜 후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에 근접하여 위치하게 된다. 이곳에는 베냐민과 다윗의 출생 그리고 오랜 후에 주님이 탄생이 있었는데, 이 모든 출생은 큰 변화의 시작을 특정 지어 준다. 베들레헴 근처에서의 라헬의 죽음이란 천적인 의미에서 진리의 내면을 사랑하는 마음속의 인간성이나 유전성으로부터 있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에 의해 추방되는 모습을 그려준다. 우리가 인간의 어머니로부터 갖게 되는 사랑하는 마음이란 지극히 이기적이며 세상적이다. 따라서 그 마음속의 선은 기껏해야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 주님께서도 이에 대한 시험을 겪으셨으나 모두 이겨내셨다. 우리 역시 우리 속에 든 이러한 악들을 인식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극복해나가야 한다.

창세기 49장 29-32절을 보면, 이삭이 헤브론에서 죽고 아들 야곱과 에사오에 의해 막벨라 동굴에 안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야곱은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리하여 아브라함 - 이삭 - 야곱으로 열조가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평면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천적인 평면을, 이삭은 영적인 평면을 그리고 야곱은 자연적인 평면을 의미하게 된다. 이것은 달리 보면 유아기로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성숙된 어른으로 자라가는 우리의 모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가 “나는 다 컸어.”라고 생각하는 때 또는 자연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자신의 생각이나 시간을

모두 투자하고 매혹되는 때가 바로 야곱에 해당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후 우리의 흥미는 야곱의 아들들이 거룩한 땅에 널리 퍼져 살았듯이 수많은 분야로 가치를 뻗쳐가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유아기와 어린 시절로부터 있게 되는 상속물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 상속물 중에는 요셉과 베냐민으로 표현된 상속물, 즉 더욱 깊고 높은 것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 이 상속물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과 천적인 것들이 연결되도록 해준다. 이러한 우리의 어릴 적 상태들은 우리 속에 생존하면서 우리의 만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언급된 많은 지역들이 거듭하여 성경의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왜 야곱은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갔는가?
- 2) 그는 그곳에서 얼마나 체류했는가?
- 3) 그가 결혼한 두 여자는 누구인가?
- 4) 하란에서 몇 명의 아들이 그로부터 태어났는가?
- 5) 아들 중에서 누가 가장 어렸는가?
- 6) 열 두 번째 아들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 7)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
- 8) 야곱이 하란에서 귀향할 때 그는 어디로 향했는가?
- 9) 그가 베델에 도착하기 전 멈춘 장소는 어디인가?
- 10) 야곱은 세겟에서 그의 식솔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했는가?
- 11) 누가 베델에 이미 묻혀 있었는가?
- 12) 야곱은 베델에서 무엇을 했는가?
- 13) 주님은 거기서 그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가?
- 14) 야곱은 이사악을 어디서 발견했는가?
- 15) 야곱과 에사오는 어디에 이사악을 안장했는가?
- 16) 리브가의 유모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리브가의 유모가 죽고 매장되었다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2) 20여 년 3) 레아, 라헬 4) 11명
- 5) 요셉 6) 베들레헬 근처 7) 베냐민 8) 세겔
- 9) 남의 나라 신들과 귀걸이를 버려라 11) 드보라
- 12) 돌로 제단을 쌓았다 13) 큰 국가의 선조가 되게 하리라
- 14) 헤브론(마브레) 15) 막벨라 동굴 16) 유전적인 이기심
- 17)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귀향할 때 우리에게 있었던 이기적인 동인들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7

요셉의 아들들

머리말

요셉의 생애를 간략하게 재조명 한 후 공부를 시작한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48장, 50장 22-26절

48장: 1. 이런 일이 있은 뒤 요셉은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는 두 아들 므나쎄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다. 2. 아들 요셉이 문병 왔다는 말이 야곱에게 전해지자, 이스라엘은 기력을 가다듬고 침상에 일어나 앉았다. 3. 야곱이 요셉에게 일렀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가나안 땅 루즈에서 나에게 나타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4.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이 생겨 불어나게 하여 많은 민족이 모인 집단을 이루게 하리라. 또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어 길이 차지하게 하리라.’ 5. 그런데 내가 너를 만나러 이집트로 오기 전에 네가 얻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나쎄는 이제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같이 내 아들 향렬에 들어야 한다. 6. 그 아이들 다음으로 난 아들들이

네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 아이들은 형들이 차지할 유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7. 내가 바단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길을 가는 도중에 네 어머니 라헬이 죽었다. 에브랏 채 못 미친 길가에 나는 네 어머니를 묻었다. 그 에브랏이 곧 베들레헴이다.”

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물었다. “애들이 누구냐?” 9. “이것들은 하느님께서 이 곳에서 저에게 주신 제 아들들입니다”하고 요셉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이리로 가까이 오게 하여라. 내가 그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10.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앞을 못 보는 처지였다. 요셉이 그들을 가까이 데려 오자 야콥은 그들에게 입을 맞추며 끌어안고 11.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네 얼굴을 보리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느님께서 네 아이들까지 보게 해 주시는구나.”

12. 요셉은 자기의 아이들을 아버지의 무릎에서 받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다. 13. 그리고 요셉은 두 아이 가운데 에브라임은 오른 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쪽에, 므나세는 왼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 손 쪽에 가까이 가게 했다. 14. 그러자 이스라엘은 손을 엇갈리게 내밀어 아우인 에브라임의 머리에는 오른손을, 맏아들인 므나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고 15. 이렇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사악이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아 주신 하느님, 태어날 때부터 이날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느님, 16.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내준 하느님의 천사가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조상들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사악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 있기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왕성하게 불어나기를 빕니다.

17.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는 못마땅하게 여겨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아버지의 손을 므나세의 머리에 옮겨 놓으려 했다. 18.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뢰었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오른손을 이 아이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19. 그러자 거절하며 대답하였다. “아들아, 나도 안다. 왜 모르겠느냐? 이 아이도 한 족속을 이룰 것이다. 크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우가 형보다 더 커져 그의 후손은 술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20. 그날 야콥은 이렇게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의 덕을 입고 살며

‘하느님께서 너를 에브라임처럼

므나쎄처럼 세워 주시기 바란다' 하리라.” 이렇게 그는 에브라임을 므나쎄보다 앞세웠다. 21. 그리고 나서 그는 요셉에게 다시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살펴 주시어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22.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 손에서 빼앗은 세겜 하나만은 네 형제들에게 주지 않고 너에게 준다.

50장: 22. 그 후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서 살다 보니 요셉의 나이 백 십 세가 되었다. 23. 그는 에브라임의 후손 삼 대를 보았다. 그리고 므나쎄의 아들 마길의 낳은 아이들도 자기 무릎에 받아 아들 향렬에 들였다. 24. 요셉이 일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을 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어 이 땅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시마고 맹세한 땅으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25. 다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서약을 시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는 그 때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그리로 올라가거라.” 26. 요셉이 백 십 세에 죽자 사람들은 그를 썩지 않게 만들어 관에 넣어 이집트에 모셨다.

교리 요약

- * 주님은 마리아로부터 인간성을 입으시고 그 인간성을 신성화 하셨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주님은 인간성을 통해 오게 된 시험들을 극복해 내셔서 인간성을 신성으로 만드셨다.
- * 말씀의 가장 깊은 의미 또는 천적인 의미는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동안 있어진 그분의 내적인 삶을 기술하고 있다.
- * 주님은 우리 속에 저장된 어릴 때의 믿음의 형태를 보존하셔서, 그것을 차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초로 삼으신다.
- * 선을 행할 수 있기 전에 올바른 것을 배워야할지라도 선의지는 반드시 먼저 실재해야 한다.

상응 연구

에브라임 = 우리가 요셉을 수단으로 하여 배우는 진리
 므나쎄 = 진리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

해설

성경의 특징들 중에서 두드러진 사항 중의 하나는 반복되는 것, 즉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문에 있는 에브라임과 므나쎄의 사건은 과거 야곱과 에사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카인과 아벨과도 유사한 점이 많다. 이들 형제들은 쌍으로서 믿음과 선행 또는 진리와 선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들이 상징하는 선과 진리의 수준은 문맥에 따라서 달라진다. 각 경우에 사건들은 두 형제로 시작되어 그 관계로까지 이어진다. 첫 경우인 카인과 아벨에서는 이야기의 뒤 배경 때문에 믿음을 상징하는 형이 먼저 태어난다. 두 번째 경우인 에사오와 야곱에서는 비록 사랑을 표현한 형이 먼저 태어나지만 아우에 의해 형과 아우의 자리가 뒤바뀐다.

이러한 형제들의 이야기는 결코 우연이 아닌데, 이는 이들을 통해 가르쳐지는 교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어떤 회전 속에서 진행된다. 즉, 우리가 거치게 되는 영적인 발달은 각각 진리와 선의 새로운 위급 상황과 함께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말이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하고 있다면, 이러한 회전은 우리를 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옮겨 놓게 된다. **나사못**을 세워 놓은 형태로 된 계단을 떠올려보면 이 회전에 대해 쉽게 납득될 것이다. 즉, 이러한 계단을 한 바퀴 돌게 되면 위치상으로는 원위치로 오게 되지만 실제로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있다면, 이 과정은 밑으로 있어진다. 따라서 지옥은 인간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회전을 뜻하게 된다(천국의 신비 361항 참조).

야곱의 일생은 그 중의 한 회전주기에 해당된다. 그는 시험과 발달을 거치며 살았다. 그는 결국 고향으로 되돌아가 그의 형과 화합했고, 아버지 이삭의 위치를 승계하여 족장이 되었다.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아들들인데, 이들은 야곱이 귀환한 후에도 여전히 어린 아이들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영적 회전 주기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들 역시 사랑과 진리를 상징하며, 이 형제사이에는 어떤 다툼이 없었다. 하지만 요셉과 그의 형들 간에는 다툼이 있었고, 형들은 그를 미워하며 경멸했다. 그 이유는 야곱이 진정한 교회인 고대교회의 마지막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꺾데기뿐인 교회에 해당되어서 표징에 불과한 교회인 이스라엘 교회의 선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상이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문에서 두 이름이 사용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시기가 시작되면, 그 안에서 새로운 교회가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어떤 연결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 연결이 요셉을 통해서 이뤄진다. 요셉의 형들의 영이란 영적인 자질들이 내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교회 속의 영들을 말한다.

학술적인 용어를 상용한다면, 베냐민은 “천적인 것으로부터의 영적인 것, the spiritual of the celestial”을 그리고 요셉은 “영적인 것으로부터의 천적인 것, the celestial of the spiritual”을 상징한다. 먼저 이러한 표현은 단지 말의 앞뒤만 바꾸는 어떤 궤변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베냐민과 요셉이 상징하는 바를 이해하고 그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깊은 차원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주님으로부터의 유입이 직접적으로 있게 되는 곳인 영혼의 가장 깊은 곳, 즉 천적 평면과 물질계와의 접촉이 이뤄지는 가장 바깥쪽인 자연적 평면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천적 평면과 자연적 평면의 문을 열게 해 주는 것이 내면적 또는 합리적 평면임을 이해해야 한다. 베냐민은 신성한 진리가 천적 평면으로부터 합리적 평면을 거쳐 자연적 평면으로 흐를 때의 신성한 진리를 표현한다. 그리고 요셉은 이 진리에 속하는 선 또는 천적인 것들을 표현한다. 요셉의 형들은 자연적 평면 자체에서 발달되는 다양한 자질들을 상징한다. 이 자질들은 요셉을 거절하거나 섬김에 따라 선한 쪽에 속할 수도 있고 악한 쪽에 속할 수도 있다.

거듭나고 있는 모든 남녀의 일반적인 발달이란 관점에서 보면 야곱의 시기는 세상에서 스스로의 자립된 생활을 발달시키는 시기에 해당된다. 우리는 이러한 발달 시기 중에서 ‘나에게는 단지 세상적이기 보다는 좀 더 높은 발달을 의미하는 영적인 발달이 있다’고 의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출생이 의미하는 바다. 야곱은 요셉이 어린 나이였을 때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 가 주님에 대한 예배를 스스로 다시 확립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심은 새로운 투쟁에 대한 신호탄이기도 하다. 우리속의 자연적 자질들은 보다 높은 권위에 간섭받는 것을 싫어한다. 이에 대한 표현이 바로 창세기 37장 19절에서 “야, 꿈장이가 오는구나.”라는 형들의 말이다. 그리하여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다. 즉, 우리속의 자연적 자질들은 보다 높은 자질의 간섭에 반발 하여 신성한 진리를 기억 속의 지식에 처박아 그곳에 영영 감금해 두려고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의 이야기가 주님의 지상생활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임을 공감한다. 주님은 헤로데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이집트로 피신하셨다. 그 뒤 공인된 당시 교회의 시야에서 멀어져 있으시면서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주님의 섭리는 거듭나는 인격 속에서 신성한 진리를 받는 자질을 우리 안에서 발달시키고 돌보신다. 즉, 우리가 우리의 인격에 기근의 때가 올 때 스스로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판단을

섭리에 맡기게 될 때까지 주님이 우리 속에서 진리를 가꾸고 계신다는 말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새롭게 배우는 시기에 접어든다. 이것이 바로 야곱과 그의 전 가족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이주하는 모습이 의미하는 바다.

창세기는 이집트인들의 질서 있는 상태를 보여준다. 즉, 자연적 원리라는 파라오가 보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발적으로 요셉을 전 국토의 통치자로 임명했고, 이집트 땅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에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을 살도록 허락하여 기근을 피하게 했다. 이 모든 것은 질서 있게 배우는 우리의 시기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가진 선택의 자유가 손상되거나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통치자로서 선택하고 자연적 애착이나 생각들을 각기 적당한 위치에 배치해서 그것들이 그분과 연관되게 하여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도록 정착되었을 뿐인 것이다.

이런 그림들 중에서 두드러진 사항은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는 모습이다. 야곱은 “이제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같이 내 아들 항렬에 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르우벤과 시므온은 자연적 평면에서의 믿음과 순종을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나세는 지적 평면에서의 믿음과 순종을 상징한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6216항에서 에브라임에 관하여 “이 지적인 것은 교회속의 지적인 것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단순히 기억속의 지식에서 오는 지적인 것보다 더욱 내면적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 어떤 사물이 그러하다고 말할 때 그 말이 기억속의 지식의 명령이나 철학 같은 데서 있는 표현이 아니라 그 사물의 영적 의미가 말씀의 지시를 받는 지각에 의해 있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에브라임과 므나세는 야곱에 의해 자식으로 맞아 들여졌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요셉의 아들이고, 위쪽에 있는 마음에서 합리적 마음에 들어가는 신성을 표현하고 있다.

야곱은 므나세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므나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먼저 놓았다. 이것은 말씀이 반복하여 가르치는 교훈으로서 상기해야 하며, 스웨덴북의 저서에서도 아주 명백히 말하는 것, 즉 누구든지 말씀을 게을리 취급하면 거기에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음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기도 하다. 원론적으로는 의지가 첫째이다. 우리는 의지의 발동 없이는 어떠한 생각이나 행동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의지가 어떤 목적을 성취할 수 있기 전에 지성이 반드시 교육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과정은 전체가 한 번에 이뤄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말씀에 있는 모든 회전주기에서 계속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제아무리 마음이 비단같이 곱고 선한 의도만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을 배우고 스웨덴북의 저서를 통해 말씀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진리를 획득해가지 않는다면 그에게 영적 진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누군가가 최고의 학문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양심이 모두 발달되었다고 여기며 자신을 삶의 인도자로서 삼으면, 그 사람은 지독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셈이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와 같이 자신 속의 요셉을 썩지 않게 만들어 관에 넣어 두고 이집트인들의 지휘 하에 자신을 정착시키게 되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왜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가?
- 2) 요셉은 그의 가족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 3) 이집트에서 요셉으로부터 태어난 두 아들은 누구인가?
- 4) 요셉의 큰아들은 누구인가?
- 5) 왜 요셉은 야곱의 임종이 다가오자 그의 아들을 데려 왔는가?
- 6) 요셉은 그의 아들 중에서 누가 먼저 축복 받아야 한다고 예상했는가?
- 7) 야곱은 누구에게 첫 축복을 내렸는가?
- 8) 야곱은 어떤 특별한 혜택을 요셉의 아들에게 내렸는가?
- 9) 야곱은 어디에 매장되었는가?
- 10) 그 매장지에는 야곱 외에 누가 더 매장되어 있었는가?
- 11) 요셉은 죽을 때 가족에게 어떤 약속을 받아 냈는가?
- 12) 요셉의 시신은 어떻게 보관되었는가?
- 13) 므나쎄와 에브라임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4) 왜 야곱은 둘째 아들에게 첫 축복을 내렸는가?

질문의 답

- 1) 기근 2) 먹을 것과 집을 제공했다 3) 므나쎄, 에브라임 4) 므나쎄
- 5) 축복 받기 위해 6) 므나쎄 7) 에브라임 8) 그들을 자식으로 삼았다
- 9) 막벨라 동굴 10) 아브라함, 사라, 이사악, 리브가, 레아
- 11)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자신의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는 것 12) 미이라

- 13) 에브라임 = 교회에 대한 지식, 므나쎄 = 교회의 지식에 따라 살고 싶은 바램
 14) 우리에게 항상 첫 번째로 있어야 할 사항이 올바른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8

과 월 절

머리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변화와 모세의 출생 그리고 그를 부르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본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마지막 제양인 열 번째 제양과 과월절을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2장

12장: 1.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2.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고, 달수를 이 달에서 시작하여 계산하여라. 3.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알려라. 이 달 십일에 사람마다 한 가문에 한 마리씩, 한 집에 한 마리씩 새끼 양을 마련해 놓아라. 4. 만일 식구가 적어 새끼 양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생각하여 옆집에서 그만큼 사람을 불러다가 먹도록 하여라. 5. 흠이 없는 일년 된 수컷이면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다. 6. 너희는 이 달 십사일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해질 무렵에 잡도록 하여라. 7. 그리고 그 피를 받아, 그것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바르라고 하여라. 8. 그 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도록 하는데, 9.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10.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어서도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살라 버려야 한다. 11.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나 야훼에게 드리는 과월절이다. 12. 그 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전국에 있는 만이들을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조리 치리라. 또 이집트의 신들도 모조리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다.

13. 집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것이 너희가 있는 집이라는 표시가 되리라. 나는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쳐 죽이지 않고 넘어 가겠다. 너희가 재앙을 피하여 살리라.
14. 이 날이야말로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야훼께 올리는 축제일로 삼아 대대로 길이 지키도록 하여라.
15. 너희는 칠 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아예 첫날에 집안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 버려야 한다.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 든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제명된다.
16. 첫날 거룩한 모임을 열고 칠 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그 날에는 그 동안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 말고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17. 너희는 무교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이 날은 바로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날이니,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영원한 축제일로 정하고 지키도록 하여라. 18. 정월 십사일 저녁부터 이십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19. 칠 일간 너희 집안에서 누룩이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누룩이 든 음식을 먹은 자는 외국에서 와 사는 사람이든지 본 고장 태생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명되리라. 20. 누룩이 든 것은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너희가 어디에 머물러 살든지 누룩 없는 빵만을 먹어야 한다.”
21.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끌어다가 과월절 제물로 잡으시오. 22. 우슬초묵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받은 피를 묻혀 문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시오. 아침까지 아무도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오. 23. 야훼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며 지나가시다가 문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는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시고 파괴자를 당신들의 집에 들여보내어 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실 것이요. 24. 당신들은 이것을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길이 정해 놓고 반드시 지켜야 하오. 25. 당신들은 야훼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가게 되거든 이 예식을 지키시오. 26. 당신들의 자녀들이 이것이 무슨 예식이냐고 묻거든 27. 이것은 야훼께 드리는 과월절 제사라고 일러 주시오.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그냥 지나가시어 우리의 집을 건져 주신 야훼께 드리는 것이라고 일러 주시오.” 이 말씀을 듣고 백성은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
28.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서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29. 한밤중에 야훼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만아들을 모조리 쳐 죽이셨다. 왕위에 오를 파라오의 만아들을 비롯하여 땅굴에 갇힌 포로의 만아들과 짐승의 만배에 이르기까지 다 쳐 죽이셨다.
30.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한밤중에 모두 일어났다. 이집트에서는 곡성이 터졌다.

초상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31. 파라오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들어 말하였다. “너도 이스라엘 백성도 어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 가거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32. 너희가 요구한 대로 양도 소도 모두 끌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 다오.” 33. 이집트인들도 자기네가 모두 폐죽음을 당하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떠나 달라고 재촉하였다. 34. 그들은 빵 반죽이 부풀기도 전에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 메고 나섰다. 35.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일러 준 대로 이집트인들에게 은붙이와 금붙이와 옷을 내라고 하였다. 36.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집트인들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인들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내어 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인들을 털었다. 37.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라므세스를 떠나 수쪽으로 향했는데, 딸린 식구를 빼고 장정만도 육십 만 가량이 되었다. 38. 그 밖에도 많은 잡식구들이 따라 나섰고 소와 양 등 가축들도 떼지어 따랐다. 39.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누룩 없는 빵 반죽으로 과자를 구워야 했다. 이집트에서 경황없이 나오느라고 먹을 것을 미처 장만하지 못했던 것이다. 40.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머무른 것은 사백 삼십 년 동안이었다. 41. 마침내 사백 삼십 년이 끝나던 바로 그 날에 야훼의 군대는 모두 이집트 땅에서 빠져 나왔다. 42. 그 날 밤, 야훼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밤새워 가며 지켜 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대대로 야훼를 생각하며 이 밤을 새워야 하는 것이다. 43.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과월절을 지키는 규칙은 이러하다. 외국인은 아무도 제물을 같이 먹지 못한다. 43. 다만 돈을 주고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자이면 같이 먹을 수 있다. 45. 머슴이나 몸 붙여 사는 사람도 같이 먹지 못한다. 46. 어느 집이든지 한 집에서 먹여야지 고기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뼈를 꺾어도 안 된다. 47. 이스라엘 회중은 누구나 과월절 축제를 지켜야 한다. 48. 너에게 몸붙여 사는 사람으로서 야훼께 과월절 제물을 드리려면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함께 먹을 수 있고 같은 본토민처럼 되는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같이 먹을 수 없다. 49. 본토민이든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사람이든 이 법 앞에서는 동등하다.” 50.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51. 바로 이날에 야훼께서는 부대를 편성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던 것이다.

교리 요점

- * 우리는 악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 과월절은 말씀에서 거듭 반복되어져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건이며, 말씀의 각 책을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 *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은 영적인 용도에 충당될 수 있다.
- * 말씀에서 배운 것을 즉시 실행하는 영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상응 연구

첫 배 = 믿음
 어린 양 = 순진
 누룩(이스트) = 거짓
 쓴 나물 = 시험

해설

이스라엘 후손들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의 보호 하에 번성했던 이야기를 상기해두면, 본문의 공부를 시작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그들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에 잠시 머문 터라 기근이 해결된 후에는 고향인 거룩한 땅으로 귀환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집트를 그들의 고향 보다 더 나은 곳으로 여기며, 이집트가 마치 그들에게 계시된 천국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들의 후손들이 그 땅에 아예 정착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요셉이 백 십 세에 죽자 사람들이 그를 썩지 않게 만들어 관에 넣어 이집트에 모셨다”라는 구절과 더불어 출애굽기 첫 장 첫 칠 절까지에서 묘사되고 있다. 성경이나 교회의 교리를 공부해야하는 목적은 우리의 영적 발전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공부의 목적이 천국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근접하며 이웃을 더욱 섬겨야 하는 것임을 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이나 교리 공부로 얻게 되는 보상이 천국보다 세상에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고 심지어 세상적인 것들이 더 실질적이며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된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달콤하게 여기고 그것의 호소에 굴복하게 되면, 우리는

일상적인 삶의 평면에 있어서 주님의 진리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원리들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으로 인생의 방향을 차차 굳혀가게 된다. 이런 모습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그런데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이 새로 이집트의 왕이 되어...”라는 구절로 묘사되고 있다.

우리가 위와 같이 되면, 주님은 제 1장 9절 이하에서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힘든 길’을 통해서 진리를 익히도록 허용하신다. 이른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가 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삶에서의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하게 되고, 인생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어 “내 팔자야, 이게 사는 것인가?”라며 한탄하게 된다.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알 수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파라오에게 노예 신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그들의 진정한 하느님의 이름까지도 잊어버린 상태였다. 이런 상태의 삶을 사는 인간은 스스로 황폐함의 대열에 끼어들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쓴 경험에 의해서 가르쳐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열 가지 재앙들이 모세에 의해 하나씩 열거된다. 열 가지 재앙들이란 모세로 표현되는 하느님의 법이 세상적인 삶으로만 우리를 인도하는 악과 거짓이 무엇인가를 단계적으로 명백히 알려주는 것을 상징한다. 재앙이 시작 되자 이집트인들이 더욱 고통 받았지만, 파라오는 오히려 히브리인들에게 더 고된 조건을 내세웠다. 한마디로 파라오의 마음이 더 강박해진 것이다. 오직 마지막 재앙만이 히브리인들을 파라오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자연적인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이 세상 삶의 목적은 거듭남에 있다. 즉,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는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 갈 자가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다. 스웨덴북의 저술에서는 ‘믿음이 성경에서 장자로 표현된다.’라고 기술된다. 그 이유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악과 거짓을 극복하도록 하여 첫 부활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이집트에 임한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구원된 것이다. 하지만 믿음이 파괴될 때의 사람에게는 어떤 구원도 있을 수 없게 된다. 영적으로 볼 때 파라오의 장자란 두려움에 근원을 둔 복종적인 믿음이다. 달리 보면, 의를 행함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에 해당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은 심각한 시험에 부딪치면 버티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인들의 장자들이 죽는 모습의 의미이다. 또한 이것은 악 위에 떨어지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기도 하다. 선과 진리에 관한 기억속의 모든 지식이 마지막으로 소멸되는 상태와 더불어 있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재구성 혹은 개과천선뿐이다. 이 모습은 본문 31절에서 묘사되고 있다. 이집트인들의 소유물은 그 자체로서는 악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집트가 삶의 자연적인 평면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의 우리 삶뿐만 아니라 교회의 측면에서 가장 바깥상태, 즉 겉으로 드러나 보이게 되는 모든 것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것들이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어떤 교회들의 경우 영적인 본질이 퇴보하게 되면 의식적인 행사에 공을 많이 들이거나 또는 건물을 더욱 멋지고 웅장하게 지으려하거나 아니면 재정을 넉넉히 하여서 영적인 본질의 부재를 가리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려는 경향을 띠운다. 사실 이런 모든 자연물들은 그 자체로서는 모두 좋은 것이요 필요한 것들이다. 한마디로 없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은 영적 생명을 지켜주는 방어물이기도 하다. 교회에서 있게 되는 정규 예배, 교훈, 찬송, 기도, 성경 암송, 성경 강좌 혹은 성경 읽기 또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한 방과제들로서 필수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의 글자를 명백히 알고 있거나 많이 기억하면 할수록 그 속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더 나은 준비를 갖추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성장해가면서 삶에 중요한 수많은 기억속의 지식들을 획득해 가는데, 어떤 누구도 이것들이 정말로 요긴하게 쓰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지식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질서인 것이다. 이런 내용이 35절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일러 준 대로 이집트인들에게 은불이와 금불이와 옷을 내라고 하였다”라는 구절에 담겨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인들로부터 물건들을 얻도록 명령하셨고, 이렇게 획득된 물건들은 차후 새 생활에 요긴하게 쓰인다. 우리는 교회속의 진정한 보물, 즉 주님사랑과 이웃사랑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 은불이”인 교회의 예배형식과 말씀을 담은 글자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의복이라는 지상적인 성공과 더불어 인간의 법칙으로서의 성경글자에 있는 명령들을 우리 삶의 원리와 도덕적 수준의 진리로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의 기억 속에 담겨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탱하며 섬기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재앙과 더불어 과월절이 설립되었다. 이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됨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마다 준수되어 왔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과월절과 더불어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아마도 어린 양일 것이다. 양이란 순진을 표현한다. 그리고 고기를 먹는다고 함은 순진이라는 특질을 자신의 것으로 삼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순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과 더불어 어린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연상될 것이다. 어린이들의 특질은 단순하고 신뢰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약에는 무지한데, 이러한 순진을 스웨덴붉은 “무지의 순진”이라고 명한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어린이로 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지한 상태로 되돌아가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스웨덴북은 순진의 또 다른 종류인 “지혜의 순진”에 대해서 설명한다. 순진이란 단어는 “해가 없음”을 뜻한다. 우리는 타인을 해칠 수도 있는 자신속의 이기적인 욕구들이 이유를 막론하고 모두 자아사랑으로부터 비롯됨을 명백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3994항에서 야곱이 하란에서 샅으로 검은 양을 선택하는 구절에 관하여 ‘검은 양은 인간의 것에 속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인간의 것’이란 온전히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그 자체는 악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며 ‘인간의 것’이란 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고 그것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기적인 자아사랑의 극치이며 그로부터 만악(만(萬)惡)이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깨닫고 주님께서 부재하시면 나의 의지란 악 뿐이요 내가 이해하려 드는 것은 단지 거짓됨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진실 되게 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믿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주님은 그분의 모든 선과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유입시켜 주실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과 거짓을 보고 느끼고 인정한 후 주님의 도움으로 그것들을 극복한 후에 이르게 되는 상태가 바로 지혜의 순진이요 과월절 어린 양이 의미하는 바다.

제 7절에서의 “이 어린 양의 피를 받아 그것을 먹은 집의 좌우 문설주와 문 상인방에 바른다”란 과월절 어린양이 뜻하는 것을 각자 자신 속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모든 생각 위와 들어오도록 허락한 모든 욕구위에 가훈이 방의 벽에 붙어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 써놓고 매일매일 묵상해야 함을 의미한다. 양고기를 날로 먹거나 삶아 먹는 대신 ‘불에 구워 먹는다’고 함은 주님의 선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 없이 이뤄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선과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흡족해 하고 즐기는 상태에서는 그분의 선과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진실로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선과 진리를 받아야 한다고 분부하시는 것이다. 누룩 없는 빵이란 거짓으로부터 순수해진 진리이며, 쓴 나물이란 시험을 수단으로 주님의 선과 진리를 얻게 됨을 뜻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반드시 불에 구워먹어라. 그리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 두어도 안 된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사랑의 선과 진리가 모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화되고 이용되어야 하되 우리의 가장 깊은 면에서부터 가장 바깥 것에 이르는 모든 부분에 영향이 미치도록 그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11절에서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도록 했다.”라고 기록된다.

이 구절은 우리가 자아와 주님에 관한 깊은 신념을 삶의 매사를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준비 과제로 세워야 함을 뜻한다.

이집트로부터 가나안까지의 여행은 길고 어려운 여정이었다. 물론 우리는 본문의 백성들처럼 처음에는 그 여행이 얼마나 길고 고될지 눈치 채지 못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여행은 자연적인 삶으로부터 영적인 삶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영적 여행을 표현한다. 그리고 과월절은 이러한 여행을 위한 준비에 해당된다. 과월절 축제동안 주님이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발생된다. 주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이 과월절 음식을 함께 나누려고 얼마나 빨리 왔는지 모른다(누가복음 22:15).”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주님은 19절에서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라고 하심으로 성만찬을 제정하셨다. 성찬식은 기독교회가 과월절을 대신하여 거행하는 전통이 되었고, 이는 인생 여정에서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한다.

주님은 과월절에 제물이 된 어린 양이 상징한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요한복음 1:30).”라고 선포했던 것이다. 어린 양이 가진 가장 깊은 의미는 주님의 측면에서 볼 때의 신성한 순진이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모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자극들을 끄집어내어 주님께 바친 후 그분의 신성한 의지를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완전히 성별됨을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요셉이 죽은 후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무엇이 발생했는가?
- 2) 누가 이 후손을 이집트에서 꺼내도록 세워졌는가?
- 3) 무엇이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이 후손들을 떠나가도록 만들었는가?
- 4) 몇 개의 재앙이 이집트인들에게 내려졌는가?
- 5) 마지막 재앙은 무엇인가?
- 6) 장자가 죽지 않도록 이스라엘 후손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가?
- 7) 이집트인들은 이 후손들이 빠져나가는데 무엇까지 제공했는가?
- 8) 이 후손들은 이집트를 떠나기 직전 무슨 축제를 가졌는가?
- 9) 왜 이 축제가 과월절이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 10) 어린 양의 고기는 어떻게 요리하도록 지시되었는가?
- 11) 그 고기와 더불어 무엇을 먹었는가?
- 12)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떤 차림으로 먹었는가?
- 13) 먹고 남은 어린 양의 고기는 어떻게 했는가?
- 14) 이집트를 떠날 때 이 후손의 인구는 얼마였는가?
- 15) 그들은 과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회상했는가?
- 16) 이 축제는 일 년에 몇 번 준수되었는가?
- 17) 기독인은 과월절 대신 어떤 축제를 지키는가?
- 18) 이 축제는 언제 그리고 누구에 의해 제정되었는가?
- 19) 어린 양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0) 순진이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노예가 되었다 2) 모세 3) 재앙 4) 10 5) 장자가 죽는 재앙
- 6) 문에 어린양의 피를 바르라 7) 금, 은, 의복 8) 과월절
- 9) “그 피를 보고 너희를 처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10) 불에 구웠다
- 11)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 12)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 13) 불에 살랐다 14) 60만 15) 노예로부터의 해방
- 16) 매해 한 번씩 영원히 17) 성만찬
- 18) 예수님께서서 목요일 저녁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19) 순진
- 20) 해치지 않음, 주님의 인도를 기뻐함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

머리말

우리에게 친숙한 출애굽기에서의 몇 가지 사건들인 홍해를 건넌 것,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었던 것, 엘림에서의 휴식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 등을 간략히 언급하면서 본문을 시작한다. 앞서 했던 공부와 본문의 요점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해주셨던 것이라고 사료된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7장

17장: 1.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썩 썩 광야를 떠나 야훼의 지시대로 진지를 옮겨 가면서 진진하였다. 르비딤에 이르러 먹을 물이 없는 것을 보고, 2. 백성들은 모세에게 먹을 물을 내라고 들이대었다. 모세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느냐?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하고 말했지만, 3. 백성들은 당장 목이 말라 건널 수 없었으므로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어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 내 왔느냐? 자식들과 가족들과 함께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4.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저를 돌로 쳐 죽일 것만 같습니다.” 5.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 오너라.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오너라. 6. 내가 호렙의 바위 앞에서 네 앞에 나타나리라. 네가 그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 나와 이 백성이 마시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켜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7.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들었다고 해서 이 고장 이름을 트리바라고도 하고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하며 야훼를 시험했다고 해서 마싸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8.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 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다. 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다. “장정을 뽑아서 내일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나는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 10.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다.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 위에 올라 가 있었다. 11. 모세가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후르는 모세의 팔을 좌우에서 각각 붙들어 떠받치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은 처지지 않게 되었다. 13.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쳐 이겼다. 14.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후세에 남겨 두어라. 그리고 내가,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늘 아래에서 전멸시키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똑똑히 일러 주어라.” 15. 모세는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니씨라고 이름을 붙이고 16. “야훼의 사령기를 향해 손을 들자. 야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 주시리라”하고 외쳤다.

교리 요점

- * 우리는 주님께 꾸준히 도움을 간구할 때 우리의 시험들을 극복할 수 있다.
- * 우리가 어떤 삶이 올바른가를 모색하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한다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 *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실제로 믿고 있지 않는 것이다.
- * 우리를 낙심 속에 빠지게 하려는 악은 언제나 우리 속 깊은 곳에 드러누워 있다.
- * 낙심은 이기심의 발현이다.

상응 연구

바위 = 근본 되는 진리
 물 =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진리
 모세 = 신성한 법
 여호수아 = 싸우는 진리
 아말렉 =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악에서 비롯된 거짓

해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일절 음식을 먹는 동안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있었으며 손에는 지팡이를 쥔 채로 즉시 떠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첫 추진력이 좌절당하기 전 홍해에 다다랐다. 하지만 그들에게 좌절은 왔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한 가지 선한 해결책만으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홍해에서 이집트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따라 잡았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 속에 든 옛 습관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강건한채 있으며 그 세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힘만으로는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극복하지 못함을 인식하게 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분은 수호천사의 형태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와 파괴자 사이에서 계신다.

스웨덴북은 “추격해 온 이집트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홍해에서 밤새 서 있었던 두 기둥과 이어서 그들의 광야 여행을 쫓 인도해 온 이 기둥들은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 천사들이었다.”라고 말한다. 시편 27편에서의 “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당신의 초막 안에 숨겨 주시고...”라는 구절과 위의 문단을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더 깊은 뜻을 음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자유로워지기 전에 주님에 의해 우리들 앞에 열려진 길을 보게 되는 많은 경험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전진한다면 우리를 뒤쫓고 있던 우리 안의 악들이 얼마나 무기력해지는가도 경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모습인 것이다.

앞서 우리는 마라에서의 쓴물이 단물로 되었던 것과 엘림에서 충분히 휴식하는 광경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는 대목들을 공부했다. 이와 같은 광야 생활에서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인생 초기의 경험들로서,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개혁하고자 하여 애쓴 노력의 대가로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첫 번째 은택을 묘사한다. 우리는 광야의 여행이 거듭남의 삶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재구성의 시기를 묘사하고 있음을 항상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구절을 읽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배고픔은 우리가 자신 안에 선함이 없음을 실감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만나를

주시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 삶을 강건케 해주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분의 선함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심을 뜻한다. 목마름이란 우리가 삶을 위해서 진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만나가 공급된 후 호렙의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본문이 이어진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 오너라. 나일 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오너라. 내가 호렙의 바위 옆에서 네 앞에 나타나리라. 네가 그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 나와 이 백성이 마시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5절과 6절이야 말로 실질적인 삶에서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진리를 발견하는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다. 이 구절을 보다 상세히 이해해 보도록 하자. 우리의 지도자로서의 모세는 우리가 하느님의 법에 반드시 순종해야 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호렙의 바위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말씀임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리를 위해서 반드시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는 데는 특별한 지시가 수반된다. 즉,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라는 부분이다. 이는 교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원리들과 함께 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나일 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함께 가야한다. 성경에서 지팡이는 힘은 상징하는데, 특별히 주님의 권능을 상징한다. 이 구절은 과거 자신의 위기 때에 경험했던 진리를 회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손에 이 지팡이를 들고서 바위를 쳐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필요한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읽되 그 진리를 이해하여 사용할 힘이 주어질 것임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한낱 인간의 작품으로 간주하거나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추론을 뒷받침해줄 자료정도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그들 안에서 생명의 물을 솟아오르게 하지 못함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 초기에 반드시 익혀두어야 할 교훈들 중의 하나이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다루는 본문의 후반부는 삶에서 수없이 필요로 하게 되는 교훈을 담고 있다. 본문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특별히 해낸 일 없이 단지 구름(불)기둥만을 따라 다녔을 뿐이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것조차도 단지 누군가를 따라서 꾸준히 전진하는 것에 불과했다. 주님은 그들의 길을 열어 주셨고, 그들의 적들도 파괴시켜 주셨다. 따라서 그들은 단지 그들의 요구를 주님께 말했을 뿐이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싸워야 할 적과 부딪치도록 허락되어졌다. 이것은 세상적인 삶에서 떠나 약속된 땅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조그만 확증과 힘은 실습을 거쳐야만 얻어진다는 뜻이다.

아말렉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그들의 위치는 르비림이란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내륙으로 빠지기 위해 좁은 계곡을 통과하여 전투지역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였다. 아말렉이란 “계곡에 거하는 자”라는 뜻이다. 아말렉은 본래 에사오의 손자였다. 그는 우리의 의지 속에 있는 악 또는 수준이 낮은 상태의 의지를 상징한다. 아말렉의 전법은 신명기 25장 17-18절에서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들은 숲 속에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뛰어나와 공격하는 게릴라 전법을 사용했고, 대열에서 뒤쳐지는 힘없는 병사만을 골라 해치우는 방법을 주로 썼다. 우리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 있을 때 주님을 의심하고 그분께 실망하는 시험에 빠지거나 성급한 판단 혹은 말이 되어 나와 갈피를 못 잡도록 하는 지옥의 시험에 건디기 어렵다고 느끼기도 한다. 이런 때는 우리의 전 인생에서 수없이 다가오며 지나치기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의지력은 저자세에 머물게 되고 자신의 약점들을 스스로 보게 되면서 “될 대로 되라.”하는 식으로 주저앉을 때가 허다하다. 사실 이런 때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본성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고 주님의 보호나 도움이 절실하다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나는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 있겠소!”라는 계시가 필요하다. 이는 우리가 그 시험에 응전하는 첫 자세이다. 즉, 우리의 생각을 주님을 향해 들어 올리고 과거에 그분이 우리를 도와 주셨던 때를 기억하며 또 다시 확신하고 그 힘을 그분에게서 구하라는 말이다. 보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모세는 우리가 직접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찾게 되는 진리로부터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주님의 법을 상징한다. 이 법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첫 번째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들려 있는 한 이스라엘 용사들은 우세했다.

그러나 “모세의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법은 간단히 말해서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하지 말라”가 그 주축을 이룬다. 우리를 떠받친 “...하지 말라”라는 강경자세만으로 전투를 해나가게 되면 곧 피곤해져 힘이 빠진다는 말이다. 스웨덴북은 본문에서의 모세와 아론 그리고 후르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세 단계의 진리를 상징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진리를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말씀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이다. 아론은 대 제사장으로 임명될 인물이었고 시작 초부터 모세의 대변인이 된 자로서, 말씀이 교회의 교리로 설명됨에 따라 우리에게 오는 말씀속의 진리를 표현한다. 후르는 백성들의 지도자 중의 한 명이다. 따라서 그는 선생님들, 부모님들 또는 자신의 묵상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말씀속의 진리라고 사료된다. 우리는 지치고 낙심되어 자신의 나약함으로 빨려들어 가도록 유혹될 때 말씀에서, 교회에서 또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으로부터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회상해야 한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갖다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후르는 모세의 팔을 좌우에서 각각 붙들어 떠받치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은 처지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쳐 이겼다.” 우리는 우리의 바위이신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쏟으시는 그분의 사랑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강건케 해주며 구원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한껏 이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속의 자아사랑이라는 태양이 지고 승리할 때까지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에 대해 그분께 감사를 돌려야 한다. 모세는 이를 기억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을 “야훼 니씨”라고 불렀다. 그 뜻은 “야훼께서 깃발을 드셨다.”이다. 우리가 한 가지 시험에 승리하고 나면 또 다른 시험의 전투가 우리를 기다린다. 우리는 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를 강하게 해줄 또 하나의 경험을 우리 속에 축적하게 된다. 우리는 가벼운 마음 그리고 여유 있는 자세로 다가 올 시험을 주님께 의지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가?
- 2) 무엇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는가?
- 3)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도착한 지명은 무엇인가?
- 4) 그들은 왜 불평했는가?
- 5) 주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6) 모세가 바위를 치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 7) 이후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가?
- 8) 누가 전투를 위해 지도자로 임명되었는가?
- 9) 모세는 무엇을 했는가?
- 10) 누가 모세와 더불어 언덕에 올라갔는가?
- 11) 모세는 전투 상황을 어떻게 좌우할 수 있었는가?
- 12) 그가 지치자 누가 그를 도왔는가?

- 13) 모세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 14) 바위에서 물이 솟아남이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아말렉은 무엇을 그리는가?
- 16)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한 이스라엘이 승리했는데, 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본문에서의 아론과 후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홍해가 갈라짐 2) 구름(불)기둥 3) 르비딤 4) 물이 없어서
- 5) 바위를 치라 6) 물이 솟아났다 7) 아말렉 8) 여호수아 9) 언덕위로 올라갔다
- 10) 아론과 후르 11) 팔을 들고 있음으로 12) 아론, 후르, 돌 13) 제단
- 14) 확박한 진리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기울임 15) 실망, 유전적인 자아 의지에 기초를 둠
- 16) 하나님쪽으로 생각을 들어올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분의 도우심을 회상함
- 17) 아론 - 교회의 교리, 후르 - 성경학교, 교회, 부모님, 선생님에게서 배운 생각들

10

금 송 아 지

머리말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출애굽기 19장과 20장 그리고 24장을 읽은 후 시나이 산에 도착해서 본문까지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기억되도록 한다. 모세는 계명을 받기 위해 여러 번 산을 오르내렸다. 특별히 24장 18절은 32장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된다. 모든 백성들이 산에서 오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고 몇 번씩이나 그분께 순종하겠노라고 약속해왔던 점을 상기하면서 본문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32장 1-24절

32장: 1. 백성은 모세가 오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물려와 청하였다. “어서 우리를 앞장설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 온 그 어른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 아론이 그들에게 “너희 아내와 아들 딸의 귀에 걸린 금고리를 나에게 가져오라”하고 대답하자 3. 백성이 모두 저희 귀에 걸린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4.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수송아지 신상을 부어 만들자 모두들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 내 온 우리의 신이다.” 5.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만들고 “내일 야훼 앞에서 축제를 올리자”하고 선포하였다.

6.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친교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나서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정신없이 뛰놀았다. 7.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당장 내려 가 보아라. 네가 이집트에서 데려 내 온 너의 백성들이 고약하게 놀아나고 있다. 8. 저들이 내가 명령한 길에서 저다지도 빨리 벗어나 저희 손으로 부어 만든 수송아지에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 내 온 우리의 신이다’라고 떠드는구나!” 9. 야훼께서 계속하여 모세에게 이르셨다. “나는 이 백성을 잘 안다. 보아라,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10.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진노를 내려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너에게서 큰 백성을 일으키리라.”

11. 모세는 그의 하느님 야훼의 노기를 풀어 드리려고 애원하였다. “야훼여, 당신께서는 그 강하신 팔을 휘두르시어 놀라운 힘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 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이토록 화를 내시옵니까? 12. 어찌하여 ‘아하, 그가 화를 내어 그 백성을 내다가 산골짜기에서 죽여 없애 버리고 땅에 씨도 남기지 않았구나’ 하는 말을 이집트인들에게서 들으시려 하십니까? 제발 화를 내지 마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든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13. 당신의 명예를 걸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다 너의 후손에게 주어 길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겠다’고 맹세해 주셨던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14. 이 말을 들으시고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15. 모세는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돌아 서서 산에서 내려 왔다. 그 두 판 양면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새겨져 있었는데, 16. 그 판은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었다. 그 판에 새겨진 글자도 하느님께서 손수 새기신 것이었다. 17.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지에서 들려 오는 저 소리를 들으니 전쟁이 터졌나 봅니다. 18. 모세가 말을 받았다.

“그것은 승리의 노래도 아니요,

패전의 곡성도 아니다.

나 듣기에 저것은 화답하는 노랫 소리다.”

19. 모세가 진지에 가까이 이르러 보니, 무리가 수송아지를 둘러싸고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격분한 나머지 손에 들었던 두 판을 산 밑에 내던져 깨뜨렸다. 20.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불에 태우고 빵아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였다.

21. 모세가 아론을 나무랐다. “이 백성이 당신을 어떻게 했기에, 당신은 그들이 이토록 큰 잘못을 저지르게 하였소?” 22. 아론이 변명하였다. “우리의 영도자여, 노여워 마시게. 이 백성이 얼마나 악에 젖어 있는지 당신도 잘 알지 않는가 23. 그들이 나에게 와서 우리를 에집트 땅에서 데려내 온 그 어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앞장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조르더군. 24. 그래서 내가 금을 가진 사람이 없느냐고 했더니, 금을 가진 자들이 몸에서 금을 떼어다가 주기에 그것을 불에 넣었지. 그랬더니 이 수송아지란 놈이 나오더군.”

교리 요점

- * 주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물이 삶의 첫 번째에 놓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속해야 한다.
- * 주님은 성경에서 사람들의 약함을 보여 주시는데, 실상 우리의 약함을 보여주고 계신다.
- * 우리 역시 감각적인 경험만을 의존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기가 쉽다.
- *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은 우리를 올바르게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상응 연구

40 = 시험이 가득 찬 상태
송아지 = 외적인 선을 사랑함

해설

우리가 시나이 산을 뇌리에 떠올리면 쉽게 연상되는 사항은 그곳에서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주어질 때 산이 연기로 자욱했고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꼭대기로부터 계명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간혹 성서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반론 중 하나는 십계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계명이 모세시대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법전들 속에 포함되어 있음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씀에 있는 계명이 주어지는 사건은 무효하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 계명들은 태초로부터 인간 사회가 발견되는 곳마다 그리고 세상 질서의 기본법으로 존재해 왔다. 스웨덴북은 ‘태고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지각을 통해 알았고, 고대교회의 사람들은 법을 계시를 통해 알았다’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 계명은 이집트의 법전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출애굽 시대의 인간들은 이 법이 신성하다는 것 곧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님을 이미 까맣게 잊고 있었고 오히려 그것을 인간이 만든 것으로 간주하여 인간에 의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가 고대까지 추적해보지 않더라도 십계명에 대한 이런 태도는 근대 세계에서도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계명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영적으로 들어야 한다. 계명은 곧 신성한 법이다. 이 법은 바깥쪽 질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서까지도 주관한다. 그래서 외적으로 이 법을 깨트리면 자연적인 질서가 붕괴되어 자연적인 피해가 초래되며, 영적인 계명의 깨트림은 영적인 피해를 자초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깨트려져서는 안 되는 하느님의 법인 것이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 체제 또는 규약이 계명에의 준수나 이로 인해 얻게 되는 이득을 약화시킬지 도 모르지만 계명을 깨트림에 대한 대가의 존재는 여전하다.

우리가 본문을 숙고하면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과 모세가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번 이상 산을 오르고 내려왔다는 것 그리고 그 때마다 백성들이 만사에 있어서 주님께 순종하겠노라고 매번 스스로 서약을 했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성경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24장 12-18절을 반드시 읽어보기 바란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기해야 할 사항은 모세란 말씀에서 우리에게 직접 오게 되는 진리를 상징하고 여호수아란 싸우는 진리를 상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론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법들을 상징하며,

후르는 각자의 명상이나 경험에 의해 확증되는 종교적인 원리들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산에서 내려 온 모세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라고 질문한다. 24장 14절에서 모세는 자신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사건이 발생되면 아론과 후르에게 가도록 백성들에게 일러 주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시나 충고를 위협이 아니었다. 하지만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와 요구한 것은 32장 1절에서 읽는 바대로 “어서 우리를 앞장설 신을 만들어 주시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론은 그들의 금귀고리들로 그들의 신을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과거 야곱이 하란에서 귀향하면서 베델에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자신의 식구들로 하여금 예배를 준비하도록 위해 각기 가진 다른 나라의 신들을 버리라고 했던 구절을 기억한다. 즉, 창세기 35장 4절의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남의 나라 신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를 모두 야곱에게 내어놓았다. 야곱은 세겔 근처 상수리나무 밑에 그것들을 모두 묻었다.”라는 구절이다. 귀는 순종을 그리고 귀걸이는 순종의 기쁨을 의미한다.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에서와 본문에서의 순종과 기쁨은 외적이며 세상적인 사랑들에 속한 것이다.

후에 모세가 아론을 꾸짖자 아론은 “그래서 내가 금을 가진 사람이 없느냐고 했더니, 금을 가진 자들이 몸에서 금을 떼어다가 주기에 그것을 불에 넣었지. 그랬더니 이 수 송아지란 놈이 나오더군.”라고 변명했다. 이렇게 아론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사실과 다름은 4절에서 아론과 금귀고리에 관한 것에서 이미 언급되고 있다. 즉,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구번역 참조)”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각도로 새겨서 우상을 만든다.’고 함은 인간 자신의 총명으로부터 거짓 교리를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자아사랑과 세상 사랑을 흠모하는 데에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를 적용시킴으로서 결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이 인간을 지배하게 될 때 그 인간은 천국으로부터의 어떤 계발 속에 있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총명으로 모든 것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자신의 총명에 대한 증거로 삼는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렇게 잘못된 적용과 거꾸로의 해석을 빌미로 말씀을 왜곡해버린다. 스웨덴북은 「천국의 신비」 제 10406항에서 “그런 후에도 이런 잘못된 적용이나 왜곡된 해석이 그들 자신으로부터 있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말한다.

금송아지란 위의 과정으로부터 있어지는 결과이다. 송아지란 외적인 선 또는 자연적인 선을 표현하고, 우상으로서의 송아지란 자연적인 기쁨 또는 감각적인 기쁨을 드높이는 것을 표현한다. 즉, 우리가 말씀에 자신의 영적인 인도를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될 때 그리고 신성한 진리로

자신속의 악들을 드러내놓게 하여 이를 극복하기를 중단할 때에 우리속의 악들은 의기양양 해져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지성까지도 점령해 버린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자아사랑의 목적으로 수행되어지고, 우리의 이해성은 이 사랑과 일치하는 것들만을 추구하며 수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모세와 여호수아가 돌아왔다. 이는 우리가 갑작스레 신성한 진리와 그 심판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우리의 삶에서 종종 있게 된다.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사가 잘 되어서 그 방법에 익숙해져 있고 자신이 즐기는 우상도 잘 세워져 있는 모습은 세상에서 모범적인 성공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도 말씀에서의 어떤 인용구 혹은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을 찌르고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치게 될 때가 있다.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언급되고 있다. 산에서 내려 온 모세의 양손에는 하느님이 산꼭대기에서 다듬어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의 두 돌 판이 들려져 있었다. 즉, 주님은 우리가 계명을 받되 사랑의 법칙으로서 곧 높고 영적인 형태로서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낮은 평면에서만 움직이고 있다. 후에 계명이 새겨진 두 돌 판, 즉 례 안에 놓인 돌 판은 산 아래에서 모세에 의해 다듬어진 후 계명이 새겨진 돌 판이다. 결국 법의 글자는 낮고 거친 형태로 밖에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형태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형태요, 세상적이며 이기적인 우리들 역시도 주님의 말씀에 청종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인 것이다. 금송아지는 파괴되었으나 빵아서 만든 가루는 그 백성들의 마실 물에 혼합되어졌다. 즉, 우리가 세상욕과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원칙 곧 금송아지 숭배를 잘못된 것으로서 인식하여 거절할지도 모르지만 세상욕과 자아애의 부산물격인 거짓들 곧 가루가 된 금송아지를 우리의 이해성에 들어오는 진리와 계속해서 혼합하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자아라는 요소가 배여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후손은 시나이에서 얼마나 오래 야영했는가?
- 2) 백성들은 주님께서 시나이산 꼭대기로부터 말씀하시는 무엇을 들었는가?
- 3) 주님은 그 외의 어떤 지시를 백성들을 위해 모세에게 주셨는가?

- 4) 모세는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 어디로 갔는가?
- 5) 본문에서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가?
- 7) 백성들은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8) 아론은 백성에게 무엇을 내놓으라고 했는가?
- 9) 그는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는가?
- 10)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었는가?
- 11) 모세는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백성을 보자 무엇을 했는가?
- 12) 그는 이 송아지를 어떻게 했는가?
- 13) 아론은 자신을 어떻게 변명했는가?
- 14) 금송아지는 무엇을 그리는가?
- 15) 첫 돌 판과 후에 산 아래서 다듬어졌던 둘째 돌 판의 상이점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거의 일년 2) 계명 3) 행동 지침의 법, 예배에 관한 사항 4) 산꼭대기
- 5) 40일 6) 영원히 갔다고 7) 신들 8) 금귀고리 9) 송아지 10) 두 돌판
- 11) 돌판을 깨트렸다 12) 불에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렸다
- 13) 불 속에 금을 던지니 송아지가 나왔다 14) 세상적 성공과 육의 쾌락을 사랑함
- 15) 첫 돌판 = 율법의 높고 영적인 형태
둘째 돌판 = 세상적인 사람의 수준에 적합한 율법의 형태

11

아론의 가지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 아론에 관한 부분인 출애굽기 28장 1-4절과 40-43절을 먼저 읽고 민수기 33장을 참고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길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의 열 두 스파이, 특히 14장 26-35절을 읽고 그 내용을 상기하면서 본문을 공부하기 바란다.

성 서 본 문: 민수기 17장 16-28절

17장: 16. 아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17.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각 가문에서 나뭇가지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되, 각 가문별로 어른들이 하나씩 가져오게 하여라. 이렇게 가져온 열 두 가지에 각기 자기 가문의 이름을 새기게 하되 18. 레위 가문의 가지에는 아론의 이름을 새겨라. 각 가문마다 그 가문의 어른에게 나뭇가지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 19. 그것들을 내가 너를 만나는 만남의 장막 안 증거궤 앞에 놓아 두어라. 20. 내가 택한 사람의 가지에서 싹이 돋으리라.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너희를 향하여 불평하지 아니하리라.”

20.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전하자 각 가문별로 대표들이 나뭇가지를 하나씩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열 두 가지 중에는 아론의 가지도 있었다. 22. 모세는 그 가지들을 증거의 장막 안 아훼 앞에 놓아두었다. 23.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 가 보니 레위 가문을 대표한

아론의 가지에 싹이 돋고 꽃이 피었으며 감복송아 열매가 이미 익어 있었다. 24. 모세가 그 가지들을 야훼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로 내오자 그들은 저마다 자기 가지를 찾아 가지고 돌아갔다. 25.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의 가지는 증거궤 앞에 다시 가져다 보관하고 두 반역자들에게 경계가 되게 하여라. 그리하면 나에게 불평을 하다가 죽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리라.” 26. 모세는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27.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호소하였다. “이젠 끝장이요, 영락없이 망했소. 모조리 망하게 되었소. 감히 야훼의 성막에 나갔다가는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아주 망해야 한단 말ियो?”

교리 요약

- *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는 정도는 인식해야 한다.
- *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징조는 우리를 위한 징조도 된다.
- *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측량된다.
- * 자아로부터 행해진 것 속에는 순수한 선이 하나도 없다.

상응 연구

열 두 지파 = 우리의 모든 선한 애착과 생각
 대성직자로서의 아론 =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선함
 나뭇가지 = 힘 또는 권능
 감복송아 열매 = 생활의 선

해설

앞서 우리는 아론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이 바친 이상한 불로 인해 타죽는 이야기(레위기 10:1-7), 카데스에서 열 두 스파이를 파견했으나 그 중 열 명의 스파이들의 보고에 겁먹은 백성들의 결정에 따른 저주로 광야를 배회할 수밖에 없게 된 이야기(민수기

13장과 14장) 그리고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기를 드는 이야기 (민수기 16장)등을 공부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반대하여 자신들의 의지와 총명을 꾸준히 내세우려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질을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가 경이롭고 극적인 이야기들 가운데서 주님께 거역하면서 자신들의 총명이나 의지를 내세우려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향성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쉽게 인식하게 된다. 이런 경향성들이 우리 속에도 있다고 인식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려는 것에는 굉장히 더디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아주 보편적인 것이다. 그래서 국가 간에는 공의보다는 국력을 신뢰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재력과 능력을 위한 투쟁에 기초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신과 견해가 다른 이들, 특히 자신의 의견을 따라주지 않는 이들을 경멸해버리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경향성은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하느님을 알아보기 위해 인간이 올라가야한다는 식의 우쭐대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며, 심지어 성경이 인간의 작품이라고 역설하기도 한다. 우리의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향성 중의 하나는 공의와 공정에 관한 표준 대신에 교회활동, 즉 외적인 활동의 성과에 따라 자신을 측정하거나 교인들의 신앙을 측정하려드는 것이다.

본문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징조를 주고 계신다.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하다. 나뭇가지에서 싹이 돌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 어떻게 기적의 표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가하고 의아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을 통해 백성들이 이 징조에 따라 곧바로 기억하는 사건이 바로 앞장(16장)에서 기술된 격렬한 사건이며 그 사건과 이 징조가 곧바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사항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 주님은 시나이에서 아론을 대성직자로 임명하셨고 그의 아들들은 성직자가 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성직자 직분은 아론의 가문에서만 승계 받도록 하셨다. 아론과 모세는 레위지파 소속인데, 야곱의 열 두 아들 중 레위는 선행을 상징한다. 스웨덴북은 이에 대해서 「천국의 신비」 제 342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회가 잉태하고 생산하는 것은 신앙과 선행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와 똑같은 모습이 야곱으로 출생하는 아들들 중 레아가 낳는 아들로 의미된다. 즉, 르우벤은 신앙을 상징하고 시므온은 행동 상에 있는 신앙을 뜻하며 레위는 선행을 상징하는 바, 레위지파가 성직자 직을 받아 ‘양떼의 목자’로 상징되고 있다.” 또한 그의 다른 저서에서는 선행이란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비롯되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웃 사랑이며 이러한 주님을 인식함과 선행은 교회의 필수 사항이라

고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레위지파의 사람 중에서도 아론만 대성직자로 발탁되었다. 아론도 성경상의 여타 인물들같이 기본적인 상응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론이 갖는 상응은 그가 등장하는 성경의 문맥에 따라 다양한 색깔로 입혀지게 된다.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가 신성한 선 또는 대성직자 라는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성직자가 되기 전에 모세의 대변인으로서의 임무가 주어졌는데, 이때의 아론은 “선과 진리인 것에 관한 교리”를 표현한다. 이에 대해서는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편에서 살펴보았다. 모세와 아론이 동시에 불리는 때에 모세는 내향적인 의미에서의 신성한 법을, 아론은 글자적인 의미에서의 신성한 법을 표현한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아론은 대성직자 인데, 백성들은 대성직자 인 아론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성직자의 직책 수행에 관련하여 아론은 선에 관한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의문시하는 것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 오직 한 분이심”을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것이 된다(마태복음 28:17). 우리가 자신을 선하다고 여기며 선을 자신 속에서 발견하려 하고 타인이 자신의 행동에 따르지 않을 때 그에게 뭔가 흠이 있다고 지적하며 성경이 뜻하는 바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착각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성직자로서의 아론에게 반기를 들게 되는 것이다. 사실 말씀전체를 망라하여 겹손에 대해 배우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우는 것들 중에서 가장 힘든 항목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이다. 겹손의 행위는 스웨덴봄의 저서에서도 거듭하여 강조된다. 스웨덴봄은 순진 없이는 선행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과월절」 공부에서 살펴본 바대로 순진이란 자기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악 뿐이며 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됨을 알고 인정하며 믿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나뭇가지란 힘을 상징하는데, 본문의 경우에는 진리로 훈련된 힘을 특별히 상징하고 있다. 열 두 지파란 복합적으로 교회 속에 존재하는 모든 선과 진리를 상징한다. 열 두 지파의 나뭇가지란 교회속의 선과 진리로 훈련된 힘을 상징한다. 우리는 이 모든 선과 진리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처해지는 환경이나 장소 또는 용도 등이 아주 다양하므로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필요한 것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말씀의 각기 다른 이야기 속에서 각 지파가 불리면서 변천되는 질서 체계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는 이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레위지파의 직무는 변함없이 남아 있다. 레위 인들은 거룩한 땅 내에서도 다른 지파들과 같이 따로 할당된 지역 없이 각 지파의 영역 내에 있는 도시들에서 거주하도록 되어 있었다. 열 두 지파의 가지가 지성소의 궤 앞에 놓였을 때 레위지파를 대표한 아론의 가지만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앞서 우리는 종자식물에 대한 상응은 수차례 공부했다. 씨란 말씀으로부터 온 진리를 상징한다. 나무 자체는 어떤 원리를 상징하고, 잎은 그 원리로부터 온 생각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꽃은 어떤 유용함이 수반되는 생각을, 열매는 그러한 생각의 활용 자체를 상징한다. 마른 열매는 오래 보존되는 것으로 길게 지속되는 선들을 상징한다. 스웨덴붉은 감복숭아에 관하여 “이 나무 자체는 영적 의미에서 선에 근원을 둔 내면의 진리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그 나무의 꽃이란 선으로부터 온 내면의 진리를 뜻하고, 그 나무의 열매란 이에서 파생되는 생활의 선을 말한다.”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아론의 가지에 있는 징조는 주님만이 선이며 그분의 선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생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인정함을 뜻한다. 껍데기에 열두 가지를 놓는다고 함은 주님의 심판과 더불어 인간이 그것을 가늠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뒤 아론의 가지를 반역자들에게 경계가 되도록 증거케 앞에 보관한다는 것은 이미 열매가 익었다는 것으로 그려진 원리들은 마음으로 취해서, 즉 그것을 결코 잊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심판위에 자신을 세워 죄짓는 일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땅이 입을 벌려 다단과 아비람을 삼킨 죄 그리고 코라와 그를 지지한 250명의 회중 대표들을 살라 버리기 위해 주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계의 표시이기도 하다.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는 사항은 인간을 예찬하면서 예배하러 드는 것, 선천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 주님이 밝혀주신 믿음 없이 도덕적 법전을 세우려고 시도하는 것 그리고 외적으로 타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선함의 척도를 삼으려 드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이다. 큰 두 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분리되어 순종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의 새 계명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 새 계명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이웃사랑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 주님을 찾아야 할 필요성과 이웃사랑을 실현하고 발달시키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 주님을 찾을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문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주님이 시나이에서 이스라엘 후손에게 주신 처음의 법은 무엇인가?
- 2) 주님은 그곳에서 그 외의 어떤 법을 주셨는가?
- 3) 왜 백성들은 모세가 아주 가버렸다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 4) 백성들은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 5) 아론은 그들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었는가?
- 6) 아론은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는가?
- 7) 모세는 산에서 가지고 내려 온 첫 돌 판을 어떻게 했는가?
- 8) 모세는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는가?
- 9) 주님은 누구를 이스라엘의 대성직자 로 임명하셨는가?
- 10)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이나 광야를 배회한 까닭은 무엇인가?
- 11) 이 백성들은 곤경의 타를 누구에게 돌렸는가?
- 12) 모세와 아론에 반기를 든 사람에게 어떤 변이 발생했는가?
- 13) 본문에서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했는가?
- 14) 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되었는가?
- 15) 레위지파의 나무에는 누구의 이름이 쓰여 졌는가?
- 16) 모세는 그 가지들을 어디에 두었는가?
- 17) 다음날 아침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 18) 이 광경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 19) 주님은 아론의 가지를 어디에 보관하라고 분부하셨는가?
- 20) 아론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1) 감복송아란 어떤 영적인 특질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십계명 2) 많은 부속법들 3) 40일 동안 가 있었기 때문
- 4)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5) 송아지 6) 귀에 걸린 금고리
- 7) 돌판을 깨트렸다 8) 파괴했다 9) 아론 10) 믿음의 결핍
- 11) 모세와 아론 12) 멸망했다 13) 가지 14) 가지에 이름들을 새겼다 15) 아론
- 16) 증거궤 앞 17) 아론의 가지에 감복송아 열매가 달렸다 18) 아론만이 대성직자 이다
- 19) 궤 앞에 보관 20)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사랑함
- 21) 영적 진리를 지각하는 것에 기초한 오랫동안 지속되는 선행

길갈에서의 이스라엘백성

머리말

본문을 읽어보면 지난 줄거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알 수 있다. 즉,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승계 그리고 주님이 내리신 여호수아의 임무(1:7-9)등이다. 요르단을 건넌과 길갈에 세워지는 열두 개의 돌에 관한 이야기는 본문과 연관 지어 기억해두어야 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5장

5장: 1. 요르단강 건너 서편 지역에 있는 아모리의 모든 왕과 해안 지역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왕은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르단강 물을 말리시어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모두 났을 잃었다. 2. 그 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3.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아랄롯 언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4.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 까닭은 이러하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 가운데 군인 연령에 이른 남자는 이집트를 떠나 오는 도중,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5.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를 떠나오는 도중 난 백성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 6. 이집트에서 나올 때 군인 연령에 이른 층이 다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사십 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다.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까닭에 야훼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우리에게 주마고 우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이 땅을 그들은

보지 못하리라고 다짐하셨던 것이다. 7. 그들 대신에 그들의 후손을 일으키셨는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이 아직 우뚝거지였던 것은 도중에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8. 온 국민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 천막에서 쉬며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9.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 그리하여 그 곳 이름을 지금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10.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 달 십 사일 저녁때에 예리고 평야에서 과월절을 지켰다. 11. 과월절 다음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맛보았다. 바로 그 날 그들은 누룩 안 든 떡과 볶은 곡식을 먹었던 것이다. 12. 그들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떴었다. 그 후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당년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13. 여호수아가 예리고 지방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그가 고개를 들고 보니 자기 앞에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의 편이냐?” 14.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야훼 군대의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온 것이다.” 이 대답을 듣고 여호수아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물었다. “내 주여, 당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15. 야훼 군대의 총사령관이 지시하였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다.

교리요점

- * 주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적을 대적하실 수 있다.
- * 말씀에서 언급되는 모든 지역명은 각기 특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 우리가 거듭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진보를 계속 해가려면 지속적으로 성경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 * 할례란 자아사랑으로 더러워진 심정을 깨끗하게 함과 상응된다.

상응 연구

요르단 = 입문을 위한 진리들

할례 =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순수해짐

신발 = 선함에 관한 자연적인 사상들

해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땅에 진입함은 영적인 발달에 있어서 재구성의 시기를 지나 거듭남이 시작되는 것을 표현한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불)기둥을 계속 따라간 것처럼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분부들을 계속해서 순종해가면, 우리는 우리속의 반역적인 것들이 차츰 사그라지고 파괴되어 참으로 선한 새 의지를 주님께서 내리실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스웨덴복음은 「천국의 신비」 제 3200항에서 ‘우리의 거듭남의 과정은 이 세상에서의 삶 전반을 통해 있게 되고, 저 세상에 가셔도 영원히 계속 해 나가게 된다.’라고 전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결코 영원히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찌됐든 거듭남의 시작과 함께 우리의 반역적인 시기는 끝을 맺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의식적으로 기꺼이 주님 편에 서려하고 주님의 권능이 아주 명확하게 자신에게 와 있음을 알게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기적인 의지의 자극 혹은 우리의 이해성을 우물쭈물하도록 만들었던 거짓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새 의지의 힘 앞에서 넋을 잃게 된다. 이런 적들의 모습은 본문 1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모두 넋을 잃었다.”라고 묘사된다. 이런 모습은 이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계에서도 진실로서 우리의 유전적인 본성이 주님에 의해 일일이 점검되어 꼼짝 못하게 되며,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과신하려고 들지 않는 이상 자신 안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단지 그런 속성이 자신 속에 여전히 있음을 순간순간 회상하며 지내게 된다. 사실 본문을 포함한 거룩한 땅의 정복에 관한 성서의 모든 이야기는 천국에 가셔도 있어지는 거듭남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듭남의 진보에 관한 것이다. 비록 여호수아서에서 더 이상 주님께 반역하거나 과거 자신이 가졌던 세상적인 쾌락에 군침을 흘리는 행위 따위는 발견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과정에서 판단상의 실수와 불순종에 관한 한 가지 경우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의 미약함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듭남의 시작에 들어서면 본문 9절에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확실한 성과이다. (길갈이란 굴림 또는 벗김이란 뜻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죽지 못해 모세에게 순종하는 형식 곧 과거 파라오에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억지로 순종하는 방식으로부터 멀리 떠나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쪽으로 기꺼이 움직이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복음서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변한 것이다.

성경에서 모든 새로운 상태의 시작은 “기념비”처럼 차후 세대가 기억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제단을 쌓는 것으로 구분되고 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4장 1-5절과 20-24절을 통해서 여호수아에 의해 거룩한 땅으로 진입한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였으며 그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가 행한 첫 번째 일 역시 그들이 건넌 요르단 강 한복판에 열 두 개의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명령했다. 스웨덴북은 “할례란 불결한 사랑으로부터 순수해진다는 표시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천국의 신비」 제 4462항에서 “포피는 생식기를 싸고 있어서 태교교회에서는 이 포피가 선과 진리에 대한 희미한 상태와 상응되었다. 그러나 고대교회의 경우 이 포피는 선과 진리를 모독함에 상응되었다. 그 이유는 태교교회인이 내적인 사람이어서 선과 진리에 대한 심정 상태가 희미해질 수는 있어도 모독할 수는 없었던 반면에 고대 교회인은 상대적으로 외적인 사람이어서 선과 진리가 모독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외적인 것들, 즉 외적인 사랑들은 모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의 설명과 같은 이유로 태교교회 사람들은 할례에 관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고대교회인들은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대교회로부터 할례가 많은 나라들로 퍼져갔다. 즉, 이 예식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만 있었던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예식은 단지 다른 나라(민족)에서 연속되지 않았을 뿐이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경우는 그들이 교회에 소속된 것에 대한 표시로 이어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할례의 전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소홀시 되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재구성의 시기에 우리들같이 자신들의 바깥쪽 행동 지침에만 관심을 두고 자기 검증과 같은 안쪽의 행동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할례는 거듭남이 시작되는 이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의무조항임이 분명하다.

할례 행사가 끝난 후 길갈에서는 과월절 기념행사가 있었다. 우리가 거듭남의 시작부터 인식하고 인정해야 하는 사항은 세상과 육적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과월절과 더불어 기독교회에 과월절을 대신하는 성찬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문은 거듭나는 기독교인의 삶이 질서 있게 시작되는 데에 주님에 의해 제정된 두 가지 기독교 성례식들의 중요성을 명백히 알려준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성례식들을 생략하거나 경시해버리면 우리의 영적 진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주님은 이 예식에서 내적인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도달되시는데, 우리는 설사 예식 중에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현존이 분명한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성례식을 준행해야 하는 까닭은 주님이 이를 행하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알고 계심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의 과월절 기념 후 그 땅의 소출을 먹었고, 과월절 다음날 만나의 공급은 중단 되었다. 이는 우리가 주님께서 새 의지를 주실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때 그분의 선함 중 어떤 것이 우리의 것인 듯 여겨지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며, 그 선함을 보존하고 발달시켜 가는데 우리 역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되는 모습을 말해준다. 주님의 선함에 참가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가 성찬식의 빵을 먹을 때로 표현된다. 광야에서의 만나란 주님의 선함이 거듭 나기 전의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선의 형태인데, 그 형태란 한 번에 조금씩 그리고 매일 마다 필요한 만큼 곧 그날그날 요구되는 각자의 강건함을 위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선함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4절 이하에서와 같이 자아사랑의 햇볕이 뜨거워지면 남은 것은 녹아지고 그날 사용되지 않은 만나(선함)는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나서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물론 이 백성들 곧 거듭 나는 삶 이전의 재구성의 시기에 우리는 그러한 이유와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만나가 가진 뜻이 “이게 무엇이나?”인 것이다. 거룩한 땅의 곡식은 오래도록 보존이 가능한 선함인데, 우리는 말씀에서 얻은 진리의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기 위해 협력하는 데에 전적으로 만족한다.

본문은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네 밭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하고 명령하는 장면으로 끝맺어지고 있다. 여호수아는 “싸우는 진리”를 표현한다. 거듭남의 진보를 이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식해야 할 사항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다. 즉, 거듭나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과 우리가 우리속의 적들과 대항하기 위해 신성한 진리의 칼을 뽑아들고 서 계신 분의 지휘 하에서 전진하려면 과거에 져어 있었던 물질주의적인 사상을 우리 밭에서 벗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는가?
- 2) 모세는 어디서 죽었는가?
- 3) 누가 모세를 대신하는 지도자가 되었는가?
- 4) 이 백성들은 어떻게 요르단 강을 건넜는가?
- 5) 그들은 강바닥에서 무엇을 취했는가?
- 6) 그들은 열 두 개의 돌을 취해 무엇을 했는가?
- 7) 거룩한 땅에서 이 백성들의 첫 숙영지는 어디였는가?
- 8) 길갈은 무슨 뜻인가?
- 9) 왜 길갈이 그렇게 불렸는가?
- 10)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어떤 예식을 지키도록 했는가?
- 11) 그곳에서 어떤 날을 기념했는가?
- 12) 그곳에서 만나의 공급은 어떻게 되었는가?
- 13) 왜 그들에게 만나가 필요 없게 되었는가?
- 14) 여호수아는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 15) 천사는 자신이 누구라고 말했는가?
- 16)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는가?
- 17) 광야에서의 배회생활은 무엇을 그리는가?
- 18) 거룩한 땅으로의 진입은 무엇을 그리는가?
- 19) 모세와 여호수아가 표현하는 상이점은 무엇인가?
- 20) 세레와 성찬의 모양을 나타내는 길갈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은 각각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40년 2) 네보산 3) 여호수아 4) 기적 5) 열 두 돌
- 6) 기념비를 세움 7) 길갈 8) 굴립, 벗김
- 9)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인들의 수모를 벗겼다” 10) 할례
- 11) 과월절 12) 중지 되었다 13) 그곳에는 풍부한 양식이 있기 때문에

- 14) 칼을 뽑아 들고 서 있는 천사 15) “야훼 군대의 총 사령관”
- 16)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17) 개혁
- 18) 실제로 영적인 삶의 시작
- 19) 모세 - 두려워서 진리에 순종함, 여호수아 - 삶 속에서 진리가 싸워 나감
- 20) 할례(순수해짐에 대한 예식), 과일절(구원해주심을 기억함)

13

거룩한 땅의 분할

머리말

본문은 거룩한 땅의 분할 이전인 그 땅의 정복에 관한 줄거리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의 정복에 따른 세 가지 작전과 명령을 살펴보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여호수아 18장 1-10절

18장: 1.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만남의 장막을 쳤다. 전 지역이 이미 그들에게 정복되었던 것이다. 2.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아직도 유산을 받지 못한 지파 일곱이 남아 있었다. 3.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렀다. “언제까지 너희 조상의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겠느냐? 4. 당장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출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어 분할 받을 땅을 답사하여 지적도를 만들어 오게 하리라. 5. 그들은 그 지역을 일곱 몫으로 나누는데, 유다는 그대로 남쪽 자기 영토를 차지하고 요셉 가문은 그대로 북쪽 자기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6. 너희는 그 땅을 일곱 몫으로 나누어 지적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우리 하느님 야훼 앞에서 추첨을 하여 너희의 몫을 결정해 주리라. 7. 레위 사람들은 너희들과 어울려 한 몫 받지 못한다. 야훼를 섬기는 성직자

식분이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가드와 르우벤과 므나쎄 지파 절반은 야훼의 종 모세에게서 받은 대로 요르단강 동편을 유산으로 받았다.”

8. 이리하여 그들은 길을 떠났다. 지적도를 만들려고 떠나가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였다. “너희는 그 지방에 가서 답사하며 지적도를 만들어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야훼 앞에서 추첨을 하여 너희 몫을 결정해 주리라.” 9. 그들은 길을 떠나 각 지방을 돌아 다니면서 그 곳 성들을 일곱 몫으로 나누어 지적도를 만들어 가지고 실로의 진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10.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그들의 몫을 결정하려고 야훼 앞에서 추첨을 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몫 한 몫 떼어 주었다.

교리 요점

- * 제비뽑음이란 우리가 뭔가에 대한 결정을 주님께 맡긴다는 뜻이다. 추첨이라 할지라도 기회나 우연 같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신성한 섭리에 의해 통제된다.
- * 말씀은 서로 긴밀하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자주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의미를 받게 된다.
- * 천국적인 인격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적을 우리 속에서 몰아 내야한다.

상응 연구

거룩한 땅의 남쪽 부분 = 우리속의 의지 또는 애착 부분
요르단 강 건너지역 = 우리의 자연적인 또는 외적인 삶

해설

앞서 우리는 제 6-9장에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전투 중 가장 중요한 작전인 첫 작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작전이란 그 땅의 중심부를 점령해 가는 작전인 예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과의 조약체결이었다.

그 외의 지역에 대한 정복은 다시 두 가지 작전으로 나뉘어 수행되었다. 그중 첫 작전은 남부지역에

서 그리고 두 번째 작전은 북부지역에서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남부는 애착의 상태를, 북쪽은 지적인 상태를 표현한다. 그래서 이 두 작전은 우리의 심정과 지성 안에 있는 악과 거짓들을 인식하여 극복해 내려는 노력을 표현하게 된다. 우리는 악과 거짓이란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사용하는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사업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이 생각에 포함된 악은 이기적인 소득을 사랑하는 것이다. 거짓은 우리가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행하는데 것에 대한 변명이다. 즉,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스스로를 잘 돌봐야 한다는 것 혹은 모든 이들이 사업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 혹은 이런 이득들을 미리 챙기지 않으면 사업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등의 거짓을 핑계로 내세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악의 근원은 바램에 들어 있다. 거짓은 이 바램을 받쳐주며, 핑계를 제공하는 생각과 추론들인 것이다.

우리의 심정과 지성 은 거룩한 땅이 적군들로 가득 차 있었듯이 악과 거짓들로 가득하다. 이것들은 거둬나려는 우리에게 대항하고자 한데 뭉친다. 그래서 한 악을 끄집어내면 다른 것들도 영커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거짓 하나를 끄집어내면 다른 거짓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음도 보게 된다. 따라서 한 개의 악이나 거짓과 싸운다는 것은 결국에는 많은 악이나 거짓과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가끔 실족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은 넓은 의미에서의 여호수아의 작전 수행이 뜻하는 바다. 그는 처음에는 남부의 다섯 왕과 싸웠다. 연맹한 다섯 왕이란 악한 바람의 연맹인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북쪽의 왕들과 싸웠다. 이 왕들이란 거짓 사상과 추론의 군사들을 말한다. 하지만 남쪽에서의 작전 수행이 먼저 있었는데, 이는 우리가 자신이 해왔던 변명의 진정한 본성을 보고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 전에 근원적인 악들을 인식하고 극복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님은 남쪽에서의 전투에서 적에게 우박을 보내셨고,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빛을 주심으로써 완전한 소탕 작전이 이뤄지도록 해주셨다. 우리속의 악은 우리의 노력보다는 주님의 진리의 권능과 말씀의 빛에 의해서 정복된다는 말이다. 북쪽 지역의 작전 수행에서는 기마와 병거의 등장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기마와 병거란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그 능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생각의 체계들을 말한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군마의 다리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를 태워 버리게 해 주겠다.”하고 약속하셨다. 즉, 자신의 지혜를 추키려는 것이 깨지며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한 거짓사상이 사랑으로 파괴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 작전 수행 후 거룩한 땅의 주도권을 잡아 그 땅에 정착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이는 그들이 모든 적을 싹 쏘아 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은 비록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존재하지만 우리에게 영적 삶을 즐기는 것도 허락하신다. 한 마디로

영적 삶을 즐기면서 싸움도 하게 하신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결코 영적인 전투를 끝낼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계에서 천국의 평화와 기쁨을 어느 정도는 맛볼 수 있다. 성막이 실로에 세워졌다. 실로의 뜻은 히브리어로 “평화”이다. 거룩한 땅은 각 지파에게 내리는 상속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그 땅이 이스라엘 후손에게 내린 주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천국이란 곳, 즉 천국적인 인격은 주님을 하늘 아버지로 인식하여 그분의 뜻을 실천하려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속인 것이다. 우리는 각자 다른 선물과 특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따라서 각자의 것은 각자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것으로 본인 외의 누구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그 때에 그 임금의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를 차지하여라.’”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야곱의 열 두 아들은 우리 안에서 완전한 인격을 구성하게 하는 갖가지 선한 애착들을 표현한다. 이 애착들 각각은 완전한 삶 속에서 제각기의 위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애착들에 의해 통치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제각기의 장소를 가지게 된다. 제비뽑아 그 땅을 분할하는 것은 균형 잡힌 영적 삶을 그리며, 균형 잡힌 영적 사회 안에서 모든 남녀가 제각기의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려 함에 목표를 두고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우리가 설 곳이나 우리의 뜻에 대한 결정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점이다. 제비 뽑아 결정짓는다고 함은 모든 결정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나세 반쪽지파는 거룩한 땅을 형제들이 정복하도록 도와준 후 요르단 강 동쪽 건너편에 정착하도록 허락되어졌다. 요르단 강 건너편은 자연적인 삶의 평면을 표현한다. 그곳은 가축을 키우는데 적절하고 비옥한 땅이었다. 즉, 자연적인 삶의 평면은 외적인 측면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선한 애착을 수행해내는 것임을 뜻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풍요로운 외적인 삶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열망한다. 그들은 집에서 유용하고 친절한 외적인 삶 속에 있다. 그들이 예배와 교리속의 더 깊은 것을 필요로 하고 자신을 검증하려고 노력하며 이기심과 이를 부추기는 변명 따위를 정복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외적인 섬김을 위해 삶을 소비하도록 자신들에게 그 땅이 허락된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매우 깊고 높은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 역시 유용하며, 그들 나름대로는 행복한 것이다. 주님의 공생애의 일부가 이 요르단 건너편에서 있었다. 이 지역을 상속해달라고 요구한 두 지파가 갖는 근본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르우벤은 자연적 인간

속에 등장하는 첫 믿음을 표현한다. 그리고 갓은 외적 종류에 속한 선한 일을 표현한다. 그리고 므나쎄 반쪽 지파에게는 두 지파의 지역 북쪽이 할당되었다 (므나쎄지파가 지분을 요구한 기록은 없다- 민수기 32:33참조). 요셉의 큰아들인 므나쎄는 교회속의 선을 표현한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의 북쪽에 담벼락 같이 놓인 므나쎄 지파의 지형이란 자연적 평면에 정착된 이들은 자신들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선함이 비롯됨을 항상 염두 하고 자신을 수호해야 함을 의미한다.

레위지파는 상속분으로 타 지파들처럼 특정지역을 할당받지 않았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백성들의 예배와 영적 가르침을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섬기는 일도 수행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주 하느님이 그들의 유산이다.”라고 말해지고 있다(신명기 18:2).” 지파 별로 볼 때 레위지파는 예배에 관한 요소들을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직접적으로 찾으려는 우리속의 애착 그리고 그분에 관해 배우는 것에 만족하며 그분에 대해 명상하려는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찬양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사항은 잘 정돈된 삶의 어느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삶의 전반에 고루 퍼져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레위지파의 거주자들이 전국에 퍼져 있듯이 주님과 관계없이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은 모든 지파들의 십일조가 레위인을 부양했듯이 예배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한다. 즉, 일요일에는 예배에 참석하며 진정한 기독 종교 인으로서 주중에도 주님과 그분의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의 한 개의 분과와 같이 칸막이를 하여 우리의 이해성 속 어딘가에 종교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침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의한 우리의 행동 지침이 시험을 거치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너희는 삼가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여라.”(신명기 12:19)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는 몇 개의 작전으로 거룩한 땅을 정복했는가?
- 2) 이 작전은 어떤 순서로 수행되었는가?
- 3) 첫 작전과 익숙한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 4) 그 땅의 모든 적은 정복되었는가?
- 5) 항구적인 성막은 어디에 설치되었는가?
- 6) 실로란 무슨 뜻인가?

- 7) 누가 그 땅의 분할 경계를 그렸는가?
- 8) 각 분할 지역을 차지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 9) 제비를 뽑을 때 그 결정은 실지로 누가 하는가?
- 10) 그 땅의 중심부는 어떤 지파에게 돌아갔는가?
- 11) 요셉의 두 아들은 왜 이 땅을 분할하는 데에 자격이 있었는가?
- 12) 요르단 건너 지역에는 어떤 지파가 정착했는가?
- 13) 그 땅의 남부는 어떤 지파에게 할당되었는가?
- 14) 갈렙에게는 어느 성이 주어졌는가?
- 15) 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할 해주지 않았는가?
- 16) 그 대신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 17) 열 두 지파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실로에 성막을 세웠다 함은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3 2) 중심부-남부-북부 3) 예리고, 아이, 기브온 4) 그렇지 않다
- 5) 실로 6) 평화 7) 각 지파의 세 사람들이 지적도를 만들
- 8) 추첨 9) 주님 10) 요셉, 베냐민, 단 11)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
- 12) 르우벤, 가드, 므나쎄 반쪽 13) 유다, 시므온 14) 헤브론
- 15) 예배를 관장하기 때문 16) 48개의 성읍 17) 모든 우리의 정신적인 자질들
- 18) 우리 삶의 정착된 부분의 중심에 예배를 놓아야 한다는 것

14

판관 삼손

머리말

본문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다. 본문은 삼손이란 인물의 부주의함과 자만심을 보여줌으로써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꾸준히 필요함을 예증해준다.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음과 더불어 삼손이 내는 수수께끼의 의미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를 행하는 것에 행복이 있음도 언급한다.

성 서 본 문: 판관기 14장

14장: 1. 삼손은 담나로 내려 갔다가 거기에서 불레셋 처녀 하나를 보고 2. 부모에게로 돌아와서 청을 드렸다. “제가 담나에 갔다가 불레셋 처녀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처녀한테 장가들고 싶은데 얻어 주십시오.” 3.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러지 못한다고 하였다. “네 일족이나 네 겨레 가운데는 여자가 없어서 할례도 받지 않은 불레셋 색시를 얻으려느냐?” 삼손은 아버지를 졸랐다. “그 여자가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색시를 얻게 해 주십시오.” 4.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 줄 몰랐다. 그 때는 불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기에 야훼께서 불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것이었다.

5. 삼손이 담나로 내려가서 담나에 있는 한 포도원에 다다랐을 때의 일이다. 난데없이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드는 것이었다. 6. 그 때 야훼의 영이 갑자기 내려 덮쳐 삼손은 양

새끼 찢듯 맨손으로 그 사자를 갈기갈기 찢었다.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7. 그 여인에게로 내려 가 이야기해 주었다. 그렇게 그 여인에게 빠져 있었다. 8. 얼마 후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가다가, 가던 길을 벗어나 죽은 사자가 있는 데로 가서 그 죽은 사자 몸에 벌이 꿀을 쳐 놓은 것을 보았다. 9.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따가지고 길을 가면서 먹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얼마 따다가 부모에게도 대접해 드렸다. 그러면서도 그 꿀이 죽은 사자 몸에서 나온 것이라는 말만은 하지 않았다. 10. 삼손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젊은이가 장가갈 때 하는 풍속대로 잔치를 벌였다. 11. 그러나 그들은 삼손이 무서워서 들러리를 삼십 명이나 뽑아 함께 머물게 하였다.

12. 그 자리에서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수수께끼 하나를 낼 터이니, 잔치가 계속되는 이렛 동안 생각해서 맞춰 보게. 알아내기만 하면 내가 모시옷 서른 벌과 예복 서른 벌을 내지. 13. 그러나 맞춰 내지 못하면 자네들이 나에게 모시옷 서른 벌과 예복 서른 벌을 내야 하네.” 그들은 좋다고 하면서 수수께끼를 말해 보라고 하였다. 14. 그래서 그는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15.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15. 나흘째 되던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울러메었다. “네 신랑을 꺾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서 알려 다오. 그렇지 않으면 네 일족을 불에 태워 죽이겠다. 네가 우리를 초대해 놓고는 홀랑 벗길 셈이냐?” 16. 삼손의 아내는 그에게 매달려 눈물을 흘리며 떼를 썼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 하고 있어요. 우리 동족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으셨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저한테마저 숨기실 건 없지 않아요?” 그는 “그것은 내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는데 어찌 당신에게라고 말하겠소?” 하면서 거절했지만 17. 잔치가 끝나기까지 이렛 동안 색시가 매달려 울면서 조르는 바람에 삼손은 이레째 되던 날 털어 놓고야 말았다. 색시는 그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지 제 동족들에게 일러 주었다.

18. 이레째 되는 날이 와서 삼손이 신방에 들려고 하는데, 그 성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고

사자보다 힘센 것이 어디 있으랴?”

29. “자네들이 내 암소로 밭을 갈았구나 그래서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거지?” 삼손은 이렇게 말하고는 19. 야훼의 영에 사로잡혀, 아스클론으로 내려 가 거기에서 삼십 명을 죽이고 그들의

나들이웃을 벗겨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사람들에게 주고는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 왔다.
20. 일이 이쯤 되자 삼손의 아내는 들러리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에게 시집가고 말았다.

교리 요점

- * 삼손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는 주님의 권능을 표현한다.
- * 말씀의 힘은 말씀의 글자에 있다.
- * 블레셋이란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에 따라 살고자 함을 소홀히 다루는 마음을 표현한다. 이것은 소위 “믿음만으로”라는 것에 해당된다.
- * 가슴속에서 사랑이 떨어져나가면 어떤 실질적인 힘도 없게 된다.

상응 연구

판관 =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시험에 대항하기 전에 강건케 되도록 주님께 의해 우리의
이해성에 세워진 특정한 진리

삼손 = 판단, 좋은 측면에서는 계시의 진리를 인식함

블레셋 = 진리에 따라 살겠다는 의도 없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머리털 = 삶의 가장 바깥형태 또는 말씀의 글자

사자 = 힘

꿀 = 의를 행함에서 오는 기쁨 또는 달콤함

해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야훼를 경외하며 일편단심으로 그를 섬기시오(여호수아 24:14).”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땅 내에서 각 지파에게 분할된 지역으로 이동하기 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다짐받던 내용의 일부이다. 그는 백성들에게 각 지파 내에 잔존하고 있는 적과 싸워 그들을 모두 멸절시키라고 단단히 당부했다. 판관기의 첫 장은 모든 지파들이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긴 그들의 임무를 성취하는 데에 얼마나 무관심했었는지를 보여준다. 오직 한사람, 즉 갈렙만이 자신이

받은 상속지를 완전히 정복한 것으로 보인다. 「요한계시록 설명」 제 768-21항을 보면, 갈렙은 “교회로 입문한 사람들”을 의미함을 알게 된다(「천국의 신비」 제 2909항을 보면 헤브론의 역사와 그 의미에 관한 간단한 요약 발견할 수 있다). 그 외 나머지 백성들은 더 이상 적들이 자기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음 놓고 자기들의 편안에만 관심을 두었다. 판관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거듭나기 시작한 후에도 우리 자신의 영적인 안전이 보장될 만큼 정착된 상태에 도달되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니까 나는 구원될 거야.”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3절의 “만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는지 집주인이 알고 있다면 그는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구절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이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자만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배신하도록 한다. 잠언서 16장 18절의 “거만엔 재난이 따르고 불손엔 멸망이 따른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생각해 보자. 거만과 불손을 방치함에 따라 우리속의 적들은 다시 세력을 얻기 시작하고,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의 늪지에 또 다시 폭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거만과 불손을 뿌리째 뽑아야 하며 계속 뽑아야 한다는 교훈을 배우는 데에 이처럼 꽤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 판관은 전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아니었고, 다만 각 지역의 곳곳에서 간간히 튀어나오는 적들을 부수기 위해 주님께서 들어 세운 지역적인 지도자들이었다. 따라서 판관들은 우리가 부딪친 특정한 시험에 싸워 이기도록 돕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이해성 안에 들어 세워 주신 특정한 진리들을 표현한다. 앞서 우리는 판관들 중 드보라와 기드온 그리고 입다에 대해서 공부했다.

본문에서는 판관인 삼손이 언급된다. 그는 블레셋 족에 대항하여 공훈을 세운 인물이었다. 블레셋 족에 대해서는 「이사악과 아비멜렉」에서 공부한 내용을 상기해 보도록 하자. 이들은 거룩한 땅의 서부 경계선을 따라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근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다르다. 어떤 학자는 그들이 아리안족 출신의 해적들로서 가나안족을 누르고 강제로 정착한 민족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창세기 10장 14절에서는 그들이 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 시대 때에 정착된 민족이 되었다고 한다. 아브라함과 이사악은 모두 블레셋 영토에서 한 때를 보내면서 그들과 조약을 맺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시대 때에 곧장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 허락되지 않았었다(출애굽기 13:17). 전시대를 통해 블레셋 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가신 민족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종종 블레셋에게 응징을 가하며 그들의 견고한 성읍을 빼앗기도 했지만 그들을 뿌리 채 뽑지는 못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의 영적인 평화에 대항해서 항상 존재하는 적이라는 것과 그들과의 타협은 시험만을

야기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평화를 위해서 그들과의 타협이 아닌 그들을 짓눌러야 함이 함축되어 있다.

스웨덴북은 블레셋이 의미하는 적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이른바 블레셋 사람이란 믿음과 선행에 관한 지식에 대한 앎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선행에서 분리된 믿음 속에 있어서 믿음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매우 흥미하나 알게 된 믿음의 지식에 따른 삶이 없는 자들이다. 결과적으로 믿음만으로 구원된다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천국의 신비 제 8093항). 이 교리는 프로테스탄트 개혁신교회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루터조차도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되기 위해서 이 교리를 채택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 뒤 세월이 흐르면서 이에 관한 믿음의 논쟁에 그 역시 휘말렸다. 이 교리가 바로 기독교의 황폐화를 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스웨덴북은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이 교리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이 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구원을 위해 그분을 찾는 한 별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우리는 때로 이 교리가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를 노골적인 형태로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교리에 대한 명백한 발표들로 인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교리의 어떤 형태에서든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타교회의 교인들과 갖가지 비평들에 관하여 말하거나 그들의 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슬그머니 뒤로 빠질 때에 그들과 격리되는 것처럼 느끼며 어딘가가 비어 있는 듯이 느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블레셋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지닌 자존자대나 자아충명의 자랑은 믿음 만으로의 교리에 대한 귀에 찝은 표시 같은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그분의 방법을 배울수록 자신이 결점이 많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배운 진리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행함 없이 오직 앎에만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블레셋의 시험이다.

그래서 본문같이 블레셋에 대항하여 삼손이 판관으로 일으켜 세워진 것이다. 그는 단 지파 출신이었다. 단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선한 삶을 영위해야 함을 확신하며 인정하는 것을 표현한다. 이것은 거듭 나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있어지는 일반원리이다. 삼손은 블레셋에 대항하여 특이한 승리들을 얻었다. 스웨덴북은 「성경에 관한 교리」 제 49-2항에서 “진리의 말단에 속하는 것들로부터 오는 주님의 권능이 유대교회 내에 있는 나지르인에 의해 표현되었다. 그래서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나지르인이었다고 말해지고, 그의 힘은 그의 머리털에 있었다고 말해진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계시록 설명」 제 619-18, 1086-2항에서 이러한 생각을 좀 더 상세히 삼손의 면모와 더불어 상술하며,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가 말단에 속하고 그 말단 안에 신성한 진리의 권능이 거주하고 있다고 말한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결연을 맺도록 유혹되었고, 한번 이상이나 그들에게 당했다. 이와 같이 지식에 대한 우리의 애착은 종종 우리를 배반한다. 우리는 배운 지식을 사용하려는 생각 없이 많은 지식을 배우게 된다. 이것이 삼손을 위협한 어린 사자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극복해 내면 삼손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발견한 꿀로 그려지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 기쁨은 배운 진리를 삶에 응용함으로써만 오게 되는 기쁨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수수께끼를 결코 풀지 못했다. 의를 행하려는 노력이 없는 사람은 의를 행함 속에 기쁨이 있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한다는 말이다. 삼손은 블레셋 출신의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데에 폭 빠져 있었다. 우리는 우습게도 세상과 욕정 그리고 악마에 매력을 느끼고, 올바른 길 대신 쉬운 길을 자주 선택하게 된다. 한마디로 쉽게 미혹된다는 것이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모든 세부사항들은 그의 이야기가 주는 직접적인 교훈 외에도 그 안에 있는 상응이나 유용성들 때문에 많은 흥미를 자아낸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인상 깊은 으뜸가는 진리는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털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머리털은 신성한 진리의 말단에 상응된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은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에서 충만한 상태로 존재한다. 이런 상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머리를 망신거리로 생각하게 되었고,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라고 놀린 아이들이 암곰에게 찢겨 죽었던 것이다. 세례자 요한을 포함해서 많은 예언자들이 털이 많은 의복을 걸쳤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 1장 14절에서 “주님의 머리털은 양털같이 또는 눈같이 희다”라고 기술되기도 하다. 말씀의 글자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그분에게서 권능을 받는 유일한 수단이다.

우리는 마음속에 저장한 말씀의 글자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심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매일 읽음으로써 그분의 현존과 권능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온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게다가 주님은 그분의 재림에서 말씀을 여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이고 천적인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여 주님께서 이를 삶에 꾸준히 응용해 갈 수 있도록 섭리해 두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받쳐주며 담고 있고 기초가 되는 것은 말씀의 글자임을 다시 강조해둔다. 우리는 말씀의 글자를 영적 의미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는 스웨덴북이 여러 번 강조한 사항이기도 하다. 즉,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털이 잘리자 사라지고 말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새교회인

특히 영적 의미를 많이 다루는 새교회를 위한 특별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 지식 속에서의 기쁨이 모든 영적 힘의 근원에서 분리되도록 미혹당하는 일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질문 정리

- 1)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후손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 2)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 3) 그들이 주님께 얼굴을 돌릴 때 그분은 어떻게 도우셨는가?
- 4) 삼손은 어느 지파에 소속되는가?
- 5) 그가 장차 어떤 신분이 된다고 그의 부모에게 말했는가?
- 6) 나지르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 7) 삼손이 사는 지역에서 어떤 적이 이스라엘을 위협했는가?
- 8) 삼손의 힘의 비밀은 무엇이었는가?
- 9) 그의 약점은 무엇이었는가?
- 10) 그가 처음 블레셋 여자에게 갈 때 드러난 그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 11) 그는 두 번째 방문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12) 그는 어떤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었는가?
- 13) 그 이후의 삼손의 삶과 죽음은 어떠했는가 ?
- 14) 블레셋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털에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6) 삼손의 수수께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질문의 답

- 1) 하느님을 잊었다 2) 적들이 봉기했다 3) 판관들 4) 나지르인
- 6) 머리털을 깎지 않음 7) 블레셋 8) 머리털 9) 여인, 자만
- 10) 사자를 죽임 11) 꿀

- 12)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 13) 머리털이 잘리고 눈이 빠졌다
- 14) 진리를 알고자 하나 그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은 자
- 15) 말단적인 것들에 있는 권능 16) 행복은 투쟁으로부터만 비롯된다

15

왕을 요구하는 백성

머리말

먼저 사무엘 이전의 판관들과 판관인 사무엘의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무엘의 출생과 부르심을 살펴보면서 본문의 공부를 시작한다.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8장

8장: 1.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지자 두 아들을 판관으로 임명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2.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였다. 이들은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3. 그런데 사무엘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 잇속만 차려 뇌물을 받고는 법대로 다스리지 못하였다. 4.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곳에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 가 5. 건의하였다. “당신은 이제 늙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을 세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6. 사무엘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시오”하는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야훼께 기도하니 7.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백성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 주어라. 그들은 너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모시기 싫어서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8.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려 나온 이후 이날 이때까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런 짓을 해왔다. 너한테도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다. 9. 그러니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 주어라. 그러나 엄히 경고하여 왕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일러 주어라.” 10.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달라는 백성에게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낱낱이 일러 주었다. 11. 사무엘은 이렇게 일러 주었다. “왕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알려 주겠다. 그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대나 기마대의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12. 천인대장이나 오십 인대장을 시키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거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보병의 무기와 기병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다. 13.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도 하고 요리나 과자를 굽는 일도 시킬 것이다. 14.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좋은 것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 곡식과 포도에서도 십 분의 일세를 거두어 자기의 내시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16. 너희의 남종 여종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좋은 소와 나귀를 끌어다가 부려 먹고 17. 양떼에서도 십 분의 일세를 거두어 갈 것이며 너희들마저 종으로 삼으리라. 18. 그 때에 가서야 너희는 너희들이 스스로 뽑아 세운 왕에게 등을 돌리고 울부짖겠지만, 그 날에 야훼께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19.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 주었던만 백성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을 모셔야겠습니다. 20. 그래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려 줄 왕,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 줄 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1.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나서 야훼께 아뢰니, 22. 야훼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 주어라”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모두들 자기의 성읍에 가 있으라고 일렀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각 상태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
- *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변화과정을 여실히 보여 준다.
- *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주시는 원리들을 이해하고자 함은 당연한 바램이다. 그러나 이런 바램의 혜택을 즐기려면 그 뒷면인 어려운 점을 반드시 인식해 두어야 한다.
- * 스스로 어떤 것을 해보고자 하는 선택에는 주님을 거절하는 면이 약하든 강하든 언제나 있게 된다.

상응 연구

사무엘 = 전체적인 면에서의 주님의 말씀

왕 = 통치하는 원리

해설

우리의 영적인 삶은 회전하면서 진보해간다. 어떤 높은 탑을 올라 갈 때 놓인 나사못 같은 층계를 연상하면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의 이야기는 또 다른 시작점, 즉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 또 다시 한 바퀴를 돌려는 전환점에 들어서는 시기에 해당된다. 이 전환점의 특징은 20절에서 언급되는 바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어서 선의 측면보다 진리의 측면을 더 선호하여 선택하려고 한다. 본문의 이야기는 아굽과 에사오 같은 형제간에 대한 의미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임을 미리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문에 언급되는 선택의 측면은 아주 미묘하고 복잡하다. 그 이유는 왕이 등극하여 사무엘을 밀어 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사무엘이 실질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왕의 선택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무엘의 출생이나 그를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외의 이야기, 즉 그가 성경의 이야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실제적인 위치를 고려해보아야 한다. 사무엘의 이야기가 판관기서에서 시작되지 않아서 그가 마지막 판관으로서 판관시대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열왕의 시대가 곧바로 성경에서 부각되어서 사무엘이 열왕의 시대와 겹쳐져 있다는 것도 소홀하게 다뤄진다. 우리는 그가 사실 이스라엘의 둘째 왕인 다윗을 기름 부을 때까지 살았다는 것, 사무엘하서의 경우는 다윗의 통치 말기에 관하여 알려준다는 것 그리고 성서의 책이름 역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이므로 그의 역할과 위치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변화란 성경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갑작스레 오는 것이 아님을 예증해 준다. 우리는 변화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있게 된 것처럼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변화는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조건들이 잘 조정되도록 주님의 시야에서 언제나 예견되고 준비되어진다.

앞서 살펴본 사항과는 달리 스웨덴본은 그의 저서에서 사무엘에 관한 두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의아스럽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는 「계시록 설명」 제 750-21항에서 “모세와 사무엘은 그 표현상에서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즉, 판관들이 지방적인 판관으로서

개별적인 진리를 표현하지만 사무엘은 전 지역의 판관으로서 인정되어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인다는 측면으로 볼 때 모세처럼 일반적인 진리 곧 말씀 전체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성서의 이야기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판관들이 일생동안 전투에서 주님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반면 사무엘은 군사적 측면보다 종교적 측면에서 백성을 이끌었던 것이다.

스웨덴봄은 두 부분에서 사무엘의 기능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는 「천국의 신비」 제 6148항에서 “신성한 선은 성직자에 의해, 신성한 진리는 왕에 의해 표현되었다. 고대의 표현적 교회에서 성직자 직과 왕권은 한 사람 안에서 연합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주님에게서 진행되는 선과 진리가 하나이고, 천국의 천사에 있어서도 그 둘이 연합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표현적인 교회가 아굽의 후손사이에서 구성되어 한 사람이 주님에서부터 흐르는 신성한 선과 진리를 동시에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두 기능은 분리되었다. 백성을 통치한 이들은 ‘지도자’ 후에는 ‘판관’이라고 불린 반면 거룩한 일들을 담당한 이들은 ‘성직자’라고 불렸다. 이 성직자 들은 아론의 후예와 레위인 중에서 임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능은 후에 한사람 안에서 결합하게 되었는데, 그 인물은 엘리와 사무엘이었다.” 이를 통해 사무엘이 비록 레위인은 아니지만 성직자 이면서 판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무엘상 3장 20절에서 그가 주님의 예언자로서 모든 백성들에 의해 공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판관시대의 정점은 사무엘 시대 때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성한 리더십 없이 편안히 지내오자 했던 이 백여 년 동안의 혹독한 경험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주님을 예배하는 데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깨달았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사무엘은 실로의 성막에서 성장한 후에 그 땅의 중심인 라마에 정착했다. 그는 그곳을 거점으로 하여 백성을 판결해주기 위해 여러 지역을 순회했다. 우리가 이쯤에서 상기해야 할 사항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 궤가 성막에서 꺼내져 전쟁터로 옮겨졌던 것과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궤를 빼앗긴 후 되돌아오긴 했지만 그 궤가 원위치로 다시 놓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사항들은 본문 당시의 백성들의 예배 속에 이미 신성이 비어있었음을 암시해 준다. 이 사항은 「천국의 신비」 제 6148-5항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이 백성들 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 강세를 떨쳐 그들 사이에 있던 표현적인 교회마저 유지되지 못하였고 다만 빈 껍질로서의 교회만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두 기능이 분리되도록 허용되었고, 신성한 진리는 왕이 표현하도록 하고 신성한 선은 성직자 에 의해 표현되도록 섬리되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백성들의 의지에 의해서 있어진 것임은 사무엘에게 내린 여호와의 말씀에서 확실해진다(사무엘상 8:7, 12:19-20).” 백성들은 주님을 예배하되 사무엘

이 표현하는 신뢰함과 순종함의 측면에서 예배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다른 국가들처럼 자기들을 군대로 무장시켜 적들을 부수게 해 줄 왕을 원하면서 예배할 뿐이었다.

「천국의 신비」 제 6148-6항에서는 본문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즉, “신성한 선에서 분리된 신성한 진리는 모든 이를 질책한다. 반면에 신성한 선과 결합된 신성한 진리는 구원해준다. 그 이유는 인간이 신성한 진리 만에 의하면 지옥으로 가게 되고 신성한 선에 의해서는 들림을 받아 천국으로 올려지기 때문이다. 구원은 자비인 신성한 선속에 존재하고, 저주나 질책은 인간이 자비를 거절할 때 곧 신성한 선을 스스로 거절할 때 야기된다. 이리하여 인간은 진리에 의거한 심판에 서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생각을 근거로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진 후 그들이 왕의 요구에 저항하면 당하게 될 ‘왕의 태도’를 그들에게 말해주라고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유도 설명된다. 본문 11-18절에 언급되는 사항들은 선에서 분리된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에 관한 것이다.

아래의 인용문헌에서 주어지는 본문에 대한 설명은 내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에 관한 것이어서 유대교회의 역사에 본문이 적용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개인의 삶에도 이 설명을 쉽게 응용할 수 있다. 개인의 삶의 측면에서 판관기의 시대란 스스로 거듭날 수 있다고 자신하여 더 이상 시험과의 투쟁 없이도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 나가 즐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시기를 말한다. 이러한 생각과 판단은 자신 속의 악과 약함을 노출하게 되어 재난을 초래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 이겨 보겠다고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에는 주님께 의지 하고자 그분께로 되돌아오도록 만든다. 되돌아오는 형태는 우리의 어린 시절의 형태, 즉 순종함과 신뢰함이라는 형태의 옷을 입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예언자인 사무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 이런 시기의 우리는 사실적인 어린아이는 아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지닌 무지의 순진을 거쳐 간 지 오래고, 지혜의 순진에 도달되기에는 아직 먼 길을 걸어야 하는 지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의 우리는 자신이 따라야 할 종교 원리를 스스로 독파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님은 결코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걷고 있는 길의 상태에 알맞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그분의 통치형태를 채택하면서 왕을 가지도록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채용할 원리에 따라 요구될 희생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경고해두신다.

질문 정리

- 1) 누가 마지막 판관인가?
- 2) 그는 어디서 성장했는가?
- 3) 사무엘이 어릴 때 누가 대제사장이었는가?
- 4) 사람들은 사무엘이 예언자임을 어떻게 알았는가?
- 5) 사무엘과 다른 판관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6) 사무엘의 고향은 어디인가?
- 7) 그가 고령이 되어서 백성들을 불만족하게 한 일은 무엇인가?
- 8) 백성들은 무엇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는가?
- 9) 사무엘은 이 요구를 반겼는가?
- 10)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이 무엇 같다고 말했는가?
- 12)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은 마음을 바꿨는가?
- 13) 왕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4) 사무엘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사무엘 2) 실로 3) 엘리 4) 주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5) 종교적 지도자, 전 백성이 지도자라고 인정했다 6) 라마 7) 자기 아들에게 판결하게 했다 8) 왕 9) 반기지 않았다
- 10) 왕을 세워 주시오 11) 거친 감돉 12) 바꾸지 않았다
- 13) 우리 삶을 통치하는 진리들 14) 전체적 측면에서 우리 삶의 질서를 잡아주는 말씀

16

아각왕을 살려둔 사울

머리말

사울의 기름부음, 제비로 뽑혀진 사울, 사울의 용모에 흠족해한 백성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전투에서의 승리 등을 언급하면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첫 변절에 관한 10장 8절과 13장 8-14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5장

1.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였다. “야훼께서 나를 보내시어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소. 그러니 이제 야훼의 말씀을 들으시오. 2. 만군의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이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 즉,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하였다. 3. 그러니 너는 당장에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 재산을 사정 보지 말고 모조리 없애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여야 한다.’”

4. 그래서 사울이 총동원령을 내리고 벨라임에서 점호해 보니 보병이 이십 만이었고 유다측에서도 일만이 가담했었다. 5. 사울은 아말렉의 시에 이르러 골짜기에 군인들을 잠복시켜 놓고 5. 켄

사람들에게 전갈을 보냈다. “아말렉 편에서 떨어져 내려오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대들이 그렇게 잘해 주었는데 우리가 아말렉을 칠 때 그대들까지 치는 불상사가 일어나서야 되겠는가?” 이 말을 듣고 켄 사람들은 아말렉에서 떨어져 나왔다. 7.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 하월라에서 시작하여 이집트 동쪽에 있는 수르까지 따라 가며 쳤다. 8. 그는 아말렉 왕 아각만 사로잡고 나머지 군대는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9. 사울이 거느리는 이스라엘군은 아각 뿐 아니라 양과 소 중에서도 좋은 놈, 기름진 짐승과 새끼 양들과 그 밖에 모든 탐스러운 것들을 없애 버리기가 아까워 그대로 살려 두고 쓸모없고 하찮은 것들만 없애 버렸다.

10. 이 일이 있은 후 야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내렸다. “나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렸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애가 타서 밤새도록 야훼께 부르짖었다. 12. 이튿날 아침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나서자 누가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해 주었다. “사울왕은 오는 길에 가르멜에다 자기의 승전비를 세워 놓고 그곳을 떠나 길갈로 내려 갔습니다.”

13.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 만나자 사울이 “야훼께 복을 받으십시오. 저는 야훼께서 시키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하며 인사를 하였다. 14. 사무엘이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이요? 또 소 우는 소리도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이요?”하고 물었다. 15. 사울이 “군인들이 아말렉에게서 빼앗아 온 것입니다. 양떼, 소떼 중에서도 좋은 놈을 살려 두었다가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느님께 잡아 바치려고 끌어 온 것입니다. 그 밖의 것은 모조리 없애 버렸습니다”하고 변명하자 16. 사무엘이 “그만하십시오. 지난밤 야훼께서 나에게 내리신 말씀을 전할 터이니 들으시오”하고 말하였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17. 사무엘이 입을 열었다. “그대는 본래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야훼께서 그대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다. 18. 야훼께서 그대를 출정시키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소? ‘가서 저 못된 아말렉족을 없애 버려라. 그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전멸시켜라’고 하지 않으셨소?

19. 그런데도 그대는 어찌하여 야훼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전리품에만 덤벼들어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소?” 20.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였다. “나는 야훼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야훼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서 아말렉을 전멸시키고 아말렉 왕 아각만 잡아 왔습니다. 21. 단지 군인들이 죽여 없애야 할 짐승 가운데서 양과 소를 좋은 놈으로만 잡아 왔습니다. 그것도 길갈에서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느님께 잡아 바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22.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야훼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번제나 친교제 바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분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염소의 기름보다 낫소. 23. 그분을

거역하는 것은 점장이 노릇만큼이나 죄가 되고 그분께 대드는 것은 우상을 위하는 것만큼이나 죄가 되요.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키실 것이요.”

24. 사울이 사무엘에게 빌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군인들이 무서워서 야훼의 명령과 선생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25. 이제 부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야훼께 예배를 드리러 돌아 갈 터인데 함께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26. “같이 갈 수 없소. 그대가 야훼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야훼께서도 그대를 이스라엘 왕위에서 밀어 내실 것이요.” 이 말을 남기고 사무엘이 27. 돌아서 가려고 하자 사울이 도포를 붙잡는 바람에 도포자락이 찢어졌다. 28. 사무엘이 그에게 일렀다. “야훼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그대에게서 찢어 내시어 동쪽 가운데서 그대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주셨소. 29. 이스라엘을 비추시는 이는 빈말을 하시거나 변심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는 사람처럼 번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시오.” 30. 사울이 애원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한 번만 보아 주십시오. 내가 선생께서 모시는 야훼 하느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선생께서 저와 함께 돌아 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31. 그리하여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 갔다. 사울은 야훼께 예배를 드렸다.

32.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아말렉 왕 아각을 데려 오라고 하였다. 아각은 마침내 죽을 고비를 넘겼나 보다고 생각하며 좋아서 사무엘 앞으로 나왔다. 33. 그러자 사무엘이 “너의 칼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자식을 잃었는지 아느냐? 네 어미도 그런 여자들처럼 자식을 잃어야 마땅하다”하며 야훼 앞에서 아각을 난도질하였다.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다. 34.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궁궐로 돌아갔다. 35.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야훼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셨다가 후회하신 일을 생각하고 통곡하여 마지않았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순수하고 이타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서 이기심을 몰아내는 일을 무엇보다 먼저 추진하신다.
- * 말씀에 관한 우리의 첫 이해성은 외적으로 나타난 것에 기초를 둔다.
- * 주님을 믿는다 함은 설사 우리의 판단에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 우리의 유전적인 자아 사랑으로부터 많은 생각들이 비롯됨을 인식해야 한다.

상응 연구

사울 = 신성한 진리를 자연적으로 이해함 또는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아각 = 자아만족이 삶을 통치하는 원리

해설

이스라엘의 전국을 통치한 세 왕들인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은 우리 삶을 통치하는 주님의 신성한 진리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 세 왕들과 싸운 적들은 신성한 진리가 우리 삶을 통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우리속의 악과 거짓을 상징한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은 결코 완벽한 인물들이 아니었고, 그들의 전투 역시 모두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 이는 신성한 진리의 어딘가에 허점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십인십색의 인간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신성한 진리는 그만큼 다양하고 더욱이 같은 진리라 하더라도 삶을 통해 있게 되는 각자의 진보의 단계에 따라 다른 단계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넓은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왕들의 시대는 성인의 상태, 즉 각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그 선택에 책임져야 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시기는 우리의 거듭나는 삶을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땅에 들어와 있어서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 되어 있다. 하지만 판관기가 그러주듯이 우리는 시험을 거쳐 가면서 신성한 진리의 통치하에 우리의 안과 밖의 악들을 정복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임을 인정한다. 이는 본문에서 사무엘이 여전히 주님의 예언자로 군림하는 것의 의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언제나 승리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불완전하고 자아사랑과 오만함으로 기울려는 우리의 유전적인 경향성이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하면서 진리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경향성을 어떤 때는 인식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허다함을 미리 인식해야 할 것이다. 사울은 우리가 거듭나는 단계에서 신성한 진리를 처음 보았을 때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진리를 표현한다. 사울도 백성들로부터 환영받았다. 그 이유는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서자 그들의 키가 모두 그의 어깨에도 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주님은 사무엘에게 “이제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 주어라”고 하시며 사울을 선택하셨고, 사무엘에

게 사울을 기름 붓도록 명령하셨다. 주님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의 자유가 보존 되도록 하신다.

교회내의 청년층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울의 통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뭔가 잘해 보려는 것 곧 선한 측면으로 인생을 이끌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세상을 덜 살았다는 측면에서 경험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출발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은 제 9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사울이 하는 대답으로 의미되고 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그렇지만 저는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저희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저의 문벌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초라합니다. 그런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사울은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제비로 왕을 뽑을 때 왕으로 발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짐작이 든 틈에 숨어 있었다.”라는 구절을 통해 그의 겸손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사울은 청년들처럼 용감하며 열성적이어서 기꺼이 전투에 앞장섰다. 그래서 그는 첫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했는데, 그 전투의 적은 암몬족으로서 요르단 건너편인 아베스길랏을 공격했던 자들이었다. 이 적을 물리쳤다고 함은 우리가 명백히 보이는 외적인 시험은 잘 이겨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첫 승리는 사울이 왕으로서 백성들로 하여금 인정받도록 해주었지만, 내면 상으로는 그가 왕으로서 부적당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유는 승리를 얻게 된 후 그의 머리가 이상해졌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가 승리로 인해 주님대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청년 시절에 이러한 사울과 같은 모습을 한때나마 드러내게 된다.

사울의 성급함은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언급되는 13장에서 드러난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 이전에 사무엘이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친 후에 접전하라는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 칠일 동안 기다렸어야만 했다. 그러나 사울은 공격해온 블레셋 진영의 세력과 그의 군사들이 하나둘씩 빠져 도망가는 모습에 성급해져서 자신도 사무엘처럼 번제를 드릴 수 있다고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울처럼 진리를 보는 우리의 첫 이해성은 현상, 즉 눈에 보이는 사실에 기초 하게 된다. 이런 이해성을 가진 우리는 어떤 일의 진행이 지연됨을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그 일을 치루기 위해 허둥지둥하게 된다.

“야훼께서 우리를 도와만 주신다면 적의 수가 많은 적은 무슨 상관이겠느냐”라고 말한 요나단이 자신의 힘보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감행한 과감한 돌격으로 인해 블레셋 진영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울이 공격할 수 있게 되어 적군을 무찌를 수 있었다. 진리에의 순종 없이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블레셋이란 적으로 표현되는 시험

이다. 이 시험은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과신하는 한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이다.

본문은 사울이 비록 이후에도 오랫동안 왕으로 군림했지만 그가 왕으로서 결국 실패했다고 전하고 있다. 아말렉족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집트를 떠난 뒤 처음 대적한 적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 적과 싸울 때 산에 올라가 주님을 향해 두 팔을 쳐들고 아론과 후르가 그 두 팔을 받쳐 해가 질 때까지 버팀으로서 승리할 수 있었다. 아말렉족은 내면에 든 악에서 비롯된 거짓을 상징한다. 스웨덴본은 「천국의 신비」 제 8593항에서 아말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간의 속 깊은 데에 감추어 놓인 악들 곧 내면에 든 악들은 인간의 의지 속에 감추어져 있고, 이로부터 인간의 생각 속에도 감춰져 있어 인간의 외부에 속한 것인 행동이나 언어 또는 얼굴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저 세상에서 이런 종류의 악 속에 있는 이들은 악령이라고 불리지 않고 이블 지니(evil geni)라고 불린다. 이 악이 인간을 침해하는 과정에서 파괴하려 드는 것은 믿음속의 진리가 아닌 믿음속의 선들이다. 왜냐하면 이 악들은 부패된 애착들을 수단으로 행동하여 선한 생각들을 전복시키는데, 이런 방법은 납득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 악들은 공개적으로 인간을 공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원기 왕성하게 저항할 때는 공격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선을 이루는데 지쳐 있거나 느슨해져 있을 때에 갑자기 덮쳐 인간을 엿어버린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면 자연적 수준에서 신성한 진리를 이해함을 표현하는 사울이 현상에 기초한 까닭과 사울이 자신에게 좋게 보이는 것들이 적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려 두었던 이유 그리고 사울이 아말렉의 왕을 살려 두었던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본은 본문 32절과 연관 지어 이블 지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것들이 고상하게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감언이설에 의한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은 영을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연장자들은 젊은이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이른바 ‘성급하여 덥석 덮에 걸리는 판단’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끊임없이 도와야 할 것이다.”

본문 22-25절을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자. 사울은 주님께서 명백히 주신 명령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실제적인 왕권에 중지부를 찍고 말았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서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갔고 다윗에게 기름 붓자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무엘의 도포가 사울로 말미암아 찢어지는 모습은 이 변화에 대한 암시이다. 「계시록 설명」 395-5항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사무엘이 명확하게 만든 것, 즉 ‘외투자락이 찢김’은 사울로부터 왕국이 찢김을 의미하는데, 사무엘이 말한 ‘야훼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을 그대에게서 찢어 내시어 동쪽 가운데서 그대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주셨소.’라는 구절로 알 수 있다. ‘왕’ 또는 ‘왕권’이란 교회

속에 있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하고, ‘외투자락’이란 교회속의 아주 작은 세부사항들 속에 있는 신성한 진리 곧 큰 진리 안에 있는 작은 진리들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후손위에 군림한 왕은 신성한 진리와 관련된 주님을 표현하며, 그 왕국이란 신성한 진리와 관련된 교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문의 역사적 사실은 왕인 사울이 더 이상 주님을 표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과 그 왕국이 사울에게서 찢기지 않게 되면 교회를 표현했던 것마저 절멸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질문 정리

- 1) 첫 왕은 누구인가?
- 2) 그는 어떻게 왕으로 선출되었는가?
- 3) 왜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됨을 기뻐했는가?
- 4) 그는 어느 영토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는가?
- 5) 그가 두 번째 맞이한 적은 누구인가?
- 6) 그는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가?
- 7) 그는 누구의 도움으로 승리했는가?
- 8) 본문에서 사울에게 어떤 적을 공격하라고 명령되었는가?
- 9)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이 적에 대하여 공부했는가?
- 10) 이 적과의 최초 전투에서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 11) 주님은 이 적을 어떻게 쳐부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는가?
- 12) 사울은 어떻게 불순종했는가?
- 13) 사무엘은 사울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14) 어떤 징조가 발생했는가?
- 15) 사무엘은 아각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 16) 아말렉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왕으로서의 사울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사울 2) 제비로 3) 키가 크고 힘이 세서 4) 요르단 건너 지역 5) 불레셋
- 6)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다 7)요나단 8)아말렉
- 9) 출애굽 후 광야에서의 최초의 적이었다 10) 모세가 팔을 들고 있음으로
- 11) 완전히 파괴하라 12) 왕과 좋은 가족을 살려 두었다
- 13) 그는 왕국을 잃게 된다 14) 도포가 찢어짐 15) 사무엘이 그를 죽였다
- 16) 내면의 악에 기초한 거짓 17) 진리를 세상적으로 생각함

17

다윗과 예언자 나단

머리말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저지른 불순종은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그대에게서 찢어 내서어 ...”라는 사무엘의 엄명이 떨어지게 함과 더불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 다음 사울이 계속 왕위에 있는 동안 다윗의 생애는 사울과 겹쳐진다. 따라서 이 두 왕의 상이점과 다윗의 업적을 살펴보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사무엘하 12장 1-25절

1. 야훼께서 예언자 나단의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2.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매우 많았지만, 3. 가난한 이에게는 품삯으로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제 자식들과 함께 키우며, 한 밭그릇에서 같이 먹이고 같은 잔으로 마시고 잘 때는 친딸이나 다를 바 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4.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 왔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은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 새끼양을 빼앗아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5. 다윗은 몹시 패썹한 생각이 들어 나단에게 소리쳤다.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6. 그런 인정 머리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 둘 수는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네 배로 갚게 하리라.”

7.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울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8. 나는 네 상전의 딸과 아내들까지 네 품에 안겨 주었다. 나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딸들까지 너에게 주었다. 그래도 모자란다면 어떤 여자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9.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알아보며 내 눈에 거슬리는 짓을 했느냐? 너는 헛 사람 우리야를 칼로 쳐 죽였다. 암몬군의 칼을 빌어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10. 네가 이렇게 나를 알고 헛 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으니, 너의 집안에는 칼부림 가실 날이 없으리라.’ 11. 야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네 당대에 재난을 일으킬 터이니 두고 보아라. 네가 보는 앞에서 네 계집들을 끌어다가 딴 사내의 품에 안겨 주리라. 밝은 대낮에 네 계집들은 욕을 당하리라. 12. 너는 그 일을 쥐도 새도 모르게 했지만, 나는 이 일을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리라.’”

13. “내가 야훼께 죄를 지었소.” 다윗이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자 나단이 말하였다. “야훼께서 분명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금님께서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14. 그러나 임금님께서 야훼를 알아보셨으니, 우리야의 아내가 낳게 될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15. 나단은 이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야훼께서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 준 아이에게 중병을 내리셨다. 16.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베옷을 걸친 채 밤을 새우며 어린것을 살려 달라고 맨땅에 엎드려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17. 늙은 신하들이 둘러서서 일어나라고 했으나, 그는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더불어 음식을 입에 대려고도 하지 않았다. 18. 아기는 마침내 칠 일만에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신하들은 다윗에게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차마 알리지 못하고 수군거렸다. “아기가 살아 있을 때에도 우리 말을 듣지 않으셨는데,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면 무슨 변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는 아이가 죽었음을 알아채고 아기가 죽었느냐고 물었다. 신하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20. 다윗은 땅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야훼의 전에 들어가 예배를 올렸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 와 음식을 차려 오게 하여 먹기 시작하였다. 21. 신하들이 물었다. “아기가 살아 계실

때에는 잡수시지도 않고 아기 생각만 하며 우시더니, 막상 아기가 돌아 가시자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어찌 된 일이십니까?” 22. 그가 대답하였다. “그 애가 살아 있을 때 굶으며 운 것은 행여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아기를 살려 주실까 해서였소. 아기가 이미 죽고 있는데 굶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내가 굶는다고 죽은 아이가 돌아오겠소? 내가 그 애한테 갈 수는 있지만, 그 애가 나한테 돌아 올 수는 없지 않소?”

24. 다윗이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니 바세바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야훼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25. 야훼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시어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라 하여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내리셨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오직 우리의 선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슬픔을 허용하신다.
- * 성서의 하느님의 말씀은 모두 비유이다.
- *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까닭은 타인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 * 우리는 더 이상 악에 빠질 염려가 없다는 수준의 선한 상태에까지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상응 연구

다윗 = 영적 추론으로 보게 되는 신성한 진리의 법칙

해설

이스라엘의 둘째 왕인 다윗은 영적으로 이해된 신성한 진리의 법칙을 상징한다. 이처럼 영적으로 진리를 이해하게 된 것은 사울이 표현하는 것인 진리를 자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적당했음을 실감한 결과인 것이다. 하지만 영적 이해성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규율해 가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다윗의 생애 초기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는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던 중 부름을 받아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어졌다. 그는 하프 연주자여서 사울의 궁전으로

불려 지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골리앗을 돌팔매로 쳐서 눕혔고, 사울의 아들 인 요나단과 깊은 우정을 나누워 사울의 시기심으로부터 요나단에 의해 건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 속의 세부 사항은 우리 마음에서 있게 되는 신성한 진리에 대한 자연적인 이해와 영적인 이해 사이의 첫 번째 상관관계들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앞서 살펴본 바 있는 요셉과 보디발 그리고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와의 관계이다(창세기 39장). 그래서 다윗이 망명해 있던 시기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던 시기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요셉의 사건은 우리 삶의 전반을 표현하는 반면 다윗은 우리 삶의 후반에 해당되는 것을 표현한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뒤에도 즉시 전국을 통치하지 못했는데, 이는 사울의 군대의 대장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위에 앉혔기 때문이다. 이 때 다윗은 남쪽지역의 백성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어 헤브론에서 칠 년간 통치했다. 그리고 칠년 후 이스보셋이 그의 측근들에 의해 살해되자 북쪽지역의 백성들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이스라엘 영토의 일시적인 분할은 솔로몬이 죽은 후 있게 될 분단을 예시하는 것이다. 영토의 남쪽 부분은 마음 또는 의지를 표현하고, 북쪽지역은 이해성을 표현한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다. 헤브론에서의 다윗의 통치란 우리의 이해성이 주님께서 우리의 어린 시절에 우리 안에 아껴두신 것인 순진한 심정 상태를 충분히 인정하는 상태에 도달되기도 전에 영적인 진리를 받아들이는 의미한다. 다윗은 북쪽지역의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었다. 여부스족이 그때까지 견고한 시온성 안에서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통일 국가의 왕인 다윗은 즉시 그 성을 함락시켜 수도로 삼았고 그곳에 궤를 옮겨 두었다. 또한 그는 그곳을 중심으로 사방의 이스라엘의 적들을 소탕하여 유례없는 영토 확장을 이루었다.

우리는 성공을 거듭해가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가 사무엘하 11장에서의 갑작스런 변화로 섬뜩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즉, 그가 바세바를 보고 탐이 나자 그녀를 취한 후 심지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그녀의 남편인 우리야를 전쟁터로 보내 죽게 만들었던 것이다. 다윗은 이때로부터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는 했지만, 내부의 곤경들 곧 그의 아들인 압살롬의 음모를 시작으로 하여 아도니야의 계략에 이르기까지 그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재난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본문에서 이를 나단이 “야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네 당대에 재난을 일으킬 터이니 두고 보아라.’”라고 예언하고 있다.

다윗의 생애와 업적에서 볼 때 전환점의 시기는 그가 자신의 권력에 자신감을 갖고 계명을 소홀히 다룬 순간에서부터였다. 다윗은 계명뿐만 아니라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힘을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지혜나 힘으로부터 이뤄진 것이 아님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세바를 소유하고자 왕의 권력을 남용했으며 계명을 깨트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간음과 살인이라는 범죄는 영적 생명과 정 반대되는 죽음 그 자체이다. 순수한 결혼 속의 사랑은 모든 천국적인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데서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반대되는 것은 천국이 닫히도록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진은 천국적인 상태를 이루는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간음과 살인은 지옥의 특성에 속한다(마태복음 5:21-28 참조). 이 두 범죄의 시험에 노출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주님의 진리를 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도 그것이 남용될 수 있고 자신의 악한 바램을 정당화하는 데에 그것을 오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치닫게 되는 까닭은 ‘내가 거둬나는 삶의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계명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을 거야’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실사 우리가 거둬나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완벽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었다할지라도 계명에 의거해서 우리의 삶을 항상 비추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욕신을 벗기 전에 즉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주님의 선물을 남용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타인을 해치는 데에 오용하면 제아무리 거둬나는 삶이 진보되거나 자신의 신앙이 월등하다고 자타가 공인 하더라도 높이 올라간 만큼 더 깊은 지옥의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에제키엘 18:24 참조). 요즘 추세인 근대적 사고 중 하나는 주님의 계명들이 시대에 뒤쳐지는 케케묵은 규정들이므로 시대에 알맞은 규정들로 방향을 재조정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진리를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 악용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노골적으로 그의 죄과를 물었더라면, 다윗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나단을 제거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단은 이 문제를 제삼자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빚대어 말함으로써 다윗이 그 이야기 속에 들어 있는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했다. 따라서 나단의 비유 속에 다윗의 자아사랑을 건드려 성나게 할 것이 전혀 없었던 고로 그 순간 다윗의 자아 사랑에 의한 판단은 잠시 눈이 멀어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그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분명히 있어졌던 것이다. 그러자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다윗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심판하여 받게 될 처벌이 무엇이든간에 정당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게 되었다. 이 방법은 주님이 말씀을 수단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방법이기도 하다. 말씀은 우리에게 닥칠 모든 상황을 비유로 보여주면서 우리 스스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옳고 그름을 판가름 하도록 하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악의 결과까지 보여준다. 그 다음 우리가 예언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말씀은 우리의 악함과 죄들에 관하여 “네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해준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의 글자를 기억 속에 저장해놓고 그 말씀을 삶에 응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문제에 직면할 준비를 갖추게 되며 각 문제점들을 공정하게 판가름 할 실력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불법적인 결합의 소산, 즉 다윗이 바세바와 정을 통해 얻은 첫아들은 결국 죽었다. 생명이 있는 영적 원리는 계명의 글자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어떤 시도로부터도 근원되지 않는다. 즉, 우리에게 매우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리가 어떤 것이 올바른 경로로 획득되고 그것이 순수하고 선한 쪽에서 흥미를 두고 움직이고 있다해도 계명의 글자에 대한 순종의 의무를 게을리 한다면 살아 있는 영적 생명이 눈곱만치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다. 첫아이가 죽기 전에 있었던 그의 단식은 우리가 행한 죄과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연적 수준에서의 희망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빠진 후 그 죄를 인정한 이상 우리 역시 다윗처럼 새롭게 일어나서 시작해야만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과거의 쓴 경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새 힘이 우리 안에서 발달된다.

질문 정리

- 1)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구인가?
- 2) 그의 고향은 어디인가?
- 3) 그의 첫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 4) 누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 5) 그는 무엇 때문에 사울의 관심을 사게 되었는가?
- 6) 그는 골리앗을 어떻게 때려 눕혔는가?
- 7) 다윗은 어디에서 처음으로 통치를 시작했는가?
- 8) 그는 얼마동안 그곳에서 통치했는가?
- 9) 그는 전 국토의 왕이 된 후 어떤 성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았는가?
- 10) 그가 그 성에 모신 아주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 11)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성취한 업적은 무엇인가?

- 12) 그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 13) 주님은 그를 견책하도록 누구를 보냈는가?
- 14) 나단은 어떤 비유를 다윗에게 들려주었는가?
- 15) 다윗은 비유속의 사람을 어떻게 판결했는가?
- 16) 그런 다음 나단은 다윗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17) 다윗은 어떻게 나단의 질책을 받았는가?
- 18) 왜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로 먼저 말했는가?
- 19) 사울과 다윗의 상응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다윗 2) 베들레헴 3) 목자 4) 사무엘 5) 하프연주자였기 때문
- 6) 자갈과 돌팔매로 7) 헤브론 8) 7년 9) 예루살렘 10) 궤
- 11) 주위의 모든 적을 정복했다 12) 바세바와 정을 통했다 13) 나단
- 14) 부자와 가난한자, 암컷 새끼 양 15) “죽일 놈”
- 16) “네가 그 사람이다” 17) 회개했다 (시편 51편 참조)
- 18) 공정한 판단과 자신의 생명을 보전받기 위함
- 19) 사울 - 진리에 대한 자연적 수준에서의 생각, 다윗 - 진리에 대한 영적 수준에서의 생각

솔로몬의 최후

머리말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의 둘째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다. 그의 이름의 뜻, 다윗의 통치와 그의 통치의 상이점, 그의 지혜와 영예 그리고 성전건축에 관하여 언급한다. 그리고 그가 우상숭배로 전락한 원인이 아내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그의 아내들의 우상숭배 때문이었음을 강조한다. 또한 여로보암이 받은 겔옷 조각과 사울이 찢은 사무엘의 도포조각을 연관 지어 생각해본다(사무엘상 15:27-28).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11장 1-13절, 26-43절

11장: 1. 솔로몬왕은 매우 호색이었으므로 수많은 외국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었다. 파라오왕의 딸뿐 아니라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등 외국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 들였다. 2. 야훼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국인들과 결혼을 금지하시고 경고하시기를 “너희는 외국 여자를 아내로 삼지 말고 외국 남자를 남편으로 삼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꺾어 그들의 신에게 너희를 유인해 가겠기 때문이다”라고 하신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 외국 여인들과 깊은 사랑에 빠졌던 것이다. 3. 솔로몬은 무려 칠백 명이나 되는 후궁을

거느렸고 그 외에 수청 드는 여자가 삼백 명이나 되었다. 왕은 여인들에게 빠져 마음이 흐려졌으므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4. 솔로몬은 늙어 그 여인들의 꾀에 넘어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왕은 선왕 다윗만큼 자기 하느님 야훼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 5. 솔로몬은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도렛을 섬겼고 암몬인들의 우상 밀곰을 숭배하였다. 6. 이와 같이 솔로몬은 선왕 다윗만큼 야훼를 따르지 못하였고 야훼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다. 7.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편 산 위에 모압의 우상 그모스의 신당과 암몬의 우상 몰록의 신당을 지었다. 8. 솔로몬은 외국인 왕비들이 하지는 대로 왕비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물까지 드렸다.

9.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노하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를 마음으로부터 저버렸기 때문이다. 야훼 하느님께서 일찍이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으며 10. 그 때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일러두었는데 왕은 끝내 야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11. 마침내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이 이리하고, 내가 너와 계약을 맺으면서 일러 둔 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쫓아서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12.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네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고 너의 아들의 대에 가서 이 나라를 쫓게리라. 13. 그러나 이 나라를 쫓아서 다 내주지는 않고 한 지파만은 네 아들에게 주어, 내 종 다윗의 뒤를 이어 내가 지정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하리라”...

26.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족에 속한 스레다 사람으로서 솔로몬의 신하였다. 그도 또한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스루아였다. 27. 그가 반기를 든 경우는 이러하였다. 솔로몬이 밀로궁을 건축하고 그의 선왕 다윗의 성을 보수할 때였다. 28. 그 사람 여로보암은 힘센 장사였다. 솔로몬은 그 젊은이가 일하는 것을 보고 그를 요셉 지파의 부역 총책임자로 임명하였다. 29. 한번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다가 실로 출신의 예언자 아히야를 길에서 만났다. 그 예언자는 말쑥한 새 옷을 입고 있었다. 들에서 단둘이 있게 되자 30.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서 열 두 조각으로 찢었다. 31.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열 조각을 맡으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하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라. 내가 솔로몬의 손안에 있는 이 나라를 찢어 너에게 열 지파를 주리라. 32. 그러나 한 지파만은 솔로몬에게 주어 내 종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내가 지정한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하리라. 33.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이 섬기는 여신 아스도렛과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예배하였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가 보여 준 길을 가지 않았고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았으며 내가 준 규정과 법령을 지키지도 아니하였다.

34. 그러나 내가 뽑아 세운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규정을 지킨 것을 생각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이 나라를 조금도 빼앗지 아니하리라. 35. 내가 장차 그의 아들대에 가서 이 나라를 쪼개어 열 지파를 너에게 맡길 것이다. 36.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리라. 그리하여 나의 종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선택하여 나의 것으로 지정된 성읍인 예루살렘에서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항상 내 앞에서 비추게 하리라. 37. 내가 너의 원대로 너를 택하여 통치자로 임명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 38. 나의 종 다윗처럼 내가 명하는 바를 모두 지키고 내가 지시하는 길을 가며 내 규정과 명령을 지켜 내 앞에서 바르게 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한 다윗의 왕조를 든든히 세워 주었듯이 너의 왕조도 든든히 세워 너에게 이스라엘을 맡기리라. 39. 이렇게 하여 다윗의 자손의 머리를 숙이게 해 주리라.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두어 두지는 아니하리라.”

40. 이렇게 되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찾아 죽이려고 하였다. 여로보암은 하는 수 없이 시삭왕이 다스리는 이집트로 망명하였다,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41.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나머지 역사는 솔로몬왕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42.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간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43.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 그의 선왕 다윗의 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교리 요약

- * 주님은 악과 거짓 속에 빠져있는 이들에게도 그분의 손이 닿도록 항상 노력하고 계신다.
- * 말씀은 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손이 닿도록 씌어져 있다.
- * 진정한 선행은 만인에게 뻗어나가지만, 선과 악에 똑같이 뻗혀 나가는 것은 아니다.

상응 연구

솔로몬 = 사랑으로부터 이해된 신성한 진리
 결혼 전 여인 = 진리 또는 거짓에 대한 애착
 결혼 후 여인 = 선 또는 악에 대한 애착

해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세 왕들이란 우리 삶에서 신성한 진리가 통치되는 세 가지 단계 혹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 수준과 거듭남의 발전을 묘사한다. 그리고 신성한 진리는 두 가지 큰 계명 곧 주님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에 함축되어 있음을 명심하자. 우리는 거듭남의 시작 때부터 이 계명이 천국적인 삶의 필수요소라고 인식했을지도 모른다.

먼저 우리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사울” 단계에 있을 때 주님사랑과 이웃사랑의 계명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봉사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계명을 글자대로 순종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도우려고 하며 자선기금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사울로 상징되는 진리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명확히 눈에 띄는 이기적인 경향들을 다소 극복하도록 해주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겉손보다는 자만 쪽으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마침내 이런 식으로 진리를 이해함이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두 가지 큰 계명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내적 의미의 빛 속에서 그것들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는 다윗의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 수준이 이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 사울단계에서 발달되어 쌓아 온 선함을 버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동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순수한 선함인가를 살펴보고 그것들이 단지 주위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려고 행해졌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겸허한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고, 선을 행하되 이웃 속의 선을 보고 그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행하며 무차별하고 식견 없는 자선 행위와 같은 도움은 오히려 이웃속의 악을 조장시키게 됨을 인식하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단계에서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 속의 악을 발견하게 된다. 다윗의 통치는 전쟁과 정복이라는 긴 세월이다. 따라서 이 단계 역시 승리와 더불어 시험이 오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견책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악을 회개하면 결국 솔로몬이 우리에게 탄생된다.

스웨덴북은 「계시록 설명」 제 654-29항에서 솔로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솔로몬은 주님의 천적 왕국과 영적 왕국에 관련된 주님을 표현한다.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란 순수한 이타적인 사랑인 천적인 원리가 중심이 되어 신성한 진리를 이해할 때를 말한다. 즉,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우리의 행위가 타인으로부터 칭찬 받기 위해서 혹은 겸손함이나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저절로 행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타인의 행복을 즐거워하며 그 일로 주님께 깊이 감사하게 된다. 이런 상태야말로 자신의 안 밖에 있는 적들과의 긴 투쟁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솔로몬의 위대한 지혜와 영화에 관한 성서의 본문은 위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을 표현한다. 이 상태에서 천국적인 인격숙의 성전은 이미 다듬어진 재료로 우리 속에서 조용히 건설된다.

이와 같은 높은 인격의 수준에서도 승리는 피할 수 없는 시험을 가져온다. 그래서 본문의 단어는 “but”로 시작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항상 “그러나”가 존재하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천사들은 천국 안에서도 간혹 자신들 속에 이기적인 본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하는데, 이 본성은 단지 주님의 자비로 그곳에서 활동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주위에서 솔로몬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들은 아마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충고나 권면은 많은 이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그들의 행동은 사회의 모범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는 좋고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사랑해버리고 만다. 그래서 그 사람 속의 좋은 것만 보고 나쁜 점은 눈감아 버릴 때가 많다. 그러다 보면 많은 이들이 그 사람의 잘못된 사상까지도 너그럽게 봐주게 된다. 그리하여 잘못된 사상이 외적인 선한 행동 속에 감춰진 채 많은 이들의 사상을 그릇된 길로 끌고 가기도 한다.

「계시록 설명」 제 654항은 솔로몬이 깨트린 율법에 관하여 알려준다. 신명기 17장 15-17절에서는 이 율법이 “너희는 반드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골라주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같은 동족을 임금으로 세워야지, 동족이 아닌 외국인을 임금으로 세우면 안 된다. 그러나 왕이라고 해도 군마를 많이 기르는 일만은 하지 못한다. 백성을 이집트로 다시 보내어 군마를 많이 얻어 오게 해도 안 된다. 너희가 그리로 되돌아가지 못하리라고 야훼께서 너희에게 일러두시지 않았느냐? 왕은 또 많은 후궁을 거느리지 못한다. 그러면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릴 것이다.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도 안 된다.”라고 서술된다. 이와 더불어 제 47항을 읽어보면, 위 구절에서의 말이 번덕스러운 거짓 지식들을 그리고 아내들이 진리와 선에 관한 애착을 의미하지만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릴 경우는 반대적인 의미가 되어 악과 거짓에 관한 애착을 의미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아내들은 남자의 마음을 다른 데로 쏠리도록 만든다고 말해진다. 은과 금 역시 교회 속에 있는 선과 진리를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된다고 언급되는바, 여기서의 은과 금이란 자연적 인간에 근원한 것으로서 악과 거짓을 의미한다. 그리고 제 47항은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이집트로부터 군마를 들여왔고 많은 후궁을 거느림과 더불어 은과 금을 많이 축적하여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가 죽은 뒤 그의 나라는 분열되고

만 것이다.”라고 끝맺고 있다.

솔로몬의 첫 아내는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였다. 앞서 명시된 스웨덴본의 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속의 이집트란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에서 모두 자연적 인간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솔로몬은 주님에 관한 천적 왕국과 영적 왕국을 표현한다. 이 두 왕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통해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고, 그 지식들로 선과 진리를 확증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솔로몬은 이집트의 임금 파라오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맞이하여... 그 아내를 다윗성에 두었다’라는 구절을 읽게 된다.”라고 설명한다. 열왕기상 7장 8절에는 “솔로몬은 또 그가 아내로 맞아 데려 온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도 같은 궁을 지어 주었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스웨덴본은 이에 대하여 “이집트는 좋은 의미에서 모든 총명과 지혜의 기초가 되는 지식을 표현한다. 교회속의 사람들이 영적이고 합리적이고 더불어 자연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세 채의 집을 건축했던 것이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집 또는 성전으로서 영적인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레바논의 송백나무로 지은 그의 궁은 합리성을 상징하며, 파라오의 딸을 위한 궁은 자연성을 상징한다.”라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항들은 우리로 하여금 본문의 천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도록 인도해준다. 천적인 의미란 주님에 관한 이모저모를 뜻한다. 우리는 본문을 공부하면서 “솔로몬은 수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렸는데, 어떻게 그가 주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기도 한다. 「하느님의 섭리」 245항에서 “솔로몬은 우상을 위한 신전을 건설하도록 허용되었다. 이는 그가 만방에 있는 다양한 모든 종교와 더불어 주님의 왕국 또는 교회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님이 영화하신 후 천상천하의 권능을 가지셨던 바, 솔로몬이 이와 같은 내용의 표본이 영화와 장엄함을 나타냄과 더불어 지상의 어떤 왕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소유하며 성전을 짓기도 했던 것이다.”라는 설명이 그 질문에 대한 명백한 답일 것이다. 주님의 사랑은 모든 종교의 사람들 그리고 선한 자 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까지 도달하고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법칙은 우리의 자유를 간섭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이러한 허용의 법칙은 주님의 법칙이므로, 우리는 이 법칙을 자신의 법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 법칙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솔로몬은 개인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도 그가 알고 있는 율법을 깨트렸다. 이로 인해 그와 그의 백성들은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천국의 신비」 제 3246-3항과 4항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전의 교회들에서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었으나 기독교를 위해서는 허용되지 않았다.”라고 서술된다. 오늘날의

우리 역시 우리에게 밝혀주신 높은 진리들을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질문 정리

- 1) 다윗과 바세바의 둘째 아들은 누구인가?
- 2)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누구인가?
- 3) 이 왕은 주님께 무엇을 요구했는가?
- 4) 주님은 그 요구에 무엇을 더해 주셨는가?
- 5) 그는 예루살렘에 무엇을 지었는가?
- 6) 그는 어떤 죄를 범했는가?
- 7) 그는 그 외에 어떤 죄를 범했는가?
- 8)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9) 주님의 말씀은 그가 죽기 전에 성취되었는가?
- 10) 솔로몬의 왕국 중 몇 지파를 그의 아들이 다스렸는가?
- 11) 누가 나머지 지파의 왕이 되었는가?
- 12) 여로보암은 누구인가?
- 13) 누가 그에게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는가?
- 14) 그는 어떤 징조를 보여주었는가?
- 15)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 16) 여로보암은 어디로 피신했는가?
- 17) 솔로몬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8) 솔로몬의 죄는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솔로몬 2) 솔로몬 3) 지혜 4) 부와 명성 5) 성전 6) 많은 외국여자와 결혼했다
- 7) 우상숭배 8) 나라를 잃는다 9) 성취되지 않았다 10) 1 1/2지파 11) 여로보암
- 12) 솔로몬의 신하 13) 아히야 14) 옷을 찢었다 15) 그를 죽이려 했다 16) 이집트

17) 영혼의 평화 18) 악을 소홀히 취급함 또는 악에 대해 변명함

19

엘리사와 나아만

머리말

우선 열왕기상 12장을 읽고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이스라엘 왕국의 타락이 두 금송아지를 세운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언급한다.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선교 그리고 이스라엘을 끊임 없이 괴롭힌 시리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5장

1.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으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아합께서 나아만을 들어 쓰시어 시리아에 승리를 안겨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환자였다. 2. 시리아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가, 한번은 거기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나아만 장군은 그 소녀를 아내의 하녀로 삼았다. 3. 그 어린 하녀가 자기의 주인에게 일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는 예언자를 만나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가 문둥병쯤은 쉽게 고쳐 주실 텐데요.” 4.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입궐해서 왕에게,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가 이리이러한 말을 하더라고 아뢰었다. 5. 이 말을 들은 시리아 왕이 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 줄 터이니, 장군은 가보시오.” 이리하여 나아만은 은 십 달란트, 금 육천 세겔, 옷 열 벌을

가지고 가서 6. 왕의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친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본인은 이제 이 편지를 들려 본인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문둥병을 고쳐 주십시오.” 7. 이스라엘 왕은 이 서신을 읽고 옷을 찢으면서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란 말인가? 그가 사람을 보내어 나에게 문둥병을 고쳐 달라고 하니, 이것은 그가 나에게 싸움을 걸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 분명하다. 그대들은 이 점을 분명히 살피시오.”

8.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를 나에게 보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 주겠습니다.” 9. 그리하여 나아만은 마차를 몰고 엘리사의 집에 이르러 대문 앞에 멈추었다. 10. 엘리사는 사람을 내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요르단강에 가서 그 강물에 일곱 번 몸을 씻으시오. 그리하면 새살이 나와 깨끗하게 될 것이요.” 11.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리면서 말하였다.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나에게 나와서 자기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부분을 손으로 만져 이 문둥병을 고쳐 주려니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 12. 다마스쿠스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물보다도 더 좋은 아바나강과 발바르강이 있다. 여기에서 된다면, 거기에 가서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나아만은 크게 노하여 발길을 옮겼다. 13.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그를 막아서며 말하였다. “만일 이 예언자가 더 어려운 일을 장군께 시켰더라면 장군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장군께 몸이나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14.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이 일러 준 대로 요르단 강으로 내려가서 일곱 번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다. 그러자 새살이 돌아 그의 몸은 마치 어린 아이 몸처럼 깨끗해졌다.

15.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돌아 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밖에는 온 세상에 신이 없습니다. 소인이 감사하여 드리는 이 선물을 부디 받아 주십시오.” 16. 엘리사가 “내가 모시는 야훼께서 살아 계십니다. 결코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하고 거절했지만 나아만은 받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도 거절하자, 나아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진정 받지 못하시겠으면, 이 한 가지 청만은 들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저는 야훼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나귀 두 마리에 실을 만큼 흙을 주십시오. 18. 그러나 한 가지 야훼께 용서를 빌 일이 있습니다. 저는 왕께서 림몬 신전에 예배하러 가실 때에 부축해 드려야 하고 왕께서 림몬 신전에서 예배할 때 같이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만은 야훼께서 용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19.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걱정 말고

가시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길을 조금 갔는데 20.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 게하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스승께서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바치는 것을 거절하시고 그냥 돌려보내시니 뒤쫓아 가서 무엇이든 좀 받아 오고 말겠다.” 21. 이렇게 생각하고 게하지는 나아만을 쫓아갔다. 나아만은 게하지가 뒤쫓아 오는 것을 보고 마차에서 내려 그를 만나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22. 게하지는 말하였다. “별일 없습니다. 지금 막 에비라임 산악지방에서 예언자 수련생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줄 은 한 달란트와 옷 두벌을 보내 달라고 스승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23. 나아만은 “드리다뿐이겠는가? 한 달란트를 더 드리겠다”하며 은 두 달란트를 억지로 두 자루에 넣고 옷 두 벌을 꺼내어 부하 두 사람에게 돌려 게하지 앞에 세워 보냈다. 24. 게하지가 집 있는 언덕에 돌아 와서 짐을 받아 집 안에 넣고 그 사람들을 돌려 보낸 후 25. 들어 가서 스승 앞에 서자, 엘리사가 물었다. “게하지야, 어디를 갔다 왔느냐?” “소인은 아무데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26. 그러나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마차에서 내려 너를 만나기 위하여 돌아 설 때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아느냐? 그래, 너는 돈을 받았다. 네가 그 돈으로 정원을 사서 올리브나무, 포도나무를 심고 양과 소를 사고 하인과 하녀를 거느릴 수야 있겠지만, 27. 너와 네 자손은 나아만에게서 옮은 문둥병을 영원히 앓으리라.” 게하지는 문둥병으로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어 엘리사를 떠났다.

교리 요점

- * 오직 주님만이 병을 고치실 수 있다.
- * 진리는 말씀을 수단으로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
- * 자연적인 지식으로는 내적인 악들을 치료할 수 없다.
- * 진정한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상응 연구

이스라엘 = 이해성

유다 = 의지

시리아 =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문둥병 = 진리를 모독함

다마스커스의 강들 = 선에 관한 세상적인 사상들

해설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이다. 「계시록 설명」 475-18항에서 그 이야기의 일부에 대한 세부 사항이 설명되고 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문둥병자보다 더 쉽게 이방인인 나아만이 치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구절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대한 그분의 질책중의 하나인 것이다. 말씀에서의 선한 이방인이란 선한 인격을 갖추고자 하나 선해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즉 선함과 악함에 대해 과실이 없는 자를 뜻한다. 이스라엘의 적일 때의 시리아인 신성한 지혜가 아닌 자신을 의존함으로부터 비롯된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의 왜곡을 의미한다.

나아만은 문둥병자였다. 「천국의 신비」 제 6963항에서는 문둥병이란 진리를 모독함 그리고 진리를 믿으면서도 그 진리와 반대되게 살아서 진리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문둥병자들이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믿는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아만처럼 깨끗해지려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말씀으로 기꺼이 나아가기도 한다. 이스라엘의 문둥병자란 자신의 삶을 수정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레위기 제 13장 -14장에서는 치료될 수 있는 문둥병과 치료될 수 없는 문둥병의 종류가 열거되고 문둥병에 관련된 세부 규칙도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신성모독의 형체의 종류와 그 정도가 아주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중 어떤 것은 정정 가능한 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 아주 깊은 형체도 있다(누가복음 12:10). 「하느님의 섭리」 제 231항에서는 신성모독에 관한 일곱 가지 형태를 보여준다.

본문의 전후를 고려하면 나아만의 문둥병은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그가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사령관의 직무를 수행했고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문제없이 해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가 엘리사에게로 인도되는 수단은 매우 흥미로운데, 그 수단이란 그가 포로로 끌고 온 어린 하녀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우리는 시리아인들처럼 자신의 삶의 방향이나 올바른 것들에 관한 지식에 자신감을 갖게 될 때 종종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 즉,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는 권위성에 대항하여 논쟁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간혹 그 논쟁에서 자신이 승리했다

고 느낀다. 그리고 이런 논쟁의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지지해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어떤 것을 교회의 가르침들로부터 획득하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 속 깊은 곳에 남겨 둔 순진한 애착을 갖고 있다. 우리가 영적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면, 주님은 이를 꺼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가도록 사용하신다. 우리를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어떤 것이 바로 나아만의 어린 하녀인 것이다.

나아만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에게 갔었다. 그리고 치료의 대가로 예물도 내놓았다. 이처럼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큰 교회를 우선적으로 찾게 되고 말씀을 찾으려하기 보다 교회 일에 쉽게 어울린다.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영적 궁핍함을 위해 교회를 찾았다면,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이 진실로 가르치는 바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을 것이다. 그는 무작정 교회 일에 뛰어들어 실망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교회와 등지며 교회마저 혼란에 빠지도록 만들기도 한다. 이것은 본문에서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자 이스라엘 왕이 결코 그를 만족시킬 수 없어서 매우 놀랐던 것과 같은 모습이다.

요르단 강이란 영적인 삶이라는 거룩한 땅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는 단순한 가르침을 상징한다. 구체적으로 볼 때 계명은 이 단순한 가르침에 속한다.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거룩한 땅에 들어 설 수 없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그가 자신에게 와서 뭔가 특별한 권능을 보여 주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만 전했을 뿐이다. 이는 말씀이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음을 의미한다(사도행전 10:34). 말씀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대할 때 다른 방법을 쓰지 않는다. 또한 말씀은 누군가가 특별하다고 해서 그를 단번에 거둬나도록 해주지도 않는다.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요르단 강에 가서 그 강물에 일곱 번 몸을 씻어라.”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가서 계명을 배우고 그 계명이 너의 삶 속에서 작업을 다 마칠 때까지, 너의 인생이 하느님보시기에 깨끗할 때까지 성심껏 계명을 지켜라”라는 것이다.

그러나 엘리사가 일러준 방법을 들은 나아만은 화를 내며 “다마스쿠스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물보다도 더 좋은 아바나 강과 발바르 강이 있다. 여기에서 된다면, 거기에 가서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우리는 나아만처럼 계명에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사상으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계명과 결맞지 않을 정도로 발달했다고 여기며, 새 세상에 맞는 새로운 표준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아만의 부하는 그를 막아서며 예언자의 처방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했다. 우리가 삶에 어떤 새로운 방법이나 지식이 있어야겠다고 느낄 때 혹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실감할 때에

우리의 상식은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치료해준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간단한 방법을 한번쯤 시도해보도록 권면한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방법을 요구함에 있어서 뭔가 새롭고 경이롭게 여겨지는 영웅적인 삶의 형태를 나아만처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문은 삶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길 곧 삶의 진정한 길은 오직 주님의 법에 꾸준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즉, 우리가 주님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결코 없음을 실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만은 문둥병이 치료되자 예언자에게 되돌아가 감사의 예물을 내놓았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이는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께 빚진 것을 결코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부분에 해당된다. 우리가 이루는 모든 정의는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은 그분의 선물을 무상으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잘 간직하면서 언제나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간직하며 그것을 이웃에게도 나눠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아만은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약속하면서 떠나갔다. 그러나 엘리사의 시종 게하지는 곧장 나아만을 뒤쫓아 가서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하며 예물을 받아 가지고 왔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은택에 감사하며 그분 앞에 겸허해 하는 상태에 머물게 해주는 영적 경험을 거쳐 간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우리 속의 자연적인 이기심은 우리를 곧바로 뒤쫓아 와서 갖가지 속임수를 써서 영적 체험에 관한 것 곧 바른 행위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나아만은 게하지가 뒤쫓아 오는 것을 보고 마차에서 내렸다. 이는 우리속의 이기적인 생각들의 자극으로 인해 삶의 새로운 해결책을 시도하도록 해준 가르침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엘리사는 게하지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다. 즉, 말씀은 우리의 이기심을 덮으려고 애쓰는 변명을 꿰뚫어 본다는 것이다. “주님은 속마음을 들여다보신다.” 말씀의 빛으로 보면 사적인 이익추구의 진면모를 보게 된다. 우리 영혼에 있는 문둥병을 뽑아내어 던지지 않으면, 그 질병은 이기심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모조리 강탈할 때까지 우리 삶의 모든 체계에 확산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게하지는 문둥병으로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어 엘리사를 떠났다.”라는 구절이 의미하는 바다.

질문 정리

- 1) 여로보암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 2) 왜 그는 금송아지를 세웠는가?
- 3) 그 송아지를 세운 곳은 어디인가?

- 4) 주님은 어떤 두 예언자를 이스라엘 왕국으로 보냈는가?
- 5) 본문에서의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가?
- 6) 시리아의 군대 사령관은 누구인가?
- 7) 그는 어떤 병을 갖고 있는가?
- 8) 누가 병이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었는가?
- 9)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는가?
- 10) 나아만은 처음에 뭐라고 말했는가?
- 11) 그가 엘리사에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2) 그는 엘리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는가?
- 13) 엘리사의 시종은 무슨 짓을 했는가?
- 14) 그의 벌은 무엇인가?
- 15) 이스라엘과 유다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요르단 강물에 일곱 번 몸을 씻는다고 함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움 2)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임
- 3) 베델, 단 4) 엘리야와 엘리사 5) 시리아 6) 나아만 7) 문둥병
- 8) 포로로 잡아온 히브리 소녀 9) 요르단강물에 일곱 번 몸을 씻어라
- 10) 다마스쿠스의 강이 요르단강보다 더 낫다 11) 치료되었다
- 12) “나귀 두 마리에 실을 만큼 흙을 주십시오” 13) 보상을 원했다
- 14) 문둥병자가 됨 15) 마음이 분리되었음 16) 계명에 끝까지 순종하라

시드키야와 예레미야

머리말

이스라엘과 유다를 정복한 두 국가의 이름들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끌려가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던 반면 유다왕국의 백성들은 모두 끌려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귀환하기도 했음을 설명한다. 또한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지만 나중에 재건되었음도 설명한다.

성 서 본 문: 열왕기하 24장, 25:1-12, 예레미야 21장

열왕기하 24장: 1. 여호야킴이 다스리던 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 와서 여호야킴은 그의 신하가 되었다. 삼년이 지나서 그는 반기를 들었다. 2. 야훼께서는 바빌론 침략군과 시리아 침략군과 모압 침략군과 암몬 침략군을 보내어 유다 전국을 짓밟게 하셨다. 야훼께서 당신의 종인 예언자들을 시켜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3. 이런 일이 유다에서 일어난 것은 므나שה가 온갖 못할 짓을 하는 것을 보시고 야훼께서 유다 백성을 내쫓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일 따름이다. 4. 그런데다가 그는 무죄한 피마저 흘려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만들었으므로 야훼께서는 용서하실 마음이 없으셨던 것이다.

5. 여호야קים의 나머지 사적과 행적은 유다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6. 그가 선조들과 함께 영면하자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7. 이집트왕은 이집트 국경을 흐르는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강에 이르는 땅을 모두 바빌론 왕에게 빼앗기고 다시는 자기 영토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8. 여호야킨은 십 팔 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삼 개월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엘나단의 딸로서 이름은 느후스타라고 하였다. 9. 여호야킨은 아버지가 그러하였듯이 야훼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10. 그 때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쳐올라 와서 포위하였다. 11. 이렇게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을 치러 친히 왔다. 12. 일이 이쯤 되자 유다왕 여호야킨은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과 장군들과 내시들을 거느리고 바빌론 왕에게로 나아가 사로잡혔다. 때는 바빌론 왕 제팔 년이었다. 13. 야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빌론 왕은 야훼의 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화를 털어 갖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야훼의 전에 만들어 두었던 온갖 금기물을 다 부수었다. 14. 또한 예루살렘 전 시민과 고관들과 군인 일만명, 그리고 은장이들과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 가고 가난한 지방민만 남겨 두었다. 15. 그는 여호야킨도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력층과 함께 사로잡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16. 그리고 유력자 칠천 명과 은장이, 대장장이 천 명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그들은 모두 싸우려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이었다. 17. 바빌론 왕은 여호야킨의 삼촌인 마파니야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키야로 바꾸도록 하였다.

18. 시드키야는 이십 일 세 때 왕위에 올라 십 일 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리브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로서 이름을 하무달이라고 하였다. 19. 시드키야는 여호야קים이 했던 것같이 야훼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 20. 예루살렘과 유다는 야훼의 진로를 사 마침내 그 앞에서 쫓겨 나고 말았다.

25장: 1. 시드키야가 바빌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키야왕 구년 시월 십일, 전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을 포위하고 사면에 토성을 쌓았다. 2. 이 포위는 시드키야왕 십일 년까지 계속되었다. 3. 그 해, 성에 기근이 흑심하여 식량이 떨어지자 일반 서민들은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 사월 구일에 4. 드디어 성벽이 뚫렸다. 유다 왕은 이를 보자, 바빌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도 그의 전 호위병과 함께 밤을 도와 성을 도주하였다. 그들은 왕의 정원 근처에 있는 “두 성벽 사이”라는 성문으로 빠져 나가 나라바 쪽으로 도망하였다. 5.

바빌론 군대가 왕을 추적하여 예리고의 들판에서 그를 사로잡자 왕의 군대는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 6. 바빌론 군대가 왕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데리고 가자 바빌론 왕이 그를 심문하였다. 7. 그는 시드키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데서 살해하고 시드키야의 눈을 뽑은 다음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8.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제십 구년 오월 칠일, 바빌론 왕의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들어 와 9. 야훼의 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성 안 건물을 모두 불태웠다. 큰 집은 모두 불탔다. 10. 친위대장을 따르는 바빌론 군인들은 예루살렘을 둘러 싸고 있는 성벽을 죄다 허물어 버렸다. 11. 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성에 남은 사람들과 바빌론왕에게 항복해 온 자, 그리고 기타 남은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 갔다. 12. 그는 백성들 중 가장 비천한 층의 사람들만 남겨 두어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예레미야 21장: 1. 시드키야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니야 성직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예레미야에게 내린 야훼의 말씀이다. 그들은 이렇게 청했던 것이다. 2.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싸움을 걸어 왔소. 기적을 베푸시어 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야훼께 빌어 주시오.” 3.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야훼께 받은 말씀을 일러 주었다. “당신들은 시드키야왕께 가서 이렇게 전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바빌론 왕의 군대와 싸우려 한다마는, 나 이제 너희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 무기를 이 성읍 한 가운데다 모아 놓으리라. 5. 너무나도 노엽고 화가 나서 내가 있는 힘을 다 기울여 너희를 치리니, 6. 이 도읍에 사는 사람과 짐승이 모두 심한 염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7. 똑똑히 말하여 둔다. 이렇게 염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죽고도 남은 유다 왕 시드키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리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원수들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리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원수들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면, 그들은 사정없이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것이다.’

8. 당신들은 또 이 백성에게 야훼의 말씀이라 하며 이 말을 전하십시오. ‘내가 살 길과 죽을 길을 너희 앞에 내어 놓을 터이니 너희는 그중 하나를 택하여라. 9. 이 성 안에 버티고 있다가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가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바빌론 군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다. 목숨 하나 건지는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10. 내가 똑똑히 말해 둔다. 나는 이 도읍을 잘 돌보아 줄 생각이 없어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이 도읍은 바빌론 왕의 수중에 들어가서 불에 타 없어지고 말리라.’”

11. 유다 왕실에게 말한다.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12. “다윗 왕실에게
 나 야훼가 말한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라.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 주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껄뻘한 소행을 보고
 내가 화가 나서 너희를 불 태우리니,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하리라.
 계곡을 굽어 보는 예루살렘아,
 벌판에 우뚝 솟은 바위야!
 내 말을 들어라.
 ‘누가 감히 우리에게 달려드느냐?
 이 깊은 곳으로 누가 감히 쳐들어 오느냐?’ 하고 말한다마는,
 나는 이제 너희를 치리라.
 나는 너희의 소행을 따라 벌하리라.
 똑똑히 말해 둔다.
 나는 수풀궁에 불을 질러
 둘레를 온통 태워 버리리라.”

교리 요점

- * 주님은 각 개인의 의지에 반대되어서는 구원하실 수 없다.
- * 예언서는 우리로 하여금 역사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 *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께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 * 이해성이 진리에서 거짓으로 변화되면 마음속의 선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상응 연구

아시리아 = 추론, 지성의 합리적인 면
바빌론 = 자아사랑에서 비롯된 지배욕
가난한 자 = 겸손한 자

해설

성경의 모든 부분의 구절들은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몰락은 우리로 하여금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해준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당했고, 그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서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강제로 이주된 외국인들이 살게 되었다. 그 뒤 아시리아가 유다 왕국까지 점령하려고 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 그 후 한 세기쯤 지나서 바빌론이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제압하고 세력을 떨치면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한 결과 유다가 함락되었고, 그 백성들 중 지배 계층들은 모두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농사나 포도원 경작을 위해 남겨둔 가난한 사람들만이 남겨지게 되었다. 그로부터 칠십 년 후 귀향을 갈망한 일부 포로들은 귀환하도록 허용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었다. 그러나 유대라는 나라는 인간들 중에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에 대한 표현성을 잃고 말았다. 여기서 우리가 상기해야 할 사항은 이 때 귀환한 백성들과 남겨진 가난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오랜 뒤에 주님이 탄생하시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과 복음서에서 거론되는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이 시대에 강제로 이주된 외국인들의 후손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은 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교인의 지성과 의지를 표현한다. 아시리아는 합리적 마음 또는 넓은 측면에서는 추론함을 표현하고, 이집트는 자연적인 마음 또는 기억적인 지식을 표현한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리고 아시리아의 적절한 관계는 이사야서 19장 23-24절에서 “그 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큰길이 트여 아시리아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 서로 오가며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예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 다음의 셋째 나라가 되어 세상에서 복을 받으리라.”라고 기술된다. 즉, 질서 잡힌 마음속에서는 추론력과 기억적인 지식이 상호작용하고 이들 사이에 영적인 것들이 있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송아지에 대한 예배로 대체하고 유다 왕국과도 분리됨으로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차지할 축복을 희생시키게 되었다. 만약 신앙인이 잠시라도

행위적인 선만으로 종교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는 선을 행할 모든 힘의 근원인 신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조짐이 짝트면 그의 이해성이나 추론력은 주님이 밝히 알려주시는 것보다 세상적인 학식을 찬양하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 그리고 그 기울음이 더 큰 경사를 이루면 그의 마음은 결국에는 교회 밖인 세상의 것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만다.

유다왕국 - 심정(heart) - 역시 우상을 숭배했다. 반면에 이스라엘 왕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주님에 대한 예배가 절멸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은 그들의 진정한 하느님을 되돌아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주님께 신실한 자들도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일부 왕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며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김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고군분투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거듭나는 삶이 주는 행복과 평화를 다소 경험한 마음은 세상적 추론만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 아시리아가 유다를 정복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한 세기 이상 세력을 운집해 온 또 다른 적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 적은 결국 아시리아를 정복했고, 그곳으로 향하던 모든 공물과 땅까지 점유하고 말았다. 오래 전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었던 갈대아 지역 곧 시날 지방에 위치한 바빌론이 바로 그 적이다. 바빌론은 지배욕을 표현한다. 지배욕이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올바른 것으로 여기며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섬겨야 한다고 느끼도록 우리를 자극시키는 자연적 수준에 있는 뿌리 깊은 이기적인 의지이다. 스웨덴북은 바빌론에 대해서 “종교를 남용해서 얻은 지배 또는 교회를 위한 권위를 하느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명령이나 규정들에서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바빌론 왕은 이스라엘이 함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 왕 히즈키야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그의 건강을 묻도록 했다. 사실 이는 겉치레에 불과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즈키야는 자신을 추켜 주는 사절단에 미혹되어 그들을 친구로 환대했고, 궁내 모든 보물들을 보여 주며 자랑했다. 그 뒤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와서 “언젠가 유다의 모든 보물들이 거두어져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말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게다가 히즈키야의 후손들이 바빌론 궁정의 하인 신세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본문은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광경을 보여준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깊은 속마음에 지배욕이 들어오도록 단 한 번이라도 허용하게 되면, 그 지배욕은 그것을 미끼로 우리의 깊은 마음을 탐낸다. 말씀과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오만함과 지배욕만큼 명백하고 직접적으로 질타를 받는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유다왕국 말기에 있었던 위대한 예언자였다. 이 왕국의 말기에 대해서는 열왕기하에서

간략하게 언급되며, 예레미야서에서 그 내용이 보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인정한 예언자였고, 비록 그 왕이 주님께 순종할 의사가 없었다하더라도 그 왕이 예레미야로부터 조언을 구했기 때문이다. 그 왕과 백성들은 자신들 속의 사악함 때문에 예레미야의 조언을 거둬 거절하면서 그를 참혹하게 다루기도 했다.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여 말씀으로 돌아가되 자신의 뜻함이나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면,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들로 인해 신랄하게 질타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경시하며 거절하기 일쑤다. 주님은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을 거절한 그 땅에 오셔야 했는데, 이는 그 땅의 모든 부분들이 상응에 의해 말씀 속에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오셔야만 했다. 따라서 말씀을 지닌 유대인들로 하여금 거룩한 땅에 귀환하도록 하여 성전을 재건시키셔야만 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할 겸손한 자, 즉 가난한 자가 유다 땅에 남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던 바대로 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뒤 유다라는 나라는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표현하는 역할마저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류와 주님과의 연결은 한동안 포로와 포로의 귀환에 관한 예언으로 겨우 유지되었다. 그 후 사 백년 동안은 아주 단순하게 율법과 예언을 믿고 순종해 온 극소수의 겸손한 영혼들에 의해서 유지되었을 뿐이다. 그나마 맥을 유지시킨 이런 예언들마저 바리사이파 사람들 혹은 율법학자들에 의해 가르침 자체가 전복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주님께서 이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던 것이다.

질문 정리

- 1)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했는가?
- 2)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3) 이 적에 대항해서 유다왕국은 왜 오래 버틸 수 있었는가?
- 4) 유다의 선한 왕들은 무엇을 추진했었는가?
- 5) 어떤 국가가 유다를 정복했는가?
- 6) 유다의 어떤 왕 시절에 바빌론 사절단이 내왕했었는가?
- 7) 어떤 예언자가 이 사절단의 결과를 예언했는가?
- 8)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인가?
- 8) 이 마지막 왕은 어떤 예언자에게 조언을 구했는가?

- 10) 예레미야는 이 왕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11) 시드키야는 어떻게 되었는가?
- 12) 어떤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는가?
- 13) 그 땅에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 14) 이스라엘과 유다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아시리아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바빌론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그 땅의 가난한 자”는 누구를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아시리아 2) 영원히 끌려갔다 3) 다윗의 계보에 충실했기 때문 4) 개혁 정치
- 5) 바빌론 6) 히즈키야 7) 이사야 8) 시드키야 9) 예레미야
- 10) 예루살렘이 파괴되다 11) 눈이 뽑혀 바빌론에 끌려감
- 12) 왕자와 용사 그리고 대장장이 등의 유력자들 13) 가난한 자 14) 분단된 심정과 지성
- 15) 세상적 추론 16) 자아사랑에서 비롯된 지배욕
- 17) 주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겸손한 자

21

말씀에 관한 시편

머리말

제 2반은 시편을 위한 배경을 충분히 담고 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본문을 살펴본다. 이 시편에

관한 두 가지 요점은 제 1반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이 요점을 주로 공부한다.

성 서 본 문: 시편 119편

1. 복되어라, 그 행실 깨끗하고
야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2. 복되어라, 맺은 언약 지키고
마음을 쏟아 그를 찾는 사람,
3. 나쁜 일 하지 아니하고
그의 길만 따라 가는 사람.
4. 당신은 계명들을 내리시고
온전히 그대로 살라 하셨으니
5. 당신 뜻을 어기지 않고
굳굳하게 살도록 해 주소서.
6. 그 명령을 낱알이 명심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이다.
7. 당신의 바른 결정을 내가 배워서
진심으로 감사하오리이다.
8. 당신 뜻대로 힘써 살려 하오니,
이 몸을 아주 버리지 마소서.
9.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길을 가오리이까?
당신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오리이다.
10. 내가 마음을 다 쏟아 당신을 찾사오니
당신 명령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11. 당신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주신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였사옵니다.
12. 야훼여, 찬송을 받으실 분이여
당신 뜻을 가르쳐 주소서.

13. 친히 내리신 모든 법규를
이 입술로 모두 뒤풀이했사옵니다.
14. 어떤 부귀를 누리기보다도
당신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더 기뻐사옵니다.
15. 당신의 계명을 되새기며
일러 주신 길을 똑바로 걸으리이다.
16. 당신 뜻을 따름이 나의 낙이오니
당신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17. 당신 종을 너그러이 보시고 살려 주소서.
당신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8. 나의 눈을 열어 주시어
당신 법의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하소서.
19. 땅 위에서 나그네인 이몸에게
당신의 계명을 숨기지 마소서
20. 자나깨나 당신의 결정을 갈망하다가
내 영혼이 지쳤사옵니다.
21. 당신의 계명을 어기는 거만한 자들
그 저주받을 자들을 꾸짖으소서.
22. 내가 당신의 언약을 지켰사오니
이 모욕과 멸시를 벗겨 주소서.
23. 수령들이 모여 앉아 나를 모함하오나
이 종은 당신의 법규를 명상합니다.
24. 당신의 언약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충고자이옵니다.
25. 내 영혼이 먼지 속에 처박혔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26. 내가 살아 온 길 보이매 응답하셨사오니
당신 뜻을 가르쳐 주소서.

27. 당신 계명 따르는 길, 깨우쳐 주소서.
주의 이루신 기적들을 되새기리이다.
28. 나의 영혼이 괴로와 잠 못 이루오니,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일으켜 주소서.
29. 다시는 거짓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법의 은총을 나에게 베푸소서.
30. 진리의 길을 나는 택하였사오니
당신의 결정을 내 앞에 내리소서.
31. 아뢰여, 당신 언약에 내 마음을 붙이오니,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게 하소서,
32. 당신 계명 내 마음 흡족하오니
그 길을 따라 내달리리이다.
33. 아뢰여,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치소서.
그대로 지키고 상급을 받으려 하옵니다.
34. 당신 법을 깨우쳐 주시고 그 법 따라 살게 하소서.
마음을 다 쏟아 지키리이다.
35. 나의 기쁨은 당신의 계명에 있사오니
그 길 따라 곧장 살게 하소서.
36. 내 마음을 잇속에 기울이지 않고
당신의 언약으로 기울게 하소서.
37. 헛된 것에서 나의 눈을 돌리시고
당신의 길을 걸어 생명을 얻게 하소서.
38.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당신의 종에게 지켜 주소서.
39. 당신의 결정은 은혜로우시니,
그 몸서리치는 모욕에서 건져 주소서.
40. 당신의 계명을 나는 갈망하였사오니,
정의를 세우시어 이 몸을 살려 주소서.

41. 야훼여, 당신 사랑을 나에게 베푸시고,
약속하신 당신 구원을 내려 주소서.
42. 당신 말씀 굳이 믿고,
나를 욕하는 자들에게 응수하리이다.
43. 당신의 결정에 내 희망을 두오니
진리의 말이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44. 당신 법을 언제나
길이길이 끝까지 지키리이다.
45. 당신의 계명을 애써 지켰사오니
내 닮는 발걸음 자유롭게 하소서.
46. 임금들 앞에서 당신의 언약을 선포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리이다.
47. 당신의 계명은 나의 기쁨,
그것을 나는 사랑하옵니다.
48. 당신 계명 내가 사랑하옵기에 쌍수 들어 반기고
당신 뜻을 언제나 나는 명상합니다.
49.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 잊지 마소서.
나의 희망은 그 말씀에 있사옵니다.
50. 비참할 때, 내가 받는 위로는
내 생명 살리시는 당신의 약속.
51. 교만한 자들이 나를 마구 희롱하여도
나는 당신의 법에 버티고 굴치 않았사옵니다.
52. 그 옛날에 내리신 당신의 결정, 그것을 생각하면
야훼여, 나는 위로가 되옵니다.
53. 당신 법을 버리는 악인들 앞에서
울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54. 나그네살이하는 이 내 집에서
당신 뜻을 노래로 따르리이다.

55. 야훼여, 밤에도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고
당신의 법을 지키리이다.
56.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57. 야훼여 나의 분깃은,
당신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고 나는 말하였습니다.
58. 당신 얼굴 웃음 띠도록 내가 몸시도 힘쓰오니
약속하신 대로 이 몸을 붙잡히 여기소서.
59. 지금까지 걸어 온 내 길을 반성하고
당신 언약의 길로 되돌아옵니다.
60. 빨리빨리 머뭇거리지 않고
당신 계명을 지키리이다.
61. 악인들의 울가미가 내 주위에 두루 있어도
나는 당신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62. 공정하신 그 판결들,
한밤중에 일어나 감사기도 드립니다.
63. 나는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당신 법을 지키는 자들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64. 야훼여,
당신의 사랑이 땅에 넘치옵니다.
당신의 뜻을 나에게 알려 주소서.
65. 야훼여,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을 선대하였사옵니다.
66. 내가 당신께서 명령하신 것을 굳이 믿사오니
옳은 판단과 지식을 가르쳐 주소서.
67. 죄 받아 고생하기까지는 빛나셨사오나
이제는 당신 약속 그대로 지키리이다.
68.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이여,

당신 뜻을 나에게 알려 주소서
 69. 교만한 자, 거짓으로 나를 피어도
 마음을 다 쏟아 당신 계명을 지키리이다.
 70. 그들은 마음에 기름기 끼었으나
 나에게 미각은 당신의 법이옵니다.
 71. 고생도 나에겐 유익한 일,
 그것이 당신 뜻을 알려 줍니다.
 72. 당신께서 가르치신 법이야말로
 천만 금은보다 유익합니다.
 73. 손수 나를 빚어 만드셨으니
 깨우침을 주소서.
 당신께서 명하신 것을 가르쳐 주소서.
 74.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둔 이 몸을 보고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은 기뻐하리이다.
 75. 아뢰어, 당신의 판결은 옳사옵니다.
 나를 괴롭히심은 당신의 성실하심 때문이옵니다.
 76. 일찍이 당신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랑을 내리시어 위로하소서.
 77. 당신의 법이 나의 기쁨이오니
 인자를 베푸시어 살려 주소서.
 78. 거짓말로 이 몸을 괴롭히는 교만한 자들일랑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이 몸은 주님의 계명을 되새기리이다.
 79.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나에게 오게 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깨우친 이들 나에게 오게 하소서.
 80. 이 마음 당신의 뜻을 따라 깨끗이 살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81. 이 몸이 당신 말씀에 희망을 걸고
 당신의 구원을 향하여 끝까지 가오리이다.

82. 이 몸이 당신 약속을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언제 나에게 위안을 주시렵니까?
 83. 나 비록 연기 속의 가죽부대처럼 되었사오나
 나는 당신의 뜻을 잊지 않으리이다.
 84. 당신의 종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 몸을 박해하는 자들을 언제나 심판하시렵니까?
 85. 당신의 법을 반대하는 교만한 자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팠사옵니다.
 86. 당신의 법령은 조목조목 참되오니,
 거짓이 나를 꺾박할 때 나를 도와주소서.
 87. 이 땅에서 저들이 이 몸을 거의 죽여 놓았어도
 나는 당신의 계명들을 버리지 않으리이다.
 88. 당신의 사랑으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친히 일러 주신 언약을 지키리이다.
 89. 아뢰여, 당신 말씀 영원하시고
 변함없이 하늘에 있사옵니다.
 90. 당신의 진실하심 만세에 이르오며,
 손수 만드신 저 땅은 흔들림이 없사옵니다.
 91. 모든 것이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결정 따라 오늘까지 변함없이 있사옵니다.
 92. 당신의 법이 나의 낙이 아니었다면
 이 몸은 고통 속에서 죽었으리이다.
 93. 계명들을 주시어 살려 주셨으니
 죽어도 그것을 아니 잊으리이다.
 94. 이 몸이 당신의 것이오니 구원하소서.
 애써 당신의 계명을 찾으리이다.
 95. 악인들이 이 몸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사오나
 나는 당신의 언약을 명심하리이다.

96. 아무리 완전한 것도 끝이 있는 줄 나 아오나,
당신의 계명들은 한 없이 넓사웁니다.
97. 당신의 법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자나깨나 나는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98. 계명을 주심으로 당신은 내 것이 되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나를 만드십니다.
99. 당신의 언약을 되새기어서
나의 모든 스승보다도 더 현명해지리이다.
100. 당신의 법령들을 내가 지키어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와지리이다.
101.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온갖 나쁜 길에서 발길을 돌리리이다.
102. 당신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오니
당신의 결정을 거역하지 않으리이다.
103. 당신의 약속은 말부터가 혀에 달아
내 입에는 꿀보다도 더 답니다.
104. 당신의 법령들을 깨우쳐 슬기를 얻었으니
모든 거짓된 길을 역겨워합니다.
105. 당신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웁니다.
106. 나 한번 맹세하였으니
당신의 바른 결정을 지키리이다.
107. 아훼여, 나의 받는 고난이 심하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08. 아훼여, 내 입이 드리는 이 정성을 받으시고,
당신의 결정을 가르쳐 주소서.
109. 나의 생명 항상 내 손안에 있으니
당신의 법을 잊지 않으리이다.

110. 악한 자들이 내 앞에 올가미를 쳐 놓았으니,
 나는 당신의 법령들을 어기지 않으리이다.
 111. 당신의 언약은 영원히 나의 유산이며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112. 당신 뜻을 따르기로 내 마음 정하였사오니
 그것이 영원한 보상입니다.
 113. 나는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오며
 당신의 법을 사랑합니다.
 114. 당신은 나의 은신처, 나의 방패시오니
 나는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두읍니다.
 115. 악인들아, 나에게서 떠나가거라.
 나는 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116.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 주소서.
 나의 기대를 무색하게 만들지 마옵소서.
 117. 내가 기댔 지주 되어 주소서.
 내가 살아나리이다.
 나는 언제나 당신 뜻을 살피리이다.
 118. 당신 뜻을 어기고 벗어나는 자, 모두 당신께서 얹어 버리시니
 그들의 계산은 허황합니다.
 119. 세상의 악인들을 모두 찌꺼기처럼 치우시니
 나는 당신의 언약을 사랑하옵니다.
 120. 나는 당신이 무서워 떨리웁고,
 당신의 판결이 이 몸은 두렵기만 합니다.
 121. 나는 당신의 결정과 정의를 따랐사오니,
 억누르는 자들에게 넘겨주지 마소서.
 122. 당신의 종을 편들어 잘 되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소서.
 123. 당신의 구원을 눈 빠지게 기다리오며

정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124. 당신 사랑으로 이 종을 대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125. 이 몸은 당신의 종이오니 나를 깨우쳐 주소서.

당신의 언약을 알아차리리이다.

126. 야훼여, 당신의 법을 사람들이 짓밟았사오니

나서실 때가 되었사옵니다.

127. 그리하여 나는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당신의 계명을 더 좋아하리이다.

128. 또, 당신의 법령을 어김없이 따르고,

모든 거짓된 길을 역겨워하리이다.

129. 당신의 언약이 너무나도 놀라와

이 몸은 성심껏 그것을 지키리이다.

130. 당신 말씀 밝히시어 빛을 내시니,

우둔한 자들이 손쉽게 깨닫습니다.

131. 당신의 계명을 탐한 나머지

입을 크게 벌리고 헐떡입니다.

132.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시던 대로

나에게도 얼굴을 돌이키사 불쌍히 여기소서.

133. 당신 약속에 힘을 얻어 곳곳이 걷게 하시고

악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134. 사람들의 압박에서 이 몸 빼어 주소서.

당신의 법령대로 살리이다.

135. 당신의 종에게 웃는 얼굴을 보이시고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

136. 사람들이 당신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시냇물처럼 눈물이 흐르옵니다.

137. 야훼여, 당신은 공정하시며

당신의 결정은 언제나 옳사옵니다.

138. 당신의 언약은 공정하여
조금도 틀림이 없사옵니다.

139. 나의 원수들이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니
나의 정열이 이 몸을 사룹니다.

140.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진 당신의 약속,
나에게는 그 약속이 소중합니다.

141. 나 비록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당신의 법령들을 잊지 않으리이다.

142. 당신의 정의는 영원한 정의,
당신의 법은 언제나 진실됩니다.

143. 우민과 억압에 갇히려도
당신의 계명이 나를 기쁘게 하옵니다.

144. 당신의 언약은 언제나 공정하시니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을 살게 하소서.

145. 야훼여, 목청껏 당신을 부르오니 대답하소서.
당신의 뜻을 따르리이다.

146. 당신을 부르오니 구해 주소서.
당신의 언약을 내가 지키리이다.

147.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이렇게 부르짖사옵니다.

148. 뜬눈으로 밤을 지켜보며
당신의 약속을 묵상합니다.

149. 야훼여,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판결로써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50.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당신의 법을 버리고
음흉한 생각으로 나에게 가까이 옵니다.

151. 야훼여, 당신께서는 나에게 가까이 계시오며

당신의 계명은 언제나 진실됩니다.

152. 영원토록 맺으신 당신의 언약,
나는 옛부터 그것을 익히 알았습니다.

153. 당신의 법을 내가 잊지 않으리니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건져 주소서.

154. 고발당한 이 몸을 변호하시고 구해 주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55. 당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자들,
그 악인들에게 구원이란 당지도 없습니다.

156. 아훼여, 당신의 인자하심 한없이 크시오니
공정하신 당신의 판결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57. 나를 박해하는 자들과 억압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몸은 당신의 언약을 떠나지 않으리이다.

158.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 배신들을 보고 내 마음 심히 불쾌하옵니다.

159. 보소서, 아훼여, 나는 당신의 법령들을 좋아합니다.
당신 사랑으로 이 몸을 살려 주소서.

160. 당신의 말씀은 한 마디로 진실, 그것이오며
당신의 공정한 판결은 영원하십니다.

161. 권세가들이 나를 까닭없이 박해하오나
내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의 말씀입니다.

162. 전리품을 얻고서 좋아하듯이
당신의 말씀 듣는 것을 나는 기뻐합니다.

163. 거짓은 내가 싫어하는 것,
나는 당신 법을 좋아하고 실행합니다.

164. 당신의 옳은 판결, 찬송하오니
하루에도 일곱 번씩 찬양합니다.

165. 당신의 법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만사가 순조롭고

무엇 하나 꺼릴 것이 없사옵니다.
 166. 야훼여, 당신의 계명을 내가 따랐사오니,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167. 당신의 언약을 온전히 사랑하여
 내 영혼이 그것을 지키리이다.
 168. 나의 모든 행실을 보고 계시오니
 당신 법령, 당신 언약을 지키리이다.
 169. 야훼여, 이 울부짖는 소리를 가까이 들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소서.
 170. 당신 어전에 나의 기도소리 이르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건져 주소서.
 171. 당신 뜻을 당신 친히 가르쳐 주시오니
 이 입술로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172. 당신의 법령대로 살기로 결심한 이몸,
 손을 뻗으시어 도와 주소서.
 173. 야훼여, 당신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며
 당신의 법을 기쁨으로 삼으리이다.
 174. 이 몸이 살아서 당신을 찬양하리니
 바른 판단 내리시어 도와 주소서.
 175. 이 몸은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
 어서 오시어 이 종을 찾아주소서.
 176. 당신의 계명을 소홀히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사옵니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율법과 예언 그리고 시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 * 주님과 천국의 결합은 말씀을 수단으로 한다. 말씀에 관한 지식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이해를

- 줄 수 있고, 우리 삶을 바른길로 인도한다.
- * 주님에 대한 믿음은 그분에 대한 지식에 기반 한다.
 - * 자아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선은 선행이 아니다.

상응 연구

등 = 신성한 진리
판단 = 진리에 관해서
정의 = 선에 관해서
더럽혀지지 않음(완전함) = 선행으로부터 진리를 말하고 행함

해설

시편 119편은 시편들 중에서 가장 길며, 글자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이 시편은 알파벳 형식을 사용한 7개의 시편들 중 가장 완벽하게 알파벳 순서를 따르고 있다. 나머지 6개의 시편은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과 145편이다. 물론 7개의 시편이 번역되면서 이 알파벳을 따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119편만큼은 영어 성경의 경우 각 항목 머리에 순서대로 히브리 알파벳의 철자들이 기록되어 있다. 각 항목 머리에 있는 철자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경우 그 항목내의 매 8절의 머리글자이기도 하다.

이 시편에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본문의 각 절이 주님의 법에 관련된 단어들이인 율례, 계명 혹은 길 등의 단어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문의 모든 구절이 말씀을 다루며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주님께서 요한이 환상을 갖기 전에 하신 말씀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였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이다. 스웨덴붉은 이에 관하여 「계시록 밝힘」 제 38항에서 “히브리어의 모든 철자는 영계에 있는 어떤 것과 천사들의 언어에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다윗은 시편 119편을 알파벳 순서에 따라 지었다.”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철자들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며 타인과 교통하고 후세대를 위해 보존하는데 사용하는 상징물임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모든 글자는 영계속의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는 표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알파벳 순서에 따른 이 시편의 진정한 의도는 그 안에 담겨진 주제가 우리에게 강하게 인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편은 “노래 부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악은 곧 애착의 표현이다. 이는 우리가 노래 부를 때의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사람들은 간혹 자신이 선택한 시편이 노래로 부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불평한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 찬양대에 맡겨지거나 낭독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시편의 말을 바꾸지 않으면 곡을 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영창 형식을 배워두는 것일 것이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시편의 말씀들은 우리의 지성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된다. 반면에 우리가 시편을 노래로 부르게 되면 시편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된다. 다윗 시대에는 일부 레위인들이 성전 예배를 위해 노래나 연주를 전문적으로 훈련받았는데, 이는 성전 예배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들은 여러 가지 관악기와 현악기를 동반하여 노래를 불렀고, 그들 가운데는 여자도 속해 있었다.

시편 119편의 구절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익숙할 것이다. 본문의 첫 문단은 우리가 주님의 법을 배우고 순종할 때만 진실한 행복이 올 수 있다는 진리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문단은 자주 인용되는 구절로서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길을 가오리이까? 당신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오리이다”라고 시작된다. 그 다음으로는 이 가르침이 삶에 수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다음 우리 자신의 약함에 대한 인정과 주님의 안내와 도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문단이 뒤따른다. 이 밖에도 본문에는 우리가 거쳐야 할 시험들, 말씀으로부터 얻은 힘에 감사하는 마음,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는 높은 인식과 그 인식을 이뤄내지 못하는 상황, 율법을 배우거나 지키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에 대한 슬픔의 표현과 그들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신실한 노력이 종종 실패함으로 인한 슬픔 등도 포함되어 있다. 본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문단은 아마 92-112절일 것이다. 시편은 이 문단에서부터 더욱 강렬해지며 많은 헌신을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의 165절에서는 “당신의 법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만사가 순조롭고 무엇 하나 꺼릴 것이 없사옵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다. 본 시편은 말씀을 알게 됨으로 인한 기쁨과 알게 된 것을 수행한 후에 만족한 다음 겸허한 한마디로 귀결 짓고 있다. 즉, “이 몸은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 양, 어서 오시어 이 종을 찾아 주소서. 당신의 계명을 소홀히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사옵습니다.”라는 것이다. 본 시편은 주님이 말씀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노년기까지의 우리 삶에 대해서 밝혀 주신 바대로 그분께 의지하는 중에 있게 되는 완전한 삶의 모형을 그려준다.

주님은 시편의 책이 율법과 예언서와 더불어 동등하게 영감 된 책이라고 말씀해주셨다(누가복음 24:44). 과거 히브리인들은 시편을 율법이나 예언서보다 영감이 덜 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편서를 성서의 일부가 아닌 “성문서”의 범주로 분류해 두었다. 그래서 시편과 다니엘서는 유대인의 정경에 속하지 못했다. 시편이 주로 찬송집으로 사용되었던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다니엘서는 거룩한 땅 밖에서의 예언은 영감이 없다는 이유로 정경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에제키엘서는 거룩한 땅 밖의 포로들 사이에서 예언되었다. 에제키엘은 성직자 였는데, 그 책 속에서 그의 영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다는 것에 근거하여 정경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애가도 이집트에서 기록되어져 예레미야서로부터 따로 분류 해 놓았다. 주님은 다니엘이 예언자임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언급하고 계신다. 따라서 새교회를 위한 정경은 히브리 정경에 시편과 다니엘 그리고 애가서가 첨부되어 있다.

주님은 시편이 그분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시편 119편은 전체적으로 내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스웨덴북은 시편과 예언서의 천적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히 밝혀준다. “주님은 율법, 즉 말씀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성취하셨다. 이리하여 주님은 미움을 받게 되셨고, 시험으로부터 고통 받게 되셨다. 주님께서 시험으로 고통 받으심으로써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신성으로 만드셨다.”

질문 정리

- 1) 시편은 무엇인가?
- 2) 유대인들은 시편책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 3) 누구를 통해 많은 시편이 기록되었는가?
- 4) 다윗은 시편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 5) 주님은 시편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6) 가장 긴 시편은 어느 시편인가?
- 7) 이 시편의 구조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 8) 이 시편의 일반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 9) 이 시편이 우리에게 인상 깊은 원인은 무엇인가?
- 10) 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가?

- 11) 왜 우리는 말씀의 교훈에 순종해야 하는가?
- 12) 일부 시편들이 알파벳 순서로 기록된 까닭은 무엇인가?
- 13) 말씀의 권능은 말씀의 어떤 의미에 기초하고 있는가?

질문의 답

- 1) 노래 2) 찬송가 3) 다윗 4) 하느님이 주신 말씀이다
- 5) 주님께 관해 예언되어 있다 6) 119편 7) 알파벳 8) 말씀
- 9) 매 구절마다에서 10)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기 위해서
- 11)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 12) 주제에 대한 완벽한 요약에 담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함
- 13) 글자 또는 글자적 의미

22

벨사살왕의 잔치

머리말

먼저 대 예언서의 일반적인 면을 살펴본 후 본문의 세부사항을 공부한다.

성 서 본 문: 다니엘 5장

5장: 1. 벨사살왕이 잔치를 베풀고 만조백관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일이 있었다. 2. 벨사살은 거나하게 되자 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하여 온 금잔, 은잔을 내 오라고 하였다. 왕은 고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싶었던 것이다. 3. 예루살렘에 있는 하느님의

집에서 약탈하여 온 금잔이 나오자 왕은 그 잔으로 고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4. 이렇게 술을 마시며 금은동철이나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는데 5.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등잔대 맞은 쪽 왕궁 벽에 붙어 있는 판에 글자를 썼다. 왕은 글 쓰는 손을 보고 6. 새파랗게 놀랐다. 그는 머리가 이뻛해지며 허벅지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떨려 7.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장이들을 불러들이라고 고함쳤다. 재사들이 대령하자 왕이 말했다.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어 주는 사람은 자주색 도포를 입혀 주고 금목걸이를 걸어 주며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높은 자리에 앉혀 주리라.” 8. 그러나 불러 나온 왕실 재사들 중 아무도 그 글을 읽고 뜻을 풀어내는 사람이 없었다. 9. 벨사살왕의 얼굴빛이 달라지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고관들은 안절부절 못했다. 10. 그 때 왕비가 고관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연회장으로 올라 가 아뢰었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렇게 안색이 달라지도록 당황하실 것은 없습니다. 11. 임금님의 나라에는 거룩하신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머리가 명석하여 지혜롭기가 하느님 같다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선왕 느부갓네살께서 그를 마술사들과 술객들과 점성가들과 점장이들의 수령으로 임명하신 일까지 있습니다. 12. 임금님께서 벨트사살이라는 이름을 주신 다니엘이 그 사람입니다. 그는 신통력이 놀라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꿈이나 수수께끼나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잘 풀어내는 재주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시면 이 글을 풀어 드릴 것입니다.” 13. 그래서 다니엘이 불러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유다에서 포로로 끌여 온 다니엘이란 사람인가? 14. 그대는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머리가 명석하여 지혜가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다. 15. 나는 재사들과 마술사들을 데려다가 저기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이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말 뜻을 풀지 못했다. 16. 내가 들으니, 그대는 무엇이나 다 잘 알아 내고 어떤 수수께끼든지 풀 수 있다던데 이제 그대는 저 글을 읽고 뜻을 풀이하여 보아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자주색 도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 주며 그대를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높은 자리에 앉혀 주리라.” 1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주시겠다는 선물을 거두시고, 그 사례는 다른 사람에게나 내리십시오. 그래도 저는 임금님께 저 글을 읽어 드리고 뜻을 풀이하여 드리겠습니다. 18. 임금님,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선왕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강대하게 하셔서 영화와 영광을 떨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19. 하느님께서 그렇게 선왕을 위대하게 해 주셨으므로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하 만민이 모두 선왕 앞에서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선왕께서는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올려 앉히기도 하고 내려 앉히기도 하셨습니다. 20. 그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거만을 떨며 자기 생각만 내세우시다가 그만 옥좌에서 쫓겨 나 영화를 빼앗기고 21. 세상에서 쫓겨 나 그 생각이 짐승과 같아져서 들나귀하고 어울려 지내며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몸을 적시며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야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22. 그분의 아들이신 임금님께서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도 겸손해 지시기는 커녕 23. 오히려 하늘의 대주재를 거역하시고 그분의 집에서 쓰던 잔들을 이 자리에 내어다가 대신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잔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금은동철이나 보석으로 만든 신상들,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손안에 쥐고 계시는 하느님, 임금님의 일거일동을 지켜 보시는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으셨습니다. 24.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손가락을 내 보내시어 저 글자들을 쓰게 하신 것은 그 때문입니다. 25. 저기 쓴 글자들은 ‘므네 므네 드켈’ 그 다음은 ‘브라신’입니다. 26. 그 뜻은 이렇습니다. ‘므네’는 ‘하느님께서 왕의 나라 햇수를 세어 보시고 마감하셨다’는 뜻입니다. 27. ‘드켈’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시니 무게가 모자랐다’는 뜻입니다. 28. ‘브라신’은 ‘왕의 나라를 메대와 페르샤에게 갈라 주신다.’는 뜻입니다.” 29.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도포를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 주도록 영을 내리고, 다니엘이 온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사람임을 공포하였다.

30. 바빌론 왕 벨사살은 그 날 밤으로 살해되었고,
 6장: 1. 나라는 메대왕 다리우스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 때 다리우스는 육십 이세였다.

교리 요약

- * 주님께서 모든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 주셨다.
- * 다니엘서도 영감 된 말씀중 하나이다.
- * 자아에 대한 확신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는 정반대된다.
- * 겸손은 선함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상응 연구

성전의 집기들 =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하는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지식들
포도주 = 영적인 진리
벽에 써진 글 = 말씀으로 심판함

해설

우리는 네 권의 예언서들을 “대 예언서”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이 네 권의 책이 뒤에 따르는 열 두 권의 예언서들에 비해 길기 때문이다. 부피가 많은 책이 부피가 작은 책에 비해 더 많은 내용을 제공할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 예언서들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누구에 의해 예언되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이사야는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히즈키아왕 시대와 연결된다. 예레미야는 유다왕국이 함락되는 시기에 예언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바빌론 왕에 의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으로부터 유보되었는데, 이는 그가 백성들에게 바빌론 왕국에 항복하고 공물을 바치며 고향에 머물도록 권유했기 때문이다. 그 뒤 그 땅에 남아 있던 일부 백성들이 이집트로 도망하면서 예레미야를 강제로 데리고 갔다. 그 후 그는 거기서 애가서를 썼는데, 이 예언서가 거룩한 땅 밖에서 쓰여 졌다는 이유로 고대 유대인들은 이 책을 예언서가 아닌 성문서로 분류했다.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바빌론에 끌려간 포로들 중에 속해 있었다. 에제키엘은 성직자였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첫 승리 후의 명령으로 유다의 왕가로부터 발탁되어 성전의 보물과 더불어 초기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다.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면 그와 그의 동료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즉, “흠 없이 잘 생기고, 교육을 잘 받아서 막히는 데가 없으며 무슨 일이나 능숙하고 사리에 밝아 왕국에서 일할 만한 젊은이들을 뽑아 바빌론 말과 글을 가르치게 하였다”라는 구절로 그들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다. 다니엘서는 대화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린이들까지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예언서이다.

앞서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의 유사점을 살펴보았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명성을 떨쳤다. 다니엘 역시 요셉처럼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었고, 하느님에 대한 충실함으로 인해 주님에 의해 보호되면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어져 왕의 인정을 받아 통치자로까지 임명되었다. 그가 당대에 누린 명성에 관한 사항은 에제키엘 14장 14절과 28장 3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장 일부는 그의 환상들에 관한 것인데,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 환상들은 당대로부터 채림과 마지막 심판 때까지의 교회의 전 역사에 관하여 예언된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너 다니엘아, 이 말씀을 비밀에 붙여 마지막 그 때가 오기까지 이 책을 봉해 두어라”하고 명령된다.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제 5장에서 봉인이 떼어지는 구절과 연결된다.

바빌론은 지배욕을 상징한다. 스웨덴북은 하나의 교회에 이 지배욕을 적용함으로써 그에 대해 해석하고 있다. 그 교회란 지배욕으로부터 거룩한 것이 인간의 포부를 섬기도록 하여 거룩한 것들이 모독되게 하는 교회를 말한다. 앞서 살펴본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본 큰 형상이 바로 위와 같은 교회가 점진적으로 황폐해짐을 표현하고 있다. 영적인 측면에서의 바빌론의 역사는 「계시록 설명」 제 1029항에서 자세히 기술되고 있다. 본문이 인용된 제 10항에서는 “주님의 교회, 즉 지배욕이 그 교회를 지배하게 되어 계속적으로 바빌론이 되어간다. 바빌론이 된다 함은 믿음속의 모든 진리 혹은 사랑속의 모든 선들이 황폐해진다는 말이다. 이것은 곧 과국을 의미하며,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교회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교회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과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는 이들 그리고 그 말씀에서 교훈을 받는 이들을 제외하면, 그 교회는 한낱 우상숭배국가로 간주될 뿐이다”라고 서술된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속의 큰 형상을 해석하면서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왕이라고 말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왕국을 다룬 방법, 특별히 다니엘을 대우했던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상당히 현명한 왕이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하지만 그는 그의 나라가 의미하는 특별한 성격인 지배욕과 자만심을 가졌다. 이 두 가지 특성은 그 왕을 수차례 타락하도록 했는데, 이는 제 3장과 4장에서 기술된다. 그 중에서도 4장의 사건은 아주 심각한 것이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본문 18-21절에서 다시 언급된다. 느부갓네살은 사건이 발생될 때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받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다니엘의 하느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도 했다. 한마디로 그는 큰 형상의 금으로 된 머리인 셈이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은 아버지의 자만심과 지배욕은 꼭 닮았으나, 아버지의 지혜는 없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온 보물들을 신전에 있던 보물과 함께 잘 모셔 두었다. 반면에 벨사살은 그것들을 끄집어내어 모독했다. 그의 행위에 관한 사항은 뒤의 참고문헌에서 설명되고 있다. 그 문헌을 참고하면 신성모독의 다양한 행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스웨덴북은 신성모독의 정도를 7개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벨사살의 경우는 다섯 번째 등급에 해당되는데, 이는 신성한 것이 자신의 업적 때문이라고 여기는 자들에 의해 범해지는 신성모독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한 인격 속에 든 지배욕이 유도해 가는 타락중의 하나이다. 또한 교회의 파멸을 야기하며, 그 사람 안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도 한다. 벨사살은 몸체가

없는 손가락의 출현과 이해할 수 없는 글로 인해 머리가 아득해졌고 허벅지가 녹는 듯 했으며 무릎도 떨렸다. 하지만 손가락이나 손가락이 쓴 글은 그를 바꿔놓지는 못했다. 스웨덴붉은 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두려운 상태 하에서는 거듭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영원한 자신의 인격은 오로지 스스로가 날마다 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행해진 것들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미묘하면서도 치명타를 주는 것은 거만함과 지배욕일 것이다.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벽에 써진 글이다. 「계시록 밝힘」 제 313항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금과 은 집기들을 가지고 마신다는 것’과 ‘다른 신을 찬양하는 것’은 선과 진리를 모독함을 뜻함을 알 수 있다. ‘바빌론’ 역시 마찬가지이다. ‘므네’ 또는 ‘세어본다는 것’은 진리의 측면에서 그의 품질을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드켈’ 또는 ‘달아본다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그의 품질을 알아보는 것을 의미한다. ‘베레스’ 또는 ‘나눈다 함’은 흐트러 버림을 의미한다.”라고 설명된다. 제 25절의 말은 바빌론의 언어인 갈대아어이다. 이 언어는 히브리어와 매우 유사하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단어 Peres를 다니엘은 브라신이라는 단어로 대체했는데, 이는 같은 단어로서 다른 형체에 불과할 뿐이다. Upharsin에 있는 「U」는 “그리고”란 의미로, 단어 앞에 붙어서 음성학적 혹은 문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뿐이다. 성경 사전에서는 단어 Peres란 페르시아의 황제를 암시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그 황제가 바빌론을 빼앗는 것을 암시해준다고 추정되고 있다. 다리우스 왕 다음에 보좌에 오른 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였다.

예언자로서의 다니엘 역시 하느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따라서 다니엘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하느님의 말씀이 보호되는 과정과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는 방법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과는 무관하다고 하거나 말씀을 거절하는 이들을 포함해서 실제로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시느냐를 묘사해준다.

질문 정리

- 1) 예언자란 무엇인가?
- 2) 왜 주님은 예언자를 유다와 이스라엘에 보내셨는가?
- 3) 기억나는 예언자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 4)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5) 네 명의 대 예언자는 누구인가?
- 6) 이사야는 언제 어디서 살았는가?
- 7) 예레미야는 언제 어디서 살았는가?
- 8) 예레미야는 어디서 죽었는가?
- 9) 애가서는 누가 썼는가?
- 10) 애가서는 어디서 쓰여 졌는가?
- 11)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어디서 예언했는가?
- 12) 에제키엘의 직책은 무엇이었는가?
- 13) 에제키엘은 환상 속에서 가끔 어디로 데려가졌는가?
- 14) 주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 15) 주님은 어떤 이유로 다니엘에게 능력들을 주실 수 있으셨는가?
- 16) 다니엘이 바빌론에 잡혀왔을 때 누가 그곳의 왕이었는가?
- 17) 다니엘은 어떤 일로 인해 왕국의 통치자 자리에 올랐는가?
- 18) 다니엘과 더불어 연상되는 성경상의 인물은 누구인가?
- 19)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자는 누구인가?
- 20) 그는 어떤 큰 죄를 범했는가?
- 21) 무엇이 그를 겁나도록 했는가?
- 22) 벽에 써진 글은 무엇인가?
- 23) 다니엘은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했는가?
- 24) 본문의 다니엘의 예언은 언제 성취되었는가?
- 25) 벨사살의 행위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26) 벽에 써진 글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주님을 대변하는 자 2) 견책, 경고 3) 나단, 엘리야, 엘리사 등등
- 4) 대 예언서는 길고, 소 예언서는 짧다 5)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 6) 유다왕국의 히즈키야 시대 7) 유다왕국 말기,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

- 8) 이집트에서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9) 예레미야 10) 이집트
 11) 포로중에, 바빌론 12) 성직자 13) 예루살렘 14) 꿈을 해석하는 능력
 15) 그가 주님께 신실했기 때문 16) 느부갓네살 17) 꿈을 해석했다 18) 요셉 19) 벨사살
 20) 성전의 집기들을 모독했다 21) 벽에 써진 글 22) 므네, 므네, 드켈, 브라신
 23) 세웠다, 달았다, 나누었다 24) 그날 밤에 25) 영적인 지식을 이기적인데 사용함
 26) 말씀으로부터 온 심판

23

사자 굴에서의 다니엘

머리말

먼저 유다왕국이 정복당하는 역사적 시점까지를 간략히 언급하도록 한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1-5장까지를 재고해 본다.

성 서 본 문: 다니엘 6장

6장: 1. 나라는 메대왕 다리우스가 차지하게 되었다. 이 때 다리우스는 욕심이 세었다.
 2. 다리우스는 지방장관들 위에 정승을 세 사람 임명하여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3. 그 지방장관들
 에게서 국정 보고를 받으며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보살피게 하였다. 다니엘은 이 정승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4.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신통력이 있어서 어느 정승이나 지방장관보다
 뛰어났으므로 왕은 그에게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다. 5.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은 다니엘
 이 정사에 무슨 실수라도 하지 않는가 눈을 밝히고 보았지만 그에게서는 트집잡을만한 허물은
 하나도 찾아 내지 못하였다. 다니엘은 충직한 사람이었으므로 아무런 허물도 실수도 없었던 것이다.
 6.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는 트집 잡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으니 그의 종교를 걸어 트집을
 잡자고 의논하였다. 7. 정승들과 지방장관들은 왕에게 몰려 와 진언하였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8. 임금님의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임금님께 아웁니다. 앞으로 삼십 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드리지는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사자 우리에 집어넣는다는 금령을 정하시고 9. 그 금령에 서명하시어 수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메대와 페르샤의 법은 수정 못하는 법입니다.” 10. 다리우스왕은 그 금령 문서에 서명하였다.

11. 왕이 그 금령문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올라가 전처럼 자기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와 찬양을 올렸다. 그는 예루살렘 쪽으로 창이 나 있는 다락방에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드렸다. 12.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는 13. 왕 앞에 나아가 왕이 내린 금령을 들어 이 일을 일러 바쳤다. “앞으로 삼십 일 동안 임금님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올리면 그가 누구든지 사자 우리에 집어넣는다는 금령에 임금님께서 친히 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메대와 페르샤의 법은 수정할 수 없으니 그 법 또한 움직일 수 없소” 하고 왕이 대답하자 14. 그들은 다니엘을 고소하여 말하였다. “유다 포로 출신인 다니엘은 임금님을 업신여기고 임금님께서 서명하신 금령을 무시한 채 하루 세 차례씩이나 제멋대로 기도를 올립니다.” 15. 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걱정되었으나 다니엘을 살려 내기로 결심하고 그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다. 16. 그러나 그들은 왕에게 몰려와 주장을 펴는 것이었다.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령이나 법령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메대와 페르샤의 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17. 그리하여 왕은 영을 내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우리에 집어넣게 하고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굶지 않고 섬겨 온 신이 너를 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18. 왕과 대신들은 사자 우리의 문을 막은 돌에 봉인을 하여 아무도 다니엘을 건져 내지 못하게 하였다.

19. 왕은 궁으로 돌아 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후궁의 수청도 물리친 채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20. 날이 새자마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자 우리로 달려갔다. 21. 그는 우리에 다가 서서 목멘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다. “살아 계시는 신을 섬기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겨온 신이 과연 너를 사자들에게서 살려 내 주었느냐?” 22.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23. 소인이 섬겨 온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소인을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소인은 하느님 앞에 아무 죄도 없을뿐더러 임금님께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여 주신 것입니다.” 24. 왕은 다니엘이 살아 있는 것을 크게 기뻐하며 그를 끌어 올리라고 명하였다.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 올리고 보니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하느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다. 25.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처자와 함께 끌어 다가 사자 우리에 처넣게 하였다. 사자들은 그들이 바닥에 채 떨어지기도 전에 달려들어 뼈까지 씹어 삼켰다.

26. 다리우스왕은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한 만민에게 영을 내렸다.

27. “너희에게 행운이 있기를 빌며 27. 내가 이제 영을 내린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사는 자들은 모두

삼가 다니엘의 하느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여야 한다.

그분은 살아 계시는 하느님, 영원하신 하느님이시니,

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며 그 주권은 다할 날이 없으리라.

28. 사람을 살리고 구하여 주시는 분,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살려 내셨다.”

29. 이리하여 다니엘은 다리우스가 왕위에 있을 때와 페르샤 왕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

그의 이름을 떨쳤다.

교리 요약

- * 주님은 그분께 순종하는 이들만 보호하실 수 있다.
- * 일부 예언적인 말씀은 유대인의 신앙과 반대되는 거룩한 땅 밖에서 주어지기도 했다.
- * 주님에 대한 믿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준다.
- * 진실로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도 본의 아닌 실수를 행할 수 있지만, 순진함은 그에 대한 안전장치이다.

상응 연구

메대 = 교회의 선과 진리에 반대되는 사람들

사자 = 진리 또는 거짓의 힘

해설

다니엘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권능이 자신의 삶에 지혜와 안전 그리고 강건함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주님은 그분을 향한 다니엘의 절대적인 신실함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다니엘은 다른 왕국으로부터 가장 슬기롭고 성품이 곧바른 자로 인정되었고, 그의 전 생애동안 높은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더욱이 그는 그를 제거하고자 하는 많은 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했다. 또한 이런 다니엘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와 유사한 점이 많다.

사자 굴에서의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성경 이야기들 중의 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극적인 내용 때문에 어린이나 젊은이들에게 강한 호소력을 지니며, 성인들에게도 귀감이 된다. 어린이나 젊은이들은 세상에 나아가면서 주위의 친구 혹은 동료들로부터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도록 쉽게 유혹된다. 따라서 그들의 삶의 시작부터 도덕적 혹은 영적으로 굳세게 설 수 있도록 말씀의 영감이 필요한 것이다. 어린이들 역시 신체적 발육 상태 혹은 독자적으로 원리를 확립 하지 못한 정도에 따라 시험이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적절히 이겨내는 훈련을 쌓아 시험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만약 어린이가 이러한 영적 훈련 과정 중에 친구나 다른 아이들로부터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충분히 신뢰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 아이는 친구들이 가지는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이런 것들 역시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예증되고 있다.

그러나 본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바빌론이 표현하는 지배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 하에 그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잔치를 더욱 흥겹게 하고자 성전에서만 사용되어야 할 거룩한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신성을 모독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벨사살 왕은 메대 왕 다리우스에게 왕국을 빼앗기고 말았다. 우리가 이를 특별히 어떤 교회나 어떤 교회에 소속된 사람 또는 일반적으로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바빌론”은 종교에 속한 것으로 그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의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움직이다 보면, 종교에 있는 모든 믿음이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스웨덴북은 메대인이란 교회의 선과 진리를 반대하는 이들을 표현한다고 설명한다.

다리우스는 다니엘을 정승의 위치에 앉혀 두었는데, 이는 다니엘이 다리우스의 수중으로 바빌론이 넘어갈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이다. 그는 다니엘을 그의 각료들 중에서 가장 슬기로운 자로 인정하며 총복으로 삼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다니엘의 지혜의 근원은 이해하지 못했다. 다니엘은

모든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표현한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 속에 위대한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지혜를 인간에게 돌리며 자신들의 포부를 위해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들은 인간의 미덕이나 성취가 곧 하느님 자체라고 여기는 “인본주의자들”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교회 속의 선과 진리와는 정 반대되는 것이다.

말씀은 인간주의적인 책동에 짜 맞혀지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기 특별한 총명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 자랑을 포기해야 함에 직면하거나 자기 총명을 떠받들기 위해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됨을 발견하게 된다. 어찌됐든 말씀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거절한다. 이 모습이 사자 굴에 갇힌 다니엘로 표현된다.

사자란 좋은 의미에서는 진리의 권능을 표현하는 반면 나쁜 측면에서는 거짓의 권능을 표현한다. 다니엘은 밤새도록 봉해진 사자굴 안에 있었다. 인간적 총명을 추켜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간 말씀은 그들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 오용 또는 악용된다. 오늘날의 많은 선한 사람들 역시 말씀의 근원이나 그 신뢰도에 의심을 가지며 “나는 모르겠다.”라는 식의 어둠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조만간 아침이 밝아온다. 다니엘은 날이 새자마자 사자우리로 달려온 왕에게 “소인이 섬겨온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소인을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소인은 하느님 앞에 아무 죄도 없을 뿐더러 임금님께도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인간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파괴하려고 하든지 간에 말씀은 영속적인 확실성 위에 서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아침과 같은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당신의 법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만사가 순조롭고 무엇 하나 꺼릴 것이 없습니다(시편119:165).”라고 고백하게 된다. 말씀을 신뢰한 사람들에게 오는 평화는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그 결과를 보여준다. 본문 25-28절을 읽어보기 바란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주님 스스로 다니엘의 예언들이 마지막 심판과 재림의 때까지를 취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본문의 뒤를 잇는 5장의 내용들은 주님이 다니엘에게 기록하도록 주신 예언적인 환상들을 담고 있는데, 이는 첫 기독교회의 모든 역사를 의미한다. 우리는 제12장도 읽어 두어야 한다. 이 마지막 장은 요한계시록 제 5장과도 연관 되어 새교회인들에게 매우 친숙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 부분은 글자에서조차 말씀의 본성에 관해 생각해 보려는 우리에게 명확한 서술을 제시하고 있다.

질문 정리

- 1) 다니엘은 누구인가?
- 2) 왜 그는 바빌론에 있게 되었는가?
- 3)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위대해지도록 했는가?
- 4) 어떤 국가가 바빌론을 정복했는가?
- 5) 이 나라 왕은 누구인가?
- 6) 그는 다니엘에게 어떤 직책을 내렸는가?
- 7) 누가 다니엘을 음모했는가?
- 8) 다리우스는 어떤 법령에 서명하도록 설득되었는가?
- 9) 다니엘은 무엇을 계속했는가?
- 10) 왕은 다니엘을 잃기를 원했는가?
- 11) 왜 그는 서명했던 법령을 철회하지 못했는가?
- 12) 다니엘은 얼마 동안 사자굴에 갇혀 있었는가?
- 13) 누가 그를 구원했는가?
- 14) 다니엘을 음모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 15) 다리우스는 어떤 새 법을 공포했는가?
- 16) 예언자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7) 사자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예언자가 된 젊은 왕자 2) 바빌론 식의 교육을 시키려고
- 3) 하느님에 신신했던 것 4) 페르시아 5) 다리우스 6) 정승
- 7) 다른 정치 지도자 8) 30일간 기도하지 말라 9) 평상시와 같이 기도함
- 10) 아니다 11) 바꿀 수 없기 때문 12) 밤새도록
- 13) 천사 14) 사자굴에 던져졌다
- 15) 모든 이는 다니엘의 하느님을 예배하라 16) 하느님의 말씀
- 17) 좋은 의미로서는 진리의 권능을 뜻하고, 나쁜 의미로서는 거짓의 권능을 뜻함

24

성전 재건에 관한 예언

머리말

에즈라서 1장, 3장, 4장, 5장 그리고 6장을 읽은 후 본문의 배경을 이해해 둔다.

성 서 본 문: 즈가리야 제 4장

4장: 1. 나와 말을 하던 그 천사가 돌아 와서 나를 흔들어 깨웠다. 잠이 덜 깬 사람처럼 얼떨떨해 하는 나에게, 2. 그가 물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나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보인다고 대답하였다. 그 등잔대 꼭대기엔 그릇이 하나 있고,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십지 주둥이가 하나씩 뚫린 등잔 일곱 개가 붙어 있었다. 3. 그리고,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씩 서 있었다. 4. 나는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나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었다. 5. 나와 말하던 그 천사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느냐?”하고 되물었다. 내가 모르겠다고 하자, 6. 그 천사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6. 이것은 야훼께서 즈루빠벨이 할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권세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될 일이다.”

만군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시다.

“산아, 네 아무리 크다 하여도

즈루빠벨 앞에서는 평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산에서 머릿돌을 떼어 올 때,

사람들은 ‘멋지다, 멋지다’하며 환성을 올리리라.”

8. 야훼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9. “즈루빠벨이 제 손으로 이 집에 주춧돌을 놓았으니, 그가 손수 그 일을 이루리라. 그제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가 만군의 야훼이심을 너희가 알리라. 10. 일이 자갈하게 시작되어 사람들이 빈정거렸지만, 즈루빠벨이 골라 놓은 돌을 보고는 그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등잔은 천하를 살피는 야훼의 눈이다.” 11. 나는 그 천사에게 “그러면 등잔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무엇입니까? 12. 또 금대롱으로 기름을 대어 주는 올리브나무 가지가 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13. 그 천사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느냐고 하기에 내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14. 그는 이렇게 일러 주었다.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온 세상의 주를 모시도록 기름 부어 성별한 두 사람을 뜻한다.”

교리 요점

- * 성전의 재건은 주님의 강림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 * 소 예언서의 마지막 세 권은 포로들의 귀환 후 예언되었다.
- *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의도하심을 반드시 수행하실 수 있으심을 믿어야 한다.
- * 신앙에는 사랑이 필수이다.

상응 연구

등잔 = 신성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말씀

기름 = 사랑

두 그루의 올리브나무 = 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

해설

소 예언서들은 성경 공부에서 많이 거론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요나서를 제외하면 이야기 형식이 거의 없어서 성인들 역시 그 책들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책들은 말씀의 여느 부분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우리는 이 책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담고 있기에 주님께서 이 책들이 기록되어 보존되도록 섭리하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소 예언서들은 모두 열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세아서에서 시작되어 말라기서로 끝맺고 있다. 이 책들 중 일부는 그 책의 연대가 언급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첫 아홉 권의 책들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언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오바디아는 예루살렘의 함락을 목격하고 포로들에 속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 세 권인 하깨와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는 포로들이 귀환한 뒤 보내진 예언자들이다. 포로들의 귀환에 관한 역사는 에즈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언급된다. 이 책들은 역사적인 자료로는 충분하나 내적인 의미는 없다. 바빌론의 포로가 된 후 칠십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포로가 된 백성들 중 일부가 거룩한 땅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되었다(예레미야 25:12, 29:10). 에즈라서의 첫 절에서는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 제 일 년이었다. 야훼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말해진다. 그래서 그는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 당신의 성전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지워 주셨다”라고 전국에 선포했다. 또한 그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어라. 하느님의 성전에 가져다 바치도록 자원 예물도 들려 보내고 금과 은과 세간과 가축도 주어서 보내어라”라는 명령도 내렸다. 그리고 황제 고레스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다가 자신의 신전에 두었던 야훼의 성전 기구들을 꺼내도록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귀환의 원인과 그것의 주된 목적이 성전의 재건임을 알고 있었다.

사만 이천 명 이상의 백성들이 여호야킨의 손자 즈루빠벨의 지도하에 귀환하여 매우 기뻐하며 성전의 기초를 세웠다. 물론 옛 사람들이 과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 그 규모나 장엄함이 초라한 것을 보고 슬피 울긴 했지만, 나름대로 많은 이들의 기쁨 속에서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다. 그러나 본문에서 즈루빠벨이 성전의 재건을 돕고자 하는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거절하자 그들은 바빌론에서 고레스를 승계한 왕에게 거짓으로 상소했다. 이로 인해 성전 건축은 중지되고 말았다. 우리가 예언자 하깨로부터 유대인들이 거짓 상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신 그것을 핑계로 삼아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집을 짓는데 몰두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하깨의 독려와 더불어

두 번째 다리우스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선왕 고레스의 과거 문서를 찾아냈다.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이 바뀔 수 없는 까닭에 성전 재건을 계속하도록 명령되었다. 그 후 성전이 완성되었고, 과월절 기념행사가 성전 봉헌에서 성대히 행해졌다.

우리가 위와 같은 귀환의 역사를 간략히 재고해보는 까닭은 귀환의 역사가 신약 성서 이야기의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주님은 구약 성서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하여 주님은 성서를 소유한 이들 사이에 오셔야만 했다. 스웨덴북은 이에 대해서 “거룩한 땅은 태고교회와 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고향이었고 그 지형은 생김새까지도 상응을 지녔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룩한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고 부연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귀환과 성전재건을 완성하는 일은 신성한 섭리 하에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성전이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유대 국가가 더 이상 지상에서의 주님의 교회를 표현하지 못함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세 명의 예언서의 기록을 제외한 그 후의 그들의 모든 역사에는 영감 된 말씀이 더 이상 없었던 것이다. 일반 학자들 중에는 특별히 사해에서의 문서 발견 이후부터 기독교 연대 초기 무렵에 있는 팔레스타인 내의 다양한 종파들을 추적하려고 노력하면서 유대국가의 귀환의 역사에도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우리는 이러한 고고학적 고찰에 흥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거절한 근본 원인은 그들 자신 속에 있었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웨덴북은 예언과 시편에 관한 요약된 의미에서 “소 예언서들은 고대 유대교회의 완전한 황폐와 그에 따른 주님의 오심과 기독교의 건립을 취급한다.”라고 말한다. 사실 소 예언서들에 관한 서술은 세상에 아주 많이 있다. 특히 후대 유대인들은 이 책들을 그들의 나라가 세상에서 특별해지도록 그들 나라의 필연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해석하지만, 이러한 암시는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어디에도 있지 않다.

본문은 위의 사항 외에 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우선 계시록 11장 4절을 읽어보자. 이 구절은 즈가리야의 환상과 요한의 환상 그리고 재림을 하나로 엮어준다. 참고문헌에 있는 계시록 11장 4절의 설명도 주의 깊게 읽어보기 바란다.

개인적인 삶의 측면에서 볼 때 본문은 우리속의 교회인 성전의 재건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한 격려와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천국의 신비」 제 9548-4항에서는 “즈루빠벨은 하느님의 집을 기초하고 그 집을 완성한 사람으로서의 측면으로 볼 때 장차 오실 주님 그리고 영적인 천국과 교회를 회복시켜주실 주님을 표현한다.”라고 서술된다. 우리는 세상적인 필요성으로 많은 요구사항들이 자신에게 주어질 때 혹은 자신 안에 거둬나는 삶과 반대되는 것이 많을 때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성전을 실지로 지으시는 주체는 주님이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본문의 환상을 간직하면 주님께서 우리 속의 성전 건축을 마무리 지어 주신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앞서 계시록 1장의 일곱 등경 또는 촛대는 일곱 교회를 표현함을 언급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 신실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정도만큼 교회이며 등경인 것이다. “일곱 등잔은 천하를 살피는 주님의 눈”이라는 본문의 말씀은 신성한 섭리의 전지전능함을 의미한다. 이 섭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바램을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정도만큼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에제키엘 1:18). 등잔에 기름을 대어주는 두 그루의 올리브나무 또는 올리브 열매란 두 큰 계명 곧 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제 10절의 “일이 자잘하게 시작된다고 누가 빈정거리느냐?”하는 구절이다. 우리 목적의 강건함을 시험하고 측량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큰 위기 혹은 시련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게 되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행동, 즉 우리의 사소한 일들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질문 정리

- 1) 바빌론에서 유대인들은 몇 년간 포로로 있었는가?
- 2) 어떤 왕이 유대인들에게 귀환을 허용했는가?
- 3) 그 왕은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는가?
- 4) 귀환인들의 지도자는 누구였는가?
- 5) 포로가 된 모든 유대인은 귀환을 원했는가?
- 6) 바빌론에 남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귀환하는 동료들을 위해 무엇을 하도록 지시되었는가?
- 7) 왜 성전의 건설은 지연되었는가?
- 8) 그들은 성전 건축 대신 무엇을 행했는가?
- 9)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일깨워 주셨는가?
- 10) 본문의 환상은 즈가리야에게 어떻게 왔는가?
- 11) 그는 환상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12) 즈루빠벨에게 전달하라고 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 13) 천사는 등잔이 무엇이라고 즈가리야에게 말했는가?
- 14) 두 올리브나무는 무엇인가?

- 15) 성전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등잔은 무엇을 그리는가?
- 17) “주님의 눈”은 무엇인가?
- 18) 올리브나무는 무엇을 그리는가?

질문의 답

- 1) 70년 2) 페르시아왕 고레스 3) 성전 재건 4) 즈루빠벨 5) 그렇지 않았다
- 6) 자원 예물과 각종 필수품의 공급 7) 자신들의 안락에 더욱 몰두해 있었다
- 8)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 9) 예언자를 통해서 10) 천사로부터 11) 등잔과 두 올리브 나무
- 12) “그것은 권세나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 내 영을 받아야 될 일이다”
- 13) 주님의 눈 14) 기름 부어 성별한 두 사람(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
- 15) 천국적인 인격 또는 우리속의 교회 16) 말씀, 신성한 진리를 담은 그릇
- 17) 신성한 섭리 18) 주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부터 비롯된 선

25

요나와 아주까리

머리말

요나서의 1장과 2장을 읽지 않고서는 본문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1장과 2장을 반드시 읽어보도록 하자. 요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의문사항들은 흔히 세간의 질문거리가 되며 심지어는 그를 비웃는 이들도 있는데, 이를 명확히 이해해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나서 3, 4장

3장: 1. 야훼의 말씀이 또 다시 요나에게 내렸다. 2. “어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 내가 일러 준 말을 그대로 전하여라.” 3. 요나는 야훼의 말씀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굉장히 큰 도시로서 돌아다니는 데 사흘이나 걸리는 곳이었다. 4.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 가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고 외쳤다. 5. 이 말에 니느웨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고 단식을 선포하였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굶은 배옷을 입고 단식하게 되었다. 6. 이 소문을 듣고 니느웨 임금도 용상에서 일어나 어의를 굶은 배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 단식하였다. 7. 그리고 대신들의 뜻을 모아 니느웨 시민들에게 아래와 같이 선포하였다.

8. “사람이나 짐승, 소떼나 양떼 할 것 없이 무엇이든지 맛을 보아서는 안 된다.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8.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굶은 배옷을 입혀라. 그리고 하느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라.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남을 못 살게 굴던 나쁜 행위를 모두 버려라. 9. 하느님께서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를 멸하시려던 뜻을 돌이키실지 아느냐?” 10. 이렇게 사람들이 못된 행실을 버리고 돌아 서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시었다.

4장: 1. 요나는 잔뜩 화가 나서 투명스럽게 2. 야훼에게 “야훼님, 제가 집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르심으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 다. 하느님께서 애처롭고 불쌍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이시어, 악을 보고 벌하려 하시다가도 금방 뉘우치시는 분인 줄 어찌 몰랐겠습니까? 3. 그러니 야훼님, 당장 이 목숨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4. “아니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화를 내느냐?”하고 야훼께서 타이르셨지만, 5. 요나는 시내를 빠져 동쪽으로 가서 앉았다. 거기에 초막을 치고 그 그늘에 앉아 이 도시가 장차 어찌 되는가 불 심산이었다. 6. 그 때 하느님 야훼께서는 요나의 머리 위로 아주까리가 자라서 그늘을 드리워 더위를 면하게 해 주셨다. 요나는 그 아주까리 덕분에 아주 기분이 좋았다. 7. 이튿날 새벽에 하느님께서는 그 아주까리를 벌레가 쏴아 먹어 말라 죽게 하셨다. 더우기 해마저 내리쬘자 요나는 기절할 지경이 되었다. 요나는 죽고만 싶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투덜거렸다. 9. 하느님께서 요나를 타이르셨다. “아주까리가 죽었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다니, 될 말이나?”

요나가 대답했다. “어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10. 야훼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 아주까리가 자라는 데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랐다가 밤 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아까와하느냐? 11. 이 니느웨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십 이만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교리 요점

- * 인간을 위한 주님의 사랑은 인간의 어떠한 사랑보다도 더 위대하다.
- * 자기주장을 확증하려는 데에 말씀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주된 요소는 이기적인 사랑이다.
- * 진정한 선행을 갖는다면 악한 사람이 회개하며 벌을 면하게 될 때 기뻐할 것이다.

상응 연구

니느웨 = 무지한 사람들의 감각적인 오류에서 비롯된 거짓들
 아주까리(박넝쿨) = 요나 속에 든 악
 벌레 = 악에서 비롯된 거짓

해설

우리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통해 예언자 요나가 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때, 즉 엘리사가 죽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왕에 의해 주님의 예언자로 인정받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예언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요나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록하시기로 선택한 예언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요나서는 예언자 요나의 경험에 관한 것인데, 그 중요성은 마태복음 12장 38-41절과 누가복음 11장 20-32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언급하고 계신다.

주님의 증거가 있고 성경의 다른 기적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요나의 이야기를 불가능한 일로 여기며 한쪽으로 쏠려 두려고 하는 이들도 있다. 이는 과거 성서 번역에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의 경우 “고래”라고 잘못 번역된 것에서 근원된 것으로 추측된다. 오래 전 Revised Standard Version도 잘못된 번역에 속하나 최근에 정정되어졌다. 반면에 한국 성경은 옳게 번역되어져 있어서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나서에 관한 히브리어 또는 마태복음에 관한 그리스어의 경우 큰 물고기 또는 바다 생물을 의미함을 재고하도록 하자. 스웨덴본 역시 그의 일기에서 요나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에서 요나의 이야기를 불신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 이야기를 비슷한 사람들을 접하게 될 때 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요나의 이야기에 매우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본은 「천국의 신비」 제 8481항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있는 선 안에 든 악을 비호하는 거짓이 본문의 ‘벌레’로 비유된다. 그 이유는 거짓이 벌레처럼 쏴아먹어 괴롭히기 때문이다. 천국을 만드는 것에 두 가지가 있듯이, 지옥을 만드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란 악과 거짓이다. 지옥에서 괴로움은 거짓으로부터인바 ‘벌레’에 해당되고, 악으로부터의 괴로움은 ‘불’로 비유된다.”라고 설명한다. 이사야서 66장 24절 또는 마가복음 9장 43-44절을 읽어보면 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니느웨라는 수도가 있는 아시리아 국가는 마음의 추론하는 측면을 표현한다. 「천국의 신비」 제 1188항에서는 “니느웨가 계발되지 않은 회미한 이해성에 따라 있어지는 감각적인 오류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의미함은 요나가 니느웨로 보내지고 그런 상태에 있는 그 도시가 용서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설명된다.

위에서 스웨덴본은 본문에 있는 벌레나 뜨거운 열풍이 가진 의미인 악과 거짓은 거의 모든 사람이 피하기 힘든 시험으로서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험이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그 시험이란 자신이 세운 본보기를 마치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표준인냥 착각하는 것과 자신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게 움직이거나 자신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헐뜯거나 비난해버리는 것을 말한다. 스웨덴본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시험이 심각한 악임을 인상 깊게 기억되도록 그의 저서 곳곳에서 이에 대해서 거듭하여 지적하고 있다. 그 중의 한 예를 들자면, 그는 「천국의 신비」 제 4949항에서 영계에 있는 어떤 이들 곧 “발바닥 밑에 거하는 이들”에 관하여 “이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계속 미끄러져 원위치에 놓이고 만다. 나는 이 사람들이 남들을 자신들과 비교하면서 경멸해온 자들이라고 들었다. 그들은 일종의 우둔함 속에 있는 자들이다. 그 이유는 이런 거만함은 천국의 빛 즉 총명을 소멸시키고 질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되어 니느웨에 주님의 메시지, 즉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라고 선포하여 니느웨의 파멸을 경고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우쭐대면서 그들의 멸망을 지켜보려고 했다. 즉, 그는 자신이 주님의 예언자여서 스스로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착각했던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마음 상태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단 일초라도 행복을 느낄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의 언행에서 공격할 꼬투리를 찾기 위해 자신 속의 거짓된 계산에 골몰하며 자신이 경멸하는 이들을 단번에 찢러 버릴 수 있는 묘수만을 찾는 데에 분주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 속에 있는 선한 특질을 인식하고 음미함에서 비롯된 진정한 기쁨들을 놓쳐버리게 된다. 우리 속의 “벌레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려는 우리의 경향성이 우리가 지닌 가장 미묘하고도 끈질긴 적들 중의 하나임을 항상 염두 해야 할 것이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경향성 때문에 겸허함과 완전한 사랑에 관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5-28절인데, 우리는 이 구절들을 명심해야 한다. 주님은 당신이 가장 위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를 섬기셨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당신을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다. 주님은 우리의 의표를 찢어 우리가 당황하는 모습에 쾌감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성공의 길이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데 기쁨을 느끼신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하고 명령하셨다(마태복음 10:16). 이와 똑같은 교훈은 예제키엘 18장 20-24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히 전달되고 있다. 앞서 다윗과 솔로몬 편에서 살펴본 바대로, 우리는 자신이 가장 슬기롭고 위대해서 어떤 거짓된 생각이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지점에까지 결코 도달할 수는 없음을 늘 되새겨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를 쏘아 먹는 “벌레”가 모습을 감춘 채 드러누워 있는 장소가 우리의 자만심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된 두 가지 성서 구절들을 읽어보면서 본문의 공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자.

예제키엘 18장 20-24절: 죽을 사람은 죄를 지은 장본인이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받거나 아들의 죄를 받거나 하지 않는다. 바로 살면 바로 산 보수를 받고, 못된 행실을 하면 못된 행실의 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만일 못된 행실을 하던 자라도 제 잘못을 다 버리고 돌아 와서 내가 정해 준 규정을 지키고 바로 살기만 하면 그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나는 그가 거역하며 지은 죄를 다 잊어 주리라. 그는 옳게 산 덕분으로 살게 되리라. 그가 못된 행실을 한 자라고 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이라도 그 가던 길에서 발길을 돌려 살게 되는 것이 어찌 내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옳게 살던 사람이 그 옳은 길을

떠나 나쁜 일을 하여 나 보기에 역겨운 짓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따라 다니며 한다고 하자. 그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나는 그가 이전에 옳게 산 것도 알아주지 않으리라. 그는 나를 배신하여 지은 죄를 쓰고 죽을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25-28절: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질문 정리

- 1) 요나서는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 중 어디에 속하는가?
- 2) 요나는 언제 어디서 살았는가?
- 3) 왜 그는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려 했는가?
- 4)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5) 니느웨는 어느 나라에 위치했는가?
- 6)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 7) 왜 그의 예언은 적중하지 않았는가?
- 8) 요나는 기뻐했는가?
- 9) 그는 어디로 갔는가?
- 10) 그가 더위를 면할 수 있도록 무엇이 자랐는가?
- 11) 무엇이 아주까리를 파괴시켰는가?
- 12) 그래서 요나는 분노했는가?
- 13)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4) 아주까리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벌레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우리에게 있어서 요나의 태도와 유사한 점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1) 소 예언서 2) 엘리사 후에, 이스라엘 왕국에서 3) 너무 거만해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다 4) 태풍이 바다에 몰아쳤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 5) 아시리아 6)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 7)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 8) 아니다 9) “시내를 빠져나가 동쪽으로 가서 앉았다” 10) 아주까리 11) 벌레 12) 예 13)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4) 안하무인적인 자아도취, 우월감 15) 안하무인적인 자아도취가 옳은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거짓된 생각 16) 자신의 방법이나 생각이 다른 이들의 것보다 낫다고 느끼는 경우

26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머리말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한 요나의 태도를 상기해 보면, 주님의 오심을 필요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복음서에 성탄절에 관한 외부 사건이 없음을 주시하고, 본문 첫 다섯 구절들을 암기해 두기 바란다.

성 서 본 문: 요한 복음 1장

1장: 1.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2. 말씀은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3.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4.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5. 그 빛이 어둠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 본 적이 없다. 6.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7.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8.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9.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10.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11. 그분이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 주지 않았다. 12.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13. 그들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다.

14.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였다. 15.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치기를 “그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라고 하였다.

16.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17. 모세에게서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18.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 하느님을 알려 주셨다.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성직자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이 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20.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해 주었다. 21.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에요? 엘리야요?”하고 다시 묻자 요한은 또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요?” 그들이 다시 물었을 때 요한은 그도 아니라고 하였다. 22.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하겠으니 당신이 누군지 좀 알려 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소?” 이렇게 다그쳐 묻자 23. 요한은 그제야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하고 대답하였다.

24. 그들은 바리사이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25. 그들은 또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요?”하고 물었다. 26.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따름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27.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요.” 28.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다니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29.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30.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었다. 31. 나도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는 것이었다.” 32.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 와 이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33. 나는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성령이 내려 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33. 나는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성령이 내려 와서 어떤 사람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인 줄 알라’고 말씀해 주셨다. 34. 과연 나는 그 광경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는 것이다.”

35.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곳에서 있다가 36. 마침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하고 말하였다. 37. 그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갔다. 38. 예수께서는 뒤돌아서서 그들이 따라 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라빠, 묵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하고 말하였다. (라빠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39.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시자 그들은 따라 가서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은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 때는 네 시쯤이었다.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 간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41.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 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42. 그리고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가자 예수께서 시몬을 눈여겨 보시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앞으로는 너를 게파라 부르겠다”하고 말씀하셨다. (게파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뜻이다.)

43. 그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래아로 떠나 가시려던 참에 필립보를 만나 “나를 따라 오너라”하고 부르셨다. 44. 필립보는 베싸이다 출신으로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다. 45. 그가 나타나엘을 찾아 가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분을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 사람이오”하고 말하였다. 46. 그러나 그는 “나자렛에서 무슨 신성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하고 물었다. 그래서 필립보는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권하였다.

47. 예수께서는 나타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다”하고 말씀하셨다. 48. 나타나엘이 예수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하고 물었다. “필립보가 너를 찾아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너를 믿느냐?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하시고 51.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너희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느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교리 요약

- * 주님은 신성한 진리로 세상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느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 * 지상에서의 주님의 생애는 구약성서의 성취였다.
- *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진리를 우리의 생각과 행동 지침의 지도자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하느님의 진리에 순종하고자 원할 때에만 그 진리를 받을 수 있다.
- * 우리가 주님의 진리에 순종할 때만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다.

상응 연구

요한 = 선행의 선 또는 일

빛 = 진리

세례 = 진리로 순수해짐

비둘기 = 믿음의 거룩 또는 믿음의 선과 진리

무화과 = 자연적인 선행

해설

복음서들은 주님의 강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해 준다. 마태와 누가복음은 주로 강림에 대한

외부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요한복음은 강림의 본성과 의미를 다루고 있다. 전체적인 면에서도 요한의 복음서는 타 복음서들과 구별된다. 사실 요한은 그의 개인적인 변화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복음서를 쓰도록 영감(靈感)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다른 사도들과 구별된다는 것은 서간집만을 비교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요한의 서간문은 베드로의 것에 비해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과 신뢰를 권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적인 의미를 가진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의 차이도 짐작할 수 있다. 요한의 서간집을 읽는 독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이라는 한 개인의 말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같은 인물이지만 복음서에서는 요한이라는 저자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간혹 계시록에서 인간 요한이 발견되지만, 그 책이 요한의 생각에서 비롯된 글이라는 느낌을 주는 대목은 한 군데도 없다. 오직 기록된 환상의 순수성만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을 뿐이다.

말씀을 담은 글자는 사도 요한에 관한 많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는 제베대와 살로메의 아들로써 그의 형제 야고보와 고기를 잡던 중에 주님의 부름 받았는데, 이는 베드로나 안드레아의 부름과 거의 같은 때였다. 그는 주님의 변모하신 모습을 목격하도록 선택된 세 사람 중의 한 명으로, 회당장 야히로의 딸을 일으키시는 장면도 목격했다. 또한 그는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의 가슴에 기댄 사랑 받은 제자로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리아를 돌보도록 위탁받기도 했다. 이 밖의 기록들을 참조하면, 그가 주님의 승천 후에도 몇 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가 선교를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 주로 에베소 지역에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고령이 되었을 때 파트모스섬으로 유배되었는데, 거기서 계시록의 책에 기록된 환상들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가 부름 받을 당시 그의 나이는 25세였는데, 그는 대략 95세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가장 헌신적이고 열성적이면서도 주님의 추종자중 가장 영성(spiritual)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도 요한이 가지는 상응은 스웨덴북의 저서들에서도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믿음과 선행 그리고 선행으로부터의 선을 표현한다(AC 2135). 그리고 요한은 “선행으로부터의 선들 또는 선행으로부터의 일들”, “선행 일이라는 측면에서의 교회” 또는 “단순히 선행 일” 등을 표현한다고 한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스웨덴북이 말하는 선행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자비심이나 선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천국의 신비」 10087-2항에서는 “요한으로 표현되는 선행으로부터의 선이란 자발적인 선으로서 선행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계시록 설명」 45항에서는 “가장

높은 의미에서의 요한은 교리적 측면에서의 주님을 표현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선이 함유된 일이란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유발되어서 각자의 이해성 속에 든 주님의 진리에 의해 그 행동의 방향이 설정되어야만 함을 유추할 수 있다.

요한의 복음은 주님의 생애에서 인간의 측면보다 신성한 측면을 다루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인 안에 있는 신성한 사랑과 지혜가 인간들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주님의 공생애 중에서 의지의 높은 평면을 표현해 주는 유다지역에서 이뤄졌던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 대한 그분의 심오한 가르침을 세세하게 알려주는데, 특별히 그분의 지상생활 마지막 주간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종려주일에 있었던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 복음서의 제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 사이의 간격이 무려 6장이나 된다는 점이다. 요한 복음서는 타 복음서들에 비해서 기적들이나 비유들이 적게 기록된 반면 주님을 명백하게 인식하면서 내적인 삶에 응용할 수 있는 원리들에 대한 서술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강림에 관한 요한의 설명은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라는 서술에 함축되어 있다. 스웨덴북은 「계시록 밝힘」 200항에서 “모든 생각과 언어 그리고 글로 쓰여 지는 것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쓰는 당사자로부터 그 본질과 생명이 부여된 것이다. 즉, 그 사람의 본질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말 그리고 글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 속에는 주님만이 계신다.”라고 말한다. 본문은 제일 먼저 말씀이 창조자이신 하느님이심을 확증하고 있다. 이는 신성한 사랑이 신성한 지혜를 수단으로 하여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고 행동하고자 할 때 우리가 가진 지식과 생각을 수단으로 하는 것과도 유사하다. “만물은 신성한 지혜를 수단으로 하는 신성한 사랑으로부터 창조되어졌다(삶에 대한 교리 1항).” 본문에서는 말씀이 한 사람처럼 말해지고 있다. 이는 말씀이야말로 하느님의 참된 형체로서 그 안에 신성한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수단으로 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스웨덴북은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애착)과 생각이 곧 진정한 자아이며, 육신은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의 애착과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에 불과함을 알고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다음으로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하는 구절이 이어진다. 신성한 사랑은 자연계의 빛과 열이 태양으로부터 있는 것처럼 생명 자체이고, 신성한 지혜는 이 사랑으로부터 있는 빛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계발시키시는

근원되는 지혜의 빛이라는 것과 이 빛은 만민을 위해 있는 빛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왔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 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6절에서 강경한 어조로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꾸짖고 계심을 볼 수 있다. 당시의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서기관)들은 은근히 자신을 높이도록 계산된 규정의 껍질로 성경을 덮어 씌워 놓아서 하나님의 계명이 이러한 인간의 전통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진정한 효과를 낼 수 없도록 해 놓았다. 그들이 주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그분이 그들의 전통을 끌어 내셨고 순수한 것만을 말씀하시며 그대로 살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속의 이기심과 거만함 그리고 위선을 저주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이유는 우리의 본체인 우리속의 애착이나 생각들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모든 애착과 생각의 근원이 주님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속에 살게 되고 저 세상에서도 그분을 부인하는 곳의 일부에 있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지 않더라도 영혼들이 그곳에 가게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진 애착이나 생각 그대로 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본문은 세례자 요한의 증언과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대목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 이야기 역시 타 복음서와 다른 방법으로 진행된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실제의 사건은 언급되지 않고, 비둘기의 징조가 주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임을 세례자 요한의 증언으로 기술되고 있다. 그리고 이 증언과 연관되어 본문 외의 다른 어느 곳에도 볼 수 없는 사실이 주어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안드레아가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 그가 주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왔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주님께로 인도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그물을 버리고 나서기 전에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스웨덴북에 따르면, 베드로는 믿음을 그리고 안드레아는 순종을 표현한다. “회개하라”는 요한의 메시지는 “와서 보라.”와 같이 주님을 가서 알아보고 인정하며 순종하여 그분을 믿는 쪽으로 인도해준다.

나타나엘이라는 이름은 열 두 사도의 목록에서는 거론되지 않는 이름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는 열 두 사도의 목록에서 필립보에 뒤이어 기록된 바르톨로메오일 것이라고 믿어진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이 본문의 첫 구절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 구절은 창세기 28장 12절의 야곱의 사다리를 떠올리게 해 준다. 앞서 이 사다리는 말씀에 대한 그림임을

설명했다. 우리는 말씀을 수단으로 주님과 결합하게 된다. 이 구절에서 다시 주님이 말씀과 동일함이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후에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요한복음 14장 6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뵙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라는 필립보의 말에 대한 주님의 “필립보야,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나?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뵙게 해 달라니 무슨 말이나?...”라는 하신 말씀 직전에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각자 본문을 정리해 보기 바란다.

질문 정리

- 1) 요나는 누구인가?
- 2) 왜 그는 주님으로부터 달아났는가?
- 3) 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4) 그는 니느웨에 어떤 예언을 했는가?
- 5) 왜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는가?
- 6) 요나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가?
- 7) 그의 심정과 지성을 그려주는 어떤 사건이 그에게 있었는가?
- 8) 주님은 그 사건으로 요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 9)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은 말씀에 무엇을 해 놓았는가?
- 10)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고 있는가?
- 11) 영감 된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
- 12) 우리가 예배를 가질 때 성경을 제단위에 놓고 말씀을 열고 닫는 까닭은 무엇인가?
- 13)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가?
- 14) 본문에서 누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가?
- 15) 어떤 징조가 요한에게 주어졌는가?
- 16) 본문에서 어떤 사도들이 등장되는가?
- 17) 나타나엘은 다른 곳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는가?
- 18) 주님이 세상의 빛이다 함은 무슨 의미인가?

- 19) “하느님의 아들”은 무슨 뜻인가?
 20) 왜 만인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가?

질문의 답

- 1) 이스라엘의 예언자 2) 너무 거만하여 니느웨를 경고하지 않고 싶어서 3) 큰 물고기가 삼켰다 4)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잿더미가 된다” 5)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 6) 성이 났다 7) 박 넝쿨의 이야기 8)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9) 자기들 사상으로 말씀을 덮어놓았다 10) 성서 참조 11) 신성한 진리가 글로 표현된 형체 12) 주님의 현존에 대한 상징물 13)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되심 14) 세례자 요한 15) 비둘기 16) 안드레아, 베드로, 필립보, 나타나엘 17) 바르톨로메오 18) 그분은 인간의 지성을 계발해 주신다
 19)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주님의 신성한 인성
 20) 어떤 이들은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임

27

가나에서의 기적

머리말

우리는 성경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생애를 공부해야 하는데, 요한 복음서를 공부하기에 앞서 타 복음서에 있는 그분의 생애 주요 사건들을 재정리 해두어야 한다. 즉, 주님의 탄생, 이집트로의 피난, 나사렛으로의 귀환, 십 이세가 되던 해 성전으로 오신 주님, 세례 그리고 40일간의 광야에서의 시험에 관한 것이다. 또한 기적에 관한 것과 주님께서 기적을 수행하셨던 까닭을 살펴본 후 본문을 공부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요한의 복음 2장 1-11절

2장: 1. 이런 일이 있는 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래아 지방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예수와 어머니도 계셨고 2. 예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고 와 계셨다. 3.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다. 4. 예수께서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5.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렀다.

6.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예식에 쓰이는 두세 동이들이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다. 7.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마다 모두 물을 가득히 부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여섯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8. 예수께서 “이제는 퍼서 잔치 말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하셨다. 하인들이 잔치 말은 이에게 갖다 주었더니 9.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 물을 떠간 그 하인들은 그 술을 어디에서 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잔치 말은 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술맛을 보고 나서 신랑을 불러 10.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 법인데 이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으니 웬 일이요!” 하고 감탄하였다. 11. 이렇게 예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갈릴래아 지방 가나에서 행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육의 어머니인 마리아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차차 신성화하신 후에 그것들을 점차적으로 벗으셨다.
- * 복음서에서 갈릴래아란 삶의 외부측면을 표현한다.
- * 우리는 영적인 인간이 되고자 하면 신성한 진리에 관한 우리의 자연적인 지식을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 임하시도록 하여 그것들이 영적인 지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
- * 결혼이란 선과 진리가 하나 됨을 표현한다.

상응 연구

갈릴래아 = 바깥쪽인 행동평면

사마리아 = 생각평면

유다 = 의지평면

물항아리 = 이해성 속

해설

본문의 기적은 요한의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은 이를 “기적들의 시작”이라고 부른다 (King James 번역 참조).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주님의 적극적인 공생애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의 시험을 끝내신 직후 즉시 시작되었고 그분이 받으신 세례는 그분이 마리아로부터 유전된 인간성 속에 든 악을 벗으셨음을 상징한다고 전한다. 그러나 요한은 당시에 주어진 세례자 요한의 증거를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더 충분하고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준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능력을 발휘해 보도록 요구되었을 때 먼저 지적하신 바는 그분이 마리아와 별개임을 분명히 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스웨덴본은 제 4절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여인이여, 저나 어머니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번역한다 (이는 그리스어를 직역한 것이다). 이 말씀은 마리아를 견책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도우시려는 그분의 능력이 마리아를 통해서나 그녀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님을 함축하는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진리를 숙고해 보도록 하는 질문형식의 답인 것이다. 주님의 어머니 역할로서의 마리아는 교회를 표현하는데, 이 교회를 수단으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교회란 본문에서 주님과 잔칫집 사람들 사이의 중매역할을 하는 마리아와 같은 역할을 한다. 주님은 마리아로부터 입으신 유한한 인간성을 수단으로 악과 접촉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서 그 악들을 모조리 극복하셨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를 위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교회란 사람들이 주님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들 속의 악을 각자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분의 권능으로 진리를 응용하면서 악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다.

악한 경향성들을 극복하여 유한한 인간성을 벗어버린 결과가 아들과 아버지 또는 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사랑의 점진적인 결합이다. 이런 이유로 첫 번째 기적이 혼인 잔치에서 거행된 것이다.

그 이유는 가장 높은 의미에서의 결혼이란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결합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사랑과 지혜는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진정한 결혼이란 천국에서의 행복의 가장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란 결합을 위한 바램과 더불어 그 바램에 따른 보조물로서의 의미로 창조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는 사랑과 진리가 하나로 되려는 경향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성(sex)으로 뚜렷이 구별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다른 이성들은 결혼하려는 바램을 갖게 되는데, 남자는 지적인 요소를 그리고 여자는 애착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그래서 인간 삶의 가장 높고 깊은 기쁨은 부부으로부터 비롯되며, 인간 삶의 가장 악하고 비참함은 부부의 남용으로부터 비롯된다.

본문의 첫 두 구절은 기적에 대한 경이로운 배경을 제시해 주고 있다. 숫자 3이란 완전함을 묘사한다. 그래서 ‘사흘째’란 때가 왔음 곧 주님이 그분의 적극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갈릴래이란 삶의 외부평면(일상생활)을 그려준다. 가나란 ‘갈대가 많음’이란 뜻인데, 이는 진리에 대한 외면적인 이해성을 암시한다. 또한 갈대란 말씀의 가장 낮은(말단적인) 의미를 상징한다. 갈대가 망상이라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쉽게 흔들거리며 구부러지는 모습을 떠올려보면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혼은 선과 진리의 결합을 표현하는데, 이 결혼식에 마리아가 있었다. 이것은 교회가 인식되는 모습을 의미한다. 게다가 주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은 그분과 함께 하고 싶은 바램 그리고 그분에 관한 지식들을 바라는 마음을 의미한다. 위의 세부적인 설명을 종합해보면 어떤 인격에 대한 묘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말씀에 대한 외면적인 지식만으로 생활하면서도 올바른 삶을 꾸리고자 간절히 소망한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가서 주님에 관해 알아보고 더 배우기를 소원하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람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있는 주님과 젊은 부자청년과의 대화를 상기케 한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어릴 적부터 계명을 지켜왔다고 대답하면서 “그런데 아직도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주님께 여쭙었다. 이 청년처럼 주님을 찾아뵙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조건들을 성실히 수행하여서 생활적으로는 성실한 교인들에게 그분이 공급해 주셔야만 하는 부족함이란 무엇일까?

마리아는 주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라고 말했다. 물과 포도주는 모두 진리를 상징한다. 물은 자연적인 평면 수준의 진리를 상징하는 반면 포도주는 영적 평면 수준의 진리를 상징한다. 부자 청년이 준수한 계명은 자연적인 평면에서의 진리들이다. 부자 청년은 그 계명들이야 말로

사회생활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고 인정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계명을 잘 준수해야 만이 사회적으로 경외 받고 자존심도 보존할 수 있음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부자 청년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그 청년의 재산이란 그가 가진 물질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의 재산에 그가 계명을 지킴으로서 얻으려고 한 자아 찬양(자존)심과 타인들로부터 칭찬 받고 싶은 욕망이 근간이 되는 지극히 인간적인 수준에서의 진리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계명이 인간사회의 규범으로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계명들이 곧 주님의 법임을 인식하고 주님의 법이 우리 영혼의 발달과 보존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임을 인식하게 되어 그분을 신뢰하며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면, 자연적인 평면에 머물렀던 우리 안의 계명은 영적 평면의 수준인 법이나 계명이 되어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을 가져다주게 된다. 한마디로 본문 9절의 “물은 어느새 포도주로 변해 있다”와 같게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일렀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주님은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 다음 주님은 잔칫집 안에 있는 그릇을 사용하도록 하셨다. 여섯 개의 물 항아리들이란 우리의 영적 삶의 발달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지식을 표현한다. 주님은 이 항아리들 모두에 물을 가득히 부으라고 명령하셨다. 주님은 잔치에 필요한 포도주를 얻기 위해 하인들을 밖으로 내보내어 구하도록 하는 대신 그들이 이미 가진 물을 사용하도록 하셨다. 이 시점에서 신명기 30장 11-14절을 읽고, 그 내용을 상기하도록 하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리는 이 법은 너희로서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거나 미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법을 내려다 주지 않으려나?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터인데’하고 말하지 말라. 바다 건너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이 바다를 건너가서 그 법을 가져다주지 않으려나?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터인데’하고 말하지도 말라. 그것은 너희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서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구절은 집안에 있는 물로 부족한 포도주를 공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 주님은 “이제는 퍼서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선과 진리의 결합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진리를 사용하라는 명령인 것이다. 선과 진리의 결합은 곧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주님의 왕국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왕국은 우리속의 선과 진리가 얼마만큼 하나 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지식을 자꾸 사용하면 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즉, 자신의 지식을 남에게 알려주거나 생활에 응용해 가면 그 지식은 더욱 명확해져서 구체성을 띄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물을 퍼서 나누어주니 포도주가 되는 모습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얻고자 최선을 다하며 획득된 순수한 진리를 이웃에게 전달해 주려는 바램을 가지면 주님의 도움을 얻게 되어 진리를 전달하는 동안 오히려 자신에게 영감이 더 확연히 오게 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피할 수 없이 부딪쳐야만 하는 난관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야말로 성경에서 배운 진리를 직접적으로 응용할 기회인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진리를 응용해 간다면, 우리 앞에 그 난관을 해결할 길이 훤히 보이게 되고 과거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던 짐이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나의 기적이 가르치는 의미이다.

유입(influx)은 유출(efflux)에 비례한다고 한다(AC 5828-3항). 그리고 주님은 만물 가운데 계시 되 그 사물의 쓰임 속에 존재하신다고도 한다.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은 우리가 수행해 가는 모든 쓰임 속에 현존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자연적 지식이라는 물이 영적 진리라는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글자에 있는 진리라는 물이 우리의 외적 삶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같이 말씀속의 내적 진리라는 포도주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10절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경험을 종종 하게 된다. 우리가 외적 동기인 체면이나 겉치레로 인해 봉사를 수행하게 되면, 우리의 열의는 점점 감퇴되고 우리의 포도주는 점차 질이 떨어지게 된다. 반면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참여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좋은 포도주가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된다. 새교회인은 “여섯 돌 항아리”, 즉 여섯 개의 일반 교리를 갖고 있다. 우리는 이 돌 항아리들의 가장자리까지 물로 가득 채우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욱 진리를 배우는 곳에 우리의 이해성을 붙잡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주님이 포도나무시라는 것 곧 진정한 포도주는 그분으로부터만 비롯된다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는가?
- 2) 왜 우리는 영감 된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가?
- 3) 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이 되셨다”라고 부르는가?
- 4)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 5) 왜 주님은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
- 6)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누가 태어났는가?
- 7) 어떤 징조가 세례자 요한에게 주어졌는가?
- 8) 어떤 제자가 주님을 처음 뵈었는가?
- 9) 이 밖의 어떤 제자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되는가?
- 10) 주님은 어디서 탄생하셨는가?
- 11) 베들레헴은 거룩한 땅의 어느 지역에 속하는가?
- 12) 주님은 어디서 성장하셨는가?
- 13) 나자렛은 그 땅의 어느 지역에 속하는가?
- 14) 유다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역의 이름은 무엇인가?
- 15) 주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어디서 사셨는가?
- 16) 기적이란 무엇인가?
- 17) 주님의 첫 번째 기적이 있었던 곳은 어디인가?
- 18) 왜 주님은 가나로 가셨는가?
- 19) 잔치에서 무엇이 부족했는가?
- 20) 누가 주님께 도움을 청했는가?

질문의 답

- 1) 성서참조 2)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 3) 그분이 살아있는 진리이시기 때문
- 4) 그분의 진리가 살아 있고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있게 해준다는 뜻 5)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6) 세례자 요한 7) 비둘기 8) 안드레아 9) 베드로, 필립보, 나타나엘(바르톨로메오)
- 10) 베들레헴 11) 유다 12) 나자렛 13) 갈릴래아 14) 사마리아 15) 가버나움
- 16) 주님께 의해 행해진 경이로운 것들 17) 가나 18) 혼인잔치 19) 포도주 20) 마리아

주님과 니고데모

머리말

제 1장에서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근간으로 본문을 살펴본다. 니고데모는 위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외에 속했으나 주님을 믿는데 공개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못했다. 본문에는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3장 1-21절

3장: 1. 바리사이파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2.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 와서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3. 그러자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4. 니고데모는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5.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 6.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7. 새로 나아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8.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9. 니고데모는 다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10.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이름난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11. 정말 잘 들어 두어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12. 너희는 내가 이 세상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두고 하는 말을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 온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 간 일이 없다. 14.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15.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17.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18.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20.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21.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데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환경을 아시며, 우리의 약함을 위해 그 환경을 허락하시기도 한다.
- *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를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단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 우리는 자신 안의 참된 감정을 덮어두려는 심정속의 악을 점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응 연구

뱀 = 삶의 감각적인 부분

구리 = 외면상의 선

물로 태어남 = 바깥쪽 행동의 재구성

성령으로 태어남 = 거듭남,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바꿈

밤 = 무지한 상태

해설

니고데모는 바리사이파인으로서 유다 지도자 중 한사람이었지만, 주님이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 주님을 찾아 갔었다. 바리사이파인은 종교 규율을 글자 그대로 준수하는 것에 집착했던 계층이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위선자로서 율법의 형식은 준수하면서도 그 정신은 무시했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성경에 무지했음은 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데서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으로부터 배우고자 했다. 그가 밤에 찾아 왔다고 함은 말씀에 대한 그의 무지한 상태를 상징한다. 니고데모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 까닭은 그분의 인격에 관한 이해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분이 베푸신 기적에 있었음을 2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주님은 밤중에 찾아 온 그의 비겁함을 즉시 지적하지 않으셨고, 단지 신성한 인내로 그의 상태가 어떠한지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그분의 가르침이 그를 21절로까지 인도해 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그의 약점을 보여주셔야만 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젊은 부자 청년에게 “너의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라 오너라”하고 말씀하신 것같이 그분은 니고데모에게도 직접적으로 충고하지 않으셨고, 단지 그의 내적인 태도를 바꿔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셨던 것이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진심으로 따랐다는 것은 후에 그가 주님을 옹호하려고 시도했다는 것과 십자가에 달리신 후 그분의 시신을 돌본 두 부자들 중의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요한복음 7:50, 19:39). 주님은 우리를 덮어 씌운 외적 조건이나 우리의 한계성을 항상 인식하고 계신다. 이는 열왕기하 5장 18-19절에서 시리아 장군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통해 주어진 기적을 읽어보면 더 이해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내가 아버지께 원하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서 지켜 주시는 일입니다”라는 기도를 통해서도 이를 이해할 수 있다(요한복음 17:15).

말씀의 전반에서 자연적인 출생과 성장은 거듭남과 유사한 관계를 지닌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물론 그들의 조상인 옛 고대인들은 그 지식을 갖고 있었다. 재 출생에 해당되는 거듭남은 갑자기 혹은 단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태아로 된 후 출생되고 성장하는 것처럼 점진적이며 조금씩 향상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본문에 대해서 「주님의 섭리(Divine Providence)」와 「새예루살렘과 그곳의 천국적인 교리 (the New Jerusalem and its Heavenly Doctrine)」에서 다음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유는 인간이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는 유전적 형질에는 온갖 종류의 악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악을 제거함으로써 영적으로 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태어난다. 만약 인간이 영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자연적인 존재 수준으로부터 영적 존재 수준으로 되는 것이 다시 태어남 또는 거듭남이다” (Divine Providence 83항)

“인간은 부모로부터 영적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생명만 부여받는다. 영적인 생명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사랑하여 이에 따라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게 되어 이를 기초로 그분이 말씀에서 가르치신 믿음을 갖는 데에 존재한다. 반면에 자연적인 생명은 자아와 세상을 이웃보다 심지어 하느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데에 존재한다.” (New Jerusalem and its Heavenly Doctrine 174&179항)

그리고 본문 5-8절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스웨덴북의 「천국의 신비」 제 10240항을 참고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재구성과 거듭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앞서 이스라엘 후손들의 광야에서의 배회생활과 거룩한 땅의 정복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재구성은 우리의 첫 의무인데, 이는 말씀에서 얻은 진리대로 자신의 삶을 질서 있게 놓는 작업이다. 거듭남은 우리가 우리의 심정과 지성 속에 든 우리의 적인 악과 거짓을 인식하여 싸우고 몰아냄으로써 주님의 영이 들어

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말한다.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 오미 본문에서 바람에 비교되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을 볼 수는 없지만, 들어와 계신 후에 있게 되는 결과는 인식할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여러 곳에서 “영(spirit)”으로 번역되는 그리스어가 8절에 있는 바람과 같은 어원의 단어라는 것이다. 즉, 원어인 그리스어는 바람과 영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구성과 거듭남은 세례자 요한의 일과 주님의 일 사이의 차이점으로도 기술된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본문에 있는 단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1-15절에서는 주님의 영만이 인간을 천국으로 들어 올릴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광야에서 높이 들려진 구리 뱀이란 주님이 모든 시험을 정복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 주시고자 높이 들어 올려 진 그분의 감각적 측면에 대한 상징이다. 주님이 세상에서 입으신 인성은 위에 기술된 질서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지만, 그분은 이 세상 삶 속에서 입으신 감각적인 형질을 차츰 신성화 하셔서 진정한 질서가 무엇인지와 그 질서에 따른 삶을 형성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이다. 두 번째 출생은 우리 속에서 작업하시는 주님의 영에 의해 새로운 인격으로의 출생인데, 우리는 이로써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다.”라고 말씀되고 있다.

우리가 우리 속의 이기적인 충동들에 반대되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름을 고되게 여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우리는 주님을 저주하시는 분처럼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총명하셔서 저주하시지 않으심을 명심해야 한다. 신명기 6장 24절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며 모든 규정들을 지키라고 분부하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주님이 아들이라고 일컬으신 인성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는 그분의 사랑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며, 우리가 그분의 길을 막고 서 있는 우리속의 악을 한쪽으로 치워 내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주실 수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며, 자아 추구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신다. 따라서 주님은 그분의 모든 권능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바, 때로는 기적이나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세상에서의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믿으면, 그분의 충고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행복해질 수도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된다. 여기서의 저주란 주님께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자아 추구만을 선택한 우리의 결정으로 인해 초래되는 저주이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은 우리를 영원한 불행으로 몰고 간다.

어떤 사물의 이름은 그 사물의 특성을 가리킨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함은 그분의 특성을 믿는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이 명백하게 가르치신 사랑과 겸손 그리고 온유와 친절 등이 신성의 참된 특성이며, 우리가 적극 배양해야 할 미덕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를 믿지 않으면, 그분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미 죄인으로 판결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그분의 미덕 대신에 자아와 세상을 사랑하는 자체가 바로 지옥의 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9-21절은 매우 쉽게 이해되도록 서술되어 있다. 우리가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아집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충고도 경청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진리의 빛을 원치 않게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믿지 않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삶을 고치거나 자신의 악을 기꺼이 인정하지 않아서 주님을 거절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생각 그리고 느낌들을 무조건 옹호하며 감싸려고 할 때마다 이를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위험신호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데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 1) 바리사이파인과 서기관이란 어떤 사람인가?
- 2) 그들은 성경에 무슨 짓을 했는가?
- 3)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 4) 왜 그들은 주님을 반대했는가?
- 5)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사이파인의 이름은 무엇인가?
- 6) 그는 어떤 직책을 가졌는가?
- 7) 왜 그는 밤에 주님을 찾아 갔는가?
- 8) 왜 그는 주님을 믿게 되었는가?

- 9) 주님은 그가 어떤 질문을 원한다고 보셨는가?
- 10)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 11) 주님은 “다시 태어남”에서 무엇을 의미하셨는가?
- 12) 주님은 광야에서의 구리뱀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주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 14) 이미 죄인으로 판결된 이유는 무엇인가?
- 15)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행동을 두둔하려 들 때 잠깐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16) “물로 태어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7) “성령으로 태어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8) 세례자 요한의 일과 주님의 일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질문의 답

- 1) 바리사이파인 - 아주 엄격한 종교계층, 서기관 - 성경을 베끼는 사람
- 2) 자기들 사상을 첨가시켰다 3) 위선자 4)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셨기 때문
- 5) 니고데모 6) 의회 의원 7) 동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8) 기적들
- 9) 하늘로 가는 길 10) 다시 태어나야 한다 11) 회개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라
- 12)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13)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14) 믿지 않는 것
- 15) 십중팔구 자신의 고집대로 원할 것이기 때문 16) 바깥쪽 삶을 깨끗이 함
- 17) 안쪽 삶을 순수하게 함
- 18) 세례자 요한 - 바깥 삶을 깨끗이 함
주님 - 자아사랑을 주님과 이웃 사랑으로 대체시키고 생각을 순수하게 함

야곱의 우물가에서의 주님

머리말

본문은 몇몇 성경의 이야기들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는데, 야곱과 요셉의 죽음 그리고 아시리아에 의한 이스라엘 왕국의 정복 등이 그 예다. 이에 대해서는 창세기 33장 18-20절과 48장 21-22절과 50장 24-26절, 출애굽기 13장 19절, 여호수아 24장 32절 그리고 열왕기하 17장 24-41절을 참고하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4장 1-42절

4장: 1.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얻으시고 세례를 베푸신다는 소문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 2. (사실은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다.) 3.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래아로 가기로 하셨는데, 4. 그 곳으로 가자면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하였다. 5.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시카르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옛날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인데 6.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먼 길에 지치신 예수께서는 그 우물가에 가 앉으셨다.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와 있었다. 7. 마침 그 때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다.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들어가고 없었다. 9.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께 “당신은 유대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10.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하고 대답하시자 11. 그 여자는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그 샘솟는 물을 떠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12.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마셨고 그 자손들과 가축까지도 마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하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13. 예수께서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하셨다. 15.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자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하고 청하였다. 16.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 오라고 하셨다. 17.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는 말은 숨김없는 말이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19.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20. 그런데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21.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23.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24.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25. 그 여자가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 주시겠지요.” 하자 26. 예수께서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27. 그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돌아 와 예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무엇을 청하셨는지 또 그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물어 보는 사람은 없었다. 28.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돌아 가 사람들에게 29. “나의 지난 일을 다 알아 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렸다. 30.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모여 들었다.

31.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무엇을 좀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32. 예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33.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누가 선생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수군거렸다. 34. 그러자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본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35.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 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라.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이미 다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36. 거두는 사람은 이미 삯을 받고 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알곡을 모아 들인다. 그래서 심는 사람도 거두는 사람도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37. 과연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속담이 맞다. 38. 남들이 수고하여 지은 곡식을 거두라고 나는 너희를 보냈다.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지만 그 수고의 열매는 너희가 거두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39.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자기의 지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 맞히셨다고 한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40. 예수께서는 그들을 찾아 와 자기들과 함께 묵으시기를 간청하므로 거기에서 이틀 동안 묵으셨는데 41.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42.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우리는 당신의 말만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하고 말하였다.

교리 요점

- * 우리가 주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 *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생명수가 솟는 우물이다.
- * 선행(charity)은 믿음 또는 진리와 함께 하여야만 그 실재가 가능하다.

- * 선행이 바탕 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 * 선행과 믿음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여서 분리되어서는 그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상응 연구

“이” 물 = 자연적인 진리

“샘솟는” 물 = 주님이 진리 안에 현존하심을 인식할 때의 진리

해설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 결코 되돌아오지 못했다. 아시리아 왕은 그들이 끌려가고 난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동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켰다.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이 외국인들이 사자로 인해 곤란을 받다가 하느님을 믿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사자들로 인한 고통의 원인을 그들이 정착한 새로운 땅의 신들을 예배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출신의 성직자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되돌아온 후 여호와를 예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섬겨왔던 신도 섬겼다.

그들은 이로부터 거의 칠백 년이 지난 본문의 시대에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이주민으로 간주되며, 바리사이파인들이 세운 전통이 그들에게 금해지고 있었다. 사마리아 지역은 거룩한 땅의 세 지역 중 중간, 즉 갈릴래아와 유다 사이에 위치하여 있었다. 유다는 우리 삶의 평면 중 깊은 곳인 의지나 동기를 의미하고, 갈릴래아는 외부적인 곳인 행동을 의미한다. 이 둘 사이에 위치한 사마리아는 우리의 생각에 해당된다. 본문은 ‘주님이 유다를 떠나 갈릴래아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거치셔야만 했다’라고 전한다. 이는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를 수행할 수 있기 전에 그것들을 먼저 생각해 볼 때만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생각 없이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행동으로 바로 시도하게 되면 그 결과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뒤죽박죽되어 버림을 경험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다. 거룩한 땅이 우리 속에 있는 교회를 그린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천적인 교회를, 사마리아는 이해성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교회를 그리고 갈릴래아는 행동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외적인 교회를 의미한다. 영적 교회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애착) 안에 존재하고, 그 마음에 연결된 선은 이웃을 향한 선행으로부터의 선이다(천국의 신비 2702-5, 계시록 설명 375-42항 참조).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영적인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다.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주된 이방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다소 갖고 있었지만 진리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다.

주님의 시대 때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을 향한 선행으로부터 비롯된 선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상징했다(계시록 설명 375-42항). 이에 대한 의미를 밝혀주는 성경의 구절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다. 본문에 등장한 여인은 다섯 번이나 결혼했고 그나마 같이 사는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을 행하려는 사람이 갖가지 종교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면 서도 진리에 대한 그의 이해가 그가 바라는 선에는 여전히 미흡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마리아 여자의 물동이는 한정된 교리를 표현한다. 본문에서 명확히 보여주는 사항은 사마리아인이 주님에 대한 소식을 기쁘게 듣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주님으로부터 신성한 진리를 받으려 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표현한다. 겸손하고 가르침을 바라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보다 주님을 더욱 기꺼이 영접했던 것이다. 이는 기독교회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성장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들이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가졌다는 것과 예루살렘에서나 사마리아 산에서의 예배가 영이신 주님에 대한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스웨덴볼 역시 새로운 교회가 비록 이전 교회에 속해 있던 소수의 선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을지라도 선한 이방인들 사이에서 발달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새교회라고 부연한다.

시카르 마을 주변은 신성시되는 곳이었다. 이 지역은 야곱이 세계의 아버지인 히위 사람 하물로부터 사들인 한 구획의 토지였는데, 야곱은 이 땅을 요셉에게 여분으로 물려주었다(창세기 48:22). 이곳은 출애굽 때에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가 묻혔던 곳이기도 하다. 야곱의 우물은 “야곱의 샘”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신명기 33장 28절에서 언급되고 있다. 야곱의 우물은 말씀에 대한 상징이다(천국의 신비 2702-5항 참조). 주님의 시대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이 우물을 소유하며 사용했었다. 이는 성경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이 우물은 상당히 깊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의 양이 노력한 정도에 비해 아주 적었다고 함은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끌어내려 할 때 애쓰는 갖가지 방법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외적인 지식은 설사 그것이 성경에 관한 외적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이 우물가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생명 있는 물을 주셔야만 한다. 이는 우리가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이 현존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서 성경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의 외적인 의미 곧 글자적인 의미만을 보게 되면 성경을 고된 명령들 혹은 악에 대한 징벌뿐인 것으로 여기거나 전쟁 또는 파괴만을 일삼는 이야기들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를 새롭게 해줄 성경으로부터의 진리의 양은 아주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뵈고 악이 주는 섬뜩한 파괴를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악들을 피하도록 해주심을 분명히 알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설사 고집을 부려서 주님으로부터 한없이 떨어졌다고 할 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길로 되돌아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진리를 제공하고 계심을 실감하게 된다. 따라서 성경의 진리는 우리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해준다. 또한 사랑이신 주님의 목적과 섭리는 우리의 마음상태가 그분의 인도에 관한 지식을 변화해 갈 때마다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게 된다.

계시록 22장 17절에서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주님의 초대는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 즉,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라는 것이다. 인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생생한 현존에서 솟아오르는 기독교회는 곧 내적인 교회이다. 이 교회는 예배의 외적 형체를 종교 자체라고 주장하지 않고, 심정과 지성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그 형식을 지켜나간다고 인식한다. 하느님은 영이시므로 그분의 안내와 힘을 얻기 위해 그분을 찾는 이들이 해 놓은 선한 일들 속에 이미 거하시는 것이다. 즉, 주님이 생명수를 주실 준비를 갖추고 계셔서 우리가 그분께 요청하기만 하면 과거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와 똑같이 섭리하신다는 것이다.

본문에는 흥미로운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주님은 진리를 바라는 선함을 의미하는 사마리아 여인과는 물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신 반면 진리로 훈육된 사람을 의미하는 제자들과는 생명의 양식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은 대비되는 내용이다. 제자들이 시내로 가서 구입하여 되돌아와 주님께 드린 양식은 자연적인 선함을 상징하고, 야곱의 우물에서 여인 스스로 길어 올리려던 물은 자연적인 진리를 상징한다. 그래서 주님은 자연적인 물을 생명수와 대비시키셨듯이 제자들이 산 양식을 그분의 양식과 대비하여 보여 주신 것이다. 여인은 선행을 가졌지만 믿음이 필요했다. 제자들은 믿음을 가졌지만 선행이 필요했다. 그리고 주님의 양식 곧 그분의 생명에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즉, 우리의 고집대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영체 곧 우리의 천국적인 인격에 자양분을 공급하여 우리를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느라 자아를 잊게 되면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교훈은 35-38절에서 다시 주어지고 있다. 스웨덴본은 「계시록 설명」 911-16항에서 ‘이 구절은 새교회의 건설을 다루는 것이며, 실제로 새교회의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속에 포함될 뿐이다.’라고 해석한다. 앞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배웠듯이 씨를 뿌리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뿌림을 받을 뿐이다. 그 다음 본문 마지막 문단에서는 주님의 영이 일하심에 대한 명확한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서 그들과 함께 묵으시기를 그분께 간청했던 것과 그들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로서 그분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처음에 여인의 증거로 믿게 되었지만, 차후에는 그분에게서 직접 들어서 믿게 되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의 첫 번째 받아들임은 우리의 마음이 자극되어져 있어 진다. 그러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받아들임이 이해성에 의해 다시 받아들여져야 함을 가르쳐 주신다. 제 26절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다. 그 이유는 주님을 하느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 “예수는 그분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느님으로서 주님을 인식하는 것만이 모든 성경을 조화롭게 해주어 성경으로부터의 진리가 우리를 안내해 주고 강건케하도록 힘을 준다는 확신과 더불어 말씀을 대하도록 해준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씀에서 기쁨을 얻게 된다.

질문 정리

- 1) 주님의 시대 때 거룩한 땅의 세 지역은 어떻게 구분되었는가?
- 2) 중간 지역은 어디인가?
- 3) 사마리아 사람이란 누구인가?
- 4) 본문에서 주님은 어디에서 어디로 여행하시고 계신가?
- 5) 그분은 어느 곳에서 쉬시기 위해 멈추셨는가?
- 6) 야곱의 우물이 있는 땅 구획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7) 주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누가 왔는가?
- 8)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하자 그 여인은 왜 놀랐는가?

- 9) 주님은 그녀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 10) 주님이 예언자임을 알도록 그녀에게 보여준 그분의 말씀은 무엇인가?
- 11) 주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그녀에게 말씀하셨는가?
- 12) 주님은 그분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
- 13) 무엇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해주었는가?
- 14) 야곱의 우물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생명의 물이란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갈릴래아, 사마리아, 유다 2) 사마리아 3) 아시리아 왕에 의해 이주된 외국인들
- 4) 유다로부터 갈릴래아로 5) 야곱의 우물 6) 야곱이 사서 요셉에게 준 땅
- 7) 사마리아 여인 8)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
- 9) 10절 참조 10) 다섯 명의 남편 11) 나는 그리스도이다
- 12)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 13) 그분의 말씀들
- 14) 말씀 15) 생명 있게 하는 신성한 진리

30

베짜타 못

머리말

본문 이전의 사건은 주님의 두 번째 기적에 관한 것인데, 이 구절 역시 읽어두기 바란다.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 주님이 과월절을 기념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

을 알 수 있다. 이는 4장 45절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요한은 주님의 첫 방문 시에 성전을 정화하셨다고 말한다(2:13-16). 본문 이전의 이러한 사항들은 주님께서 유다와 갈릴래아를 자주 오고 가셨음을 보여준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5장 1-16절

5장: 1. 얼마 뒤에 유다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 가셨다. 2. 예루살렘 양의 문 곁에는 히브리말로 베짜타라는 못이 있었고 그 둘레에는 행각 다섯이 서 있었다. 3. 이 행각에는 소경과 절름발이와 중풍병자 등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4.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 와 물을 휘젓곤 하였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도 다 나았던 것이다.) 5. 그들 중에는 삼 십 팔 년이나 앓고 있는 병자도 있었다. 6. 예수께서 그 사람이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아주 오래된 병자라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하고 물으셨다. 7. 병자는 “선생님, 그렇지만 저에게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8. 예수께서 “일어나 요를 걷어 들고 걸어 가거라” 하시자 9. 그 사람은 어느새 병이 나아서 요를 걷어 들고 걸어 갔다. 그 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10. 그래서 유다인들은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요를 들고 가서는 안 된다” 하고 나무랐다. 11. “나를 고쳐 주신 분이 너더러 요를 걷어 들고 걸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꾸하자 12. 그들은 “너더러 요를 걷어 들고 걸어 가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었다. 13. 그러나 병이 나은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 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미 자리를 뜨셨고 그 곳에는 많은 사람이 붐볐기 때문이다. 14. 얼마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자, 지금은 네 병이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욱 흉한 일이 너에게 생길지도 모른다” 하고 일러 주셨다. 15. 그 사람은 유다인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쳐 주신 분이 예수라고 말하였다. 16. 이때부터 유다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다 하여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우리의 이해성 안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 * 어린 시절에 획득한 말씀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베짜타 못”이다.
- * 우리가 진실로 자신의 과오를 인식하고 그것을 고치려 하면, 말씀의 지식은 이때 우리의 이해성을 휘젓게 된다.
- * 우리는 자신의 과오 중 하나가 고쳐진 후 또 다른 과오와 싸우기 위해서 전진해야 한다. 이렇게 지속해나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악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전보다 더 큰 악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게 되더라도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이뤄주기 때문이다.

상응 연구

못 = 기억에 모아진 진리
 다섯 = 조금이지만 아껴두신 우리속의 선한 상태
 침상(요) = 우리가 받은 교리

해설

우리는 본문에서 물에 관련된 사항을 또 다시 배우게 된다. 본문에서의 못에 모여진 물이란 기억 안에 수집된 진리 또는 말씀에 관한 우리의 지식에 해당된다. 베짜타 못은 예루살렘 양의 문 근처에 있다. 이 구절은 우리 안에 수집된 지식이 우리 이해성의 거룩한 성 안에 있으며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는 순진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계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순진했던 시절 곧 마음이 열려있던 아주 어린 시절 우리 안에 저장된 말씀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못 주위에 있는 다섯 행각에서도 암시된다. 그 이유는 숫자 다섯이란 “매우 적은 또는 아껴두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설사 모든 인간의 마음들이 말씀 자체에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신성한 섭리는 말씀에서 오는 진리의 집합체인 못을 가지도록 설비해주신다.

베짜타 못 주위의 행각들에는 병든 사람들로 붐볐다. 이는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그려준다. 소경, 절름발이 혹은 중풍병자 등의 환자들이란 질병에 시달려 무기력해진 우리의 애착들과 생각들

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 안의 병든 부분을 치료하고자 주님께서 우리 속 깊은 곳에 저장해 두신 진리를 상징하는 작은 못 주위에 운집해 있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젓곤 하였다”라고 전한다. 신성한 진리를 담은 우리 속의 못은 우리의 이해성 속에서 많은 세월동안 조용하게 머물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나 주위 환경이 그 진리로 인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가늠되면, 주님의 특사인 천사 또는 우리 안에서 역사 하시는 그분의 영이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못으로 내려오셔서 그것을 휘저어 우리로 하여금 못 속에 있는 진리를 인식하도록 해 주신다. 스웨덴북은 이에 대해서 “물이 휘저어짐은 믿음과 인식을 통해 활력이 있게 됨을 상징하고, 그로 인해 진리를 통해 순수해짐을 표현한다 (천국의 신비 10083-4).”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속의 어떤 나쁜 점은 치료된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병약자 또는 물의 움직임에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는 자들은 우리속의 고쳐야 할 것들 중에서도 쉽게 고쳐지는 것들을 의미한다. 즉, 이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고 느껴지는 나쁜 점들이어서 우리가 고쳐야 한다고 인정하며 노력하겠다는 결심으로 인해 진리를 재빠르게 이해하게 되어 다른 것들보다 더 쉽게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속의 나쁜 점들을 단 번에 모두 지적해 낼 수는 없다. 따라서 스웨덴북은 ‘순수한 회개란 우리가 죄인임을 일차적으로 고백한 후 더욱 회개해 나갈 때 가능한데, 이는 우리속의 특별한 어떤 것을 제거한 후 또 다른 하나를 맞이해 싸워 나가는 식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진정한 기독교 종교 525항).’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거듭남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 28장 10절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배짜타 못가에는 38년이나 기다려 무기력해지고 지쳐버린 병자도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물이 움직이는 시기를 결코 맞출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이 병자는 우리가 우리 속에 든 악들 중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싸워내기 힘들다고 느끼는 깊은 악들을 상징한다. 즉, “난 내 속의 그것만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본시 가지고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라고 중얼거리며 그것들을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마는 우리 속 깊숙이 뿌리내려진 악들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모두 이러한 악들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숫자 38년이란 우리에게 희망을 암시해 준다. 숫자 30이란 우리가 해 보겠다고 결심하면 우리 속에 남겨있는 선함과 진리가 그 악을 대적하는 데에 충분하다는 것을 표현한다. 그리고 숫자 8이란 대적한 후 새로운 시작도 가능함을

표현한다. 하지만 본문의 요점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 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너는 네 속에 뿌리박혀 있는 악을 뽑아내고 싶으냐?” 라고 물으신다는 것이다. 이 질문은 달리 표현하자면, “너는 네 거둢남을 송두리째 다 끝내고 싶으냐?” 또는 “너는 남들이 뻔히 알 수 있는 피상적인 악들을 고치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외의 것에는 너의 능력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핑계로 네 속의 심각한 악들을 방치하려느냐?”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들의 변명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단호하셨다. 주님은 38년간 못가에서 주거하셨던 병자에게 “일어나 요를 걷어두고 걸어가거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기할 수 있는 사항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의 공격에서 실패했을 때의 모습일 것이다. 그때 주님은 낙심하여 있는 그에게도 “일어나 나가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스웨덴북의 저서에 따르면, 일어남이란 올림(높임 또는 향상) 곧 악에서부터 선으로 혹은 무지에서부터 총명으로 올려 짐을 의미한다고 한다 (천국의 신비 2401, 4481). 우리는 우리의 심정과 지성 을 세상적인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영적인 회미함으로부터 끌어올려 주님의 약속과 권능에 신뢰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누워있던 요 곧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추켜들고, 자신 속의 악들과 정면으로 대결하러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린 다윗이 주님이 자기편임을 믿고 거인 골리앗을 정면으로 맞서 개울가의 자갈을 날려 쳐 죽였듯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를 물었을 때 그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라고 답하셨다. 이 구절에서의 산이란 있는 그대로의 자신, 즉 자기 자신의 특질들 또는 자신의 사상에 만족해버림을 의미한다. 우리는 때로 자신 속의 깊고 깊은 악들을 가지고 은밀히 즐기기도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결점을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여기며 그것이 자신을 남들과 다르게 또는 우월하게 해주는 좋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아만족은 우리의 영적 진보의 길을 가로 막고 선 큰 산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낫기를 진실로 원하는가’를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확신 있게 찾으려 하며 우리가 지닌 모든 진리를 가지고 과감하게 전진하게 된다.

본문의 기적이 진행되는 가운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이 안식일에 행해졌음을 지적하며 주님을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안식일에 관한 계명에 그들의 전통을 추가시켜, 전통과

안식일이 같은 것으로 여겨지도록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주님은 이들이 첨부한 전통을 무시하셨고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주님은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마가복음 2:27-28).”라고 말씀하셨다. 안식일은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드신 것이다.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과 자아에 폭 빠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깨트리는 사람에게 약속된 죽음, 즉 모든 영적 생명의 죽음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7일중 하루는 세상적인 업무나 관심을 한쪽에 내려놓고 주님과 그분의 왕국에 관해 배우고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 영혼이 치료받고 소생되는 날이 되도록 그분께서 특별히 안식일을 지정하여 주신 것임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안식일에도 많은 기적을 수행하셨던 것이다. ‘주일에 해야 하는 것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끊이지 않는 질문들 중의 하나이고, 전통이나 관습이 미묘하게 얽힌 기독교 사회 속에서는 더욱 끈질긴 질문거리이기도 하다. 국가, 공동체 또는 각 가정마다 안식일에 관한 나름대로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까지 전통들을 안식일의 의미에 첨가하게 되면 복음시대 때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한 변명으로 안식일에 관한 주님의 서술을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안식일에 대한 본보기 속에는 나태함 또는 이기적인 탐닉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됨을 결코 인정해주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즉,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6절의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서서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 가셨다”라는 구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안식일에 세상적 생각과 활동으로부터 쉬면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 우리는 안식일을 그분에 관해서 배우고 생각하는 기회의 날로, 우리 영혼의 집을 짓기 위한 재료를 채취하는 날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양하는 날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다가오는 주일을 준비하는 데 좋은 방안들을 강화시키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일어나 요를 걷어내고 걸어가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질문 정리

- 1) 사마리아는 거룩한 땅의 어느 부분인가?
- 2) 사마리아 사람의 선조는 누구인가?
- 3)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래아로 가시던 도중 어디서 멈추어 쉬셨는가?
- 4) 주님이 물을 달라고 사마리아여인에게 물으셨을 때 그녀는 왜 놀랐는가?
- 5) 주님은 그녀에게 물에 관해 무엇을 말씀해주셨는가?
- 6) 주님은 그녀에게 자신에 관한 무엇을 말씀해주셨는가?
- 7)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8)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 9) 베짜타 못은 어디에 있는가?
- 10) 못 주위에는 몇 개의 행각이 있는가?
- 11) 어떤 이들이 행각에서 기다렸는가?
- 12) 그들은 무엇을 기다렸는가?
- 13) 물이 휘저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14)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이 못에 있었는가?
- 15) 주님은 그에게 먼저 무엇을 물어보셨는가?
- 16) 그는 뭐라고 답변했는가?
- 17)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 18) 그가 그렇게 하자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 19)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꾸짖었는가?
- 20) 주님은 고침 받은 사람을 다시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1) 종교지도자들은 이 병자를 고친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는가?
- 22) 우리속의 베짜타 못은 무엇인가?
- 23) “일어나 요를 건너들고 걸어가거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중간지역 2) 외국인 3) 야곱의 우물

- 4)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 5) 4장 10절 참조
- 6) 나는 그리스도이다 7)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 8)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 9) 예루살렘 10) 5 11) 병자들 12) 물이 휘저어지기를 기다림
- 13) 먼저 물에 들어간 병자는 치료됨 14) 38년 15)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 16)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17) “일어나 요를 걷어 들고 걸어가라”
- 18) 치료되었다 19) 그는 안식일 법을 깨트렸다 20)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 21)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22) 기억 속에 저장된 하느님의 방법에 관한 지식
- 23) 너의 생각을 끌어 올려라, 네 삶을 기초한 교리를 추켜 들어라, 앞으로 전진하라.

31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머리말

본문은 기적 자체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도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본문 전체를 기억하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9장

9장: 1.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셨는데 2.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저 사람이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3.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4. 우리는 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 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5.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6.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흙을 개어서 소경을 눈에 바르신 다음

7.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하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과견된 자”라는 뜻이다.) 소경은 가서 얼굴을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 왔다. 8. 그의 이웃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 노릇을 하고 있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하고 말하였다.

9. 어떤 이들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을 닮기는 했지만 그 사람 아니라고도 하였다. 그 때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시오”하고 말하였다,

10.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하고 묻자 11. 그는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시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2.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하고 물었으나 그는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13. 사람들은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14.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였다. 15. 그래서 이번에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또 그에게 눈을 뜨게 된 경위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 주신 뒤에 얼굴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6. 바리사이파 사람들 중에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면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하는 사람도 있었고 “죄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을 보일 수 있겠소?”하고 맞서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17. 그들이 눈멀었던 사람에게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니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하고 다시 묻자 그는 “그분은 예언자입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8.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본래는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고 마침내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19. “이 사람이 틀림없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물었다. 그의 부모는 “예, 틀림없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저의 아들입니다. 20. 그러나 그가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눈을 뜨게 하여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 제 일은 제가 대답하겠지요” 하였다.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작정하였던 것이다. 23. 그의 부모가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 보십시오”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은 소경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 놓고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25.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앞뚝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잘 보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26.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소?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했던 말지요?” 하고 그들이 다시 묻자 27. 그는 “그 이야기를 벌써 해드렸는데 그 때에는 듣지도 않더니 왜 다시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28.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너는 그자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29.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직접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만 그자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른다.” 하고 말하였다. 30. 그는 이렇게 대꾸하였다.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도 모른다니 이상한 일입니다. 31. 하느님께서 죄인의 청은 안 들어 주시지만 하느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실행하는 사람의 청은 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2.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준 이가 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33. 그분이 만일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도저히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34.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너는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혼계하려 드느냐?” 하며 그를 회당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35. 눈멀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를 만났을 때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36. “선생님, 믿겠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하고 대답하자 37. 예수께서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하고 말씀하셨다. 38. “주님 믿습니다.” 하며 그는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렸다. 39. 예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40.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사이파 사람 몇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들도 눈이 멀었던 말이지요?” 하고 대들었다. 41. 예수께서는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하고 대답하셨다.

교리 요점

- * 고난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발달을 위한 기회인 것이다.
- * 눈이 먼 채 태어난다고 함은 영적으로 볼 때 신성한 진리를 배우고 이해할 기회를 외부적인 환경면에서 박탈되었음을 뜻한다.
- * 결함이 있는 영혼은 하나도 없다.

상응 연구

소경 = 무지

주님의 침 = 말씀의 글자로부터 온 진리

해설

본문의 기적과 그 결과가 긴 세부사항으로 말씀에 기술된 바는 본문의 교훈이 아주 복잡적이고 본문과 별 상관없을 듯 한 교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의 첫 세 구절을 읽으면서 이를 실감할 수 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고난이 그에게 허용된 까닭을 궁금하게 한다. 게다가 순진한 심정을 소유한 것 같은 이들에게 있어지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더 그 의미를 되문게 한다. 그래서 세상 속에 널려져 있는 슬픔이나 악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신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도록 유혹되기도 한다. 본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다는 다른 사람들 역시 인간이 겪는 고난들이 죄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벌이라는 것 이상의 명확한 설명을 해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고난의 원인이 개인 혹은 환경에서 비롯되었는가를 고민할 뿐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명확히 대답해주셨다.

본문에서 소경의 치료를 통해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과 이후의 후세들에게 교훈되는 바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신성한 섭리에 의해 인도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보다는 더 깊은 보편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유전적으로 받은 악한 경향성 혹은 태어난 환경이 나빠서 거짓 속에서 자라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환경조건들은 우리의 삶이 놓이게 되는 터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고난들과 고통들은 우리의 인격을 발달시키기 위한 기회로서, 하느님의 놀라우신 일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사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즉 자신 속의 악한 경향성을 인정하고 그것과 싸우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리고 진리를 만나서 인식한 후 재빨리 그것을 추켜드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하는 우리의 선택인 것이다.

우리는 본문을 읽어가면서 본문에 등장한 소경의 인격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주님은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그의 인격을 이미 알고 계셨다. 본문은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셨는데...”로 시작된다. “주님이 누군가를 보셨다”라고 함은 그분이 그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든 겸손과 선함 그리고 그가 진리를 간절히 알고자 함을 보셨다는 의미이다. 소경의 고난은 그로 하여금 자만으로 가득한 바리사이파인들과는 달리 겸손과 온화한 속성을 지니도록 해 주었다.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는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소경의 심정은 믿음에 대해 열려 있었고, 이로 인해 “하느님의 일”이 그에게서 드러났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중에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것들의 목적이다. 신성한 섭리는 우리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는 우리를 점검하셔서 우리의 악과 약함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심정과 지성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의 길 뿐임을 알려주신다.

눈이 멀었다고 함은 무지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오늘날의 대화에서도 흔히 사용되어 상응이란 단어를 설명하는 데에 가장 간단한 예증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나는 본다(I see)”라는 표현은 실상 “나는 이해한다(I understand)”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난 정말 눈이 멀어 있었어.”라고 말하는 것은 사건의 진척 상황에 자신이 무지해 있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어떤 행동이나 사건의 인과관계에 무지한 사람을 두고 “시야가 짧다”라고 말한다. 본문의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었다. 이는 그가 영적 진리에 무지했음을 뜻하나, 그의 무지함은 사실 그의 탓이 아니었다. 소경이란 단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여 무지해짐을 표현하는 것이다.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수행하셨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언급되는 옥도란 주님이 인간의 마음 안에서 보신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문의 진흙은 선을 표현한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물인 침이란 인간의 외부상태에 걸맞은 형태로 표현되는 신성한 진리, 즉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 안에 든 진리들”을 표현한다(계시록 설명 239-19.) 그리고 소경이

자기에게 발라진 진흙을 씻어낸 실로암 못이란 말씀의 글자에서 온 진리를 수단으로 거짓 사상을 제거함을 표현한다. 이 못도 베짜타 못처럼 우리의 이해성 속에 저장된 말씀의 글자에 관한 지식을 표현한다. 이 못의 물이란 당시 예루살렘의 수원이 되는 물의 일부로서 새롭게 솟아나는 물이었는데, 이는 말씀의 글자에 관한 지식이 우리 영혼 속의 거룩한 성을 씻기고 만족시켜줄을 상징한다. 이와 같은 지식은 앞서 살펴본 바대로 주님께 의해 우리 속에 저장되어 있으나, 진정한 영적 가르침을 갖지 못한 사람은 그 지식의 용도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 안에 지식이 존재함을 알게 될지라도 그것을 단순히 인간이 만든 도덕적 규범 정도로 간주해버리고 만다. 그가 주님의 진리를 이렇게 간주해 버리면, 그 진리는 그 안에서 결코 주님과 천국의 연결을 이룰 수 없다. 우리가 말씀에 의거한 삶을 정립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어서 우리의 삶을 말씀의 질서대로 정착시키며 생명을 주시는 그분과의 만남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한 번 번쩍 열리게 되면 우리를 확실함 속으로 인도해간다.

본문의 나머지 부분은 소경이 이처럼 번쩍 뜨인 눈을 가진 후 갖게 되는 믿음의 발달에 대한 경이로움을 보여준다. 바리사이파인들은 그 사람의 체험 자체보다 가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들이 기적의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이후 그들은 기적이 수행된 수단을 부정한 것으로 만들려고 했고, 결국 그를 무지한 죄인이라고 칭하면서 회당에서 쫓아냈다. 근대의 바리사이파인들 역시 그때와 마찬가지로 진리에 무감각하다. 이들은 영적인 깊은 체험을 가진 사람과 접하게 될 때 먼저 그 체험을 논리로서 반박하려 하고, 그것을 자연적인 것이나 영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원인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상대방을 바보로 간주해 버린다. 바리사이파인은 단순히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아서 그것을 거절했던 것이다. 반면 본문에서 눈을 뜬 자는 그러한 논박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이는 그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앞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잘 보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한다. 사람의 내적인 눈이 체험에 의해 영적인 진리를 보도록 열릴 때에 그 사람은 영적 진리의 실재를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그에게 그가 체험한 것이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이었을 뿐이라고 깎아 내리는 천박한 논쟁을 격파하도록 하는 힘을 준다.

본문의 눈뜬 자는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에 역이용했고, 결국 자기 경험의 근원을 스스로 분명히 인식해 나갔던 것이다. 그가 주님께 관해 고백한 첫 마디는 “예수리는 분이...”였다. 바리사이파인들의 질문은 그로 하여금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해보도록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라고 두 번째로 고백하게 되었다. 이후 바리사이파인들이 주님을 부정하게 하려고 애쓰자 그는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더욱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다시 나타나시자 그는 그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증만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자 그는 “주님, 믿습니다.”라고 세 번째로 고백하며, 예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렸다.

소경이 눈을 뜨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어느 순간 말씀에서 빛이 나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다음 그 경험과 반대되는 것들 곧 바리사이파인들의 것과 같은 세상적인 추론 혹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들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더욱 명료하게 하고 격려해주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으로서 주님을 받게 된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예수도 인간이셨다는 사상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려는 진실된 바램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계속 공부하면, 우리는 예언자로서 주님을 먼저 인식하는 데로 인도된다. 그런 다음 어떤 방법으로든지 신성으로서의 주님과 궁극적으로 하느님 자체이신 주님을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주님은 자만심과 교만으로 그분을 마음속으로 거절하는 고백을 하는 추종자들에게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신다.

질문 정리

- 1) 뼈짜타 못은 어디에 있는가?
- 2) 그 못에는 몇 개의 행각이 있는가?
- 3) 누가 행각에 모여 있었는가?
- 4) 왜 그들은 거기에 있었는가?
- 5) 어떤 이는 얼마나 오랫동안 아파왔는가?
- 6)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물으셨는가?
- 7) 그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 9) 그가 순종하자 어떻게 되었는가?
- 10) 그 후 주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 11) 본문의 소경은 언제부터 눈이 멀었는가?
- 12)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고 주님께 무엇을 질문했는가?
- 13)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 14) 소경의 눈은 어떤 과정을 거쳐 보게 되었는가?
- 15) 이 기적에 대한 반론은 어떻게 제기되었는가?
- 16) 눈을 뜨게 된 자는 이 반론으로 인해 자신을 치료해주신 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도록 인도되었는가?
- 17) 소경의 부모가 주님을 노골적으로 찬양하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 18) 그들이 기적의 사실을 부인하지 못했을 때 그분의 적들은 주님을 어떻게 몰아붙였는가?
- 19) 눈뜬 자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 20)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 21) 그 후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해주셨는가?
- 22) 눈뜬 자는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응했는가?
- 23) 본문에서는 주님이 세상에 오셨던 까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 24) 바리사이파인들은 무엇을 물었는가?
- 25)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해주셨는가?
- 26) 소경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7) 우리는 이 세상 삶에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질문의 답

- 1) 예루살렘 2) 5 3) 병자들 4) 치료받기 위해 5) 38년
- 6)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7)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 8) 일어나, 요를 걷어 들고, 걸어 가라 9) 치료되었다 10)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 11) 태어날 때부터 12) 누구의 죄 탓입니까? 13) 누구 탓도 아니다
- 14) 진흙을 바르고 못에서 씻음 15) 안식일에 행했다는 것 16) 예언자
- 17)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서 18) 그는 죄인이다 19) 32절 참조
- 20) 쫓겨났다 21)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22) 그분을 경배했다

23) 심판을 위해 24) 우리가 눈이 멀었던 말이오? 25) 41절 참조 26) 무지
27) 주님을 믿을 것이냐? 또는 믿지 않을 것이냐?

32

선한 목자

머리말

본과의 제목은 남녀노소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 다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제 10장

10장: 1.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양 우리에게 들어 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뜰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2. 양치는 목자는 문으로 버젓이 들어간다.

3.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4. 이렇게 양떼를 불러 낸 다음에 목자는 앞장 서 간다. 양떼는 그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뒤따라간다. 5. 양들은 낯선 사람을 결코 따라 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음성이 귀에 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피하여 달아난다.” 6.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7.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8.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9. 나는 문이다.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10.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11. “나는 착한 목자이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12. 목자가 아닌 삥꾼은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쳐 버린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 가고 양떼는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 13. 그는 삥꾼이어서 양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14.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15.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16.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어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 양들도 데려 와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내 음성을 알아듣고 마침내 한 때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 17.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다시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18. 누가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치는 것이다. 나에게는 목숨을 바칠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은 명령이다.” 19.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시 논란이 일어났다. 20. 많은 사람이 “그는 마귀가 들렸소. 그런 미친 사람의 말을 무엇 때문에 듣는 거요?” 하고 말하는가 하면 21. 어떤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소? 더구나 마귀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यो?” 하고 말했다.

22. 때는 겨울이었다. 예루살렘에서는 봉헌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23. 예수께서는 성전 구내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23. 유대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당신은 얼마나 더 오래 우리의 마음을 조이게 할 작정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25.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명해 준다. 36.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27.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 온다. 28.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29.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아무도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30.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31. 이때에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집어 예수께 던지려고 하였다. 32.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맡겨 주신 좋은 일들을 많이 보여 주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못마땅해서 돌을 들어 치려는 것이냐?” 하고 말씀하셨다. 33. 유대인들은 “당신이 좋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왜 돌을 들겠소? 당신이 하느님을 모독했으니까 그러는 것이요. 당신은 한갓 사람이면서 하느님 행세를 하고 있지 않소?” 하고 대들었다. 34.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 하신 기록이 있지 않느냐? 35. 이렇게 성서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신이라고 불렀다. 성경 말씀은 영원히 참되시다. 36.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만은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39. 그 때에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몸을 피하셨다. 40. 예수께서는 다시 요한이 전에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41. 그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 와서 서로 “요한은 기적을 보여 주지 못했지만 그가 이 사람에 관해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고 하면서 42.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교리 요점

- *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심정과 지성 을 겸손하며 신뢰하는 상태로 간직해야 한다.
- * 주님의 가르침 위에 자신의 생각 혹은 타인의 사상을 얹어 놓는 사람은 그분에게서 진리를 흠치는 것이다.

상응 연구

목자 = 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호하며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
이리 = 순진과 선함에 반대하여 그것을 파괴하려는 악

해설

스웨덴봄의 저서에서 양은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된다. “천적인 것들”, “선행과 믿음을 지닌 이들”, “의지로부터의 선” 또는 “단순히 선 가운데 있는 이들” 등이 그 예다. 어린 양은 특별히 순진의 선, 즉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지녀야 할 가장 깊은 선함을 의미한다. 순진의 선이 가장 높은 천국의 천사를 통치하는 원리인 것이다(계시록 설명 314항; 천국과 지옥 276-283참조). 가장 높은 천국의 천사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인도 받기 위해 오로지 주님만을 찾는 온유하며 사랑스러운 영들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지닌다. 그래서 그들은 이기적으로 소원하는 바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그들의 특질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깊은 특질을 표현하여 성경에서 그분이 자주 어린 양이라고 불리시는 것이다(요한복음 1:29,36; 이사야 53:7; 계시록 5:6, 7:17). 이러한 주님의 특질은 그분에 대한 진정한 예배의 필수 사항으로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매일 흠 없는 어린 양 두 마리를 바치도록 명령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구약의 규정을 매일 밤낮으로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고.”라고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서 그 제사의 의미를 지켜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 주님 혹은 이웃을 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격리되도록 바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바램은 우리로 하여금 악과 거짓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준다. 이와 같은 연유로 어린 양이 과월절의 고기로 사용된 것이다(출애굽기 12:3-10). 그리고 유아는 이러한 사랑이 외형상으로 구체화된 것으로서, 어린 양은 어린 아이의 출생에 가장 적합한 제물인 것이다(레위기 12:6)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순진한 사랑을 흠모하며 지키는 이들이 목자라고 불린다. 본문을 보면 주님이 으뜸가는 선한 목자이심을 잘 알 수 있다. 이 밖의 여러 말씀에서도 그분은 목자 라고 불리신다(시편 23, 이사야 40:11). 그 중에서도 기억되는 말씀은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관한 누가복음 15장 3-7절과 누가복음 10장 3절의 “떠나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라는 구절일 것이다. 이러한 염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사랑은 언젠가는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려 사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이다(이사야 11:6, 65:25). 이 말씀은 우리의 심정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언젠가 우리 속의 악한 애착들을 완전히 억눌러 줄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기억해야 할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씩 되물으시면서 “내 양과 어린 양을 잘 돌보아라.”하고 당부하신 말씀이다(요한복음 21:15-17).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속이나 타인 속에 있는 온순하며 고결한 애착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곧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의 강령을 맨 처음 알린 이들 역시 베들레헬 주변에서 밤새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음도 기억해야 한다. 이는 무지와 악한 세상 속에서도 순진한 선을 흠모하며 지키겠다는 이들이 주님을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말씀은 창세기 46장 34절의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선조 대대로 저희는 어려서부터 가축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고센 땅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도대체 목자라면 꺼려서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라는 것이다. 이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집트로 이주하면서 파라오에게 말하도록 일러준 말이다. 이 구절이 묘사하는 바는 자연적인 마음이 가축 때로 표현되는 유용한 일을 사랑함을 가치 있다고 인식할 수 있으나 마음속에 있는 내적 특질은 별로 쓸모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말씀의 전반에 있는 주님의 섭리는 진정으로 선함을 사랑하는 마음을 먹여 키우시고 흠양 하시는 것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지닌 이들을 인도해주시며 보호해주시는 것에 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에서는 주님의 양떼를 흠트려지게 하고 모두 죽게 만들어 자신의 책무를 게을리 한 거짓 목자에 대한 저주를 보게 된다. 이와 더불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 양 떼를 양 우리로 다시 모으는 것임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주님은 위의 예레미야서 예언의 성취로서의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 계신다. 앞서 우리는 그분이 어린 양이심을 살펴보았다. 이는 그분의 가장 깊은 사랑이 순진이라는 말과 같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살펴보고 있다. 이는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말이다. 또한 그분은 문이신데, 이는 그분이 진리이심을 뜻한다. 우리는 이 진리에 의해서만 그분의 양 우리로 통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양 우리란 곧 천국이다. 주님을 인식하지 않으면서도 천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마치 도둑이나 강도와 같고 그분께 속하는 것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겨댄다. 주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마음이 순진한 사람들이란 주님을 하느님으로 인식하여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양을 부르실 때 양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즉, 그분은

우리 각자속의 진정한 특질을 인식하고 계신다는 말이다. 이름으로 양을 부른다고 함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지혜의 상태를 지닌 정도에 따라 선행의 선을 가지며 그 정도에 따라 각 개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의미한다(주님의 섭리 230).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라는 구절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근접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기도문 중의 하나인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을 이때로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시옵소서.”라는 부분을 상기케 한다. 주님처럼 진정한 목자인 사람들은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 속이나 타인 속에 있는 천국적인 순진이 위협될 때마다 이기적인 바램을 희생시킨다는 것이다. 반면에 샅꾼 곧 양떼를 지키고 돌봐줌으로써 뭔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위험한 때에 양떼를 저버리게 되는데, 이는 그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이 흑자로 계산될 때만 양떼를 돌보기 때문이다.

“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이란 지성이 충족되어야 하는 사람, 특별히 강령에 관한 이야기에서 별을 보고 찾아 온 동방의 박사로 묘사된 자와 같은 이들을 의미한다(천국의 신비 3969). 본문은 시편 23편과 같이 널리 알려져 사랑받는 성경의 이야기들 중 하나인데, 이는 사람들이 본문을 이해하는 정도에 관계없이 본문의 이야기가 주님께서 우리의 어린 시절에 우리 속 깊은 곳에 저장해두신 순진한 상태에 직접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상태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인식케 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인들은 주님의 양들이 아닌 악한 목자요 샅꾼이었다. 그들이 주님께 여쭙본 목적은 진리를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그분에게서 허점을 찾아내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불성실을 지적해주는 방법 또는 그들의 행동과 그 원인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답해주셨다. 주님은 본문의 대화 속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연구해 보고 판단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분의 일에 어떤 흠이 있나 찾아보라고 까지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명백하게 선포하셨다. 이 이야기에서 바리사이파인들은 “당신은 한갓 사람이면서 하느님 행세를 하고 있지 않소?”라고 반박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모독죄로 주님을 기소하려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님의 가르침을 신성한 진리로서 수락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의 주장을 연구하는 척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시작부터 이미 작정되어 있어 그분의 신격에 관한 직접적인 서술에 부딪치면 “그건 불가능해. 아무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없어. 이런 따위는 모두 사도들이 짜낸 가공품에 불과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들은 본문의 바리사이파인들처럼 그분께서 이루신 일들을 그분의 권능에 대한 증거로서 수궁하기를 거부한다. 따라서 그들은 그분의 양떼가 아니다. 즉,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분의 소리에 마음을 열어 줄 순진하며 신뢰하는 선함과 겸손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란 의지에 원칙적으로 존재한다는 교훈을 재고해보아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신 것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사람은 그분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반면에 자신이 우월하여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에 대한 어떤 형태의 증거에 의해서도 확신될 수 없다.

질문 정리

- 1)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시는가?
- 2) 주님은 진정한 목자는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3) 주님은 양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 4) 그분 앞에 온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5) 주님은 목자 외에 자신을 뭐라고 부르셨는가?
- 6) 그분이 어떻게 문이 되시는가?
- 7) 샅꾼은 어떠하다고 말씀하시는가?
- 8) 그분이 가진 다른 양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9) 유대인은 주님에게 무엇을 대답해 달라고 요청했는가?
- 10) 주님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왜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가?
- 12) 주님과 아버지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3)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분을 무엇으로 기소했는가?
- 14) 주님이 목자라고 불리신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은 무엇인가?
- 15) 어린양과 양은 각각 무엇을 표현하는가?
- 16) 순진을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질문의 답

- 1) 선한 목자 2) 자기 양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른다
- 3)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4) 도둑이며 강도 5) 양 우리의 문
- 6) 우리가 그분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 7) 양을 돌보지 않는다
- 8) 양 우리에게 있지 않다 9)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10) 그분의 일
- 11) 그분의 양이 아니므로 12)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 13) 하느님 모독 죄 14) 시편 23편
- 15) 어린양 - 순진의 특질이 자라남, 양 - 생활 속에 있는 순수하며 선한 특질
- 16) 모든 선함과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받아들임
(글자적으로 볼 경우, 해치지 않음)

33

다시 살아난 라자로

머리말

본문은 미래의 삶에 대한 교리를 배우기에 적절하다. 먼저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주님께서 라자로를 일으키신 까닭은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우리의 의식을 옮겨 갈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11장 1-46절

11장: 1. 마리아와 마르타 자매가 사는 베다니아 동네에 라자로라는 병자가 있었다. 2. 앓고 있는 라자로를 마리아의 오빠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린 적이 있는 여자였다. 3. 마리아와 마르타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앓고 있습니다” 하고 전했다. 4. 예수께서는 그 전갈을 받으시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5. 예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고 계셨다. 6. 그러나 라자로가 앓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서 더 머무르시다가 이틀이 지난 뒤에야 7. 제자들에게 “유다로 돌아가자”하고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이 “선생님, 얼마 전만 해도 유다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그 곳으로 다시 가시겠습니까?” 하고 걱정하자 9. 예수께서는 “낮은 열 두 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걸어 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10.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하시며 11. 이어서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어 있으니 이제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12.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 라자로가 잠들어 있었다면 곧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13.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라자로가 죽었다는 뜻이었는데 제자들은 그저 잠을 자고 있다는 말로 알아들었던 것이다. 14. 그래서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라자로를 죽였다. 15. 이제 그 일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잘 된 일이다. 그곳으로 가자.” 16. 그 때에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가 자기 동료인 판 제자들에게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생사를 같이 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17.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러 보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뒤였다. 18. 베다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안 되는 곳이어서 19. 많은 유다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마르타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20.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타는 마중을 나갔다. 그 동안 마리아는 집 안에 있었다. 21. 마르타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23.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24. 마르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5.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26.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르타는 27. “예, 주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믿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28. 이 말을 남기고 마르타는 돌아 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껏속말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하고 일러 주었다. 29.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다.

30.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던 것이다.

31.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꼭하러 무덤에 나가는 줄 알고 뒤따라 나갔다.

32.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찾아 가 뵈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33. 예수께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

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34.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들이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35.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36.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것 보시오. 라자로를 무척 사랑 했던가 봅시다.” 하고 말하였다.

37. 또 그들 가운데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라자로를 죽지 않게 할 수가 없었던 말인가?” 하는 사람도 있었다.

38. 예수께서는 다시 비통한 심정에 잠겨 무덤으로 가셨다. 그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었고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39. 예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40. 예수께서 마르타에게 “네가 믿기만 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하시자 41.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42. 그리고 언제나 제 청을 들어 주시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 둘러 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43. 말씀을 마치시고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자 44. 죽었던 사람이 밖으로

나왔는데 손발은 베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45. 마리아를 찾아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46. 그러나 더러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일러바치기도 하였다.

교리 요점

- * 죽음이란 부활로 인도되는 일종의 “잠”이다.
- * 우리가 걱정해야 할 “죽음”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야 할 선함이 죽는 것이다.
- *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속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바람들을 방치하게 되어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갈 희망까지도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상응 연구

돌을 던짐 = 좋은 측면으로 볼 때 악을 질책하기 위해 단호하게 사용된 진리들
 = 나쁜 측면으로 볼 때 진리를 뒤집거나 부정함
 라자로 = 주님을 향해 마음 문을 여는 것 또는 선행
 라자로를 일으킴 = 교회 속에서 라자로가 가진 위의 특성을 회복시키심
 죽음 = 부활의 “잠”

해설

복음서에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세 가지 권능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즉,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누가복음 7장 11-16)과 회당장 야히로의 딸(마태복음 9:18-26, 마가 5:22-43, 누가 8:41-56) 그리고 본문에만 기록된 라자로이다. 두 가지 첫 번째 기적은 갈릴래아에서 있었는데, 이는 외적인 측면에서 우리 삶 속에 죽어 있는 생각과 애착을 살리시는 주님의 권능을 의미한다. 라자로는 예루살렘 부근인 베다니아에 살았고, 그는 마르타와 마리아와 더불어 주님이 사랑한 친구였다. 주님은 그들의 집에서 자주 묵으셨다. 따라서 본문의 기적은 보다 더 내적이며 영적인 일을 묘사한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이라는 것, 사건이 벌어진 시기가 주님의 지상 생활의 마지막 무렵이었다는 것 그리고 사건의 주요 인물이 주님을 믿는 자들과 그분의 친구들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본문을 읽다보면 그 사건을 지배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비록 많은 사람들이 본문과 비슷한 기적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지만 그분을 반대한 이들은 그 기적의 결과로 더 악랄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에서 아브라함이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누가복음 16:31).”라고 한 말의 의미 안에 포함된다. 누가복음의 라자로가 바로 거지 라자로인데, 본문에서 주님이 사랑한 라자로와 이름이 같아서 내용의 일치를 글자에서까지도 엿볼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다. 스웨덴본은 본문을 위해서 비유에서의 거지의 이름을 라자로로 주님이 선택하셨을 것이라고 말한다.

본문의 이야기 전반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는 사항은 기적이 수행된 목적이 라자로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몇 년 더 연장시켜 그를 즐겁게 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서는 주님의 권능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이 사항은 본문의 기적에서 끌어내야 할 가장 명확한 글자적인 교훈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존재하며 우리의 때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시편 31:15) 그리고 비록 참새 두 마리가 한 뉘에 팔리지만 그런 참새 한마리라도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마태복음 10:29) 등이다. 이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육신의 생명이 영혼의 생명과 비교해 볼 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영혼의 생명은 육체가 죽을 때까지 거의 눈에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는 도중 죽음을 낭독할 때 천사들에게는 언제나 부활로 이해된다. 죽음에는 또 다른 종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두 번째 사망”이라고 부른다. 이는 영적인 죽음이고, 이 죽음은 우리 속의 선함과 진리가 죽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의지 속의 악이 이해성 속의 거짓과 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러한 죽음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 이에 대한 사항은 에제키엘서를 참고하도록 하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사람이 죽는 것은 나의 마음이 언짢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살려느냐? 마음을 고쳐라.” (18:32).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의 진리는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에 의해 전복되어 있어서 올바르게 행하기를 원하는 이들조차 영적인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준수해야 할 진리를 그들 스스로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도 이런 상태의 일부를 엿볼 수 있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주님을 모시고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마르타는 외적 부분을 그리고 마리아는 내적 부분 곧 애착의 영적 부분을 표현한다. 그들의 오빠인 라자로를 그녀들이 가졌던 진리를 그려주는 바, 그가 병들어 죽었다는 사실은 라자로로 표현되는 진리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녀들은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 오빠를 살려 보려고 했는데, 주님은 그녀들이 오빠를 회생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까지 가는 것을 일부러 지체하셨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신들보다 해박한 이들로부터 신앙에 대해 공격을 받아 난처해지게 되면 자신의 신앙이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이 본문의 마르타와 마리아가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주님께서 계시기만 하면 자신들이 공격받은 논리로부터 구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와 혼합되어 양육된다.

주님은 고의적으로 지체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나, 우리가 우리의 낡은 신앙 속에 생명이 없음을 확신할 때까지 곧 때가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런 다음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신뢰하면서 본문의 마르타와 마리아 같이 “예,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분은 권능을 베푸셔서 우리의 신앙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무덤 안에서 라자로의 시신을 동여뒀던 수의 곧 우리를 얹어뒀던 낡은 생각이나 편견을 벗어버리게 해주신다. 스웨덴불은 “라자로를 일으키심은 보다 넓게 보면 이방인들로부터 새교회를 일으키심까지 포함한다.”라고 말한다. 첫 기독교가 일으켜지기 전에 있었던 모든 유대교회는 소멸되어야만 한다. 또한 새교회가 일으켜지기 전에 있었던 첫 기독교회 역시 모두 없어져야만 한다. 각각의 새교회는 옛것은 죽은 것임을 실감하면서 주님을 믿어야 하며 순종과 신뢰로 그분을 의지하는 이들 사이에서 발달되어 왔다.

라자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바는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 사항에 즉시 응답해주시지 않는 까닭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요구하는 특별한 사항보다 더 지고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창고에 저장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일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르타와 마리아 역시 주님이 라자로를 죽지 않게 해주기를 원했으나, 주님은 그들에게 그분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시기를 원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37편 7절의 “주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하는 말씀에서 배워야만 된다. 즉,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하시고 가르쳐 주실 수 없는 자포자기나 손실을 입는 따위가 결코 없게 됨을 배워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마지막 부활 때까지 죽어간 모든 이들은 무덤에서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리를 믿는 이들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대하게 된다. 즉,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위 구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육체의 죽음에 관해 언급하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실지로 인식하기 전에 물질적인 생명을 한쪽으로 치워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위 구절은 영적인 죽음을 언급한 것이다.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주님으로부터의 생명인데, 이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경우가 바로 영적인 죽음이다. 주님을 믿고 그분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의 심정과 지성을 그분의 법도에 따라 바로 잡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물질적인 몸을 한쪽에 놔두게 됨으로서 장차 천국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전혀 간섭 받지 않게 됨을 쉽게 인식하게 된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명백히 드러나 있다. 즉,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대두되는 질문 중의 하나가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면, 왜 그분은 아버지께 기도하며 고통 받으러 나타나셨을까?”라는 것인데, 본문은 이에 대한 답도 제시하고 있다. 본문은 “예수께서는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오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41절에서 “아버지, 제청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둘러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신 동안 우리들 같이 유한한 인간성을 입으셨음을 알고 있다.

Bruce 목사는 그의 저서 「요한복음 주석」에서 “주님이 비통해 하심이나 우심과 같은 사실은 그분 속의 신성이 일하는 것에 대해 그분의 유한한 인성이 갖게 되는 자연적인 반작용이었다.”고 말한다. 이는 우리가 신성한 사랑과 지혜에 관해 아는 것을 삶에 이행해 보려고 할 때의 노력이 우리의 보다 낮고 이기적인 바램의 차원을 더 비통해 하거나 몸부림치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과 같다. 주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분께서 구해주려고 하신 사람들의 방자함과 불성실함 그리고 눈먼 행동들 때문에 인간적으로 슬퍼하셨는데, 이 슬픔은 그분에게 있는 가장 심한 시험 중 하나였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남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게 해주신 이유는 주님 역시 그분의 지혜가 인간에게 이식해놓은 자유의지로 인해 방자해져서 일으키는 충동을 거절하시면서 그에 따른 모든 시험을 극복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에게 우리의 생각을 강제로 주입시키려 할 때 위의 주님이 받으신 시험과 같은 것을 겪기도 한다. 주님은 그분의 투쟁을 보여 주심과 동시에 즉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시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으로서 투쟁과 승리의 근원도 보여주셨다.

질문 정리

- 1) 라자로의 누구인가?
- 2) 누가 그의 자매들인가?
- 3) 그는 어디서 살았는가?
- 4)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의 생애 언제쯤 베풀어졌는가?
- 5) 라자로가 심히 아프게 되자 주님은 즉시 베다니아로 가셨는가?
- 6) 주님이 도착하셨을 때 라자로가 죽은 후 며칠이나 지났었는가 ?
- 7) 마르타가 주님을 뵈자 뭐라고 말했는가?
- 8) 이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9) 마르타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했는가?
- 10) 주님은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11) 라자로를 살리셨던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 12) 대성직자 와 바리사이파인들은 그분을 어떻게 하자고 모의했는가?
- 13) 왜 주님은 베다니아로 가시는 것을 지체하셨는가?
- 14) 왜 주님은 처음에 나자로가 잠들었다 말씀하셨고 후에는 그가 죽었다고 하셨는가?

질문의 답

- 1) 예수님의 친구 2) 마르타와 마리아 3) 베다니아 4) 그분 생애의 말기
- 5) 아니다 6) 4일 7) “만일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8) “다시 일어난다”
- 9) “마지막 날에...” 10)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 11) 돌을 치우고, 큰 소리로 부르시자, 나자로가 걸어 나왔다
- 12) 죽이려고 음모했다
- 13) 죽음을 넘어서있는 그분의 권능을 보여 주시려고
- 14) 죽음이 이 세상에서 잠들고 영계에서는 다시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34

종려주일(4)

머리말

요한복음에는 종려주일에 관한 기록이 짧은 편이다. 따라서 타 복음서에 있는 종려주일의 부분을 읽고 보충하길 바란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12장 12-50절

12장: 12. 명절을 지내러 와 있던 큰 군중은 그 이튿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13.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

찬미 받으소서!”

하고 외쳤다. 14. 예수께서는 새끼 나귀를 보시고 거기에 올라 앉으셨다. 이것은 성서에,

15.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임금이 너에게로 오신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16. 예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야 이것이 모두 예수를 두고 기록된 것이며 또 이런 일들이 그대로 예수께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7. 예수께서 라자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 일을 증언하였다. 18. 군중이 예수를 맞으러 나간 것도 예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 주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19.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따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며 서로 걱정하였다.

20. 명절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 왔던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 사람도 몇이 있었다. 21. 그들은 갈릴래아 지방 벳새이다에서 온 필립보에게 가서 “선생님, 예수를 뵙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22.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이 말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예수께 가서 그 말을 전하였다. 23.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24.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5.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26.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27.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건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28.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 때에 하늘에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 왔다. 29. 거기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군중 가운데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사가 예수께 말하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30.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 온 음성이다. 31.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32.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33.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암시하신 말씀이었다. 34. 그 때에 군중이 “우리는 율법서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시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려야 한다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35.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빛이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잠시뿐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가라. 그리하면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어둠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36. 그러니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피하여 몸을 숨기셨다. 37. 예수께서 그렇게도 많은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건만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38.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께서 보여 주신 능력을 누가 깨달았습니까?”

한 말이 이루어졌다. 39.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40.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을 가지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여
끝내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나한테 온전히 고쳐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42. 이것은 이사야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며 또 예수를 가리켜서 한 말이었다. 42. 유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이파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드러내 놓고 하지는 못하였다. 43. 회당에서 쫓겨 날까 겁이 났던 것이다. 43. 그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보다도 인간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44.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쁜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까지 믿는 것이고 45.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도 보는 것이다. 46.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47.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단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을 단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48. 그러나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세상 끝 날에 그를 단죄할 것이다. 49.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라고 친히 명령하시는 대로 말하였다. 50. 나는 그 명령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 주신 대로 말하는 것뿐이다.”

교리 요점

- *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본보기로 삼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신만을 먼저 챙기려 드는 시험을 정복해야 한다.
- * 우리는 육체를 단지 도구로서 간주해야 한다.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적인 모습으로 이뤄지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 악은 실제로는 선을 이길 힘이 없다.

상응 연구

새끼 나귀 = 자연적인 진리

필립 = 총명

안드레아 = 순종

해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사건의 기록은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 각 복음서는 그 세부 사항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요한은 주님께서 이 사건에 관련시켜

죽은 나자로를 일으킨 것과 이 기적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환영했다고 말한다. 우리가 영적 죽음에서 되돌아서게 하는 주님의 권능을 실감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 속의 “거룩한 성”에 왕과 구세주로서 환영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이때에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게 된다. 이는 자연적인 추론을 복종시킴에 대한 상징이다. 나귀란 자연적 이성을 표현한다.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종려나무 가지란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 있는 신성한 진리를 그려준다. 그래서 이 나무 가지를 흔들다고 함은 주님의 진리가 행복과 생명을 가져다주심을 실감한 결과로 있게 된 기쁨을 암시한다. 호산나란 “곧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다.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역사시대의 어떤 왕, 즉 그들의 적을 몰아내고 나라를 일으켜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왕으로 여겼다. 우리 역시 주님을 처음으로 인식할 때 이와 같이 생각하게 된다. 즉, 처음에 우리는 자신의 복지나 구원만을 고려하여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주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은 그 “마지막의 시작”이었다. 주님을 충분히 인정하는 우리의 첫 단계는 이전에 알았던 어떤 심한 시험보다 더 강한 것이 즉시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는 우리가 자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동기를 순수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성전을 깨끗케 하심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 생각들을 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말라죽은 무화과나무 사건은 열매를 생산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주님이 슬피 우심은 우리가 주님의 통치하에 자신을 가져다 놓자마자 그분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가를 실감하게 되는 우리의 상태를 의미한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그분을 진실로 따르고자 할 때 특별히 우리 속에서 거행되어야 할 변화의 깊이를 가르쳐주고 있다.

먼저 우리는 19절에서와 같은 바리사이파인의 역작용을 가지게 된다. 즉, 우리 속의 바리사이파인 곧 무익함과 자아만족이라는 것들이 주님과 깊은 연합에 대항해서 뒤틀어지고 휘저어지는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말이다. 19절 뒤의 이방인들 곧 우리 속의 이방인이란 인도해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있는 우리 속의 선한 호소력을 말한다. 그리스 사람이란 주님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진리를 지적으로 필요로 함을 뜻한다. 이들은 먼저 필립보에게 호소했다. 필립보란 이름은 그리스어로 “말(horse)을 사랑하는 자”란 뜻이다. 필립보란 총명의 성질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주님을 소개받는다. 안드레아란 순종을 표현한다. 우리가 그분에 관한 것과 그분의 제자 된 도리에 관한 진정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스스로를 가져다 놓는 것이 바로 순종과 총명인 것이다. 제 23절 이하에 있는 주님의 강연은 그분의 지상생활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의 바램에 대한 대답이다.

주님의 전 생애와 그 목적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설명은 밀알의 비유일 것이다. 우리 속에 살아 있는 알맹이는 곧 영혼이다. 이 영혼은 그 발달을 이룰 때까지, 즉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 영혼을 덮고 있을 마음과 몸이라는 외적인 덮개가 필요하다. 이 영혼은 적절한 성장으로 이어질 때만이 그 가치를 지닌다. 영혼의 성장이란 밀알의 씨눈을 싸고 있는 것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혹은 껍질을 벗어 던짐으로서 밀알의 궁극인 열매를 생산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주님에게 있어서 내적으로 살아있는 알맹이란 신성 자체이셨다. 그리고 이 신성을 싸고 있는 바깥 껍질은 유한한 인간성이었다. 그분의 신성한 인성이 권능을 충분히 발휘하시기 위해서는 이 유한한 것들을 완전히 벗으셔야만 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셔야만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죽음은 바깥 껍질을 벗는 최후의 행동일 뿐이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주님은 그분의 삶 속의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점차적으로 유한한 인성을 벗으시고 그것을 신성으로 대체해 가신 것이다.

우리 역시 주님과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영적인 것들에 세상적인 것들을 종속시켜 간다면, 우리는 자신의 의지 대신 주님의 의지를 우리 속에 심어가서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연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 사람으로 점점 대체되어 간다. 우리가 미워해야 할 목숨(생명)이란 태어날 때 가졌던 이기적인 본성들을 의미한다. 우리가 영원한 삶에까지 간직하고자 할 목숨(생명)은 우리가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거듭난 본성이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 위의 두 가지 본성의 밀고 당기는 힘, 즉 더 낮은 세상적인 것과 더 높은 천국의 힘이 있음을 느껴야 할 것이다. 그 둘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는 우리의 자유이다.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거절하는 것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본문은 주님 역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그분의 참 목적을 두고 느끼셨음을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다. 즉,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건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라는 것이다. 앞부분의 말은 그분의 유한한 인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뒷부분은 그분의 신성한 인성에 근원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영혼도 갈팡질팡하는 혼란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하신 것이다.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자유롭고 어떤 권위나 운에 의해 강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설명되고 있다. 즉,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이를 명백히 알도록 해준다. 주님을 따르고자 한 이들은 그분의 기적과 가르침 속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빛 속에서 믿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분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이들은 진리에 눈이 멀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신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들의 죄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이 눈먼 상태에 머물도록 허용하셨던 것이다.

제 47-48절에서 주님은 눈이 멀게 된 원인이 우리에게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계신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진리를 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갖도록 해주고 구원받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주님은 어느 누구도 단죄하시지 않으신다. 그분의 사랑과 진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 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에 마음의 문을 열기로 한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이 그들에게 표현될 때 그분의 진리도 보게 된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셨다. 이리하여 진리 곧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판이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의 생명인 자아사랑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자아만을 사랑할 것인가 중에서의 선택이 우리 영혼을 천국의 형체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지옥의 형체로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덮어쓰고 있던 바깥 덮개를 죽음이라는 것으로 벗을 때 우리 스스로 만들어 왔던 그 형체가 우리의 마지막 고향을 결정짓게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의 주님의 입성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 영혼의 진정한 왕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심정과 지성에서 있게 되는 천국과 세상 사이의 진정한 싸움으로 안내 받음을 의미한다. 이 싸움은 죽음에 대한 싸움, 즉 우리 속의 천국이나 세상의 것이 죽는 것이며, 그 결과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질문 정리

- 1) 주님의 공생애는 몇 년인가?
- 2) 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자주 가셨는가?
- 3) 왜 주님은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 초에 그곳으로 가셨는가?
- 4) 주님은 그날 어떤 동물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5) 왜 사람들은 그분을 환영했는가?

- 6)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들고 그분을 환영했는가?
- 7)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는가?
- 8) 호산나란 무슨 뜻인가?
- 9) 왜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 10) 누가 그분의 입성을 보고 화를 냈는가?
- 11) 어떤 이방인들이 그분을 보고자 했는가?
- 12) 어느 제자가 그들을 주님께 안내했는가?
- 13) 주님은 죽음의 필요성을 무엇으로 설명하셨는가?
- 14)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15) 바리사이파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왜 진리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 16) 주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그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인가?
- 17)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무엇인가?
- 18)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함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19)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3년 2) 축제 때문에 3) 과월절 4) 나귀 5) 주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 6) 종려나무 가지 7) 호산나 8) 지금 구하소서 9) 왕의 표시, 예언의 성취
- 10) 바리사이파인과 율법학자 11) 그리이스인 12) 필립보와 안드레아
- 13) 밀알의 비유 14) 이기적인 삶을 버려야 한다 15) 원하지 않았기 때문
- 16) 인간의 칭찬을 사랑했기 때문 17) 신성한 진리
- 18) 세상적인 추론 또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성을 종처럼 여겨야 함
- 19)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 있는 신성한 진리

포도나무의 비유

머리말

모든 생명과 선함이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됨을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과 연관 지어 보면서 이를 확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제 15장

15장: 1.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2.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신다. 3.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4.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라. 나도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 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7.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또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8.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10.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11.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12. 벼를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13.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벼이 된다. 14.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벼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 주었다. 15.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 주실 것이다. 17.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도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 두어라. 19. 너희가 만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은 너희를 한집안 식구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가려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20. 좋은 그 주인보다 더 나를 수가 없다고 한 내말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21. 그들은 너희가 내 제자라 해서 이렇게 대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보내신 분을 모르고 있다. 22. 내가 와서 그들에게 일러 주지 않았던들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게 되었다. 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24. 내가 일찌기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앞에서 하지 않았던들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나와 또 나의 아버지까지 미워한다. 25. 이리하여 그들의 율법서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26.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너희에게 보낼 협조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27.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교리요점

- * 모든 생명과 모든 선함은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
- * 우리가 주님의 본보기를 따를 때만이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생산된다.

상응 연구

포도나무 = 신성한 진리로서의 주님

포도 = 선행의 일

해설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가나에서의 기적을 다시 상기해 보자. 거기서 포도주는 물과 대비되면서 영적인 진리를 표현한다. 영적인 진리란 주님에 관한 진리,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진리 그리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재탄생 혹은 거듭남에 영향을 주는 근원이라고 일컬으시며 우리가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진실한 선을 결코 행할 수 없다는 진리이다.

스웨덴봄은 포도밭과 포도나무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천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가 있다는 것 곧 전자는 자기를 의지 안에 주님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이고 후자는 자기를 이해성 안에 먼저 그분을 받아들이는 삶들로 되어 있음을 알고 있지 않으면, 위의 포도밭과 포도나무의 의미 역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게다가 성경에서 올리브 밭은 천적인 교회를 그리고 포도밭은 영적인 교회를 상징한다. 태고교회는 천적인 형태이고, 고대 교회는 영적인 형태에 속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노아가 포도밭을 가꾸는 농군이 되었다고 말하는 이유이며(창세기 9:20), 그가 고대교회의 상징적인 기초자가 되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와 더불어 기억해야 할 사항은 아담이 하란에서 거룩한 땅으로 귀환한 후 그에게 주어진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며 그 이름이 영적인 교회를 의미하도록 성경에서 사용되어졌고 그 교회를 유대교회가 표현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구약 성서전반에서 포도밭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언급된다(예레미야 2:14, 21:호세아 10:1). 주님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도록” 진리로서 오셨다(누가복음 2:32). 즉, 주님은 영적인 진리에 관한 지식을 세상에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참으로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교회에 위탁된 진리의 전복이 조심스럽게 일구어 놓은 포도밭에서 예상된 포도대신에 들 포도만 생산된 모습으로 이사야 5장 1-7절에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의 전복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5장 20-23절에서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포도밭의 모습은 시편 80편에서 선하고 순진한 심정 상태와 구원자의 필요성을 묘사하기 위해 재사용된다.

이런 연유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해력에 도달되는 형태로 진리가 옷 입은 모습이 바로 참 포도나무인 것이다. 신약성서는 포도밭이라는 아름다운 비유로 영적인 교회를 취급하기도 한다(마태복음 20:1-16, 21:33-45, 마가복음 12:1-12, 누가복음 20:9-16). 게다가 계시록 14장 17-20절에서는 “날카로운 낫을 들어 포도원에서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들이는”라는 것으로 심판을 묘사하기도 하다. 포도밭, 포도나무, 포도 그리고 포도주는 말씀에서 자주 언급된다. 우리는 스웨덴봄의 저서에서도 그에 관한 많은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다(특히 천국의 신비 제

1069, 5113, 9139 참조하기 바람). 본문에서 주님은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칭하시며, 아버지는 농부이라고 말씀하신다. “아버지”란 신성한 사랑을 뜻하며, 이 사랑이 포도밭을 일구고 유지시키며 돌봐 주신다는 것이다. 반면에 “아들”이란 신성한 진리를 뜻하며, 이 진리를 수단으로 포도와 포도주가 생산됨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떤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영적인 진리를 배우며 세상의 어떤 사람의 사상 혹은 자신의 사상을 따르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진리만을 따라 우리의 이해성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거하는 것, 즉 주님의 가르침을 아는 것 외에도 한 가지 반드시 지녀야 할 것이 있다. 제 10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계신다. 즉,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다. 스웨덴북은 이 말씀에 대해 그의 저서 「진정한 기독 종교」 제 70항에서 역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은 어디든지 동시에 있게 되는 신성한 힘으로부터 질서에 따라 사는 만큼 하느님 안에 있게 된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시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은 신성한 질서에서 나오는 형태로 창조되어서 하느님은 인간 안에 계시기도 한다. 단지 인간이 신성한 진리에 일치되게 살아가는 정도에 따라 하느님이 인간 속에 거하시는 충만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그 인간이 신성한 질서에 일치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람 안에 계신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 사람의 가장 높은 영역에 거하신다. 이리하여 그 사람이 진정한 것을 이해하며 선한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된다. 즉,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는 능력과 사랑으로 기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질서에 반대되어 사는 만큼 그는 자신의 마음의 보다 낮은 영역 쪽으로 통하는 문을 닫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보다 낮은 영역까지 주님의 현존하심으로 채워 주시려는 그분의 하강이 방해받게 된다. 그 결과 하느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느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르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해박하다할지라도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여서 우리의 영혼은 차차 시들어지고 우리 속의 악은 우리를 주님에게서 잘려 나가게 만들어 결국에 우리를 불태우고 만다. 주님은 이에 대해서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 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다. 따라서 열매를 맺는 일이 지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유일한 목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라고 강조하신다.

이쯤해서 우리가 본문의 가르침 중에서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외적으로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벧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이러한 구절의 글자에서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놓이시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우리의 경우와 같이 날마다 그분께 있었던 이기적인 충동이나 생각들을 내려 누르신 모든 일들에 상징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그래서 1절에서 주님은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신다.”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하신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삶에서 텅져 오르려 하는 우리 영혼 속의 이기적인 바램과 포부를 내려놓으라고 하신 말씀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싶지 않아서 계명을 지키거나 의무적인 측면에서 혹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느님이 벌을 주실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억지로 그분을 순종하는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서 그분의 벧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분의 벧이 된다고 함은 그분의 계명에 내 영혼이 순종하되 그 계명을 이해하고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사랑해서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된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이뤄지는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질서 안에 놓는 순종의 삶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우리의 영혼이 이러한 차원에 있게 되면, 우리 역시 주님이 먼 옛날 세상을 다 이기셨듯이 세상적인 것을 모두 극복해낼 수 있게 된다. 그분은 우리의 삶이 쉬울 것이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승리가 확실함을 16장 33절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강조하셨다.

본문을 마무리 짓는 단원에서 거듭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 안에 주님을 인식하는 것과 그분에 대한 순종이 포함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 선함 또는 선한 일도 진정한 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진리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사항은 주님의 계명인 것이다. 또한 우리가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은 어떤 유명인사의 연설문이나 자신이 생각해낸 기발한 사상 같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친절로

인해 주위에서 칭찬받게 될 때마다 우리 속의 우쭐댐이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런 소리가 들려 올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내적으로 이기적인지 그리고 자신이 행한 선함이 과연 얼마나 주님께 근거하여 이뤄진 것인가를 즉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선행 역시도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때에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하고 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마태복음 7:21-23). 교회에 가는 일,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 근면하고 정직함 또는 이웃에게 친절하고 관대함 등이 어떻게 악한 일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아마 그것을 행한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선행처럼 보이는 일이 실상 자신의 명성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한 일은 그 동기 역시 반드시 선해야 한다. 스웨덴북은 그의 저서 「하느님의 섭리」 제 215항에서 주님과 이웃 사랑에 근거한 선한 일과 세상적인 것에 목적을 둔 선한 일을 인조 과일에 비교하여 “이 과일은 외형상으로는 진짜 나무에서 따온 과일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 과일 안에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함유한 밀초가 발라져 있다. 반면에 진짜 과일은 맛을 내서 기쁘게 해주고 좋은 향을 지니며, 더욱이 그 안에 씨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질문 정리

- 1) 본문은 주님의 어느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졌는가?
- 2) 본문에서 주님은 당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3)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부르셨는가?
- 4) 주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 제자들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 5)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 6)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7) 주님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까닭은 무엇인가?
- 8) 주님은 그분의 계명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9)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삶이 쉽다고 말씀하셨는가?
- 10)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셨는가?

- 11) 포도나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12) 포도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2) 포도나무 3) 가지들
4) “내안에 거하라” 5) 밖에 던지워... 6) 그분의 계명에 순종
7)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8) 서로 사랑하라 9) 아니다
10) 세상에 의해 미움 받고 박해 받는다 11) 신성한 진리 12) 영적인 선택

36

부활절 (4)

머리말

요한복음에서 강조된 부활 사건은 마리아가 일어나신 주님을 인식한 것 그리고 토마의 의심과 그것의 해결이다. 본과에서는 부활의 일반적인 의미와 제자들의 상태에 대한 배경을 살펴해보도록 한다.

성 서 본 문: 요한복음 20장

20장: 1.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의 일이었다.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무덤에 가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2. 그래서 그 여자는 달음질을 하여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가서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하고 알려 주었다. 3.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곧 떠나 무덤으로 향하였다. 4. 두 사람이 같이 달음질쳐 갔지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가 먼저 무덤에 다다랐다. 5. 그는 몸을 굽혀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6. 곧 뒤따라 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 가 그도 역시 수의가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7.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수의와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따로 잘 개켜져 있었다. 8.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9. 그들은 그 때까지도 예수가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10. 두 제자는 숙소로 다시 돌아갔다.

11. 한편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2.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체를 모셨던 자리 머리맡에 앉아 있었고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13.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누군가가 제 주님을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14. 뒤를 돌아다보았더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인 줄은 미처 몰랐다. 15.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줄 알고 “여보श्य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 갔거든 어디에다 모셨는지 알려 주श्य요, 내가 모श्य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श्य자 마리아는 예수께 돌아 서서 히브리말로 “라뵈니” 하고 불렀다. (이 말은 “선생님이श्य” 라는 뜻이다.) 17.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지 말고 어श्य 내 형제들을 찾아가거श्य.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이श्य 너희의 아버지 곧 내 하느님이श्य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श्य라.” 하고 일러 주셨다. 18.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 뵈은 일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일러 주신 말씀을 전하였다.

19.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श्य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닫아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 오श्य서 그들 한 가운데 서श्य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20.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श्य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너무 기쁘श्य 어쩔

줄을 몰랐다. 21.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22.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24. 열 두 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 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27. 그리고 토마에게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 보아라. 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28. 토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대답하자 29.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30.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다.

31.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교리 요점

- * 우리는 사후 영의 몸을 가지고 계속 살게 된다.
- * 주님은 그분의 인성을 신성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영화를 이루셨다.
- *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생각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상응 연구

여인 = 애착

매장 = 부활 혹은 선한 인격의 경우 거듭남

고운 베 = 자연적인 인간 속의 진리

향료 = 선으로부터 비롯된 내면에 든 자연적 진리

수건 = 자연적 인간의 기억

해설

누가복음의 부활 사건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살펴본 사항은 사도들에게 부활이 미친 결과였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뵈 후 세상으로 뛰쳐나갔다. 우리가 이 사항을 상기해 보아야 하는 까닭은 부활로 세상에 오신 신성한 힘의 영향에 따른 외적인 증거를 느끼기 위함이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있는 부활 사건은 거듭나는 개개인에 대한 개별적 응용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사료 된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유한한 인성에 집중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유한한 인성의 배경을 공부하다가 자극 받기 쉽고, 인류적 차원이나 지리학적 측면에서 그분을 상상해보는 것이 그분을 더욱 잘 이해하며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예수께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로 요약되어 표현되었는데, 이들은 역사적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전부라고 느낀다. 사실 사도들은 이런 신앙 속에 있었다. 주님이 그들에게 일러주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의 물질적인 몸이 무덤에 놓이게 되자 그분을 완전히 잃었다고 느꼈던 것이다. 주님은 부활로 그들이 잘못 생각했었음을 가르쳐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바는 그분이 입으신 인성에 집착하여 우리의 생각을 한정짓지 말라는 것이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이른 새벽 동 트기 전에 무덤에 가보았을 때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 아침이란 항상 새로운 상태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함은 그 여자의 마음이 아직 무지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들어 있던 일곱 마귀가 쫓겨서 나간 후의 마리아란 시험을 통해 깊이 순수해진 심정을 표현한다. 주님이 무덤에 묶이실 수 없음을 맨 먼저 발견하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싶어 하는 상태이다. 무덤이란 말씀의 글자 자체를 의미한다. 이 무덤을 조사해보는 것이 시몬 베드로와 요한으로 그려지는 지성 속의 자질들이다. 이 두 사람이 무덤에서 발견한 것은 수의였다. 우리 속의 자질들이 말씀의 글자 속을 탐험해서 얻는 것은 글자상의 주님에 관한 진리들을 알게 해준다. 그러나 천사들을 알아 본 것은 마리아 곧 사랑하는 심정이었고, 이 심정이 글자 상에서도 살아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더욱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뵈

사람 역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처음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곧바로 그분을 인식했다. 이 구절은 비록 처음에 현존하시는 영원한 구세주를 잘 알지 못 하더라도 우리 속의 애착이 결국 그분의 실재를 느끼게 해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심정과 지성에서 주님이 먼저 일어나신 후 우리는 그분의 제자 된 도리를 행하기 위해 세상에 계실 때의 그분의 생애를 공부하고, 그분의 본보기를 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께 계속 신실하게 되면, 우리는 이천년 전 지구 어느 부분에서 거니시던 누군가로 그분을 생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금 우리와 함께 세상에 현존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해주시는 분이로서 그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일어나심은 우리가 일어난다는 것과 다르다. 우리는 죽게 될 때 뭔가를 뒤에 남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계에서 하나의 영인으로 일어날 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듣게 해주고 보게 해주던 우리의 도구들을 세상에 남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감각적인 것까지 신성화 하셨다. 즉, 그분의 물질적인 본체를 신성한 본체로 대체해 가셔서 무덤에 남기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그분의 머리털 하나까지 모두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라고 확인시켜주셨다(참조 천국의 신비 10252-7, 6135; 천국과 지옥 316). 그리하여 그분은 그분의 신성한 인간성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보시며 듣고 계신다. 따라서 일어나신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고, 그들이 보고 만질 수도 있었던 것이다. 신성이신 그분의 인성은 무한하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간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에 묶여 있는 유한한 몸인 것과는 달리 전 시대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다. 따라서 그분의 현존은 단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내가 시대 끝날 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처럼 실재하는 것이다.

복음서들은 부활 후 주님이 나타나심에 대한 몇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주님 부활의 첫 목격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였다. 마태복음서에서는 그녀 외의 다른 여인들에게도 보여 졌다고 기록된다. 같은 날 오후 그분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도 보이셨는데, 이에 대한 사항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언급된다. 마가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부활 첫날 저녁식사에서 나타나셨다고 전한다. 요한복음에서는 비록 토마가 식사 때에 그 자리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8일 후 토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다고 전한다. 마태복음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에게 말해진 갈릴래아의 산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요한복음은 티베리아 호숫가(갈릴래아)에서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우리는 배우는바, 그분은 부활후 사십 일 이상 보여지셨다는 것,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6-7절에서, 그분은 오백 명이 넘는 교우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뒤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세상에서의 그분의 현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되며, 그 외의 많은 사항들도 기록되도록 섭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거를 가지도록 해주셨다. 그러나 주님은 토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보게 해주는 육체의 눈보다 더 깊은 것을 보는 눈과 듣는 육체의 귀보다 더 깊게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의 이해성이 주님의 진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생명을 받게 되면 과거 이 천년 전 주님을 직접 육체의 눈으로 보았던 이들 혹은 육체의 눈으로 그분을 뵈는 것보다 우리가 그분의 현존에 대한 훨씬 더 높고 깊은 확신을 갖게 된다는 말이다. 육을 입으시고 계셨던 주님을 본 대다수는 그분을 거절했다.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던 이들은 부활하신 그분을 본 이들의 증거 역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주님에 대한 환상을 그들 스스로 갖게 되었다면, 그들은 그 환상들을 돌려대느라 급급했을 것이다. 믿음은 의지 속에 존재한다. 주님에 대한 사랑 혹은 자아사랑 중에서 선택은 언제나 선택하는 사람의 자유인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0-31절에서는 요한이 기록한 증거들이 주님의 신격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른 많은 표적들도 행해주셨음을 보여준다. 요한복음서 마지막 절에는 만약 주님이 하신 일들을 낱알이 다 기록한다면 세상을 채우고도 남을 것이라고 전한다.

지상에서의 주님의 삶은 꾸준하면서도 적극적인 섬김의 하나였다. 그분은 갈릴래아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설교하시며 병든 자를 치료해주셨다. 복음서에는 그분의 말씀과 하신 일의 극히 일부만이 기록되어 있다. 이 소량의 기록은 신성한 섭리로 선별되어 그분의 일에 있는 모든 국면을 글자에서 예증해주고, 글자의 속은 말씀의 영인 신성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섭리로 선별된 말씀 속에서 기꺼이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본과 처음 부분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주님의 유한한 인성의 측면만을 생각하려는 경향이 다분하다. 이런 경향성은 우리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고 경건하다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를 할 때 주님 생애의 일부분인 소년 시절을 마음대로 그려서 동네 소년과 노는 모습과 같은 것을 연구한다거나 청년 목수로 아버지 요셉을 돕는 모습 등과 같은 것을 덧붙인다면 이는 우리 안에 엉뚱한 상상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영적 가치가 있었다면 말씀에 이미 수록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지상 삶에 관해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만을 알려고 애써야 한다. 사실 주님은 인간이 자기 이해성 밑에다 그분을 놓는 일 곧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틀 안에 그분의 유한한 인성의 수준만을 끌어넣으려는 경향성을 제재하시지는 않으신다. 주님은 인간존재와 동등한 수준에 놓이셨으나, 그 마음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셔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살아 계시며 현존하시는 구세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으로 인식할 때까지 “줄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질문 정리

- 1) 주님은 종려주일에 어떤 동물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 2) 군중은 뭐라고 소리쳤는가?
- 3) 군중들은 주님이 무엇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었는가?
- 4) 군중들이 주님이 지상 왕국의 왕이 아니심을 발견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 5) 주님은 어느 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 6) 십자가에서 내려진 주님의 시신은 어디에 모셔졌는가?
- 7) 누가 주님의 시신을 모셨는가?
- 8) 누가 일요일 이른 아침 처음 무덤에 갔는가?
- 9) 그 여자는 왜 무덤에 갔는가?
- 10) 그녀는 무엇을 발견했는가?
- 11)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 12) 마리아는 무덤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 13) 주님은 그녀에게 나타나실 때 당신을 어떻게 알도록 하셨는가?
- 14) 왜 주님은 그분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 15)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 16) 이 때 어떤 제자가 그곳에 있지 않았는가?
- 17) 토마는 주님이 살아 계심을 어떻게 해야 믿겠다고 말했는가?
- 18) 주님은 그를 어떻게 확신시켜 주셨는가?
- 19) 그 후 주님은 토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 20) 요한은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일들에 관해 뭐라고 말했는가?

- 21) 매장함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2) 무덤을 막은 돌이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 23) 수의(고운 베)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나귀 2) 호산나 3) 로마를 정복함 4) 그분을 거절했다 5) 금요일 6) 새 무덤에 안장되었다.
- 7) 아라마태아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8) 막달라 여자 마리아 9) 향을 시신에 바르려고 10) 돌이 굴러져 있었다 11) 수의 12) 두 천사 13) 이름을 부르심으로 14) 아직 올라 가지지 않았기 때문
- 15) 닫혀 있는 문으로 들어오셨다 16) 토마 17) “나는 내 눈으로 보고...내 손으로 만져 보아야...”
- 18) 다시 나타나심으로 19)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20) 기록하기에는 너무 많다 21) 부활 22) 하느님에 관한 거짓 사상 23) 주님에 관한 제자들의 사상

37

여자와 용

머리말

본문에는 아주 인상 깊은 묘사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를 먼저 기억해 두면 점차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 그리고 하늘에는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이 열 두 개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나타났습니다. 2. 그 여자는 뱃속에 아이를 가졌으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3.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고 머리마다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4. 그 용은 자기 꼬리로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막 해산하려는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그 아기를 삼켜 버리려고 그 여자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5.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별안간 그 아기는 하느님과 그분의 옥좌가 있는 곳으로 들려올라 갔고 6.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곳은 하느님께서 천 이백 육십 일 동안 그 여자를 먹여 살리시려고 마련해 두신 곳이었습니다.

7. 그 때 하늘에서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천사 미가엘이 자기 부하 천사들을 거느리고 그 용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용은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맞서 싸웠지만 8. 당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그들이 발붙일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9.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계를 속여서 어지럽히던 늙은 뱀인데, 이제 그놈은 땅으로 떨어졌고 그 부하들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10. 그 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은 쫓겨났다.

밤낮으로 우리 하느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들이 쫓겨났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나타났고

하느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11. 우리 형제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진리의 힘으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싸웠다.

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악마가

크게 노하여 내려갔으니

땅과 바다는 화를 입을 것이다.”

13. 그 용은 자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깨닫자 그 사내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14.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있어서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 가 거기에서 삼년 반 동안 그 뱀의 공격을 받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15. 그 뱀은 그 여자의 뒤에서 입으로부터 강물처럼 물을 토해 내어 그 물로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 했습니다. 16.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용이 토해 낸 강물을 마시어 그 여자를 구해 냈습니다. 17. 그러자 용은 그 여자에 대하여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위해서 증언하는 일에 충성스러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떠나 가 18. 바닷가에 섰습니다.

교리 요점

- * 물질주의라는 이 큰 용은 우리가 신성한 진리를 무시해버리게 하는 묘책을 수단으로 우리를 시험하려고 우리 곁에 언제나 현존하고 있다.
- * 만일 우리가 일상 생활을 우리의 참 교리에 머물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이 용은 우리를 해칠 수 없다.
- * 새 교회 조차도 “믿음 만의 교리”를 수단으로 살아보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상응 연구

- * 여자 = 새교회
- * 여자의 아기 = 새교회의 교리
- * 용 = 세상사랑
- * 날개 = 영적인 이해성
- * 홍수 = 거짓 추론들

해설

앞서 우리는 계시록이 초기 기독교회의 상태들에 관한 예언들임을 배웠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에는

초기 교회 사람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가졌던 첫 믿음과 그로부터 이탈되어 일곱 봉인의 때어짐으로써 그 교회의 마지막 심판을 가져오게 될 때에 관한 예언적인 환상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우리는 스웨덴볼의 저서로부터 이 심판이 1757년 영계에서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심판 이후 항구적인 기독교인의 천국이 건립되어 선한 자는 그들의 천국에 그리고 악한 자는 그들의 지옥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스웨덴볼이 목격한 바대로 1770년 6월 19일에 열 두 명의 사도들이 영계의 전역에 두루 파견되어 진정한 기독교인의 교리를 선포하도록 하셔서 천국에서의 새교회가 시작되었고, 이로부터 지상에도 새교회가 내려오게 되었다 (진정한 기독교 종교 791).

본문은 위의 새교회에 대한 준비와 지상의 새교회가 직면하게 될 반대 세력에 관한 예언적인 환상이다. 이 환상에 대한 스웨덴볼의 해석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선교의 필요성과 그 본성에 관한 것을 생각해보도록 하고 타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결심을 하도록 해준다. William Worcester 목사가 계시록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이 책을 “새교회의 현장”이라고 주장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래 전 유대교의 한 랍비가 스웨덴볼의 저서를 읽고 새교회의 목사들에게 “스웨덴볼이 유대인에 관해 언급한 것을 읽고 불쾌하게 여겨 그 책을 치워버렸으나, 나중에 다시 그 책을 읽어보니 그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나 로마 카톨릭에 관한 나쁜 점도 언급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했고, 이후 그의 마음이 좀 더 편안해졌다고 한다. 새교회인은 스웨덴볼의 이러한 서술과 그 타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스웨덴볼의 저서에 의하면, 태양을 입은 여자는 천국에 있는 주님의 새교회 곧 새 천국을 상징하고 그녀가 태양을 입은 까닭은 그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님을 사랑함이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다. 그녀의 발아래서 달이 보이는 것은 지상에 그 교회가 천국의 교회와 아직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달은 자연인 안에 있는 총명 또는 믿음을 의미한다. 그녀의 왕관에 있는 별들이란 새교회의 말씀으로부터의 신성한 선과 신성한 진리에 관한 지식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을 의미한다. 말씀 전반에서 여자는 교회 곧 남편이 주님인 신부나 아내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다. 이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야 54장 5절과 요한복음 3장 29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과 9-10절을 참고하도록 하자.

여자가 낳게 될 아들은 새교회의 교리를 표현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용이 파괴하고자 원했던 대상이 여자가 아니라 그녀의 아들이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새교회의 힘은 그 교리 안에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아기는 하느님과 그분의 옥좌가 있는 곳으로 들려짐으로써 구원되었다. 이는 새교회의 교리가 주님에 의해 보호되고 천국의 천사에 의해 수호됨을 뜻한다.

스웨덴북은 “큰 붉은 용이란 특별히 하느님을 셋으로, 주님을 둘로 만들고, 선행을 믿음으로부터 분리시켜 믿음만으로 구원될 뿐만 아니라 선행과 믿음이 공존해야만 구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개혁 교회인들이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개혁교회란 후에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린 교회이다. 주님을 둘로 만든다는 것은 주님의 인성을 그분의 신성에서 분리시킨 것을 뜻한다. 용이 붉다고 기술된 이유는 여기서의 붉음이 탐욕의 악에서 비롯된 거짓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 용이 가진 머리들이란 말씀의 진리를 거짓화하고 모독하여 비롯된 광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의 열 빨이란 그 광기에 따른 더 많은 힘을, 일곱 왕관이란 거짓화되고 모독된 말씀속의 모든 진리들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신 혹은 타인의 세상욕과 이기심을 허용하며 그것을 변명하기 위한 각종 논쟁을 지지하기 위해 말씀을 인용하여 빗낼 때 이러한 거짓과 모독이 발생하게 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다는 것은 말씀속의 진리를 거짓화하여 그들이 교회로부터 비롯된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영적인 지식들을 제쳐두고 거짓을 응용시켜 교회속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파괴해버렸음을 의미한다.

스웨덴북은 「계시록풀이」 제 548항에서 “미카엘이란 한 개인으로서의 천사가 아닌 천국의 성직자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주님이 천상천하의 하느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와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이듯 한 분이심을 말씀에서 확증 받은 이들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이들의 신앙은 인간이 십계명의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그로 인해 선행과 믿음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 믿는 것이라고 말한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은 이 용을 하늘로부터 내쫓았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천국적인 상태에 진실로 있는 한 프로테스탄트주의가 기초한 “믿음만”의 교리의 거짓들 곧 용의 입에서 토해내는 홍수가 우리를 넘나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땅 곧 진정한 교리로 이루어진 교회는 그것을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 여자의 처소는 광야에 있었는데, 이는 새교회가 먼저 주님의 신성한 섭리 속에서 극히 적은 무리들 중에 있을 것임과 그 무리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전 교회의 거짓들이 먼저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진리들은 거짓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먼저 거짓이 제거되기 전에 받아들여 이식된 진리들은 진리로 남아 있지 못할 것이 자명하며 거짓과 섞인 진리는 결국 거짓(용)에 의해 분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항들 중에서 현 시대상황과 가장 근접한 부분은 본문일 것이다. 게다가 본문은 정직한 사고력이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간혹 우리는 “프로테스탄트교회는 더 이상 믿음만의 교리를 전파하거나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진실이

아님이 분명하다. 물론 우리는 개신교 내에서도 자신의 삶에서 믿음만의 교리를 확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들이 지적으로 그 교리를 붙들고 있으면서도 자신 혹은 친구나 사랑하는 이들 속의 악을 곰곰이 생각해 본 후 위로 받고자 그 교리에 의존하기도 함을 보게 된다.

새교회가 지상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은 그 교회의 교인들이 (내적)선행(charity)과 외적인 선한 일(외적 선행)을 동일시하려는데 따른 시험, 대중적인 생각, 즉 지상의 큰 교회가 외쳐대는 생각에 나도 합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시험에 단호히 저항할 때만이 가능하다. 우리는 날마다 용을 대면하게 됨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선이 진리로부터 비롯된 모든 특질들을 받게 된다는 것과 진리는 결코 거짓과 공존할 수 없다는 명백한 두 가지 원리로 일상생활을 규율해야 할 것이다.

질문 정리

- 1) 요한은 누구인가?
- 2) 그는 고령이 되었을 때 어디로 유배되었는가?
- 3) 주님은 거기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 4) 그에게 주어진 첫 환상은 무엇인가?
- 5) 계시록 전체는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가?
- 6) 첫 기독교회에 자라난 악들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 7) 본문에서 요한은 먼저 무엇을 보았는가?
- 8) 이 환상의 일부를 설명해보자.
- 9) 여인과 그 아이를 위협하기 위해 무엇이 나타났는가?
- 10) 용의 모습은 어떠한가?
- 11) 그 아기는 어떻게 구해졌는가?
- 12) 누가 용에 대항하여 싸웠는가?
- 13) 여인은 어떻게 구해졌는가?
- 14) 여인과 그 아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5) 용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 1) 가장 사랑 받은 사도 2) 파트모스섬 3) 환상 4) 영화 되신 주님
- 5) 채림 6) 봉인이 떼어짐으로 7) 태양을 입은 여자
- 8) 달을 밟고, 열 두 개의 별이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9) 용
- 10) 일곱 머리, 열 빨, 일곱 왕관 11) 천국으로 들려올라 갔다 12) 미가엘과 천사들
- 13)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광야에 있는 처소로 날아갔다
- 14) 새교회와 그 교회속의 진리 15) “믿음만으로”의 교리

38

두 짐승이 정복되다

머리말

본문은 제 12장과 연관되어지며 우리 마음속의 악과 이해성 속의 거짓이 우리 안과 세상에서 발달하려는 교회에 맞서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는가를 보여준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13장, 19장 11-21절

13장: 1. 또 나는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열 개이고 머리는 일곱이었습니다. 그 뿔에는 각각 관이 하나씩 씌워져 있었으며 그 머리마다 하나님께 모독이 되는 이름이 씌여 있었습니다. 2.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았는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짐승은 그 용으로부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3. 그 짐승은 머리 하나에 치명상을 입어서 거의 죽게 되었었지만 그 상처가 나았습니다. 이것을 본 온 세상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며 그 짐승을 따라 갔습니다. 4. 그리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짐승에게도 절을 하며 “이 짐승처럼 힘센 자가 어디 있는가? 누가 이 짐승을 당해 낼 수 있겠는가?” 하고 외쳤습니다. 5.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지껄일 입을 받았고 마흔 두 달 동안 세도를 부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6. 그래서 그 짐승은 하느님을 모독하기 시작했고 하느님의 이름과 하느님의 집을 모독했으며 하늘에서 사는 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7.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길 힘을 받았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8. 그러므로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친지창조 때부터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에게 절을 할 것입니다. 9.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10. “잡혀 갈 사람은 잡혀 갈 것이며 칼을 맞아 죽을 사람은 칼을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11. 이번에는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땅에서 올라 오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었으며 용처럼 말을 했습니다. 12.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과 땅 위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회복된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13. 또 그 짐승은 여러 가지 큰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땅에 불을 내리게도 하였습니다. 14.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기적을 가지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또 땅 위에 사는 사람들더러 칼을 맞고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15. 그리고 둘째 짐승이 권한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도 하였습니다. 16. 또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받게 하였습니다. 17.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18.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수는 육백 육십육입니다.

19장: 11.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흰 말이 있었고 “신의”와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12.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썼으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분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13. 그분은 피에 젖은 옷을 입으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14.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회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15. 그분의 입에서는 모든 나라를 쳐부술 예리한 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친히 쇠지팡이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분노의 포도를 담은 술틀을 밟아서 진노의 포도주를 짜내실 것입니다. 16.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군주의 군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17. 나는 또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늘 높이 날고 있는 모든 새에게 큰 소리로, “자, 다 같이 하느님의 큰 잔치에 오너라. 18. 왕들과 장성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과 모든 자유인과 노예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살코기를 먹어라” 하고 외쳤습니다. 19. 또 나는 그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흰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0. 그런데 그 짐승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잡이로서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낙인이 찍힌 자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자들을 현혹시킨 그 거짓 예언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산 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21.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흰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온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교리 요점

* ‘용’과 ‘짐승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애쓴다.

- * 말씀이 열린 이유는 위와 같은 설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 * 우리 모두는 우리 앞에 펼쳐진 열려진 말씀이란 “잔치”에 초대되어져 있다.

상응 연구

표범 - 말씀 속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사랑함
곰 -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사자 = 나쁜 측면에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악의 세력
666 - 말씀 속의 모든 진리가 왜곡됨

해설

제 12장의 환상에서는 지상에 관한 것보다 천국에 관한 사항을 보여준다. 반면에 본문의 환상은 용의 출현과 그 교묘함으로 지상에 있게 된 결과를 보여준다. 제 13장에서의 두 짐승이란 믿음만의 교리를 자기들 삶에서 확증한 프로테스탄트교회 내의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을 묘사한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그리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는 평신도가 교회 속의 교리 중 외부적인 사항에 해당되고 성직자는 그것의 내부적인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첫째 짐승을 형성한 여러 가지 동물들은 거짓을 사모하는 각기 다른 마음의 형태이다. 그들 중 표범이란 교회를 파괴시키는 전혀 다른 이론을, 곰이란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오류들을 그리고 사자란 거짓에다 추론을 더해 진리처럼 보이게 하는 거짓의 힘을 의미한다. 둘째 짐승이 가진 것은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이었다는 것은 성직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읽고 쓰지만 그것이 모두 왜곡된 진리일 뿐임을 의미한다. 즉, 첫째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것이 용이어서 둘째 짐승이 용처럼 말했다고 하는 것이다.

「계시록 밝힘」 576-577항에서는 그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거의 죽게 되었었지만 그 상처가 나았다는 것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나머지 머리는 교리의 요점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이 율법을 수행하지 않고도 믿음만으로 구원되며 의로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의 여러 부분에서 율법을 수행하도록 명령되고 있으므로, 위의 교리는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거의

죽게 되었지만 그 상처가 나왔다는 것은 교리라는 머리를 다음과 같은 추론으로 낮게 했음을 뜻한다. 즉, 자신이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과 선을 행하는 대신에 다른 수단이 설비되었다는 것 곧 인간을 위해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율법이 줄 단죄를 거두신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믿으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특별히 제 13장의 마지막 절을 명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새교회인이라면 말씀의 내적 의미의 열림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과 그 재림에서 스웨덴복음이 단순한 도구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이었음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스웨덴복음의 계시록의 환상들에 대한 해석은 그의 머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영감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 해석에서 거론되는 로마 가톨릭이나 개척교회들의 상태나 조건들은 스웨덴복음이 직접 목격한 것들이 아닌 것이다. 그것들은 주님께서 보신 것들로서, 오늘날까지 지속되면서 더욱 명백해진다. 우리가 그들의 교리에 대해서 눈을 감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그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로마 가톨릭의 악들이 노출되어 심판되는 것은 제 17장과 18장에 기록된 환상의 해석에도 적용된다. 만약 새교회가 지상위에서 자라고자 한다면, 그 교인들은 환상 속의 사실들에 직면하게 되며 용과 짐승같이 불쾌하고 위협적인 사실이 부각되기도 할 것이다. 스웨덴복음은 진리가 일반적으로 수용되기 전에 먼저 거짓이 노출되어 거절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계시록 밝힘」 제 547항을 읽어보도록 하자.

만약 우리가 슬기롭다면, 우리는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보라.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수는 육백 육십 육이다”라는 구절에 담긴 뜻을 납득하게 될 것이다. 숫자란 질(quality)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666이란 말씀 속의 모든 진리가 그들로 인해 왜곡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말씀이 왜곡된 모습을 근대 학자들의 논문, 많은 설교집, 잡지 혹은 광신자들의 논쟁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우리가 슬기롭다면 진리들이 선한 일이라는 탈을 쓰고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낼 때 우리의 눈을 슬그머니 감고 못 본척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그것들과 대면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주님이나 우리의 이웃 혹은 새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거짓과 타협하지 않기 위함이다.

짐승의 정복은 주님의 일이다. 천국의 열림이란(19:11) 말씀의 내적 의미가 열림을 뜻하며, 흰 말이란 말씀의 내면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승마자의 세세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친숙할 것이라고 본다. 불꽃같은 그분의 눈은 “주님의 신성한 지혜”를 의미한다. 머리에 있는 많은 왕관이란 “말씀의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이름이란 내면에 있는 말씀의 특질인데, 이 특질은 주님만이

알고 계시고 밝혀주신다. 피에 젖은 옷이란 “말씀의 말단 의미에 있는 신성한 진리 또는 인간이 난폭하게 다루는 것이 허용된 말씀의 글자”를 의미한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칼이란 “주님으로부터 온 교리가 거짚을 산산조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묘사들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새교회가 세워질 반석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느님이시라는 것과 말씀의 열림은 그분이 하시는 일로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지상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찾을 때만이 모든 것을 위한 힘을 가진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앞에 잔칫상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와 힘이 필요함으로 주님의 잔치 초대에 기쁘기 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 잔치에 핑계를 대며 응하지 않는 자들 사이에 속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누가복음 14:12-24).

질문 정리

- 1) 제 12장에서 요한은 먼저 무엇을 보았는가?
- 2) 무엇이 여자를 위협했는가?
- 3) 용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 4) 여자의 아기는 어떻게 구원되었는가?
- 5) 여자는 어디로 갔는가?
- 6) 누가 용과 싸웠는가?
- 7) 누가 승리했는가?
- 8) 여자는 어떻게 구해졌는가?
- 9) 본문에서 무엇이 먼저 등장되는가?
- 10) 짐승의 모습은 어떠한가?
- 11) 그의 머리에 무엇이 발생했는가?
- 12) 둘째 짐승은 무엇과 같았는가?
- 13) 이 환상에서 용은 어떤 부분을 담당했는가?
- 14) 짐승의 수는 무엇인가?
- 15) 둘째 본문에서 천국이 열리자 무엇이 나타났는가?
- 16) 승마자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 17) 승마자는 어떤 세 가지로 불리는가?
- 18) 누가 흰말을 타신 분을 뒤따르고 있는가?
- 19) 어떤 잔치가 주어졌는가?
- 20) 짐승은 어떻게 되었는가?
- 21) 두 짐승은 각기 무엇을 그리는가?
- 22) 숫자 666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23) 하늘이 열림은 무엇을 뜻하는가?

질문의 답

- 1) 태양을 입은 여자 2) 용 3) 일곱 머리, 열 뿔
- 4) 하나님에게 들려 올라갔다 5) 광야 6) 미가엘 7) 미가엘
- 8) 독수리 날개 9) 모든 새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오너라
- 10) 짐승 11) 일곱 머리, 열 뿔, 열 왕관 12) 상처받았다
- 13) 어린양처럼 두 뿔이 있다 14)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 15) 666 16) 흰말 17) 불꽃같은 눈, 많은 왕관, 피에 젖은 옷
- 18) 신의와 진실, 하나님의 말씀, 왕의 왕 19) 군대들
- 20) 불못에 던져졌다
- 21) 첫 짐승 -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기적인 바램
둘째 짐승 - 겉으로 순진한 듯 나타나는 이기적인 바램
- 22) 말씀 속의 모든 진리가 왜곡됨 23) 말씀의 내적 의미가 밝혀짐

39

요한 환상의 끝

머리말

성경을 마감하는 구절에 다음의 간단명료한 몇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우리 모두가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주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 여부가 자유로운채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신의 총명이나 의지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국적인 행복에의 길이다. 다섯째, 선택은 우리의 것이지만 그 선택은 이 세상에서 행해져야만 하며 사후에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섯째, 죽음에서 일어나서 영화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하느님으로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느님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혹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2장 8-21절

22장: 8.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나서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 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9. 그러자 그는 “이러지 말아라. 나도 너나 네 형제인 예언자들이나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중에 지나지 않는다. 경배는 하느님께 돌려라”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는 이어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때가 가까왔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올바른 사람은 그대로 올바른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12.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아 주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가겠다.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사람은 행복하다. 15. 개들과 미술장이들과 음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자들은 다 문 밖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16.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모든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다.” 17.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도 “오소서!”하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 18.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 둡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재난도
덧붙여서 주실 것입니다. 19.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 대한 그의 몫을 하느님께서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20. 이 모든 계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21. 주 예수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교리 요점

- * 주님은 말씀의 속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봉인을 떼심으로써 말씀의 내적 의미를
밝혀 두셨다.
- * 우리의 육체가 영혼의 성장과 거듭남을 위해 필수적이듯이, 세상에 조직된 새교회는 내적
교회의 존재와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상응 연구

생명나무 = 신성한 선으로서의 주님
생명나무의 열매 = 순수하게 선한 일
강 = 말씀으로부터의 진리
천사 = 주님의 특사

해설

우리는 계시록 제 21장에서 거룩한 도성 새예루살렘이 신랑을 맞는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읽었다. 그리고 우리는 제 12장을 공부하면서
새교회가 “태양을 입고 있는 여자”로서 묘사됨을 배웠다. 「계시록 밝힘」 제 533항에 의하면,

이 여자가 교회로서 의미된 까닭은 교회가 주님의 신부 또는 아내로 불리기 때문이며 그 여자가 태양을 입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인데, 이는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그 순종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스웨덴북의 저서에서 거듭하여 발견되는 사항은 사랑이 진리로부터 그것의 품질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교회에 관한 마지막 그림은 성에 관한 것인데, 이는 성이 교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 22장 첫 절에서 요한은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의 강과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강은 에덴의 동산을 적시는 강과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온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이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이 나무 역시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와 같은 것이다. 이 나무는 신성한 사랑의 측면에서의 주님을 상징하며, 그 나무의 열매는 선행과 사랑의 선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나무의 잎, 즉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이란 합리적인 진리로 인해 악과 거짓에 빠져 있는 자들이 건전한 삶으로 인도되어 그에 걸맞게 살아감을 의미한다(계시록 밝힘 926).

본문인 22장의 마지막 구절들은 새교회에 속한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 구절들이 말씀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으며 새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자칫 망각하기 쉬운 가르침들의 중요성도 명백히 보여준다.

요한이 자신을 안내해준 천사에게 절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천사가 그의 절을 거절하는 사건이 기술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19장 10절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천사들로부터 온다는 것과 그들이 다양한 영적 방법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천사 역시 사람처럼 유한하여 실수를 범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삶의 정확한 안내를 위해 꾸준히 말씀을 공부해야 할 것이다.

「천국의 신비」 제 543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즉, “성숙한 사람 혹은 노령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인 것들로 불리는 교회속의 진리를 점검해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교리들의 진정성을 따져 본 후 그에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억적인 지식에 따라서만 행하게 될 때 점검하지 않은 교회속의 진리만큼은 이루지 못하고 보류된다. 그 진리들은 단지 자연적 기억 안에만 남아 있거나 그들의 입술에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이 그 진리를 표현할 때 그 말은 내면에 속한 사람 또는 마음으로부터 말하는 것이 아닌 단지 외면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즉 입으로만 말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교회속의 진리가 진정한

것임을 믿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즉, 설사 자신이 진정하다고 믿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의 근거는 그가 의존한 다른 것으로부터 거짓 혹은 진정성이 확증된 것이다. “재주밖에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런 확증이다. 따라서 새교회인이 권위를 유일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말하시는 주님이시이다.

위의 사항과 더불어 상기되는 사항들이 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설교의 내용들이 복음서보다 서간문에 근간을 두고 있음을 의아해 여기기도 한다. 이러한 설교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서간문 혹은 서기 325년의 니가야 종교회의에서 있었던 결정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도들과 기독교회의 초기 지도자들은 주님이 하느님이셨음을 느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2장 9절의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하느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는 바울의 서신같이 이러한 믿음은 그들의 저술에서도 발견된다. 오늘날에도 위와 같은 느낌을 갖고 표현해야 하며 그 시대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생명나무의 잎 곧 열린 말씀이 설비해 놓은 말씀의 합리적인 이해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들 모두의 지성은 자연적인 관념이라는 구름으로 싸여 있을 뿐이다. 또 다른 예로 요한의 서간문을 들 수 있다. 우리는 요한이 주님의 제자들 중 가장 사랑 받으며 그분과 아주 가까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편지들로부터 그가 그리스도 외의 어떤 것에 하느님에 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요한은 그의 복음서 곧 영감을 받아 기록한 그의 책에서 필립보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라고 기록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 의해 기록된 서간문에서는 주님을 하느님의 아들인 메시아로서만 생각한다. 즉, 그는 주님을 천국에 가겠다는 자와 못 온다고 하는 자 사이에 있는 중재자로서 생각한 것이다. 사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한 인간으로서 간주할 때 결국 그 교리는 주님을 참된 창조주 하느님으로 보지 않는 교리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나 요한은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록에서는 “그 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21:5-6).’”라고 기록했다. 이 말씀은 본문에서도 똑같은 분인 “나, 즉 예수”에 의해 반복되고 있고,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이 20절의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인 것이다.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명확한 사항은 인간이 주님을 믿는 여부를 선택할 자유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저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선택한 진리를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비록 생명의 물을 거저 마실 수 있고 도성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책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떼어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얻게 된다. 우리는 이 경고가 특별히 모든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인정하는 자들 혹은 교회에 소속된 자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고는 주님의 재림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빼는 사람(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새교회에 속한 이들을 위한 그분의 계명들이란 그분께서 말씀을 여심으로 우리에게 밝혀주신 삶의 길에 관한 것들을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심과 세상욕은 우리가 말씀에 읽은 것들, 즉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들이 오역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자극한다. 18절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에 의해 열려져 이 책의 교리에 속한 진리를 읽어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외의 다른 신을 인정하며 그분과 그 진리를 파괴할 어떤 것을 말씀에 첨가하는 자들은 이 책에 기술된 재난도 더불어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버리는” 경우도 위와 같은 차원의 것이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공적인 승인 같은 것이 “다른 신들”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교회 조직 혹은 자신을 위해 영적인 절충안이나 주님께 불순종이라는 비용을 치르려고 허둥대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이 아닌 인간에 중심을 두면, 우리는 거룩한 성으로 입장하는 데서 그만큼 멀어지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천사가 요한에게 “이러지 말아라. 경배는 하느님께 드려라.”라고 당부한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질문 정리

- 1) 본문에서 요한은 환상을 보여준 천사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 2) 그 천사는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 3) 알파와 오메가란 무엇을 뜻하는가?
- 4) 누가 생명나무를 차지하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 5) 주 하느님은 누구이신가?
- 6)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초대를 하고 계신가?
- 7) 그분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사항은 무엇인가?
- 8) 우리 교회는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 9)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 10) 강과 생명나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 11) 왜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친숙한가?

질문의 답

- 1) 자기가 경배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2) 하느님께 경배하라
- 3) 처음과 마지막 4) 주님께 순종하는 이들 5) 예수 그리스도
- 6) 나에게 오라 7)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어버리는 것
- 8) 거룩한 성 9) 우리는 여기서 영원한 선택을 하기 때문
- 10) 강 - 말씀의 진리, 생명나무 - 신성한 사랑 11) 축도문에서 사용되기 때문

40

새교회 날(2)

머리말

본과는 매해 6월 셋째 주일을 위해 계획된 것이다. 새교회의 이름의 의미와 그 이름이 주어진 까닭을 주로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1장 1-12절

21장: 1.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2.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 때 나는 옥좌로부터 울려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셔서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 그 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7.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8. 그러나 비겁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흉측스러운 자와 살인자와 간음한 자와 마술장과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장자들이 차지할 곳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9. 마지막 일곱 가지 재난이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을 손에 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 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에 싸여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백옥 같았습니다. 12.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 두 대문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교리 요점

* 오늘날 전 세계는 새교회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데, 새교회인들은 그 가르침을 알고자 하는

이들을 도와야 한다.

해설

하늘을 통해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에 대한 요한의 환상은 하느님 말씀의 최종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우리는 말씀 전체가 하느님의 본성과 그분의 뜻을 인류에게 점차적으로 밝혀 주시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서, 이는 무지한 유아가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한 성인의 상태로 발달되는 것과 같다. 인간은 마치 어린아이가 한꺼번에 많은 지식을 수용할 수 없듯이 단계적으로 발달하며 성년이라는 그릇에 다다를 때까지 점진적으로 훈육되어져 왔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까닭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와 합리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자질은 하느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다. 스웨덴북은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간을 위해 꼭 보존해 두셔야 했던 것이 선택의 자유라고 말한다. 주님은 인간을 멸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있는 악의 발달을 예방하실 수 없으셨다.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사랑이 아니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마지막 계시(밝히 알게 함)는 인간이 정신적으로 충분히 발달된 때에야 비로소 가능해졌다. 그 때에 주님은 지상에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심 없이 다시 오셨다. 그분 스스로 예언하셨듯이, “권능과 큰 영광과 더불어 하늘의 구름에” 오신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말씀의 글자라는 구름을 통해 빛나는 내적 의미로 오심을 의미한다. 스웨덴북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치하신다고 1770년 6월 19일 천국에 선포되었고, 이로부터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성이 있게 되었다”라고 증거 한다. 이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매해 6월 19일을 “새교회 날”로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학의 발달 속에서 인간의 교만에 기초된 철학들, 프로테스탄트 혹은 로마 가톨릭이 기초를 둔 교리들은 인간 지성의 발달과 함께 본질적으로 주님이나 그분의 말씀에 대한 설명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음을 주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새 시대 속에서 주님에 관한 지식이 새 계시에 의해 얼마나 절실한지 그리고 주님 만에 대한 예배의 절실함을 실감하기 위함이다. 새교회의 선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며, 그 책임은 실로 중대하다. 거룩한 성이라는 가르침을 공부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전달해주는 것은 우리 삶의 필수 요건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지상의 교회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이다. 주님께 꼭 붙어서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질문 정리

- 1) 오늘 우리는 어떤 날을 기념하는가?
- 2) 왜 우리는 6월 19일을 “새교회 날”이라고 부르는가?
- 3) 우리 교회의 이름의 근원은 무엇인가?
- 4) 누가 거룩한 성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을 통해 내려오는 모습을 처음 보았는가?
- 5) 성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6) 성벽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 7) 단어 예루살렘은 무엇을 뜻하는가?
- 8) 왜 세상은 마지막 계시를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는가?
- 9) 세상의 지식과 주님에 관한 지식 중 어느 것이 보다 더 중요한가?
- 10) 주님은 재림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 11) 왜 주님은 인간에게 선택하는 자유를 주셨는가?
- 12) 주님이 악을 허용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 13)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큰 시험은 무엇인가?
- 14) 새교회인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 1) 새교회 날 2) 순정기독교 791항 참조 3) 거룩한 성 새예루살렘
- 4) 사도 요한 5) 교리 6) 말씀 글자 7) 평화의 장소
- 8) 인간이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9) 주님에 관한 지식
- 10) 말씀의 내적 의미를 밝히심으로
- 11) 주님과 이웃사랑은 반드시 자유롭게 선택되어야 하므로
- 12) 인간의 자유를 보존하시기 위해 필요하므로 13) 자기 총명의 자랑
- 14) 말씀과 스웨덴북의 저서를 수단으로 이웃이 주님께로 인도되도록 도움